

齊安伯李之蘭

齊安李氏宗親會

齊安伯李之蘭

齊安李氏宗親會

齊安伯李之蘭

齊安李氏宗親會



青溪伯李之蘭

青溪李氏宗親會

# 青海伯李之蘭

青海李氏宗親會

blank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 肖像  
(北青 青海祠 忠烈廟影堂保存)



blank

## 刊 行 辭

이 冊은 朝鮮朝 開國의 元勳功臣이며 明哲한 偉人인 青海伯 李之蘭公의 一代記이다.

古代 歷史는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王權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記錄이 後世에 傳혀져 왔다. 特히 우리 나라에서는 古代 各 王朝의 創業主를 神으로 昇華시켜 記錄하는 것이 常例이다.

그러므로 李氏王朝 朝鮮의 開國 當時 記錄도 亦是 創業主인 李太祖를 神武로 昇華하며, 高麗末의 多難하였던 倭寇의 掠奪과 北胡의 侵入을 모두 李太祖의 神武로 掃蕩 平定한 것으로 記錄한 關係로 다른 사람들은 빛을 잃고 있다.

그러나 朝鮮朝 開國後 定宗, 太宗大王이 青海伯에게 내린 功臣 策封 敎旨에 “胡人 納哈出, 胡拔都, 昇天府와 荒山の 倭寇 등을 擊滅한 것이 上王(李太祖)의 能軍이나, 이는 모두 卿의 作戰指揮와 統率의 能함과 長槍과 快劍을 잘 쓴 힘이다.” 하였고, 英祖大王은 經筵에서 “射彈塞彈之說 및 約爲兄弟”를 論하고, 또한 正祖大王이 青海伯에게 내린 祭文에서는 “射穿七札 勇奪三軍”이라 하였으며, 純祖大王의 致祭文 亦是 “穿楊妙技”하는 등 青海伯의 弓術 및 戰功에 對하여 極口讚揚한 記錄이 역력하나 朝鮮朝 初期 實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말들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記錄을 後世에서 史學을 研究하는 學者들 中에는 한편의 記錄만 보고 잘못 判斷하는 例가 흔히 있다.

例를 들면 青海伯은 嚴然히 南宋의 名將 岳飛將軍 武穆王의 七

#### 4 刊 行 辭

世孫임에도 不拘하고 一時 女眞 땅에서 살며 女眞人을 다스렸다 하여 女眞族이라고 斷定하는 一部 學者들이 있어 歷史를 歪曲記述하여 後學에까지 歪曲된 歷史를 배우게 하는 二重三重的 過誤를 犯하게 됨을 惘惘하게 여기고 後進들의 歷史觀 確立의 一助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여 이 冊을 내는 바이다.

1975年 10月 30日

青海李氏宗親會 會長      李 在 玉

## 序 文

이世上에 人類가 태어나면서부터 父子關係가 있어 낳고 또 낳고 하여 數萬年을 서로 代를 이어가는 동안에 記錄이 있는 것은 記錄에 依하여 傳하여지고 記錄이 없는 것은 傳說에 依하여 傳하여지는 것이 自然現象이므로 今番 青海伯 襄烈 李之蘭公의 傳記 編纂 역시 記錄에 있는 事實을 위주로 하고 傳說은 〈傳說〉이라고 明記한다.

青海伯의 本名은 佟豆蘭이고 女眞 酋長의 稱號로서 古論豆蘭帖木兒(쿠룬투란티무루, Kurunturan Timur)라 하고 高麗에 出仕하면서 姓을 李氏로 改姓, 本貫은 武穆王 岳飛將軍의 本據地인 中國 青海省의 地名을 따서 ‘青海’라 하고 朝鮮 開國後 이름을 之蘭으로 다시 바꿨다.

青海伯은 西紀 1331年(高麗 忠惠王 元年)에 北靑 蒲靑社에서 南宋 武穆王의 七世孫으로 太白星의 精氣와 長白山의 靈氣를 타고 나시었다. 어려서부터 聰明 英勇하여 큰 뜻을 품고 羅浣先生에게 天文·地理·六韜三略·孫吳兵書를 배우고 李太祖를 만나 南滿洲合併의 雄志를 안고 70平生을 오직 盡忠報國의 一念으로 荒山大捷과 建州衛征伐을 비롯, 술한 倭寇와 胡敵을 막아 南征北伐로 韓滿國境과 領海를 주름잡던 當代의 名將이며 또한 女眞人을 教化誘致하여 咸鏡道 一帶를 國土로 併合 編入 朝鮮 建國의 基礎를 튼튼히 다져놓고 出將入相하신 不世出의 偉人이다.

李太祖는 開國 卽時 青海伯을 開國元勳 功臣에 封하고, 青海伯이 逝去하시자 太宗은 三日間 輟朝하고 太祖 宗廟에 配享하여 歷代 임금인 青海伯의 偉勳을 길이 追慕하여 朝鮮 最終 임금인 高宗皇帝 때까지 致祭文과 大臣級 祭官을 青海祠에 派遣 致祭하여 왔다.

한 나라를 創業하고 外敵을 막고 國土를 擴張하는 事例야 어느



## 6 序 文

時代엔들 없으랴마는 우리 歷史를 더듬어 보면 淵蓋蘇文・乙支文德・姜邯贊・尹瓘 等 여러 英雄이 많았었으나 青海伯과 같이 富貴榮華에 貪溺하지 아니하고 餘生을 깨끗이 終身한 분이 그 누구인가!.

朝鮮 創業期에 惡名 높은 圖隱 鄭夢周 擊殺 때 “忠臣을 어찌 죽일 수 있느냐”하고 그 일에 加擔하기를 拒否하였음은 勿論 한때 國土를 넓혀 새王朝 創建의 大業을 이룩하고 國泰民安한 太平聖代를 바랐으나 거듭되는 王子亂에 懷疑를 느껴 朝鮮 建國後 人臣으로서 最高의 權座인 그 높은 侍中 벼슬도 草履같이 버리고 故鄉에 돌아가 削髮爲僧하여 餘生을 南征北伐에서 濫殺한 戰場孤魂들의 冥福을 빌어 懺悔하며 生涯를 마쳤고 逝去후에도 나라에 큰 變亂이 생길 때마다 靈魂이 出現하여 이를 啓示한 일과 一生동안 그 風雲 많고 多事多難한 高麗末 朝鮮初에 한 번의 中傷과 謀害를 받은 바 없는 그 高潔한 人格은 古今 어느 賢人・英雄에 比할 바 아니며 또 그 많은 戰爭에서 한 번도 화살에 맞거나 槍에 傷한 일이 없이 自己의 天命을 다함은 實로 萬古에 드문 일이다.

그 後孫 中에는 忠臣・孝子・烈女가 繼出하여 國亂에 倡義殉節하고 父母에 孝道하며 守節하여 家統을 빛내 왔다. 특히 青海伯의 아드님 四兄弟 樞密公 和尚・武厚公 和英・判尹公 和美・禮判公 和秀, 모두 나라에 盡忠報國하였고 彰烈公 希唐・忠壯公 重老, 그 외에 많은 後孫들이 殉國하였고, 父母를 위하여 自己 몸을 바쳐 아버지의 怨讎를 갚으며, 遺腹子를 위하여 守節하다가 아들이 長成 成娶하자 지아비를 따라 殉節하는 등, 이 모두 偉대한 先祖의 崇高한 遺訓과 陰德이 아니냐!, 그 偉業은 千秋에 빛이 되고 이름을 靈魂에 바쳐 後世에 傳함으로써 遺風을 따르고 報答하리라.

1975年 6月 30日

著者 代表 李 浩 性

## 次 例

青海伯 尊影 .....	卷頭
刊 行 辭 .....	3
序 文 .....	5
 一、太白星의 下降 .....	11
1. 青海伯의 誕生 .....	11
2. 南宋斗 岳飛 .....	12
3. 岳王의 後裔 .....	16
4. 羅流先生斗 修道 .....	21
5. 兩雄의 相逢 .....	23
6. 釋王寺 .....	31
7. 小桃園 結義 .....	33
8. 赤池의 龍〈傳説〉 .....	35
 二、南征北伐 .....	37
1. 高麗 軍制 .....	37
2. 蒙可毒 擊滅 .....	37
3. 紅巾賊 擊退 .....	38
4. 納哈出 大破 .....	42
5. 德興君의 亂 .....	47
6. 三善 三介 .....	49
7. 東寧府 擊破 .....	50
8. 高麗에 女眞 併合 .....	51

8 次 例

9. 荒山 大捷 .....	53
10. 胡拔都 擊滅 .....	63
11. 遼東使 膺懲 .....	66
12. 咸州 凱旋 .....	74

三. 朝鮮朝 創建 .....

1. 咸化島 回軍 .....	77
2. 廢假立眞 .....	85
3. 錄田 廢止 .....	95
4. 民心 天心 .....	101
5. 建州衛 征伐 .....	105
6. 李太祖의 登極 .....	106
7. 青海君 敘爵 .....	109
8. 女眞 教化 .....	113
9. 漢陽 遷都의 惠安宅 .....	115

四. 草野의 隱居 .....

1. 一次 王子亂 .....	119
2. 二次 王子亂 .....	129
3. 落 鄉 .....	138
4. 官 爵 .....	139
5. 采 邑 .....	140

五. 太白星의 昇天 .....

1. 青海伯의 下世 .....	143
2. 宗廟配享 .....	144

3. 北青都護府 .....	145
4. 靈苑斗 啓示 .....	146
7. 丙子胡亂 .....	146
ㄟ. 神道碑 石 .....	147
ㄷ. 字 式 磐 .....	148
ㄹ. 水 害 .....	148
ㅁ. 軍卒斗 馬車 .....	148
5. 青海伯 畫像 .....	149
7. 青海伯 影幀 .....	149
ㄟ. 御宸章 .....	150
ㄷ. 畫像贊 .....	150
六. 遺 蹟 .....	153
1. 別經臺 .....	153
2. 青海伯斗 陵 .....	154
3. 遺 墟 .....	154
4. 槐 井 .....	158
5. 青海祠 書院 .....	159
7. 祭享祝文 .....	162
ㄟ. 忠烈廟 重建記 .....	162
ㄷ. 青海祠 重建上樑文 .....	164
ㄹ. 六六亭記 .....	167
6. 三義祠 .....	171
7. 神道碑 .....	173
8. 松園白雲 .....	184
9. 影 堂 .....	184
7. 鳳山西湖坊影堂奉幀記 .....	186
ㄟ. 陽德龍淵里影堂奉安記 .....	187



10 次 例

10. 致祭文 .....	189
---------------	-----

七. 後 孫 .....	197
--------------	-----

1. 樞密公 .....	197
--------------	-----

2. 武厚公 .....	206
--------------	-----

3. 判尹公 .....	211
--------------	-----

4. 禮判公 .....	212
--------------	-----

5. 彰烈公 .....	213
--------------	-----

6. 忠壯公 .....	217
--------------	-----

7. 封君錄 .....	221
--------------	-----

8. 功臣錄 .....	223
--------------	-----

附 錄

1. 宋時 古今萬姓統譜 岳氏世系 .....	227
-------------------------	-----

2. 行列略叙 .....	229
---------------	-----

3. 青海伯陵墓改封築事記 .....	230
---------------------	-----

參考文獻 .....	238
------------	-----

跋 文 .....	239
-----------	-----

## 一. 太白星의 下降

### 1. 青海伯 誕生

우리 나라는 크지는 않으나 三千里 江山 이 秀麗하여 偉人과 英雄이 時를 맞추어 태어나 外敵의 侵入을 막아내어 國家와 民族을 지켜왔다.

高句麗의 淵蓋蘇文은 唐太宗의 十萬 大軍을 安市城에서 무찔렀고, 乙支文德은 隋나라 百萬 大軍을 薩水(지금의 淸川江)에서, 高麗의 姜邯贊은 契丹의 十萬 大軍을 龜州(지금의 龜城)에서 各 各 크게 쳐부수었으며, 高麗末 朝鮮 初期의 青海伯 李之蘭將軍은 倭敵의 侵入을 擊退하고 現 咸鏡道 一帶(그 當時 元나라 領土)의 女眞族의 叛亂을 鎮壓하고 歸化시켜 民族의 安定과 國土의 擴張을 이룩한 분이며, 青海李氏의 始祖가 되시는 분이다.

青海伯은 지금으로부터 六百四十四年前 高麗 忠惠王元年 辛未(西紀 1331年)에 咸鏡道 北靑에서 太白星의 精氣와 長白山의 靈氣를 타고 中國 南宋 武穆王 岳飛將軍의 六世孫(元나라 征西大將軍) 雅達(아라부카·阿羅不花)의 長子로 태어났다.

青海伯이 태어나기 三年前부터 밤이면 太白星이 집 앞 우물에 비치며 光彩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이웃사람들은 모두 神奇하게 여기며 이집에 이처럼 祥瑞로운 기운이 비치니 반드시 偉人이 날 것이라고 異口同聲으로 말하여 오던 중 과연 三年 만에 青海伯이 태어났다.

青海伯은 태어나면서 부터 남달리 性品이 溫厚하고 仁慈하며 天賦的 氣質이 英特하고 氣骨이 壯大하여 勇猛스러웠다. 또한 外貌가 端雅하여 마치 婦女子같아 隣近 사람들의 祝福과 敬慕를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好事多魔라, 青海伯이 태어난 지 三개월 만에 아버지 雅遠이 世上을 떠나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다.

青海伯의 어릴 때 이름은 逃離이라고 불렸고, 자라면서 얼굴이 둥글다하여 豆蘭(豆蘭)으로 고쳐 부르고 長成하여 元나라의 千戶將이 되면서부터 蒙古風의 古論豆蘭帖木兒(古論豆蘭帖木兒)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註: 帖木兒는 蒙古에서 높은 사람의 尊稱語임). 그리고 姓은 元나라의 母系風을 따라 어머니의 姓인 修을 그대로 使用하여 修豆蘭(봉두란)이라고 하다가 高麗末 恭愍王 20年 2월에 高麗에서 벼슬하면서 부터 李豆蘭, 朝鮮 開國後에는 李之蘭으로 姓과 이름을 바꾸고 本貫도 青海라 하였다.

## 2. 南宋과 岳飛

岳飛將軍은 中國南宋時代(1103~1141)의 名將이다. 宋나라 徽宗 2年 壬午(1103)에 河南省 安陽縣 相州 鄴郡에서 出生하였으며 姓은 岳이요 이름은 飛요 字는 鵬舉이다. 등에 忠字가 그려져 있고 젊어서부터 의지가 굳고 氣勢가 당당하고 左氏春秋와 孫吳兵書를 즐겨 읽고 忠義로 立身한 분이다.

어려서부터 孝誠이 지극하여 父母가 시키는 대로 學問을 熱心히 배워 四書三經을 通達하고 世上을 觀察하니 그 當時 宋나라의 形便이 文만 가지고는 도저히 億兆蒼生을 救出하고 나라를 維持할 수 없는 實情임을 알고 다시 兵書와 武藝를 배운 後 自進하여 一線의 戰士가 되었다.

그 當時의 宋나라는 文治에만 힘을 기울이고 軍事力에 對하여

는 동한히 하였다. 그 때 北方 契丹族인 遼나라의 侵略을 자주 받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중 滿洲地方에 女眞族 完顔部落의 酋長 阿骨打(아구타)가 徽宗 5年 正月에 金나라를 建國하고 帝라 自稱하고 그 威勢가 滿洲 一帶를 統合하였다.

宋나라는 오랫동안 遼나라에게 시달려온 怨恨을 갚기 위하여 新興國인 金나라와 軍事同盟을 締結하고 宋·金 두 나라가 聯合하여 遼나라를 쳐서 滅亡시켰다.

宋나라는 徽宗 宣和 7年(1125) 正月에 遼나라 天祚帝를 사로잡아 遼가 滅亡하자 全國이 歡喜와 安樂에 빠져 더욱 國防에 對하여는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金나라는 이와는 反對로 軍事力을 強化하여 軍備와 軍糧을 充分히 準備한 후 그해 10월에 大舉 南侵하였으나 戰勢不利로 一時 休戰하였다가 그 다음해 8월에 再侵入하여 9월에 宋나라 首都인 開封府를 陷落하고 欽宗과 그 아버지 徽宗 父子를 捕虜로 하여 滿洲 金나라로 拉北하였다. 그것이 遼나라를 滅亡시킨 지 2년도 못 되는 欽宗 2年(1127)이다. 이亂을 後世에서 靖康의 亂이라고 한다.

그 후 宋나라는 首都가 陷落되고 皇帝는 捕虜가 되고 國土의 大部分이 金나라의 領土가 되자 徽宗皇帝의 둘째 아들 高宗이 다음 해 丁未(1128) 5월에 江南으로 내려가서 臨安 杭州를 中心하여 南京에서 南宋을 세우고 卽位하여 年號를 建炎元年이라 稱하고, 金나라에 拉北되어간 아버지 徽宗과 兄 欽宗의 두 임금을 救出하기 위하여 多方面으로 努力하였으나 끝내 아무 成果없이 두 皇帝는 一生을 쓸쓸히 滿洲에서 보내고 말았다.

南宋을 세운 高宗은 金나라에게 빼앗긴 國土를 回復하기 위하여 軍事를 일으켜 金나라와 치열하게 戰爭을 하였다. 이 때에 南宋의 군사를 이끌고 金나라와 싸운 代表的인 人物은 韓世忠과 靑



海伯의 6代祖인 岳飛將軍 信國武穆王이다.

岳飛將軍은 남달리 勇猛하고 智略이 兼備하여 高宗 4年 庚戌(1131) 5월에 金나라 군사와 싸워 靜安에서 金軍을 大破하고 高宗 紹興 3年 癸丑(1134) 6월에 江廣을 平定, 그 다음해 5월에 荊南制置使를 兼任, 또 그 다음해 乙卯(1136) 6月 湖湘을 平定하여 가는 곳마다 乘勝長驅하게 되자 그 威名이 四海에 振動하여 그의 職位는 날로 높아졌다. 이 消息과 戰果의 報告를 받은 高宗皇帝는 親히 精忠岳飛라는 네글자를 써서 軍旗를 만들어 下賜하였다.

岳飛將軍이 이 旗를 앞세우고 이르는 곳마다 金나라 군사는 望風而靡하여 南宋은 점차 失地를 回復하여가고 있었다. 또 宋나라를 배반하고 金나라에 降服한 劉豫 등의 叛逆徒輩들을 紹興 5年(1136) 9월에 唐州에서 무찔렀고, 紹興 10年 庚申(1140) 5月 7월에 朱仙鎮에서 金軍을 大破하였다.

이리하여 岳飛將軍의 地位는 점점 높아져 太尉, 河南北諸路招討使(現總司令官)에 任命되었다. 그 뒤에도 繼續 進軍하여 開封 賈魯河東岸에서 또다시 金나라 군사를 크게 쳐 무찔렀다. 金나라는 하는 수 없어 紹興 11年 辛酉(1141) 3월에 北으로 撤軍하고 平和交涉을 벌이었다.

이처럼 岳飛將軍은 金나라를 征伐하여 失地를 回復하고 軍政을 仁義로 實施하니 民心은 淳化되고 民生이 安定되니 國民의 信望은 勿論 高宗皇帝의 寵愛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 때에 누가 “天下는 어느때 太平하여 집니까” 한즉 岳飛將軍은 文臣不愛錢 武臣不惜死 天下太平矣 “文官은 財物을 사랑하지 않고 武將은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면 天下가 太平하여 지리라”하였다.

이當時 南宋에는 主戰派와 和親派의 두 派가 있었다. 主戰派는 失地를 回復하여 옛날의 宋나라 領土를 全部 回復해서 다시 國權

을 回復하자는 愛國忠誠派의 宗主는 岳飛將軍이고, 和親派는 金나라와 內通하고 和親하여 現戰線에서 停戰하자는 安逸主義로 宗主는 秦檜라는 宰相(國務總理)이다. 이 두 派의 意見은 날이 갈수록 激化되어 갔다.

主戰派의 領首인 岳飛將軍은 繼續 進擊하여 金나라의 根據地인 滿洲地境까지 이르고 金나라는 風前燈火 格이 되었다. 일이 급하게 된 金나라는 많은 金銀寶貨를 秦檜에게 보내어 和親할 것을 付託하자 秦檜는 金銀寶貨에 貪이 날 뿐아니라 岳飛將軍의 功이 너무 커서 後日에 제 자리가 維持되지 못할 것을 憂慮한 나머지 高宗皇帝에게 岳飛將軍을 謀害하기 시작하였다. 秦檜는 高宗 4年 10월에 金나라에서 解禁되어 南宋으로 돌아와 그 다음해(1131)에 宰相이 되어 南宋의 政權을 한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金나라와의 平和共存이라는 美名 下에 回復한 淮水以北地方을 金나라에 도로 주고 和親하자는 屈辱的인 平和案을 내세워 甘言利說로 高宗에게 主戰派인 岳飛將軍을 謀陷하여 結局 高宗 紹興11年(1141) 10월에 岳飛將軍을 一線總司令官職에서 解任하고 영등한 罪名을 씌워 監獄에 가두고 11월에 金나라에게 臣이라 稱하고 回復한 땅 大部分을 金나라에 割地한 후 12월에 岳飛將軍을 處刑하니 그 때에 岳飛將軍의 나이 겨우 39歲였다.

秦檜는 영등한 罪名을 씌워 岳飛將軍을 處刑後 主戰主義者들을 朝廷에서 몰아낸은 勿論 主戰의 氣運을 없이하기 위하여 主戰派의 巨頭인 岳飛將軍이 살던 집에 太學을 設置하고 岳州를 純州로 고쳐 岳字를 말살하였다.

그후 秦檜는 1150년 1월에 施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暗殺될 뻔하였다. 危機를 모면한 秦檜는 1155년 10월에 죽고 그의 一黨은 高宗에 의하여 政治權力에서 全部 追放되었다.



戰爭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아버지가 그 때마다 그 공을 숨겨서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힘이 세어서 八十斤鐵椎를 한 손에 하나씩 양손에 들고 휘둘렀으며 潁昌大戰에서 單身으로 敵陣 속으로 몇 차례나 뛰어들어서 갑옷 치마가 피로 물들었으며 潁州(安徽省治阜縣)지방에서도 金나라 군사와 十餘 차례 싸워 승리한 많은 전공으로 左武大夫에 올랐다. 아버지가 秦檜의 모함에 의하여 처형된 후 雲도 秦檜의 일당인 萬俟卨의 참소에 의하여 아버지와 같이 부당한 죄명으로 처형당하였고, 그 후손이 없다.

**둘째아들** 雷는 뛰어난 글재주가 있어서 文官으로 二十三歲에 下歲하였다. 孝宗임금이 安遠軍承宣使를 贈職하였다. 雷의 아들 珂도 아버지와 같이 글을 잘하였다. 珂는 彰德 또는 湯陰에서 살았으며 자는 肅之 호는 龍翁이라 하였다. 珂는 뛰어난 글 재주가 있어서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고, 寧宗임금 때에는 嘉興軍府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勸農事를 겸하였다.

珂는 그의 할아버지 악비장군이 秦檜의 모함에 의하여 무참하게 처형된 것을 가슴아프게 여겨서 金陀粹編·籲天辯誣集·天定錄 등의 세 책을 지어서 寧宗임금에게 바쳤으며 또 桂史·愧鄴錄·九經三傳沿革例 등의 여러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들은 그의 할아버지 악비장군이 억울하게 처형된 것을 밝힌 책들이다. 악비장군은 寧宗임금에 의하여 鄂王에 추봉되고 武穆이라는 시호가 忠武로 고쳐진 것은 이 책들에 의한 것이다.

**세째아들** 霖은 孝宗 때에 慶州(熱河省의 林西·經棚 2縣과 察哈爾省의 北部)에서 軍事を 指揮하고, 慶州道師가 되어서 地方을 巡察할 때에 老人들이 子弟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서 올면서 “오날에 다시 公子를 만날 줄 몰랐다”하였으니 이것은 岳飛將軍의 功德를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慶州에서 軍事を 指揮하다



戰死하였고, 그 후손이 없다.

**네째 아들** 震은 아버지가 반역자 李成을 토벌하기 위하여 黃梅에 駐屯하고 있을 때에 御命(高宗임금 명령)이 洪州로 進軍하라 하므로 그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地方이 多年間 戰爭에 시달려서 民心을 撫摩시킬 사람이 없으므로 岳飛장군이 네째 아들 震을 시켜서 自己를 代身하여 그 곳을 宣撫시켰다. 그 뒤에 秦檜의 謀害로 岳家一族이 滅亡하게 되자 姓과 이름을 바꾸고 女眞民間에 숨어 살게 되어 그 후 子孫도 永遠히 그 곳 사람이 되었다.

**다섯째 아들** 霆은 岳飛將軍의 第2夫人 高麗人 李忠一의 딸 李氏夫人의 遺腹子로 岳飛將軍이 慘刑당한 후 寧古塔에서 出生하였다.

岳飛將軍의 第二夫人 李氏는 李太祖의 먼 祖上 汝悅의 아들 忠一이 아버지는 죽고 寡婦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稅金關係로 全家族이 兵籍에 編入되었다. 말으로 딸 하나를 낳고 늦게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겨우 말을 배울 때에 金人의 난리가 나자 宋나라에서는 高麗에 구원병을 요청하므로 忠一이 나이 六十에 군대로 끌려가게 되어서 家族들이 牛尾嶺까지 따라가서 울음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그 때에 忠一의 딸 李氏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늙어서 病患이 甚하신크 萬里 戰場에 나가시니 살아서 돌아오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아버지가 他國 戰場에서 돌아가신다면 내가 아무리 딸 자식이지만 아버지의 해골을 찾아 모시고 와야 할 터이니 차타리 내가 남자로 變裝해서 軍服을 입고 활과 칼을 들고 싸움터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女子인 줄 모를 것이니 한쪽으로는 나라에 충성이 되고 한쪽으로는 아버지에게 孝道가 될 것이다.

李太白의 詩에도 ‘十子不如一女英 名殊男女情則一(아들 열이 딸 하나 영특함만 못하니 남녀가 비록 다르나 정은 한가지다)’라고 하였으니 아들과 딸이 이름은 다르지만 정은 일반이니 활을 잡고

싸움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있겠나” 한즉, 洞民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여자가 男子로 變裝하는 자세가 나라를 속이는 罪가 되므로 대신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딸 李氏는 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안 가시면 軍律을 범할 것이고 딸이 아버지를 代身하면 첫째는 나라의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늙은 아버지의 멀리 가시는 수고를 免하게 해드리는 것이니 無知한 딸로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한 즉 아버지 忠一은 하는 수 없이 대신 딸을 보냈다.

딸 李氏는 樂浪에 到達했다. 都元帥 李敏行이 군대를 점검하다가 忠一의 딸 李氏를 본즉, 손에 활을 잡고 허리에 활통을 찻는데 그 자세와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지라, “너 누구의 아들이냐”하고 물은즉, “靑林縣 李忠一의 아들이 을시다” 하므로, 軍官을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中國 宋나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 때 宋나라 大都督 岳飛將軍이 우리나라 元帥 李敏行과 같이 군대를 또 점검하는데 李氏 앞에 이르러서 岳飛將軍이 한참동안 물끄러미 李氏를 바라보고 나시, “어떻게 되어 女子의 몸으로 軍人이 되었느냐”하고 물으므로 李氏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다음과 같은 詩를 지어 바쳤다.

占戍赴難老爺名 充軍背操細腰躬

羅衣換着鐵衣寒 塞外行宣男子風

전쟁터에 나가게 된 늙은 아버를 대신하여 軍人이 되어 가는 허리에 칼을 차고 등에 활을 졌도다. 비단옷을 찬 갑옷으로 갈아 입고 타국 전쟁터에서 남자의 행세를 하도다.

岳飛將軍은 李氏의 詩를 보고 놀라, “高麗가 나라는 작으나 忠臣



孝子는 中國보다 많은 줄은 알았지만 어찌 女子의 몸으로 이같은 孝心과 行動을 할 수 있느냐” 하며 感嘆하여 마지 아니하다가 李氏를 軍中에 머무르게 하고 成娶하여 第二夫人을 삼았다.

그 후 얼마 가지 아니하여 宰相 秦檜의 謀害로 離別하게 되어 岳飛將軍은 李氏의 배를 어루만지며 “李氏의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음과 같은 永訣의 詩를 지어 주었다.

千兵驅處與筈之 百戰軍中俱老期

長調奸臣說反間 一日金牌來十二

전쟁터에서 서로 만나 백 년을 해로하자고 약속하였는데 · 다리 긴 간신의 이간질로 하루에 금패(구속 영장)가 열 두 번씩 오는구나.

李氏夫人은 남편 岳飛將軍이 拿捕되어간 뒤에 몸을 지키기 위하여 긴 머리를 깎고 예쁜 얼굴의 오목하게 생긴 코를 잘라 흉한 모습을 하여 다른 男性으로부터 關心을 받지 않도록 變貌하고 寧固塔 沔水亭長 司乙一의 집에 의지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분이 岳飛將軍의 다섯째 아들이며 青海伯의 5代祖父인 鑑이다.

鑑은 寧固塔에서 出生하여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 姓을 鄂이라 稱하고 女眞人들과 같이 黃梅村(元 때 長水烏梅村 現成鏡道 三水地方)에서 살았다. 아들 雨하나를 두었고, 雨는 아들 浮海를 두었다.

浮海는 金나라의 軍官이 되어 成鑑(成鏡道 三水)에 赴任하였다. 그후 金나라 征南大將軍 李栢의 麾下가 되어 數次의 戰功을 세워 五千戶의 指揮將이 되었다가 金나라가 元나라에게 滅亡되자 浮海는 그대로 地方官인 五千戶將으로서 티무르(帖木兒)라 稱하였고 아들 阿甫를 두었다. 阿甫는 河甫라고도 稱하며 元나라에 벼슬하여 千戶將이 되었고 아들 雅遠을 두었다.

雅遠은 元나라에 세순하여 征西大將軍이 되었으나 무주하였고, 아들 青海伯 李之闡이 朝鮮王朝 開國元勳功臣이 되자 朝鮮王朝에서 補祚功臣 領議政 青海府院君을 追贈하였다.

#### 4. 羅流先生과 修道

青海伯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고 몸이 날래서 자연 활 쏘기와 사냥에 專力하였는데, 어느날 神人이 長白山에서 내려와서 “너 같은 재주로 장래에 큰일을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씀새없는 일로 山속에서 歲月만 보내고, 이대로 反省하지 아니하면, 장차 盜賊의 禍를免치 못할 것이니, 나를 따라서 공부하러 가자” 하므로 바로 따라가서, 山中에 들어가 글공부를 시작해서 두어 달 동안에 배운 글을 거지반 통달하게 되니 선생이 周易을 내어 주며 공부하라는 것이다.

하루종일 연구해도 도무지 감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先生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큰 재주가 아니면 아무리 周易을 배워도 종당은 깨닫기가 어렵다.”하고 자그마한 책 한 권과 活輪圖를 내어 주므로 두어달 동안에 모두 깨쳐 버렸다. 공부를 끝마치고 서로 作別하게 되자 羅流先生이 特別히 嚴한 態度로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후일 좋은 創業主을 만나 큰일을 한 후에 불림 없이 人倫의 變이 있을 것이니, 富貴와 榮華에 戀戀하고 貪溺하여 올지 못한 일을 하면 다시는 世上사람들을 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銘心하여 非義를 犯하지 말라.” 하였다.

이 羅流先生은 宋나라에서 三十餘代를 清官으로 지내온 名宰相 羅仲素의 後孫으로서 宋나라가 亡하고 元나라의 世上이 되자 忠臣은 不事二君이라는 굳은 決心을 하고 世上을 周流 隱居生活을 하던 學者로서 主로 長白山과 滿洲 寧固塔 近方에 살고 있었다.

위에서 羅流先生의 嚴訓은 후일 太宗과 그 部下 群臣이 일으킨 昭悼世子 芳碩의 變亂을 指稱한 것으로 이같은 世上事를 豫見한 높은 道學에 對하여 實로 驚嘆하여 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高名한 先生에게서 學問과 道學을 배웠으니 青海伯의 學問과 道學도 可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青海伯은 工夫를 마치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故鄉집으로 돌아왔다가 어머니와 羅流先生에게서 들은 先祖 岳飛將軍과 六代祖母에 對한 일이 一致하므로 六代祖母가 五代祖父 寔를 낳으신 寧固塔을 찾아보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어느 날 遼東地方에 있는 丁淑池라는 곳을 지나다가 無人之境인 모래 밭에 骸骨이 있는 것을 發見하고 周圍를 살펴본즉 銅鐵 10個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好奇心이 생겨 집어보고 싶었으나 或 不潔한 物件이 아닌가하고 망설이며 또다시 周圍를 자세히 살핀즉 사슴뿔로 만든 허리에 차는 물건이 있어 집어 자세히 본즉 高麗 北鎮將軍 李行里라고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青海伯은 그 骸骨이 鹿角의 主人 李行里將軍임을 卽覺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骸骨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서 마을로 갈 수가 없어 그 近處에서 露宿을 하게 되었다.

잠자리도 편하지 못할 뿐아니라 茫茫한 平野에서 머구나 혼자서 누웠으니 世上萬事의 雜念이 꼬리를 이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非夢似夢間에 어떤 老將軍이 나타나 하는 말이 “나는 高麗將軍 北鎮將軍 李行里이다. 他國에서 죽어 오늘까지 白沙場에 骸骨이 遊離하여 安息하지 못해 冤鬼가 되었는데 그대가 나를 물어주니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쉴 수가 있게되어 정말 기쁘다. 그 대의 恩功에 報答하는 뜻에서 내가 지니고 있던, 瑤樂地 白龍의 寶物인 銅鐵을 주겠다. 이 銅鐵은 한 번 던지면 龍이되고 두 번 던지

면 호랑이가 되며 세 번 던지면 神兵이 되어 造化無窮하니 잘 간직하였다가 후일에 나의 後孫이 그대 나라의 創業主가 될 것이니 그 때에 잘 使用하여 큰 功을 세워 富貴榮華를 누리라.” 하고 사라져 버렸다.

靑海伯은 잠깐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날이 밝자 銅鐵을 집어들고 꿈에서 들은 대로 試驗하여 본즉 果然 꿈에 老將軍이 말한 바와 一致한지라 몹시 기뻐하며 銅鐵을 품속 깊이 간직한 후 李行里 무덤에 절하고 致賀하며 그 자리를 떠나 寧固塔으로 가서 先祖의 故鄉을 다녀서 故鄉으로 돌아와 武術과 學問을 더욱 修鍊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 5. 兩雄의 相逢

北節度使 王俊吉이 李太祖 <李成桂>가 勇猛하고 才操가 非常하다는 말을 듣고 李太祖로 하여금 价江亭長(咸北穩城 柔遠派守)을 삼았다. 李太祖는 任地에 赴任하고자 하는 前日 밤에 그 어머니 崔氏의 꿈에 白髮의 神仙이 나타나 하는 말이 “너는 아들이 이번에 멀리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번 行次에 반드시 후일 임금의 될 때에 도와줄 큰 人物을 만날 것이다” 하고 간 곳이 없는지라 아들 李太祖를 불러 꿈이야기를 하고 “이번 가는 价江 近處에 후일에 너의 王業을 輔弼할 큰 人物이 살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찾아 길이 사귀어라.” 신신당부하였다. 이 때가 高麗 忠定王 2年(1350) 11月 1日이다.

李太祖는 現地 价江亭長에 赴任하여 모든 일을 저절히 처리하고 지내다가 그 다음해 어느 날 아침 산에 올라 山川景政을 두루 살피며 별방 수비 방책을 생각하고 있던 중 큰 골짜기에서 한 樵夫(나뭇꾼)가 다음과 같은 詩를 읊고 있었다.



卞和連城采未得 齊門笙瑟人誰知  
 由來蘭菊各有節 不嘆良木虛棄遺  
 相如佇見赤車迎 李白得揚青雲眉  
 人生自古達未達 必在時之宜不宜

卞和의 아름다운 구슬은 아직 얻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부는 피리와 타는 거문고를 다른 사람이 어찌 알리오?. 난초와 국화는 각기 절기에 따라 꽃이 피고 좋은 나무는 헛되이 버려 두는 것을 탄식하지 아니하도다. 司馬相如는 자기를 좋은 차로 맞이하러 오기를 기다렸고 李太白은 스스로 벼슬길에 올라 외기 양양하도다. 自古로 인생이 출세하고 못 하는 것은 반드시 때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에 있도다.

李太祖는 이 樵夫가 읊은 詩의 뜻이 깊은 뿐 아니라 그 音聲이 마치 龍이 하늘을 向해 울부짖는 것처럼 웅장하여 자연 敬虔한 마음이 생겨 나뭇꾼 앞으로 가서 樵夫의 容貌를 살펴본즉 外貌는 張良・陳平같이 仙風道骨이나 그에게서 풍기는 威嚴은 마치 關雲・張飛 같아 犯하기 어려운지라 이에 凡常한 人物이 아님을 알게되고 또 어머니 崔氏의 꿈 생각이 나서甚히 기뻐하였다.

李太祖는 樵夫 앞으로 나아가 人事를 請하여 서로 通姓名한 후 크게 기뻐하며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바로 나를 도와 創業을 이루게 하여 줄 사람이크다.” 하였다.

樵夫가 대답하기를 나는 “宋나라 岳飛將軍 武穆王의 七世孫으로서 先祖의 不幸한 일로 때를 만나지 못하여 天下를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胡地에 살고 있으며, 옛적 일과 시방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대략 말하자면 나의 六代祖 岳飛將軍이 宋末 奸臣 秦檜의 참소에 의해 本國으로

물아갈 때 金山寺 道丹이라는 道僧을 찾아가 吉凶을 물었더니 그 道僧이 占을 쳐서 말하기를 ‘將軍과 같이 名聲을 떨친 子孫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변방에서 태어나 자란 내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는 실상 인즉 朝鮮사람이며 禮儀를 지켜온 사람의 後孫입니다. 늘 慷慨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어제 꿈에 머리를 깎은 여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岳武穆의 妻이며 너의 六代祖母 李氏다. 나의 親家 後孫中 입금 될 사람이 있으니 너는 반드시 世上을 救濟하여 한 나라를 일으킬 材木이 될 것을 銘心하라.’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相逢하니 이는 하늘이 시킴이요 偶然한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李太祖는 글자를 써서 대답하였다. “나의 먼 祖上 忠一의 따님이 岳王의 第2夫人이 되었다가 岳王이 죽은 뒤에 머리를 깎고 現 延吉縣 寧固塔에서 살았다 하니 그렇다면 그때와 나는 서로 骨肉의 情이 있으니 서로 떨어져서야 되겠소.” 하며 이름을 물으니

樵夫는 말하기를 “처음 이름은 도난(逃難)인데 中國 사람이 나의 상(相)을 보코 나서 豆蘭(豆蘭)으로 고쳐 주었지요. 내가 나서 석달도 못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流離漂泊하며 寧固塔(現 延吉縣)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姓이 풍가(修哥)이므로 元나라 풍속을 따라 修哥로 行世합니다. 나의 서러운 사정을 말하자니 눈물부터 납니다. 당신은 본래 북방 사람입니까?”하고 물었다.

李太祖는 한숨을 길게 쉬며 “우리 조상도 患難을 겪은 것이 당신 조상과 비슷하오. 본래 全羅道 完山(現全州)에서 살았는데 집이 점점 어렵게 되어서 六代祖가 아무 罪도 없이 死刑을 당하시고 남은 食口는 전부 北方으로 도망을 와서 우리 五代祖께서 고



생하신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故國으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한죽 樵夫는 “안 되오. 몽가독(蒙可毒)이 쳐들어 올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집 主人이 몽고 사람으로서 대열에 같이 왔소. 내가 대신 그 일을 할것ियो. 그 變을 대기하고 江邊에 서 있다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蒙古 도적놈이 온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 내가 그 소리에 맞추어 江을 건너와서 도와 드리겠다.”고 하였더니 李太祖가 青海伯의 손을 잡고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當付한 후 서로 작별하였다.

三百 걸음을 채 못 가서 蒙可毒의 삼천여 기마대가 뒤로 달려오며 “오늘은 내가 도적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면 우리들이 되려 죽게 될 것이다.”하고 쫓아와서 李太祖가 거의 붙잡히게 되었다.

太祖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가 없는지라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살아가든 죽든 간에 이런 때에 瑤樂池의 白龍은 안 도와 주냐” 하고 외치니 도적의 군사가 어느 틈에 세검으로 에워쌌다. 그 순간에 空中에서 연기 한 줄기가 내려오므로 쳐다보니 푸른 옷을 입은 童子가 空中에서 말하기를 “李公의 재주로 어찌 神兵에 겁을 내느냐? 龍刀가 허리에 있으니 휘두르면 될 것이다.” 하므로 李太祖가 그제야 自己 허리를 돌아보니 과연 龍刀가 차여져 있으므로 칼을 뽑아서 휘두르며 외치니 神兵이 저절로 없어졌다.

青海伯이 위에서 크게 웃으면서 “왜 그렇게 겁을 내시오.” 하니 李太祖가 그 손을 잡고 “그대가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속이느냐.” 하고 또 “그 재주는 어디서 배웠소.” 하고 물으니 青海伯은 “내가 遼東 丁澈池를 지내다가 꿈에 老人이 말하기를 ‘나는 高麗 北鎭將軍 李行里이다’ 하고 그가 가졌던 佩物을 나더러 가지라

해서 배우게 된 것이니 오늘 胡兵의 變亂을 만든 것은 나의 자그마한 재주를 부린 것이요, 실지 胡兵이 아닌데 당신은 그런 것을 모르는 듯하니 당신은 小國을 다스릴 작은 그릇은 될 수 있으나 大國을 다스릴 큰 그릇은 못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李太祖가 웃으면서 “옛 諸葛亮이 木牛流馬를 만들어서 軍糧을 실어 날랐다 하더니 그대의 재주는 諸葛亮보다 낫다고 할 수 있소 또 이 神劍은 우리 조상의 遺物로 이 칼을 그대에게 주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표로 하오.” 하고 삽에 올라가서 시험해보니 과연 青海伯의 말과 틀림없었다.

李太祖는 青海伯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오늘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고 서로 義兄弟를 맺고 서약하기를 “싸움터에서 百 번을 싸워도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고 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돌아가다가 浙江을 막 건너려고 하는데 青海伯이 홀연 간 곳이 없으므로 李太祖가 그 자취를 밟아서 찾아가니 青海伯이 왼손을 떼어서 땅에 버려두고 바위속(지금 流德 동네)으로 들어갔으므로 太祖는 참 이상한 재주라고 感嘆하면서 한편으로는 自身이 鬼神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을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과 나는 情誼가 骨肉이나 다를 바 없거늘 이처럼 背信하고 바윗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鬼神이나 사람이나 어찌서 이같은 약속을 어기느냐?” 그러자 바윗속에서 말하기를 “大丈夫가 뜻을 이룰 때가 아니면 바윗속에서 나가지 아니하티라.” 하였다.

李太祖가 또 말하기를 “당신 손을 땅에다 버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다시 대답하기를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옛날 劉玄德은 나라를 中興시킨 영웅이지만 諸葛亮의 草堂을 세 번이나 찾아갔다. 내 재주가 諸葛亮만은 못하나 뜻은 제갈 양과

잡으니 내 손을 가지고 돌아가서 後日에 다시 만날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쓰일 것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하였다.

李太祖는 하는 수 없이 혼자 浙江변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기를 “하늘을 떠받치는 지팡이는 東西南北의 四極이요 나라를 떠받치는 지팡이는 훌륭한 將帥이다. 歷代의 忠臣과 名將을 추려보면 厲王이 무도하여 周나라가 강차 亡하게 되자 尹吉甫가 떠받쳐서 다시 일어섰고, 桓帝와 靈帝가 政治를 잘못해서 漢나라가 亡하게 되자 諸葛亮이 떠받쳐서 몇 해 더 지냈고, 安祿山の 亂으로 唐나라가 亡하게 되자 李郭이 떠받쳐서 皇太子가 다시 일으켜 세웠고, 完顔이 亂을 일으켜서 宋나라가 망하게 되자 韓世忠과 岳飛가 떠받쳐서 宋나라를 부지하게 했으니, 周나라의 吉甫나 漢나라의 諸葛亮이나, 唐나라의 李郭이나, 宋나라의 韓·岳같은 이들이 특별히 周나라·漢나라·唐나라·宋나라에서만 태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아 슬프다. 깊은 산의 나뭇가지가 만약에 굽어서 기둥과 보jami 안 되고, 아랫가지는 울퉁불퉁해서 그곳도 못 만들고 車를 만들면 쉬 썩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아 세상에 쓸 데가 없으나,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어 몸을 지탱하면 훌륭하리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칼 한 자루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면 吉甫가 周나라를, 諸葛亮이 漢나라를, 李郭과 韓·岳이 唐과 宋나라를, 이렇게 모두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일으켜세우고 없어져 가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들었으니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내 廟에 넘치는 것일까. 정성이 부족한가 내접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 탄식하며 있노라니,

靑海伯이 뒤에서 겹겹 웃으며 “物件으로써 사람을 보면 사람도

한낱 물건이고, 물이 저절로 흔들리고 꽃이 저절로 피듯이 마침내 사람 오는 것도 모르니 무슨 죄가 있겠나, 옛말에 忠臣과 良將은 사람의 지팡이와 같아서 危殆로움을 건너도 얻어지지 아니하고 險한 데에 빠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禮가 三顧에 미치지 못하지만 事態가 急迫해서 온 것이다.” 하였다.

이 때에 蒙可毒의 萬餘 騎兵이 浙江에 거의 도달하였으므로 青海伯과 李太祖가 서로 말하기를 “神兵을 江邊에 배복시켜서 빨리 쳐부수어야 한다.” 하고 江邊에 伏兵을 배치해 두고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면서 進擊하니 萬餘 胡兵이 江 한복판에 들어서 모두 귀가 먹고 병어리가 되어서 물에 빠져 죽어 屍體가 산더미처럼 쌓여 강물이 잘 흐르지 못하였다.

李太祖는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詩를 읊었다.

相顧魚水一席同 去暴除殘笑談中

고기와 물처럼 서로 관계가 깊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에 못된 것을 없이하자고 웃으며 말하고 있다.  
青海伯이 이에 화답하여 다음과 같이 詩를 읊었다.

奸臣國賊此可除 丈夫臨危寧有躬

간신과 나라를 좀먹는 도적은 없이함이 옳고, 大丈夫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면 힘을 다할 것이로다.  
李太祖가 또 읊기를,

胸中先抱濟世志 夢中飛入潘溪翁

가슴에는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히 할 뜻을 품고, 꿈속에서는 세상을 편안히 살고 있도다.  
青海伯이 또 이에 화답하기를,

生民塗炭豈越視 一去吾能成大功



민생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으리오. 내가 한번 일어서면 큰 공을 세우리라.

이렇듯 李太祖와 青海伯은 날이 갈수록 情이 두터워져 骨肉의 兄弟보다 더 誼가 좋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산냥하며 武藝를 더욱 修練하였다.

하루는 青海伯이 온데 간데 없이 없어졌다가 이튿날 새벽에 돌아오는지라 李太祖는 異常히 생각하여 그 事由를 물은즉 青海伯은 “나의 스승이 寧固塔(現延吉縣)에 계시기에 잠깐 뵈옵고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李太祖는 또 다시 “그 先生이 누구시요” 하고 물었다.

青海伯은 “나의 先生은 宋나라 名宰相 羅仲素의 後孫으로 文翁官 羅流先生으로서 世上에 뜻이 없어 周流天下하시며 隱居生活을 하고 있는 道學이 높은 분이요, 늘 말씀하시기를, ‘中國에는 聖인이 있고 高麗에는 眞龍이 있다’고, 하였으며 現在 寧固塔 近處 叔陵山에 隱居中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李太祖가 손뼉을 탁 치며 “아무리 좋은 才操를 가졌더라도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青海伯이 “將帥가 되려면 過去와 現在의 事理를 환하게 통달하게 되면, 仁은 文 즉 德과 智를 닦고 義는 武 즉 勇氣와 義氣를 길러서 文武兼全하면, 남의 마음과 수단을 먼저 판단해서 되고 아니될 것을 미리 알면 百萬의 敵軍을 당한들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 李太祖는 感嘆하면서 “兄의 才操는 내가 따를 수 없도다.” 라고 말하였다.

李太祖는 어머니 崔氏夫人을 뵈옵기 위하여 青海伯과 같이 密城山(安山)으로 갔다. 崔氏夫人은 아들 李太祖를 보고 반기면서 “내가 꿈에 너를 보필할 사람을 만날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그리

한 人材를 만났느냐?” 한즉 李太祖가 青海伯을 만났던 일을 자세히 說明하고 青海伯이 읊은 詩를 再三 暗誦하여 드렸다.

崔夫人이 첫 句의 卞和連城采未得 齊門笙瑟人誰知를 再三 吟味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奇異한 才操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背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相如佇見赤車迎 李白得揚青雲眉를 “이 사람은 心中에 말 못할 事情이 있으며 조선사람임을 免치 못할 것이다” 하고, 終句의 必在時之宜不宜를 “이 사람은 將軍의 後裔로 너를 도와줄 것을 自願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李太祖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조선사람이며 將軍의 氣像이 있다 합니까” 묻자 崔夫人이 거울(확대경)을 들어 青海伯의 얼굴에 비춰 보며 말하기를 “祖上에 名將이 있어 自己 壽命으로 못살았으며 반드시 조선사람의 血緣關係가 있을 것이다. 내 나이 많고 病이 있어 사람의 像을 잘 보지 못하여 틀리는 일이 있으나 이번 일은 틀림없다.” 라고 하였다.

青海伯이 땅에 엎드려 祖上에 名將이 있었고 그 經緯와 아버지를 일찍 잃고 苦生한 일을 말씀드리니 崔夫人이 같이 환담하며 말하기를 “前日에 읊은 詩와 今日에 이같이 모이게 된 것이 다 하느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다” 하고 사랑함이 천아를 갈았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늘 같이 武藝를 修練하는데 그 優劣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 6. 釋 王 寺

釋王寺는 李太祖, 青海伯, 安邊府使의 아들 金仁贊公 三人이 小桃園結義兄弟를 맺고 朝廷에 對하여 힘껏 도울 것을 맹세한 곳이다. 青海伯은 佛敎를 崇拜했고, 李太祖는 咸南永興에서 誕生하여 咸興에 移徙하여 이곳 第一 높은 雲州峯 밑 歸州寺에서 道를 닦았



고, 金仁贊은 安邊 적은절에서 道를 닦는 등 三人이 다 같은 佛敎의 信者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國事를 도울 것을 이 安邊땅에서 굳게 結義하였다.

李太祖가 少年時節에 이곳을 지나다가 작은 암자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王이 될 꿈이었다. 또 青海伯이 李太祖와 같이 浙江에서 맞아 義兄弟가 된 후 같이 故鄉인 北靑에 와서 弓術을 修得하고 開京으로 向하여 가는 道中 이곳 작은 암자에서 잠을 잤다. 이 때 꿈에 한 중이 와서 공손히 人事하면서 “將軍께서는 將來 이 나라의 王이 될 사람을 돕고 있으며 이 나라 最高의 將軍이 되시며 一等功臣이 될 분이옵시다” 하고 金刀를 주면서 “대사를 成就하신 後에 이곳에 절 하나 이룩하소서” 하는 말에 깨고 보니 꿈이었다.

이상히 생각한 青海伯은 李太祖와 서로 意見을 주고 받고 한즉 李太祖도 亦是 少年 時節 이곳을 지나다가 작은 암자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말이었다. 李太祖의 꿈은 등에 서까래 세개를 진 것을 보았고 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마침 그 절에 破字占과 解夢을 잘하는 도승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身數占을 쳐달라고 하였던바 그 중은 太祖를 보고 合掌再拜하면서 “左右로 보아도 임금이 되실 身分이 옵시다” 하였다. 이 두 兄弟의 꿈이 一致되자 伯과 太祖는 그 중의 말이 근사한 말이라 마음속으로는 온근히 기뻐하였다.

그 後 青海伯과 李太祖는 그 중을 다시 찾아가서 解夢을 要求하였다. 그 중은 두 兄弟에게 再拜하면서 “小僧의 法名은 無學이 옵니다. 小僧이 庸愚하나 약간 法術이 있사와 오늘 貴人이 강림하실 줄까지 알았습니다. 근심마시옵고 大事를 成就하신 後 절 하나 지어 千歲를 축수하는 願堂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이때에 李太祖와 青海伯은 그제야 無學이 普通 僧이 아님을 알고 엄숙하게 合掌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같은 佛敎의 信者였음으로 後日 뜻을 成就하면 꼭 願堂을 그 자리에 新築하리라 마음 먹었다. 果然 그 뒤에 朝鮮王朝를 創建하고 青海伯은 開國一等功臣이 되었다. 青海伯은 前日 安邊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多忙中인 李太祖에게 어쭙어 朝廷에서 官吏를 安邊에 보내어 無學大師와 상의하여 그 암자 자리에 절을 짓고 절 이름을 釋王寺라 하였다. 그후 無學大師를 종종 朝廷에서 불러 國事に 많은 도움을 보았다. 이리하여 釋王寺란 뜻은 李太祖가 임금이 될 꿈과 青海伯이 一等功臣이 될 꿈을 解釋했다는 데 起因한 것이다.

## 7. 小桃園 結義

青海伯과 李太祖는 意志相合하여 서로 큰 뜻을 품고 中原을 도모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中國은 元나라가 衰弱하여지고 江南에서 朱元璋이 일어나 吳나라를 세우고 그 勢 날로 强盛하여 점점 北上하고 있었다.

이에 두 英雄은 于先 慧星같이 나타나 中國을 휩쓸며 到處無敵으로 元나라를 치며 北上中에 있는 朱元璋을 한번 만나 보기로 하고 千里駿馬 두 필을 구하여 타고 中國으로 들어갔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中國 洛陽에 가서 中國軍服으로 變裝하고 明陣中에 잠입하여 朱元璋의 氣像을 엿보니 果然 龍顔에 儀表가 넘쳐서 天子의 氣像이 뚜렷한지라 李太祖는 陣밖으로 나와 “내가 이제야 天子가 될 사람의 氣像을 알았다” 하고 두 사람이 다 같이 故國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故國의 山川과 人物을 찾기 위하여 두 사람은

開京을 向하여 길을 떠나서 上京하던中 安邊 釋王寺 近處 大路邊에서 朝飯을 客主집에 請하였더니 主人이 말하기를 “쌀은 있으나 반찬이 없다”고 하였다. 李太祖는 “밥이나 많이 지어 달라” 하고 쌀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 洞口畔 뽕나무에서 두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가는지라 쌀을 당기며 쌀을 쪄었다. 쌀 한대에 비둘기 두 마리가 한데 껴져서 떨어졌다.

이 때에 이 光景을 바라보고 있던 安邊府使의 아들 金仁贊이 그 쌀솥씨에 感嘆하여 極口稱讚하며 李太祖에게 鄭重히 敬禮하면서 自己의 姓名과 身分을 밝히며 通姓名을 請하므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三人이 同席하여 閑談하던中 서로 意志相合하여 三人이 結義兄弟하기로 合議하였다.

때 마침 三春佳節이라 객주집 後園에 桃花가 滿開하여 桃源景을 이룬지라 세 사람은 옛날 中國 後漢末時代의 劉玄德・關雲長・張飛 세 사람의 桃園結義를 聯想하며 儀式과 節次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告天文을 朗讀하고 結義兄弟하였다. 後世에서 이를 小桃園結義라 한다.

#### 上天文

一體三人一世同 一生苦樂一心中  
才疎敢望三千弟 身老願從八十翁  
濟世安民其就任 尊君立紀有吾躬  
關張之誼皆知己 豈爲他年竹帛功

세 사람이 결의(結義)하여 한 세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살자.

재주가 없어 감히 공자(孔子)는 바랄 수 없으나 몸은 늙어서 강태공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을 바로 잡고 백성을 편안히 함에 그 많은 바  
힘을 다하고 임금을 높이 받들고 기강을 세움에 내 몸  
을 바칠 것이다.

세 사람이 결의 형제되어 서로 믿고 알아주는 데 있  
고 어찌 후일에 큰 공을 세워 史記에 공을 기록함을  
위함이리오.

이 글은 後世에 높이 讚揚되고 傳하여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나이로 青海伯·李太祖·金仁贊(忠愍公益  
和君安城伯)의 順序로 位次를 定하고 그후 三人이 늘 같이 同苦  
同樂하며 合心協力하여 行動하였다.

## 8. 赤池의 龍 <傳 說>

青海伯과 李太祖가 青年時節 咸北慶興에서 武術研磨를 하며  
相互 親密하게 지내던 그 어느 날이었다. 李太祖 母親 崔氏의 꿈  
에 神仙이 말하기를 “北海 黑龍이 白龍이 사는 瑤樂池를 빼앗으  
려고 날마다 성가시게 구니 거들어 주면 반드시 福이 있으리라”  
하고 사라지므로 꿈에서 깨어 李太祖에게 말했다.

李太祖와 青海伯이 활을 끼고 戊子年 7月 13日 萬古峰(富寧綱  
川峯臺)으로 올라가 龍의 動靜을 살핀즉 四方이 고요하고 아무  
종적이 없더니 갑자기 찬 바람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이 四方을  
덮고 北海에 波濤가 險惡하고 비바람이 삼대같이 쏟아지고 휘몰  
아치면서 물결이 산더미처럼 일어나는중 龍의 울부짖는 소리가  
天地를 振動하므로 풀 속에 엎드려서 멀리 바닷가를 바라보니 瑤  
樂池와의 거리가 不過 20餘 里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龍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치면서 못으로 뛰어드려 瑞氣가  
번쩍나며 불안한 瑤樂池의 물이 하늘 높이 끓어 올라오고 새와

집승들이 배를 지어 져으며 뛰어다니는 한편 물 속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10里 밖까지 들렸다.

李太祖와 青海伯이 풀 사이로 가만가만히 걸어서 거의 못 가까이까지 간즉 黑龍이 길다란 뿔과 어금니를 물 밖으로 내밀므로 青海伯은 활을 힘껏 당겨서 黑龍의 兩眉間을 쏘아 맞히니 黑龍이 고개를 숙여 꼬리를 늘어뜨리고 물 속으로 들어가므로 李太祖가 뒤미처 쏘아서 비늘 밑을 맞히니 黑龍이 곱이를 치며 피를 내뿜어서 못물이 다 붉게 되자 黑龍은 뛰어서 北海로 되돌아가니 바람도 그치고 비도 멈추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해졌다.

李太祖가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事實을 말하니 崔氏는 “그럴 줄 알았다” 하시므로 青海伯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하고 물은즉 “天文을 보니 關陽星이 變해서 죽은 龍星이 되므로 알았노라” 하였다.

또한 李太祖의 꿈에 龍이 사람이 되어 “내가 形勢가 急迫해서 時刻을 다루었는데 多幸히 나를 도와 주어서 나 있는 場所를 保全하게 되었으니 그 恩功을 厚하게 갚겠노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白龍은 瑤樂池를 차지하고 東海바다로 꼬리를 쳐나가 道通 昇天함으로써 뒷날 李太祖를 龍床에 오르게 하였고 自身の 威力만 믿던 青海伯 先祖의 雄氣를 탄 黑龍은 그 子孫의 화살에 맞아 悲鳴을 지르며 아픔에 꼬리를 쳐나간 江물의 곱이가 99곱이요, 그 黑龍의 피가 흘러 붉게 물들었다 하여 後에 瑤樂池를 赤池늪이라 불렀다고 傳해지고 있다.



## 二. 南 征 北 伐

### 1. 高麗 軍制

李子春은 李太祖의 父親으로서 咸州에서 出生하여 邊方守護에 功이 있어 恭愍王 10年(1361) 2月에 東北面兵馬使로 昇進된 高麗末의 名將의 한 사람이다.

青海伯과 李太祖가 結義兄弟를 하였으므로 늘 李子春의 麾下에서 크고 작은 軍務에 參與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英雄을 앞에 둔 李子春은 어느 戰爭에서도 패하는 일이 없어 名聲과 地位가 날로 높아져 恭愍王 10年에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

그 당시에 高麗의 軍事制度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軍事制度和 달리 家兵制度로서 武人이 되면 自己 집에서 家兵을 많이 둘 수가 있고 그 地位에 따라 軍人의 數가 增減되게 되어 武人政治를 하고 있어 戰功記錄에도 그 家長 ○○○外 ○○人이라고 하였다.

### 2. 蒙可毒 擊滅

恭愍王 5年(1365) 蒙可毒이 朴達川이란 別號를 가진 倭寇 禹詠이란 者를 將帥로 삼아서 廣城(匡城)으로 몰래 쳐들어왔다. 이 禹詠이란 者는 自稱 眞人으로 千里밖을 내다본다 하며 世上에 自己를 當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朝鮮을 覬覦하려고 大軍을 漆沮(先城)에 있는 雲部落)에다 집결시키고 蒙可毒과 賊을 꾸렸다.



“지금 天下가 서로 싸우고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天下가 한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니 우리가 朝鮮부터 먼저 빼앗으면 모린위(女眞 땅; 明太祖가 여기에 있었음)는 朝鮮에서 거리가 百里도 못 되니 며칠 안 가서 그곳마저도 차지하게 되리라” 하였다.

이 때에 李貫이란 사람이 나서서 “이제 相議한 일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내가 天文을 보니 銀河가 맑고 濁한 기색이 없으니 中國에 聖人이 나와 있고, 조선에 名將이 있으니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합니다.” 하였더니 禹詠이 쫓아와서 李貫을 죽이면서 “어저께는 吉하고 凶하지 않다 하더니, 이제 行軍하는 마당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고 행군을 계속했다.

이 때에 節度使 康安民이 三千 兵力을 거느리고 이에 對備하여 江邊에 陣을 치고 있었는데 李太祖를 哨官으로 삼고 青海伯은 書記로 삼았다. 두 분이 떠나갈 때에 崔氏가 赤色돌 4개를 두 분에게 나누어 주면서 “後日 반드시, 危急한 일이 있을 터이니 이 돌로 길을 막고 도망을 가면 살 길이 생길 것이다” 하므로 그대로 하였더니 敵軍이 크게 놀라서 “앞에는 높은 城이 있고, 뒤에는 百尺이나 되는 길은 못이 있으니 우리 軍隊가 滅亡할 징조이다” 하고 물러가 버렸다.

### 3. 紅巾賊 擊退

恭愍王 8年(1359) 元나라가 점차 쇠퇴하게 됨에 따라 中國 各地方의 群盜가 蜂起하기 始作하였다. 그 당시 劉福通이라는 자가 요술로 民心을 眩惑케 하고 徒黨을 모아 數十萬의 群衆을 거느리고 山東地方에 雄據하여 그 形勢 매우 强盛하였다.

그해 2월에 高麗에 글을 보내오고 12월에 毛居敬이라는 장수에게 군사 四萬을 주어 鴨綠江을 건너 義州·靜州·麟州를 거쳐 鐵

州를 占領하고 西京(平壤)을 陷落시켰기 때문에, 高麗朝廷에서는 모든 軍兵과 僧兵을 모집하여 이를 對敵하였다. 그 때에 이 賊徒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있으므로 世上에서 紅巾賊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 恭愍王 9年 正月에 李芳實·安祐로 都元帥·副元帥를 삼고 指揮使 金得培, 西京留守 李春富, 西北面按撫使 李仁在 등이 西京을 回復하고 2월에 紅巾賊을 大破하였으므로 敗殘兵의 紅巾賊은 全部 鴨綠江 以北으로 逃走하였다.

그 다음해 恭愍王 10年(1361) 2월에 李太祖의 父親 李子春이 東北面兵馬使가 되었다.

그해 10월에 李太祖와 青海伯은 禿魯江 萬戶 朴儀를 征伐하여 捕殺하고 回軍하려는데, 去年에 敗走한 紅巾賊이 怨恨을 풀기 위하여 朱元帥라는 者에게 軍士 十萬을 주어 다시 鴨綠江을 건너 高麗를 侵犯하여 朔州를 陷落시키고, 11월에 崑崙關을 占領하였다.

高麗 恭愍王은 回軍中에 있는 李太祖에게 金晉上將軍兼 西北面兵馬使를 封하고 紅巾賊 朱元帥의 軍士를 맞아 攻擊하게 하였다. 李太祖는 青海伯으로 先鋒將을 삼아 敵軍과 싸우게 하였다.

朱元帥는 青海伯과 李太祖의 軍隊와 마주 싸워 昌城·朔州에서 수차 敗하여 王元帥를 잃고 軍卒 千餘名과 將帥 十餘名을 잃었다. 이같이 戰勢가 不利하여지자 朱元帥는 旗를 내어 數十處에 陣을 치되 虛張聲勢로 旗幟槍劍을 많이 꽂아 놓아 相對方으로 하여금 敵兵의 數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알도록 하여 놓고 다른 길로 迂回하여 바로 開京으로 쳐들어갔다.

恭愍王은 一線에서 勝戰中이라는 報告을 받고 首都防衛에 아무 準備도 아니하고 無心이 있다가, 別안간 朱元帥의 敵軍 十萬餘名이 殺到하여 都城을 包圍 攻擊하게 되자, 高麗의 王 以下 여러 重

臣等 모두 唐僖하여 開京을 버리고 南下, 福州(現安東)로 내려갔다.

敵將 朱元帥는 힘도 아니 들이고 開京을 占領한 후 府庫를 열고 모든 財物을 약탈하고 宮女를 모두 겁탈할 뿐 아니라 民間의 財物과 婦女子를 노략질하여 宮中에 두고 빈간에 있는 소와 말을 모두 약탈하여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겹겹으로 이어 揮鞭처럼 물러치고 물을 끼얹어 氷城을 이루고는 그 속에서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진탕치며 놀았다.

또 이들은 날마다 잉태한 여자를 잡아다가 젖통을 베어 불에 구어서는 술안주로 먹으며 젊은 여자를 발가벗겨 놓고 음란한 짓을 하는 등 怪惡罔測한 행위를 無雙하게 하였으니 도적들은 실로 人間이 아니었다.

黃州·平壤·安州 등 後方에屯을 치고 있던 장수 安裕·金得培·鄭世雲·李芳實 등이 開京이 함락되었음을 듣고 모두 패한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향하여 올라왔다. 그러나 도적의 흉독한 형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성밖 十里에屯치고 있었다.

이 때에 平安道 寧邊에서 李太祖와 青海伯은 敵兵이 虛張聲勢로 거짓 陣勢를 벌여 놓고 다른 길로 迂回하여 開京을 侵犯한 事實을 뒤늦게 알고 적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晝夜 倍道로 回軍하여 開京 近處에 到達하니 城밖에屯聚하여 있던 諸將이 金吾上將軍의 旗를 보고 반가히 迎接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迎接나온 將帥에게 敵勢를 물은즉 그 장수가 하는 말이 “敵兵은 現在 성 안에서 가진 악행을 다하고 그 軍勢가 強하여 敢히 接戰을 못하고 있노라” 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그 장수를 꾸짖어 말하기를 “敵兵이 두려우

면 오지 않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왔으면 싸워야 마땅하거늘 오기는 왔는데 싸우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敵兵이 저절로 죽기를 바라는가? 임금님이 蒙塵하시어 밖에 계신데 臣下된 도리로 어찌 이같이 한만하며 또 무서워하는가? 무서워서 감히 싸우지 못하면 이는 도적에게 약함을 보임이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고 곧 旗幟를 정제하고 북을 울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 때에 青海伯은 先鋒將으로서 長劍을 휘두르며 東門으로 쳐 들어가며 諸將들로 하여금 南門과 北門을 攻擊하게 하였다. 이 때에 敵兵은 高麗軍이 城外 十里에 屯聚하여 있고 敢히 接近하지 못함을 보고 업수이어져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질탕히 놀며 防備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안간 高麗軍이 城을 四面에서 包圍하고 攻擊함을 알고 술취한 군사를 指揮하여 對敵하려 하니 그 軍隊의 隊列이 제대로 整頓될 리 萬無하다. 秩序없이 제멋대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高麗軍의 先鋒將 青海伯은 雲梯(구름 사다리)를 城에 걸쳐놓고 長劍을 휘두르며 城壁 위에 뛰어 올라가 城堞을 지키고 있는 敵將의 목을 한칼에 쳐버리니 高麗軍의 士氣가 衝天하여 城內로 쳐 들어가서 東門을 지키는 적군을 全部 무찌르고 東門을 滿開하고 高麗軍을 맞아들이니 高麗軍사는 함성을 지르며 물밀듯 城 안으로 들어왔다.

이 때에 青海伯과 李太祖는 말을 타고 先頭에서 陣頭指揮하며 進擊하였다. 이 참나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던 紅巾賊은 隊列이 混亂하고 紀綱이 紊亂하여 指揮系統이 서지 아니하여 제대로 抗拒도 못하고 있는 중 여러 곳에서 공격하던 高麗軍은 城堞을 넘어 城 안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왔다.



青海伯은 先頭에서 활을 쏘아 살 한 대 날으면 적장 한 사람씩 죽어갔다. 그렇게 되니 高麗軍은 士氣 衝天하여 槍과 칼・鐵鞭(쇠도리깨)을 휘둘러 적을 시살하니 하나이 적 백 명을 당하는지라 적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다.

이 싸움에서 적장 朱元帥의 副將 沙劉와 關先生 등이 모두 青海伯과 李太祖의 살에 맞아 죽고 그 외의 장수는 다른 고려 장수들에게 죽게 되자 적병은 풍술자를 잃고 自傷踐踏하며 右往左往하고 갈길을 잃고 阿鼻叫喚하여 生地獄을 이루었다.

이 光景을 본 李太祖와 青海伯은 軍令을 내리되 “窮賊勿追라 저렇게 窮地에 몰린 무리를 바꾸 치면 도리어 우리 군사가 많이 傷할 것이니 逃走할 길을 一部 내어 주라” 하고 北쪽으로 脫走할 길을 열어 주었다. 이리하여 紅巾賊의 敗殘兵은 活路를 찾아 救命圖生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아나 鴨綠江 以北으로 逃走하였는데 途中에서 많은 餓死者와 凍死者의 屍體가 길에 깔리었다.

그런데 이번 紅巾賊의 侵入의 軍勢를 韓國史年表에는 十萬이라고 記錄되어 있고 東國野史에는 十五萬이라 하였으므로 正史의 記錄대로 十萬名으로 記錄한다.

紅巾賊이 大敗하고 開京이 收復되자 恭愍王은 福州로 부터 開京으로 還都後 論功行賞 할 때 平章事 金鑑이란 省가 거짓말로 鄭世雲・安祐・李芳實 等 武人 元老級 人物을 참소하여 戰爭의 責任을 지워 죽였다.

#### 4. 納哈出 大破

高麗 恭愍王 8년부터 11年(1359-1362) 正月까지 3年間 紅巾賊의 侵入으로 國力이 甚히 疲弊하여지고 또 兼하여 奸臣 金鑑의 讒訴로 武人의 元老重臣級이 處刑되어 國防力이 甚히 虛弱하여졌다.



이 때를 타서 元나라 벼슬아치에 붙어 東쪽을 짓밟던 趙小生・牟都卿이라는 者가 恭愍王 5年(1358)에 雙城이 陷落되어 元나라 勢力이 北으로 쫓겨가자 妻子를 버리고 夜間逃走하면서 潘陽에 있던 元나라 將帥 納哈出을 誘引하여 恭愍王 11年 2월에 三撒 忽面 等地에 侵入하니 그 軍勢 매우 强盛하여 그 地方의 守備官員이 모두 敗하자 東北面地方이 거의 敵地가 되었다.

元將 納哈出은 三撒 忽面(洪原)을 占領하고 南進하여 咸關嶺을 넘나들면서 咸興平野를 엿보고 있었다. 恭愍王은 또 다시 李太祖에게 納哈出을 平定하라는 出征命令을 하였다. 李太祖는 紅巾賊의 侵入으로 廢墟가 된 開京을 떠나 北進하여 그해 七月에 宜州(德原)땅에 當到하였다.

이 때에 幕下 將帥 4~5名만 引率하고 急히 北進하는 中이라 青海伯과 같이 말머리를 나란히하여 宜州(이곳은 李太祖의 高祖 李安社(穆祖)가 全州에서 江原道 三陟을 거쳐 海路로 北上하여 첫발을 디딘 곳이다)의 푸른 산과 맑은 바다를 對하니 自然 祖上들의 感懷를 이야기하며 徐徐히 말을 묻고 北上하여 和州에 當到하자 咸州에서 내려온 迎接部隊의 마중을 받았다.

이튿날 새벽에 關登水(城川江)를 건너 咸州에 到着하자 즉시 軍營에서 會議를 召集하고 敵情을 把握한 후 于先 軍糧의 準備를 命令하고 “全軍에 充分한 給食을 하도록하며 軍糧에 對하여 不正한 일이 생길 때는 地位 高下를 莫論하고 軍令에 處한다”라는 布告令을 發하였다.

李太祖는 다시 幕僚會議를 열고 戰略을 檢討한 후 어둠이 깔리자 麾下將兵 萬餘名이 行動을 開始하여 秘密裡에 關登水右岸으로 移動할 것을 指示하고 李熙를 불러 “李將軍은 즉시 部下 三百名을 引率하고 都連浦(西湖津) 海岸에 가서 布陣하되 關登水 左岸

을 따라 現地에 到着할 때까지 隱密히 行動하고 現地에 到着하면 즉시 軍鼓를 總動員하여 요란하게 울리고 軍幕을 내리 쳐서 虛張聲勢하여 大兵力이 새로 上陸한 것처럼 假裝하라” 指示하였다.

李太祖는 青海伯 以下 幕僚들과 같이 精銳 百餘騎를 이끌고 咸關嶺 東쪽 德山에 이르러 10개 반으로 分隊 南쪽기슭 全域에 퍼뜨려 대대적인 搜索作戰을 假裝하여 끊임없이 往來하고 自身과 幕僚들은 咸州 忽面 街道를 따라 敵陣 바로 앞까지 進出하여 敵情을 살피고 날이 밝을녘에 本營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敵은 날마다 繼續되는 이 作戰에 敵 納哈出은 大部隊의 出動으로 誤認하고 咸關嶺 以北에서 對策을 講究하노라 時日이 遷延되었다. 한편 高麗軍은 그 사이에 軍糧을 充分히 準備하여 軍士에게 充分한 給食과 休養을 주어 士氣가 完全히 回復되었다.

時日の 遷延作戰과 아울러 現地 徵集과 한편 青海伯은 女眞人을 叫合, 應援兵을 募集充員하여 軍勢가 大振하자 總動員令을 내려 關登水를 건너 攻擊態勢로 들어갔다. 이때에 納哈出은 高麗軍의 機先을 制壓하고자 那延을 主將, 伯顔을 副將으로 하여 兵力一千을 주어 先鋒을 삼아 咸關嶺을 넘어왔다. 高麗軍은 壓倒的인 多數의 兵力으로 一擊에 全滅하였다.

이 消息을 들은 納哈出은 大怒하여 즉시 進軍, 그날 밤으로 咸關嶺과 車轡嶺까지 進出하고 指揮本部를 德山골에 두었다. 高麗軍은 밤에 險峻한 山길을 넘어 疲勞에 지친 그들에게 숨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納哈出의 指揮本部를 夜襲하여 짓밟아 버려니 納哈出은 잠결에 벌안간 夜襲을 당하였으므로 수습할 道理가 없어 十餘騎를 거느리고 逃亡하여 靺鞨洞(洪原 南方 前津近處)으로 돌아갔고 高麗軍은 舍音洞에 駐屯하였다.

納哈出은 潘陽(奉天)을 떠나 高麗 東北面の 中心地를 占領하니

山水가 아름답고 東海에서 나오는 生鮮과 맑고 푸른 東海의 景致는 瀋陽에서 맛볼 수 없는 絶景이며 日氣가 溫和하여 永住할 마을으로 咸關嶺 以北을 모두 占領하고 韃靼洞에 司令部를 設置한 후 家族을 全部 불러다가 새로운 環境 속에서 豪華로운 生活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李太祖가 引率한 高麗軍에게 거듭 慘敗를 당하니 甚히 不安하였다.

數次에 걸쳐 勝戰한 高麗軍은 淸明한 날을 擇하여 咸關嶺 南쪽 기슭에 布陣, 精銳部隊 千餘騎를 引率하고 青海伯의 先導로 李太祖는 咸關嶺을 넘어 納哈出의 本營 앞에 進出하여 敵勢를 살피니 敵은 陣形을 整備, 臨戰態勢로 待機하고 있다가 高麗軍의 進出을 맞아 서로 싸우다가 李太祖는 거짓 後退하였으나 敵兵은 追擊하지 않아 誘引作戰에 失敗하고 다시 咸關嶺을 넘어 本營으로 돌아왔다.

高麗軍은 다시 定州까지 後退하여 秘密裡에 軍勢를 整頓하면서 “高麗軍은 敵兵보다 數가 작아 連戰連敗, 軍勢가 몹시 疲勞하여 再次 싸울 힘이 없어 後退, 定州에서 養兵中이나 너무 軍勢가 弱화되어 언제 回復될지 알 수 없다”라는 流言蜚語를 流布하였다. 이 때에 納哈出은 秘密히 斥候兵을 보내 高麗軍의 軍情을 살피니 모든 斥候兵의 報告가 全部 一致되는지라 이 땅을 永遠히 占領하여 君臨하기로 決心하고 咸州로 내려와 本營을 設置, 住民을 撫摩하여 勸農과 善政을 베풀었다.

定州까지 後退한 高麗軍은 納哈出이 咸州로 南下 布陣하고 있음을 探知하고 咸州平野에서 乾坤一擲의 一大決戰할 計劃을 樹立, 左右中 三隊로 編成하여 左軍은 青海伯 引軍下에 城串, 右軍은 李熙가 引率하고 海岸을 따라 도면포, 中軍은 李太祖 直接 引率下에 송두를 經유하여 各各 西南 兩面으로 敵을 包圍할 態勢로 進

擊하였다. 이 때에 納哈出은 北山 西端에서 鷹峰에 이르는 線에 布陣하고 高麗軍이 關登水로 渡江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였다.

關登水を 渡江한 高麗軍은 背水陣을 치고 先鋒將 青海伯과 李太祖는 陣頭에 나섰다. 敵陣에서 駿馬를 탄 三名의 將帥가 肉迫하여 왔다. 이 때에 李太祖와 青海伯은 싸우지 아니하고 말을 돌려 後退하니 敵將은 다급하게 追擊하여 왔다. 途中에서 열길로 빠지는 척하다가 별안간 말을 돌려 正面으로 對立하니 敵將의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고 곤두서는 순간 青海伯과 李太祖의 활에서 화살이 날아 敵將을 命中하니 세 장수 모두 落馬하여 죽어 버렸다.

高麗軍은 小單位로 軍隊를 編成한 數 많은 部隊들이 分散 突進하여 나옴에 納哈出의 部隊는 全 戰線에 걸쳐 總攻擊令이 내려져 怒濤와 같이 總攻擊을 加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高麗軍은 正面衝突을 避하고 이리 저리 四面八方으로 뛰어 달아나기만 하니 敵軍도 自然 小部隊로 分散되어 猛烈히 追擊, 쫓기는 高麗軍과 쫓는 敵軍은 개미떼같이 퍼져 넓은 咸州平野 全城에 걸쳐 짙게 깔려 버렸다.

納哈出은 數의으로 倍나 되는 軍勢로 이번 한번에 總力을 傾注하여 高麗軍 全兵力을 制壓, 關登水에 쓸어 넣을 計劃이있으나 戰爭이 豫想外로 分散되어 秩序없이 混沌되므로서 作戰指揮를 할 수 없게 되니 納哈出도 별 수 없어 小部隊를 引率하고 突進하며 高麗軍의 一個 小部隊를 進擊하여 雲興谷에 이르자 숲속에서 伏兵이 일어나 側面에서 攻擊하고 쫓기던 高麗軍이 되돌아 反擊하니 自然 包圍網에 싸였다.

納哈出은 奮戰하여 겨우 四, 五騎와 더불어 包圍網을 뚫고 脫出하여 北山에 올라 戰況을 注視하니 高麗軍은 이리 저리 뛰면서



敵軍을 誘引하여 陷井에 몰아 넣고 敵兵을 沒殺하는 作戰計略에 빠진 것을 알았으나 咸州平野 全域에 퍼져 있는 混戰을 수습할 수 없어 無慘히 죽어가는 部下를 救할 길 없이 嘆息만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멀어지기 前에 納哈出의 二萬軍卒이 거의 全滅되고 살아 남은 三百餘名의 敗殘兵은 軍器를 버리고 德山골을 向해 逃走하는지라 納哈出은 部下들을 시켜 家族을 데리고 뒤를 따르도록 指示하고 敗殘兵을 收拾하면서 瑚璉川을 따라 곧바로 北上하여 모계령을 넘어 潘陽으로 逃走하였다.

東北面 地方이 平定되어 民情을 收拾하고 勝戰 祝賀宴을 베풀어 兵士를 慰勞하는 자리에서 李太祖는 滿足한 얼굴에 微笑를 띄우고 諸將을 돌아보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두란(青海伯)將軍을 따를 사람은 더러 있겠지만 戰場에서 大敵을 쳐부수는 戰略을 세우고 敵을 쳐부수는 일에는 豆蘭 將軍을 따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며 青海伯에게 勸하였다.

그후 納哈出은 高麗에 出兵하였던 것을 後悔하고 사람을 보내 賁物로 말과 소(牛) 복을 바치며 小人의 말을 잘못 듣고 이번 浸犯한 罪를 謝罪하면서 앞으로 友誼종계 隣邦으로서 永久히 親善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 5. 德興君의 亂

德興君은 高麗 忠宣王의 庶子이며 恭愍王의 庶三寸叔이 되는 塔思帖木兒이라는 者로서 高麗의 王位 繼承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中 忠定王 3年(1351) 10월에 恭愍王이 王位를 繼承하게 되자 不平을 품고 元나라로 逃亡하여, 前年에 元나라로 亡命하여 간 崔湍兄弟를 만나 갖은 재주를 다부려서 元나라 皇帝에게 恭愍王의 失



政을 讒訴하고 한편으로는 國內 重臣級인 金鑑 등과 內通하여 恭愍王을 廢하고 德興君을 王으로 推戴하기로 約束하였다.

金鑑 등은 德興君의 入國을 反對한 重臣級中 安祐, 李茂實, 鄭世雲 등을 謀陷하여 죽이고 恭愍王 12年 3월에 王이 興王寺行宮에 幸次한 틈을 타서 秘密히 軍隊를 動員하여 行宮을 犯하였다가 崔瑩將軍에게 拿捕되어 流配되었다가 斬首되었다.

崔濩는 繼續하여 元나라 朝廷에다 恭愍王을 讒訴하여 元나라 皇帝로부터 德興君을 高麗王으로 封하는 詔書를 받았다.

그러나 그 때의 中國의 情勢는 各處에 群雄이 蜂起하여 各地方을 雄據하니 元나라의 權威가 땅에 떨어져 威令이 잘 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판국에 高麗인들 그 命令이 잘 통할 리 없다. 그리하여 德興君의 入國을 拒否하고 全國의 軍隊를 西北面 地方에 集結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니 새로 임금에 任命된 德興君은 하는 수 없이 元나라에게 付託하여 元나라 군사 萬名을 빌어 崔濩로 元帥를 삼아 그 다음해 恭愍王 12年 12월에 遼東에 와서 屯치고 平和的인 交渉을 하였으나 高麗에서는 不應하였다.

그 다음해 恭愍王 13年 正月에 崔濩는 元나라 군사 一萬名을 引率하고 德興君을 王으로 받들어 모시고 鴨綠江을 건너 高麗 땅으로 入國을 強行하였다.

高麗의 都元帥 崔瑩 以下 諸將은 元나라 군사를 上國의 軍士라 하여 敢히 맞아 싸우고자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 때에 青海伯과 李太祖는 慨然히 부르짖기를 “戰場에서 勇氣가 없으면 孝道가 아니고 임금을 섬김에 물을 아끼면 忠誠이 아니다. 公等은 어찌 史孝를 돌아보지 않느냐”하고 외치고 앞에 나가 맹렬히 崔濩와 德興君의 군대를 攻擊하였다.

이에 勇氣를 얻은 高麗의 군사는 一齊히 賊鋒을 지르며 元나라 陣中을 向하여 進擊하였다. 이 때에 青海伯은 先頭에서 敵將 네 사람을 활로 쏘아 죽이고 無人之境 같이 敵陣으로 쳐들어가니 敵軍은 上國의 軍隊라는 威勢만 믿었으나 워낙 軍士의 數가 越等한 差異로 到底히 對敵이 되지 못하여 敗走하고 德興君과 崔濡 등은 元나라로 逃亡하였는데 元나라에서 崔濡의 罪狀을 알고 그해 10월에 崔濡을 잡아 高麗로 押送하여 處刑하였다.

## 6. 三善 三介

高麗 恭愍王 13年(1364) 正月에 三善·三介 兄弟가 東北面 地方에 入寇하여 和州 以北을 占領하였다. 이 三善·三介는 李太祖의 祖父 李椿의 外孫子이며 李太祖와는 内外從四寸間으로서 女眞 땅에서 자라났다.

三善·三介 두 兄弟는 늘 鐵嶺以北을 占據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機會를 노리고 있었던 中 高麗朝에서는 元나라에서 새로 任命한 恭愍王의 庶三寸叔인 德興君이 元나라 軍士 一萬名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 와서 高麗軍과 一大接戰을 하고 있는 關係로 青海伯 李太祖 및 其外 國內 名將이 總動員되어 西北面 防禦에 臨하고 있는 틈을 타서 女眞族의 군사를 이끌고 大舉侵入하여 忽面(洪原) 三散(北靑)을 거쳐 咸州를 陷落하고 南下하였다.

이 땅을 守備하던 金以道·李熙 등은 敗하여 군사를 버리고 逃亡하고 都指揮使 韓方信, 兵馬使 金貴도 和州(永興)로 進軍하였다가 三善·三介軍에게 大敗하고 鐵關(德原)으로 後退하여 援軍을 보내 달라고 朝廷에 奏達하였다.

이 때에 高麗朝에서는 德興君의 亂을 平定한 李太祖에게 또 다시 三善·三介의 亂을 鎮壓하라는 命令을 下達하였다.

出征命令을 받은 李太祖는 先例대로 青海伯을 先鋒將으로 삼고 西北面에서 東北面으로 進軍하여 鐵嶺에 이르러 거기에 있던 都指揮使 韓方信과 兵馬使 金貴와 만나 敵勢를 探聞한 후 軍隊를 三面으로 쳐들어가 和州·咸州 등을 全部 回復하고 三善·三介는 敗走하여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 7. 東寧府 擊破

恭愍王은 元나라가 衰亡하여가고 明나라가 新興함에 따라 故土를 回復할 생각을 가지고 親明政策을 세우고 恭愍王 17年(1368) 11월에 明太祖에게 使臣을 보내고 그 다음해 4월에 明나라로부터 使臣 僕斯가 오고 五月부터는 元나라의 年號를 使用하지 아니하고 다시 明나라에 使臣을 派遣하여 修交하는 한편 義州·泥城·江界等地的 國境地帶 守備를 強化하고 十二月에 元帥 李太祖를 보내어 東寧府를 攻擊케 하였다.

李太祖는 出征命令을 받고 青海伯으로 先鋒大將을 삼고 吉日을 擇하여 出征하는 날 밤에 홀연히 붉은 기운이 하늘에 사무쳤다. 恭愍王은 그 기운을 바라보고 左右를 돌아보며 “저 기운은 將帥의 기운이다. 내가 李元帥를 東寧府로 보냈으니 나타난 것이다.

李元帥는 果然 하늘이 낸 名將이로다” 하였다. 그러나 이 기운은 名將의 기운이 아니라 王氣라고 後人들이 말하며 恭愍王의 어리석음을 嘲笑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行軍하여 東寧府에 이르러 陣을 치고 싸움을 시작하였다. 東寧府를 守備하고 있던 將帥 兀魯帖木兒가 나와 青海伯과 맞싸 싸웠다.

이 때에 李太祖가 將臺에서 두 장수의 싸우는 光景을 보니 敵將 兀魯帖木兒가 驍勇이 絶人하므로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을 생

작을 하고 그가 모르게 가만히 살의 축을 빼고 兀魯帖木兒를 쏘았다. 敵將은 화살을 일곱 대나 투구에 連續적으로 맞아도 다치지 아니함을 異常히 생각하고 그 화살을 본즉 축이 없는지라, 이는 저를 아끼려 죽이지 아니한 것인데 만일 이 뜻을 거역하면 진짜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 明若觀火한 일이라 생각하고 즉시 말에서 내려 降服하며 땅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小將이 今日에야 하늘같이 높으신 將軍을 뵈옵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또 小將도 元來는 高麗人이오니 部下에 두시면 犬馬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李太祖는 欣然히 敵將 兀魯帖木兒의 降服을 받아들였다. 後日에 兀魯帖木兒는 李太祖 麾下에서 많은 功을 세워 北面兵馬使萬戶가 되었다. 兀魯帖木兒가 降服한 후에도 東寧府의 守將 高安禮는 조금도 두려움없이 城門 門樓에 올라앉아 軍卒을 指揮하여 抗戰을 繼續하는지라 李太祖는 가만히 활을 쏘아 살 세 대를 모두 高安禮의 面相에 맞혔다. 敵兵들은 그 光景을 보고 奪氣되어 戰意를 喪失하고 城門을 열고 降服하였다. 그러나 高安禮는 元來 勇力이 過人하여 살 세 대를 맞고도 살아서 도망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東寧府를 攻取하고 李太祖는 回軍하지 아니하고 繼續하여 元나라와의 斷交를, 明나라에 明確히 하기 위하여 그 다음해 恭愍王 19年 正月에 无羅山城을 攻擊하여 勝戰하고 다시 遼陽까지 攻破하여 親元勢力의 根據地를 모두 擊破하고 그해 七月부터 明나라 年號 洪武 2年을 使用하였다.

## 8. 高麗에 女眞 併合

恭愍王 17年(1368) 中國 明나라 洪武 元年에 吳王 朱元璋은 元나라를 攻擊하여 中原에서 萬里長城 以北으로 몰아내고 正月에 國



號를 明이라 하고 스스로 帝라 稱하여 天子가 되고 元나라는 都  
邑을 大都로 또 다시 開平으로 또 다시 應昌等 北方으로 쫓겨 갔  
으므로 世上에서 北元이라 불렸다.

北元은 이같이 國運이 衰退하여지자 이를 挽回할 생각으로 名  
將을 찾던 中 青海伯이 元來 女眞땅에서 生長하였고 그 아버지 雅  
遠이 元나라 金牌千戶를 지낸 것을 미끼로 이를 世襲한다는 名分  
을 붙여 青海伯에게 參散猛岸帖木兒(지금의 北青) 千戶를 封하  
였다.

青海伯은 李太祖와의 勅은 言約이 있어 高麗를 위하여 奉仕하  
여 오던 중이라 北元의 懷柔政策을 逆利用하여 蒲靑社(지금의 北  
靑 西島里)로 移舍하고 女眞人을 파합하여 安穩定着을 勸誘하여  
人心을 收拾하는 데 注力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는 高麗의 恭愍王은 元나라가 衰弱하여지고 明  
나라가 强盛하여 中原의 主權이 바뀌어지자 背元親明政策으로 轉  
換하고 元나라에게 빼앗긴 故土를 回復함과 同時에 明나라의 信  
任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해 11월에 李太祖로 하여금 東寧府를 치  
고 无羅山城·遼陽 等地를 攻破하여 親元의 根據地를 全部 攻略  
함으로써 明나라 太祖 朱元璋의 信任을 받는 데 青海伯이 絶對的  
인 役割을 하였다.

恭愍王은 親明政策을 斷行하기 위하여 恭愍王 19年(1370) 7月  
부터 明나라 年號 洪武를 使用하여 年號를 洪武 3年이라 하고 또  
8月에는 胡服(元나라 服色)을 禁하고 우리나라 固有의 衣服을  
다시 입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青海伯은 高麗와 女眞部族들의 併合할 時期 成熟함을  
깨달고 恭愍王 20年(1371) 2월에 咸州 以北의 女眞部族을 引率하  
고 高麗에 併合하였다. 高麗에서는 青海伯이 李太祖를 도와 屢次



의 戰爭에서 많은 功을 세운 것을 參酌하여 三司左尹을 授爵함으로써 高麗의 將軍이 되었고 姓名을 李豆蘭이라고 改姓名하고 高麗人이 되었다. 그리고 元나라의 鐵嶺衛 管轄의 땅은 全部高麗의 領土가 되었다.

## 9. 荒山大捷

### 7. 倭寇 侵入의 原因

倭寇라 함은 즉 日本의 海賊을 말하는 것이다. 이 日本의 海賊은 新羅時代에도 간간히 있었으나 高麗末 恭愍, 禑, 恭讓王時代約 40年間처럼 極甚한 時代는 없었다. 그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高麗 忠烈王 7年 元나라 世祖 18年(1281)에 元나라와 聯合하여 日本을 討伐하다가 7월에 颱風으로 元·高聯合 兵船 全部가 浸沒되어 慘敗당한 후 日本과 元나라와의 交易이 杜絶되어 海邊에서 交易生活하던 日本人의 生活方途가 없어져 生活의 한 方便으로 海賊이 된 것이다.

② 日本은 그 당시 南北朝時代로서 全國에 群雄 割居로 各地의 藩主政治로서 中央統治權이 미치지 못하여 社會秩序가 甚히 混亂하였던 時代라 海邊住民의 出入이 比較的 自由로울 뿐 아니라 日本의 流浪武人의 團束이 잘 안 되어 流浪武人의 生活手段으로 海賊行爲를 하게 된 것이다.

③ 高麗의 國力이 疲弊하여 日本 海賊에게 侵掠을 당하여도 이를 제대로 膺懲하지 못하고 番番이 掠奪을 당하기만 하므로 업수가 여기고 海賊行爲를 恣行하게 된 것이다.

### 8. 倭寇의 侵害로 高麗의 被害狀況

① 倭寇는 本性이 殘忍無道하여 糧穀과 物資만을 掠奪하는 것

이 아니다. 上陸하면 于先 放火하여 家屋을 全部 燒却하고 사람을 닥치는대로 죽여 婦女子 兒童까지 全部 沒殺하여 倭寇가 한번 지나가면 풀 한 포기 남지 아니하였다.

② 倭寇의 侵掠이 하도 잦아 海上運輸를 마음대로 못 하여 物資交流가 圓滑치 못함은 勿論 나라의 租稅穀까지 運送이 잘 되지 못하여 國家經濟마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③ 海邊 가까운 곳에는 海賊의 侵入이 언제 있을지 몰라 生活이 不安하므로 農民이 平野의 沃土를 버리고 山間僻地로 避亂하게 되어 海邊附近의 平野가 북어 荒涼하고 糧穀產出이 激減하여 民生苦가甚하여졌다.

#### ㄷ. 倭寇의 侵掠 略史

高麗 忠定王 2年(1350) 부터 禡王 14年(1388)間の 倭寇侵入 狀況을 略記한다.

忠定王 2年(1350) 2月 倭寇가 固城, 巨濟에 入寇한 것을 처서 倭寇 三百名을 죽였음.

그해 4월에 倭船이 順天府에 浸寇하여 漕船을 掠奪하여 갔음.

그해 6월에 合浦에 倭寇가 또 侵掠하였음.

그 다음해 忠定王 3年(1351) 8月 倭船 百隻이 浸入하여 紫燕 三木島를 掠奪하였음.

恭愍王 1年(1352) 3월에 倭寇가 喬桐에 9월에, 合浦에 두 차례 入寇하였음.

恭愍王 3年(1354) 4월에 倭船이 全羅道 漕船을 掠奪하였음.

그 다음해 恭愍王 4年(1355) 3월에 倭寇가 全羅道에서 掠奪하였음.

恭愍王 6年(1357) 9월에 倭寇가 昇天府에 入寇하여 海運이 不通되었음.

그 다음해 恭愍王 7年(1358) 4월에 倭寇 角山城에 入寇, 5월에 倭寇 喬桐을 불태우고 掠奪, 7월에 倭船 全羅道 漕船을 불태우고 掠奪하였음.

恭愍王 8年(1359) 5월에 倭寇 禮成江과 瓮津에 入寇 掠奪하였음.

그 다음해(1360) 倭寇 開京을 侵犯하여 7월에 遷都를 위하여 王이 臨津縣과 白岳에 幸次함. 11월에 白岳의 新宮에 移御(移舍)함.

恭愍王 10年(1361) 3月 王이 開京으로 還宮, 4월에 倭寇 南海에서 掠奪하였음.

恭愍王 12年(1363) 倭船 喬桐에 侵入 守安에서 掠奪하였음.

恭愍王 13年(1364) 慶尙道 海邊에 倭寇 侵入하여 掠奪하였음.

그 다음해 恭愍王 14年(1365) 3월에 倭寇 江華·喬桐 一帶에서 掠奪하였음.

恭愍王 15年(1366) 5월에 倭人 喬桐에 留屯하므로 이를 擊退시키고 11월에 金逸을 日本에 보내어 禁寇를 請하였다.

그 다음해 恭愍王 16年(1367) 3월에 江華에 倭寇 浸入 掠奪함.

恭愍王 18年(1369) 11月 倭船 忠清道 漕船을 襲擊 掠奪함.

그 다음해(1370) 倭寇 宜州에 侵入 掠奪함.

恭愍王 20年(1371) 3월에 倭寇 海州에 侵入하여 掠奪하고 7월에 禮成江에 入寇하여 兵船 40隻을 불태우고 掠奪하였음.

그 다음해 恭愍王 21年(1372) 3월에 倭寇 順天·長興等에서 掠奪하다.

그 다음해(1373) 6월에 倭寇 漢陽府에 浸入하여 掠奪하고 7월에 喬桐과 西江에서 掠奪하다.

恭愍王 23年(1374) 4월에 倭寇 各處에서 掠奪하여 그勢 점점 猖獗하다.

그해(1374) 2월에 日本에 通信使를 보냄. 3월에 倭人 藤經光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降服하여 이를 받아들이자 國內 事情을 열담하여 가지고 7월에 逃亡한 후부터 倭寇의 侵入이 더욱 熾烈하여졌음.

禡王 2年(1376) 7월에 倭寇 公州를 陷落 占居하므로 崔瑩이 이를 鴻山(扶餘)에서 大破함. 9월에 倭寇 다시 古阜·泰山等を 거쳐 全州를 占領하여 一切의 海運을 中止하고 그 다음해(1377) 5월에 李太祖와 青海伯으로 이를 치게하여 智異山에서 倭寇을 大破하고 6월에 日本에 使臣을 보내 禁寇를 請하고 9월에 鄭夢周를 또 日本에 보내 禁寇를 請하였으나 別 效果 없이 三南 및 京畿一帶의 倭寇侵入 如前하였음.

이와 같이 倭寇의 侵入은 날이 갈수록 더욱 甚하여 가서 禡王 5年(1379) 5월에는 倭寇는 海賊이 아니라 露骨的인 侵掠으로 騎兵 7百 步兵 2千餘名이 南海에 上陸하여 晉州를 占領하자 閏 5월에 日本 海盜捕提官 朴居士가 倭敵과 싸우다 敗하였다.

## 2. 荒山싸움

그 다음해 禡王 6年(1380) 6월에 倭船 5百餘隻이 鎮浦(舒川錦江 어귀)로 들어와 倭兵 數萬名이 一時에 上陸하여 一部는 船舶을 지키고 大部隊는 忠清道 各州郡으로 分隊亂入하여 닥치는데로 마을을 불태우고 糧食과 家畜을 掠奪하며 사람을 마구 죽여 거티에는 송장이 즐비하고 掠奪하여 運搬하다 흩날린 곡식이 밭목까지 묻혔다고 하였다.

이에 놀란 高麗朝廷에서는 羅世忠·沈德符·崔茂宣 등이 즉각 出動하여 崔茂宣이 만든 火砲로 敵船을 저서 불태우니 煙氣가 하늘을 가려 日光이 보이지 아니하고, 倭船을 지키던 倭兵은 全部 물에 빠져 죽고 倭船은 한 척도 남김없이 다 타버렸다.



이리하여 掠奪하러 陸地에 있던 倭敵들은 돌아간 船舶이 모두 불에 타 갈길이 딱히자 部隊를 編成하여 內陸으로 侵攻하여 尙州・善州・錦山・沃川・永同等地로 돌아 다니며 그 行悖와 蠻行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倭敵은 다시 西南으로 向하여 慶山・星州를 지나 沙斤乃驛・咸陽에 集結하여 隣近 州郡을 掠奪・放火・殺戮을 恣行하여 民生이 달이 아니었다.

禰王은 이 倭敵을 討伐하기 위하여 討伐軍을 再編成 整備하여 李太祖를 楊廣・全羅・慶尙의 三道都巡察使에 封하고, 贊成事 邊安烈을 都巡察使에, 評理 王福明・禹仁烈, 右使 都告敷, 知門下 林仁宗, 商議 洪仁桂, 密直 林成昧, 陟山君 李元桂를 각기 元帥에 任命하였다.

그전에 倭寇를 攻擊하던 元帥 裴克廉・池湧奇・朴敏修 등은 倭敵에게 敗하여 高麗 군사 五百餘名の 戰死者를 내고 南原山城을 글게 지키고 더 前進하지 못하고 援軍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倭敵은 咸陽을 무찌른 후에 南原山城을 攻擊하였으나 陷落하지 못하고 물러가 雲峰縣을 불태우고 雲峰 引月驛에 駐屯하고 앞으로 北進하겠다고 豪言하였다. 이 때의 百姓들은 이치럼 끔찍한 慘相을 본 일도 없고 倭寇가 內陸까지 侵入橫行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敵勢가 豪大하여 닥치는 州郡이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變하니 언제 그 禍를 當할지 알 수 없어 戰戰兢兢하고 있었다.

새로 任命된 都巡察使 李太祖는 青海伯으로 先鋒을 삼아 軍隊를 整頓하여 가지고 南進하여 南原까지 내며오니 南原山城을 지키고 있던 裴克廉 등이 나와 迎接하여 合流하였다. 그 때의 倭敵은 南原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李太祖는 軍馬를 하루 休息케 하고 敵勢를 살피며 作戰計劃을 熟議하였다.



이 때에 李太祖는 幕舍會議에 召集된 現地 장수들로부터 彼我의 位置・兵力・補給狀況 等 仔細한 軍情에 對한 報告를 듣고난 후 “來日 당장 行動을 開始하여 敵을 攻擊하겠소. 이에 對하여 諸將의 意見을 듣고자 하니 좋은 意見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요” 그러니 장수들은 모두 우울한 表情으로 아무 對答이 없었다.

李太祖는 裴克謙을 보고 “裴將軍 意見을 말하십시오” “敵이 지금 험한 山地帶에 들어가 있으니 나오는 것을 기다려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池湧起를 보고 “池將軍의 생자는 어덥소” “敵을 包圍하여 食糧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길에 나와 同行한 王將軍(왕복명)의 意見은 어덥소?” “現地 元帥들의 意見을 尊重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李太祖는 元帥들을 하나 하나 指名하여 意見을 물었으나 모두 대답이 大同小異하니 눈을 부릅뜨고 諸元帥들을 노려보며 “軍士를 일으켜 敵을 치려 나온 장수는 敵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거늘 只今 敵을 눈앞에 보면서 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 이오, 또 敵은 二萬이고 우리 軍士는 새로 到着한 援軍을 합하면 四萬이니 數로써 敵을 壓倒할 수 있소. 敵의 無差別 虐殺을 감안할 때 一刻을 遲滯할 수 없소” 하고 미리 마련된 地圖를 펼쳐 놓고 作戰指揮를 하였다.

“敵은 江清에서 日臺까지 南北으로 展開하여 我軍의 進出에 對 備하고 있소. 數個處에서 이 敵을 攻擊하여 分斷 殲滅해야 하오. 이를 위하여 明日 子時에 行動을 開始하겠소. 邊장군은 麾下將兵을 引率하고 德頭山을 넘어 獐項에 진출하고, 禹장군과 都장군은 浮雲을 거쳐 江清에 進出하고, 朴장군과 李장군은 挽項을 거쳐 日臺에 進出하고, 九龍에 駐屯中인 裴將軍 麾下 慶尙道軍은 五泉・五峰山 사이에 埋伏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池將軍은 谷城・

南原間에 展開中인 全羅道軍을 急히 移動하여 環峰·靈源寺間을 遮斷하오. 洪將軍은 豫備隊로 雲峰에서 待期하오. 나는 雲峰·荒山을 거쳐 引月에 進出하겠소. 王將軍과 李豆蘭 將軍은 나와 同行하오. 輜重隊는 洪將軍의 揮下에 들어가고 全將兵의 携帶 糧食은 2日分, 諸將은 다 같이 左右의 友軍과 緊密히 連絡하여 協同할 것이며 臨戰後退하는 省는 極刑에 處할 것이니 全軍에 周知시키도록 하오. 裴·池 두 장군은 卽刻 進發하오” 作戰命令을 下達한 李太祖는 軍事會議를 끝냈다.

李太祖는 作戰指揮대로 다음날 子正에 南原을 出發하여 雲峰驛에 이르러 朝飯을 마치고 引月街道를 거쳐 蓮洞이 틀 무렵 荒山기슭에 進出하였다. 王將軍에게 계속 進擊을 命하고 李太祖는 西北으로 方向을 바꾸어 鼎山峰에 올랐다.

이 때에 험한 산줄기에 布陣中인 敵은 我軍이 接近하면 쓰지 아니하고 卽刻 白兵戰으로 나왔다. 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도 不利한 位置에 선 友軍은 高地에서 내리 攻擊하는 倭軍에게 壓倒되어 苦戰을 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敗退하면 敵은 勝勢를 몰아 湖南平野로 쏟아져 나갈 것이므로 南北으로 散在한 敵의 戰線 中央部를 急히 突破하여 敵을 混亂에 빠뜨려야 한다고 判斷한 李太祖는 引風에 突入하기로 決心하였다.

다시 方向을 東으로 바꾸어 進擊命令을 하였다. 갑자기 길은 右로 꺾이면서 急傾斜의 내리막길에 兩便 산은 짝아 세운듯 험하고 그 아랫 引風平野가 展開되었다. 이 때에 青海伯이 李太祖의 앞을 가로 막으며 “將軍 危險합니다. 일단 停止하고 敵情을 살핀 후 다시 進擊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太祖는 “斥侯가 앞을 달리지 않소?” “伏兵에는 斥侯도 흔히 失手합니다” “老練한 李遠敬이 斥侯를 指揮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李遠敬을 못 믿어서

가 아니라 地勢로 보아 操心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소 操心하면서 그대로 進擊합시다” 하고 李太祖는 그대로 말에 채찍을 加하여 進擊하였다.

우로 꺾어져 한참 달리는데 별안간 左右의 우거진 풀 속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날아왔다. “李豆蘭 將軍 右로” 하고 李太祖는 高賊을 지르고 칼을 빼어 들면서 左로突進하자 青海伯도 거의 同時에 右로突進하였다. 左右로 갈린 高麗軍은 무서운 氣勢로 칼과 槍을 휘두르면서 敵陣에突入하니 歩兵을 主軸으로 한 倭兵 千餘名은 활을 쏘면서 슬금슬금 後退하여 高麗軍을 숲 속으로 誘引作戰을 하는 機微를 보았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全軍의 突擊命令을 내리고 全軍의 先頭에서서 칼을 휘두르며 突進하니 이에 勇氣를 얻은 高麗軍은 高賊을 지르며 果敢迅速히 突擊하니 倭寇들은 미처 應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混亂에 빠져 三百餘 屍體를 남기고 逃走하였다.

高麗軍은 다시 進擊하여 引風平野로 밀고 내려갔다. 荒山 줄기가 東으로 떨어 引風과 引月的 두 平野를 갈라놓은 突出部에 集結한 倭寇는 要衝地帶에 占據하고 猛烈히 對抗하여 高麗軍의 進出을 막았다. 李太祖는 李大中·禹巨忠·李得桓·李天奇·池英守·吳一·徐彦·陳中·奇徐·金光周·元義·尹尙俊·安升俊 등이 指揮하는 部隊를 先鋒으로 하고 攻擊을 開始하였다.

그러나 高地帶를 占據한 倭寇들은 高地帶를 向하여 低地帶에서 進擊하는 高麗軍을 내려다 보며 활을 쏘니 그 겨냥이 正確하여 우리나라 軍士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굴러 떨어져 죽은 數가 점점 늘 뿐 前進을 하지 못하고 氣勢가 꺾여 進擊을 中止하고 도리어 後退하니 이 機微를 포착한 倭兵은 칼과 長槍을 휘두르면서 總突擊을 敢行하여 傾斜面의 高麗軍을 무찔렀다. 마침내

先鋒隊는 二百餘名の 死傷者를 내고 後退하였다.

이 光景을 본 李太祖는 青海伯·盧明·李遠敬·趙英茂를 先頭로 하는 自己의 主力部隊로 하여금 總進擊하자 敵陣 山 中腹에서 一大 白兵戰이 展開되었다. 화살이 날고 창과 칼이 번뜩이고 피를 흘리는 彼我的 兵士와 軍馬의 悲鳴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치는 一大激戰을 이루었다.

이 때에 敵將 한 사람이 長槍을 휘두르며 앞만 보고 突進하는 李太祖의 背後를 엄습하니 前面을 向하여 활에 살을 먹이고 힘을 주어 활을 당기고 있던 李太祖는 全然 敵將의 奇襲을 알지 못하고 危機一髮이었다. 이 때 右側을 進擊하던 青海伯이 다급히 소리를 질렀다. “將軍 뒤를 보시오, 뒤를 돌아 보시오” 그러나 混戰中이라 알아듣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進擊하며 활을 당기고 있었다.

敵將의 長槍이 거의 李太祖 잔등에 닿을 地境에 이르렀다. 青海伯은 얼른 활에 살을 먹여 專心全力하여 활을 쏘았다. 시위 소리와 함께 敵將은 槍끝을 李太祖의 잔등에 스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敵將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敵陣에서 날아온 화살에 그의 말이 命中되어 말이 앞으로 툭 쓰꾸라지니 李太祖는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 내려 趙茂가 끌고온 말을 타고 다시 進擊하였다.

그러나 또 敵陣에서 날아온 화살에 李太祖의 말이 또 쓸어졌다. 趙茂는 얼른 말에서 내려 자기 말을 李太祖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다시 말에 뛰어 오르는 순간에 또 다시 호르는 말이 李太祖의 왼쪽 다리에 命中하였다. 李太祖는 한 손으로 화살을 뽑아 버리고 前進하려는 찰나 이미 接近하였던 敵兵은 그의 周圍를 둘러싸고 점점 包圍網을 壓縮하고 있었다.



이 包圍網 속에 있던 青海伯・李太祖・趙茂・趙英茂・盧明・李遠敬 등 6名은 右側 平坦한 地點의 敵을 向하여 突進하며 一舉에 敵陣을 突破하고 包圍網을 벗어나 右側에서 달려오는 友軍과 合勢하여 다시 反擊을 展開하면서 左側의 敵을 짓밟고 다시 敵의 背後로 迂廻할 態勢를 갖추었다.

戰線의 一角이 무너지고 또 背後에 威脅을 받게 되자 敵兵은 急히 後退하여 頂上으로 撤收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한숨을 돌리면서 隊列을 整備하고 다시 頂上을 向하여 進擊을 시작하였다. 이 때에 倭將中에서 나이 不過 15,6歲밖에 안 되어 보이며 美貌에 몸매가 날씬한 少年장수가 白馬를 타고 머리에 구리투구를 쓰고 몸에는 鐵甲을 입어 鎗과 화살이 犯하여도 傷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그 장수의 武術이 驍勇하여 當하는 者가 없었다. 그 때 그 장수를 阿只拔都라 하고 또 銅頭鐵身이라고 불렀다.

이 阿只拔都가 칼을 휘두르며 突進하면 모두 避하다 斬首되어 죽는지라 李太祖는 그 武勇을 아끼고 사랑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生捕하고자 하니 더욱 군사를 많이 傷하게 되고 또 이로 因하여 士氣가 底下되므로 青海伯이 옆에 있다가 “空然히 아까운 우리 군사를 더 죽이지 말고 阿只拔都를 죽이자”고 勸誘하자 李太祖는 그 말이 옳은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阿只拔都의 투구를 맞춰 땅에 떨어뜨리거든 장군은 阿只拔都의 목을 쏘아 맞춰 죽이시요” 하고 즉시 활을 쏘아 阿只拔都의 투구를 맞춰 땅에 떨어뜨렸다. 이 때에 青海伯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阿只拔都의 목을 쏘아 맞히니 阿只拔都는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倭敵들은 天神같이 믿고 있던 阿只拔都가 힘없이 죽는 光景을 보고 모두 落膽하고 魂飛魄散하여 痛哭하니 그 울음 소리가 마치



황소 萬 마리가 일시에 우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士氣를 되찾은 高麗군사는 一當百의 氣勢로 倭敵을 무찌르는 데 反하여 勇將을 잃고 士氣가 沮喪된 倭敵은 抗拒도 제대로 못하고 被殺되고 모두 救命圖生으로 逃走하였으나 士氣 旺盛한 高麗軍 앞에 고양이와 쥐의 형국이었다.

그리하여 約 70名 程度の 倭寇가 智異山 속으로 逃亡하여 들어가 그 나머지는 全滅하였다. 倭兵의 屍體가 山積하고 그 피가 냇물에 섞여 1주일 동안이나 붉게 흘렀다고 하며 이 싸움을 荒山大捷이라 하여 길이 歷史에 傳하여지고 있다.

이 荒山大捷은 우리 나라의 南部 全域을 거의 焦土로 만든 倭敵을 한 번 싸움에 쳐 무찔렀고 軍馬 一千 六百匹을 幽獲하고 그 외의 兵器도 數없이 많이 幽獲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이 당당한 위엄으로 凱旋將軍이 되어 吹鑼擊鼓하고 回軍하니 그 威勢 天地를 振動하고 倭寇에게 시달리던 百姓이 簞食壺漿으로 凱旋軍을 맞이하며 稱頌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判三司 崔瑩은 彩棚 노리를 天水寺에다 벌이고 韓山君 李璿・三司左尹 金容九・成均祭酒 權近이 詩를 지어 賀禮하며 凱旋將軍의 歡迎을 先例없이 盛大히 하였다. 또 이 荒山大捷 以後에는 倭寇의 侵入이 衰弱하여졌다.

## 10. 胡拔都 擊滅

白頭山 줄기를 타고 東西로 뻗은 蓋馬高地에 英雄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잠자던 女眞族을 깨우고 東南으로 海岸 一帶를 蠶食하여 高麗 百姓을 휘몰아갔다. 휘몰려간 高麗人은 죽음을 자초하였으나 그와 反對로 土地와 食糧・愛民政策으로 도리어 잘 살 수

있었다. 이에 오랜 歲月을 두고 百姓의 膏血을 끌어가는 高麗官吏에 比하면 樂土가 아닐 수 없다.

이 消息이 以口傳播되어 高麗의 良民이 많이 樂土를 찾아 그들의 領域으로 潛入하여 百姓되기를 自請하여 날로 人口가 增加할 뿐 아니라 高麗軍과 싸움이 벌어지면 高麗 農民이 自進 出征하여 頑強히 對抗하니 그 威勢 날로 强盛하여지고 또 그의 勇猛이 關羽・張飛와 같았다. 東北面 百姓들은 그를 胡拔都라 稱하고 開京의 王氏를 버리고 蓋馬高地로 向하고 忠誠을 다하였다.

胡拔都是 東寧府의 殘黨으로 遼陽・潘陽 等地에 出沒하며 가끔 우리 나라의 北方邊境에 侵入하여 掠奪과 사람을 拿捕 逃走하는 一種의 馬賊떼들이었다. 恭愍王 21年(1372) 2월에 鴨綠江邊을 來犯하였고 禡王 8年(1382) 正月에 賊兵 千餘名을 引率하고 義州에 侵入하여 義州 上萬戶 張呂의 집을 包圍하고 擄掠하여 많은 財物과 말 50匹을 奪取하고 鴨綠江 以北 遼東으로 逃走하였다.

그 다음해 禡王 9年(1383) 8월에 遼東蕃賊 4萬餘名을 叫合 引率하고 大舉 端州로 侵入하여 端州・三撤(北靑) 등지를 席捲하고 南下하였다. 이 때에 端州 上萬戶 陸麗, 靑州 上萬戶 黃希碩 등이 맞아 싸웠으나 敗하고 敵勢 날로 强盛하여지는 데다가 高麗 百姓들이 이에 加勢하니 그 聲勢 東北地方을 風靡하니 高麗 朝廷에서는 一大 衝擊을 받아 李太祖로 都元帥를 삼고 胡拔都를 討伐하라는 命令을 내리었다.

李太祖는 咸州에 到着하여 軍糧과 兵士를 徵集하고 訓練을 強化하여 精兵을 기르는 한편 朝廷에 援兵을 要請하였다. 西・南海에 倭寇가 侵入한다는 理由로 援兵을 拒否하므로 咸州에서 더 以上 北進하지 아니하고 訓練을 계속하면서 다시 援軍을 朝廷에 要請하여 8月頃에 趙仁璧은 東北面都體察使, 韓邦彥은 東北面上元

帥로 任命하고 騎・步兵 混成部隊 1萬 5千을 주어 咸州에 到着하여 李太祖 麾下 將兵 1萬名과 合流하여 總兵力 2萬 5千의 大部隊를 三軍으로 編成하였다.

左軍은 趙仁璧, 右軍은 韓邦彥, 中軍은 李太祖가 各各 指揮하며 端州로 進擊을 開始하였다. 이 때에 李太祖는 北靑州를 지나면서 마침 母親喪을 當하여 故郷에 돌아와 服喪中에 있는 青海伯에게 趙英茂를 보내 敵勢의 強大함을 말하고 “國家 社稷이 危急하니 母喪은 私事요, 國家의 安危는 萬百姓의 公事니 참으로 未安하오마는 喪服을 벗고 나와 달라”는 付託을 받은 青海伯은 喪服을 입고 하늘에 四拜하고 不孝에 對한 容恕를 빌고, 다시 甲冑를 입고 하늘에 四拜하고 勝戰을 祈願한 후 出征하였다.

이 때에 胡拔都는 端州에서 咸州에 있는 李太祖의 兵力이 不過 萬名 未滿으로 北進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放心하고 있던中 意外에 三軍으로 나뉘어 約 3萬 大軍이 쳐들어오니 端州의 兵力 5千으로는 對敵할 수 없음을 自覺하고 吉州로 總撤軍하여 三海陽平野에 布陣하고 高麗軍을 기다리고 있었다.

高麗軍의 左軍을 指揮하는 趙仁璧은 金芝洞을 거쳐 敵의 西南으로부터 壓迫하고 右軍을 指揮하는 韓邦彥은 海岸線을 따라 敵의 左翼과 對峙하였다. 中軍의 先鋒大將 青海伯은 松嶺을 넘어 三海陽平野에 進入하여 雙浦川에서 敵의 先鋒과 接戰하여 化산 한 대에 敵將 한名씩 10餘대에 敵 10餘名을 射殺하니 敢히 앞으로 나오는 敵兵이 없고 青海伯이 가는 앞에서는 서로 避하여 逃亡하니 高麗軍의 士氣가 衝天하여 總突擊戰을 展開하였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先頭에서 長劍을 휘두르며 敵의 中軍을 衝擊하여 一大混戰을 벌이고 左右軍이 壓縮攻擊을 強行하니 敵은 頭尾를 가릴 수 없어 一大混亂에 빠져 阿鼻叫喚의 生地獄을 이루어

모두 槍과 칼을 버리고 逃亡하니 大勢가 이미 기울어져 收拾할 수가 없게 되었다. 胡拔都는 하는 수 없어 手下 5,6명의 騎兵을 거느리고 쏜살같이 北으로 逃亡하니 모든 敵兵이 總帥가 逃亡가는 것을 보고 戰意를 喪失하며 全部 살길을 찾아 北으로 逃亡가고 미처 가지 못하는 敵兵은 高麗軍의 칼 아래 孤魂이 되니 屍體가 山같이 쌓였다.

## 11. 遼東使 膺懲

禡王 9年(1383) 7월에 大明遼東都司라는 깃발을 날리며 惠山の 鴨綠江을 건너 南下하여 白馬山 西麓 女眞部落에 當到한 把把山은 문밖에서 쌓인 눈성을 뛰어 넘어 밭길로 大門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女眞사람을 動員하여 白馬山 넘어 朝鮮人 部落의 事情을 탐지하고 그 翌日에 朝鮮人 部落을 侵攻하였다.

이 때에 高麗의 北青州 守備將 金得慶은 敗한 척 敵으로 하여금 慢心케하고, 敵이 술에 만취되어 잠든 틈을 타서 이를 一擊에 陷沒시켰다.

이 때에 明나라는 高麗가 元나라와 親하고 新興하여 中原을 차지한 大明帝國을 소홀히 한다고 갖은 壓力과 트집을 부리던中 이번 把把山事件은 도리어 高麗가 大明에 對하여 敵對行爲를 하였다고 程與라는 問責使를 보내 왔다.

이 때에 青海伯은 高麗의 禮儀判書로 있었다. 그러므로 部下 官員을 引率하고 北郊에 나가 遼東都司의 問責使 程與를 迎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遼東都司 問責使 程與는 위인이 驕慢放恣하여 鴨綠江을 건너면서 부터 殺氣騰騰하여 途中에서 迎接하는 高麗의 地方官長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辱說을 마구 퍼부으며 채찍으로 마구 치면서 걸



을 재촉하여 開京으로 달리고 있었으나 그의 任務과 目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高麗 朝廷에서는 하도 트집을 잡은 明나라인지라 多方面으로 程與의 오는 目的을 檢討하였다. 必然코 白把把山이 北靑州에 侵入하였다가 敗亡한 것에 對한 生트집도 豫想에 두었다. 이 白把把山の 敗亡은 侵入者를 擊退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도리어 남을 侵攻한 者가 侵攻을 當한 者에게 是非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설마 그런 일은 아닐 것이라는 希望을 걸고 沿途의 官員에게 程與의 오는 目的을 內探하랴 하였으나 모두 허탕이고 다만 程與의 態度가 險惡하다는 報告 뿐이라 朝廷大臣은 唐愼하기만 하였다.

北郊에 迎接使로 나가 程與를 기다리는 靑海伯은 북녘 하늘을 注視하며 程與의 오는 目的에 對하여 궁리하기를 이 사나이는 거센 政治마음을 물고 오는 것에 틀림이 없는데 貨物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號令할 수도 있고 젊은 美人들을 要求하러 올 수도 있고 北靑州의 敗戰한 분풀이로 生트집도 할 수 있는 程與의 그 厚顏無恥한 中國人의 모습을 그리며 있었다.

遼東都司의 靑旗가 바람에 나부끼며 산모퉁이에 一隊의 人馬가 나타나자 靑海伯은 堵列한 官員의 隊伍를 整齊하고 다시 북녘을 바라보니 靑旗를 받쳐든 騎兵의 左右에는 마중나간 儀仗府兵士들이 護衛하고 그 뒤에 程與를 先頭로 明나라 兵士 百餘騎, 또 그 뒤에는 儀仗府兵士 30餘騎가 따르고 있었다.

靑海伯은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알맞은 距離에 當到하기를 기다렸다. 程與 一行은 마침내 그들 앞에 當到하여 行列을 멈추었다 靑海伯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鄭重히 掛하고 通譯官의 通譯으로 人事하였다. “禮儀判書 李豆蘭입니다. 遠路에 수고하셨습니다.”



馬上의 程與는 青海伯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나서 호통치기를 “당신들 임금의 처소에 안내하오.” 青海伯은 侍中 林堅昧의 指示대로 오늘은 賓館에 모셔 놓고 그의 속을 떠볼 작정으로 “遠路에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터인데 오늘은 賓館에서 편히 쉬시고 來日 외웁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즉 程與는 “피곤하지 않소” 青海伯은 다시 “곧 해가 떨어질 터인데 내일로 하시지요.” 하였더니 程與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왜 그리 말이 많소. 시키는대로 해요.”

青海伯은 鄭重히 달레기를 “상감께서는 오늘 末寧하시다는 기별이 있으니 來日로 미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程與는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青海伯의 어깨를 내리치며 “잔소리 마라” 하였다. 青海伯은 이를 악물고 程與를 쳐다보았다. 독수리같이 매서운 눈으로, 程與는 불안간 채찍을 날려 青海伯의 얼굴을 후려치며 “나를 가로막을 셈이나” 하고 외쳤다.

青海伯은 두 주먹을 쥐었다가 그대로 놓으면서 侍中 林堅昧의 끝까지 온근정중하라는 付託이 없었던들 이 표독한 사나이의 모가지들 비틀어 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에서 타는 울분을 진정하며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읊하고 “죄송합니다. 곧 案內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程與를 朝廷으로 案內하였다.

高麗 禰王 앞에 비티고 선 程與는 眼下無人의 태도로 주먹을 휘두르며 “國王은 무슨 緣故로 지난 설달 貴國 北青州에 進駐한 明天子의 軍隊를 擊殺하였소” 하고 외쳤다. 禰王은 譯官의 通譯이 끝나자 大臣들이 귀뜸해 준대로 “그건 나는 全然 모르는 일이요” 하고 對答하였다. 程與는 화를 버럭 내며 “北青州에서 大明國軍士가 擊殺당한 事實을 모른단 말이요?” 하고 샅대질을 하였다. 禰王은 “나는 이 時刻까지 全然 알지 못했소. 事實이라면 이렇게

황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소”라고 침착한 태도로 對答하니 程與는 점점 더 화를 내고 발을 구르며 國王을 노려보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라고 大關이 떠나가도록 호통하니 國王은 死色이 되어 “정말 몰랐소” 하고 對答하니 程與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大臣들을 향하여 “當身들도 몰랐소” 하고 詰問하였다.

이 때에 너무 갑작스럽게 程與가 入闕하였기 때문에 侍立한 大臣은 侍中 林堅昧・廉興邦 外에는 높은 大臣들은 없었다. 林堅昧는 “그런 風聞이 있기에 지금 調査中입니다” 하고 微笑 면 얼굴로 泰然하면서 조용히 對答하였다. 程與는 林堅昧를 보고 불명스런 語調로 “當身은 누구요” 林堅昧는 “네 侍中 林堅昧을시다” 하고 對答한즉 程與는 詰問調로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調査中이라니 그것도 말이라구 하는 것이요” 하며 肉薄하였다.

林堅昧는 恐懼하는 態度를 伴作하면서 “未安합니다. 元來 北靑州가 僻地인 데다가 現地 官員들이 게을리서……速히 處理하지요.” 程與가 “어떻게 處理하겠소?” 林堅昧가 “眞狀을 알기 前에는 무어라 對答하기 困難합니다.” 程與 화를 내며 “그따위 핑계가 어딴소. 天子의 軍隊를 擊殺하고도 無事할 줄 알았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소. 北靑州 上萬戶 金得慶이란 놈을 당장 이리 내봐요?” 하며 詰責하였다.

窮地에 몰린 林堅昧는 손을 비비며 “調査해서 事實이라면 法에 依하여 措置하겠소” 한즉 程與는 발을 굴르며 “누가 當身더러 措置하겠소, 京師에 押送해야겠소” 林堅昧가 “좀 생각할 餘裕를 주시요”하니 程與는 빈정대는 語調로 “생각해야 알겠요?” 하며 國王 앞으로 다가서며 怒한 눈으로 國王을 노려보며 “國王도 생각해야 알겠소. 우리 大明國의 軍隊를 막아낼 자신이 있소? 생각하든지 明나라 軍隊와 싸우든지 兩者擇一하십시오” 하고 립박하니

王은 顔色이 蒼白하여지며 顛倒했다.

林堅昧가 두 손을 마주잡고 程與의 앞으로 다가서며 “金得慶을 잡아 올리지요.” 한즉 程與는 勝者의 오만한 태도를 하며 羈王에게 “國王의 結末을 直接 들어야겠소 金得慶이란 놈을 잡아 오겠소, 못오겠소” 하니 羈王은 힘없는 소리로 “金得慶을 잡아 오지요.” 程與가 “언제 잡아 오겠소?” 하니 羈王은 “來日 잡아 오지요” 程與가 놀라서 반문하기를 “來日?” 이에 놀란 林堅昧는 당황한 나머지 王과 程與의 問答에 끼어들어 말하기를 “아니 올리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朝廷에서는 全然 모르는 일이라 상감께서는 前後 事情에 어두우십니다. 北靑州까지 往復 10日은 보아야 합니다.” 하였더니 程與는 태도를 좀 부드럽게 하며 “좋소, 10日 後에 金得慶이란 놈을 내 앞에 불러오지 않으면 그 때는 용서없소”라고 하니 林堅昧는 허리를 굽히며 “명세합니다” 하고 確約을 한즉 程與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 성난 얼굴로 退闕하였다.

며칠 후 金得慶은 北靑州로부터 召喚되어 程與의 立會下에 司憲部 마당에서 侍中 林堅昧의 국문이 시작되었다. “네 이놈 어찌하여 함부로 上國의 軍隊에 對抗하고 이를 擊殺하는 無道한 짓을 恣行하였느냐?” 金得慶은 林堅昧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林堅昧는 金得慶에게 “왜 對答을 못하느냐?” 하며 督促하니 양 팔을 뒤로 묶여 꿇어앉은 金得慶은 육중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周圍를 둘러보고 나서 “自己 國土에 쳐들어온 外國 軍隊를 쳐부순 것이 罪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하고 反問한즉, 林堅昧는 말이 막혀 對答을 못하였다. 金得慶은 또 계속하여 攻勢를 펴부었다. “머구나 朝廷에서 中國놈들이 쳐들어올 기

미가 보이니 防備를 단단히 하고 기다릴 것이며 쳐들어오면 死力을 다해 擊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林堅昧는 北靑州로 金得慶을 잡으러 간 사람에게도 일렀고 途中에 사람을 보내서 金得慶에게 “自己 單獨으로 한 일이라”고 對答만 하면 뒷일은 잘 처리해 주겠다고 미리 內通하였건만 金得慶의 對答은 事實을 指摘하여 도리어 侍中 林堅昧를 攻擊하였다.

程與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林堅昧는 분을 참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발을 굴르며 “네 이놈 朝廷의 御命까지 造作하려 드느냐? 이 불충막실한 놈아” 하고 꾸짖으니 金得慶은 입가에 벌시에 찬 미소를 띄고 林堅昧를 쳐다보며 “侍中 大監 고정하시요, 그 指示는 바로 大監이 내리실 것이 아닙니까?” 하니 林堅昧가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나” 한즉 金得慶이 “그 당시의 公文을 보여 드릴까요?” 하니 林堅昧는 당황하여 程與의 눈치를 살피며 “이놈아 잔소리 말고 以實直告하였다.” 한다. 金得慶은 悠然한 태도로 林堅昧를 嘲笑하는 투로 “公文을 보여 드릴까요?” 하니 林堅昧는 “저놈이 미쳤구나. 公文이 무슨 公文이나, 以實直告하였다” 하고 金得慶은 “人生이 可憐해서 公文은 접어 두지요, 혼자 오래 오래 사시요.” 한다 林堅昧는 “저런 죽일놈 같으니 라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程與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그 公文 이리 내봐” 하니 金得慶은 앉은 姿勢로 上半身을 돌려 程與를 흘겨보면서 “네게 보일 公文은 없다” 하니 程與는 분을 참지 못하여 몸을 떨면서 “이 놈이 어느 앞이라구 함부로 응 이노一口” 라고 소리를 질렀다. 金得慶은 泰然한 姿勢로 “程與 주책없이 떠들지 말구 네 나라로 썩 물러가라” 하고 응수하니 立場이 難處



하어진 林堅昧는 “이놈,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느냐” 하며 질질이 뛰었다.

金得慶은 林堅昧를 쳐다보며 “侍中大監 百姓의 運命을 한 손에 전 양반이 잔재주가 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訓戒式으로 말하니 林堅昧는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느냐” 한다 金得慶이 “내 입은 머지 않아 다물집니다. 侍中大監 그 전에 한 마더만 해부지요. 어디 이 데서야 쓰겠습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하외다.” 하니 林堅昧는 분을 참지 못하여 나장에게 “저 늙을 매우 처라” 하고 명령한다. 左右에 있던 두 놈의 나줄이 마구 치니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 배질하는 군졸도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고 호르는 피가 땅에 고이고 곤장에는 피와 살이 한데 엉켜 그 처참한 형상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金得慶은 신음소리 한 마더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죽 늘어져 혼수상태로 실신하였다.

林堅昧는 모든 罪를 金得慶에게 뒤집어 씌워 程與에게 引繼하고 程與는 金得慶을 引受하고 開京을 떠났다. 이 때에 金得慶은 四肢를 묶고 자루에 뒤어 말잔등에 밧줄로 단단히 묶고 中國 騎兵이 兩側에서 押送하고 있었다.

이 行列을 전송나온 青海伯은 東大門을 거쳐 北郊를 向하면서 그의 결을 떠나지 않았다. 青海伯은 정든 땅 北靑州에서 사귄 親舊로서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세상을 한탄하던 이 친구의 不幸을 救하여 주지 못하는 自身의 無力함을 한탄하며 가슴 속으로 통곡하며 따랐다.

이를 지켜보던 程與는 青海伯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北郊 못미처서 部隊의 停止를 命令하고 青海伯의 앞을 막아서며 체적으로 샅대질을 하며 “當身은 무엇 때문에 나왔소?” 한즉 青海伯은 外面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程與는 화를 내며 “내 말이 들리



지 않소?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말이오?” 하고 다구쳐 물었다. 青海伯은 “大人을 餞送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對答하니 程與는 “得慶이란 놈을 餞送하러 나왔다고 왜 못하오?” 한다 青海伯은 “그 것도 있지요.”라고 對答하였다.

이에 화가 난 程與는 채찍을 들어 青海伯의 어깨를 내리치며 “꼭같은 돼지새끼들이로구나” 하니 青海伯은 또 다시 내리치는 程與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채찍을 뺏아들고 程與를 꾸짖어 말하기를 “問責使의 體統이 이래서야 되겠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中國 兵丁들이 程與의 뒤에 몰려들자 호송나온 高麗의 兵丁들도 青海伯의 左右에 몰려 와서 서로 대치하니 程與는 威勢를 부려 큰 소리로 “遼東都司의 問責使는 곧 明나라 天子의 使臣이거늘 이 無知蒙昧한 놈들이 어디라고 날뛰느냐” 호통하니 青海伯은 분을 참으며 “程大人 생트집은 그만두는게 좋겠소.” 하니 程與는 “너도 得慶의 무리로구나” 青海伯은 “다시 말하거나 생트집은 그만두세요.” 程與가 “너도 끌려가서 오찰을 당하고 싶으냐?” 하자 青海伯은 “그렇게는 안 될 것이요” 하면서 팔자루를 잡으면서 程與를 노려보았다.

窮地에 몰린 程與는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냐” 한즉 青海伯은 “생각하여 본 일이 없으니 모르겠소.” 하니 程與는 “너도 물어 갈테다” 한다. 青海伯이 “程大人, 나도 遼東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 고장 事情을 약간 알고 있소. 생트집이 통할 줄 아시오?” 하고 正色하며 程與를 노려보니 이 때에 金得慶의 억울함에 분을 참지 못하던 高麗 軍士들도 제각기 臨戰態勢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니 그 空氣가甚히 險惡하여 一觸即發의 危機에 處하였다.

이제까지 호통한 마디면 高麗朝廷이 켤켤매며 통하지 않던 것이 있었던 程與는, 意外로 青海伯의 威風이 늠름하며 그 당당한

이론에 접을 먹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며 작은 목소리로 “그럼 내가 오해했던가 보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번 來往에는 수고 많았소. 遼東에 돌아가면 경사에도 大人의 수고를 아뢰도록 하겠소. 길이 바쁘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합시다” 하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青海伯은 程與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의 나라에 外國軍隊가 쳐들어와서 掠奪・殺人을 하면 當身은 어떻게 하겠소?” 하니 程與는 對答을 하지 못하니 青海伯은 “쳐부수겠지요?” 하고 그의 對答을 誘導하였다. 程與는 “그야 더 물을게 있소?” 하고 應對하였다. 青海伯은 “金得慶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요, 強弱이 不同해서 罪人으로 끌려갈망정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法도 있소?” 하니 程與는 “天朝에 罪를 지었으니 할 수 없소”라고 잘라 말했다.

이 때에 자루 속에 묶여 있던 金得慶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통장군, 통장군. 그러지 마시오. 내 所願이요. 나를 송장이라 생각하고 버려 두오. 이번에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하려구 했는데? 통장군 부디 잘 있소.” 목이 메어 말을 잘 잊지 못하고, 青海伯의 두 눈에는 눈물이 서렸다.

이 기회를 포착한 程與는 “자 그럼 나는 가 봐야겠소” 하고 떠나려 하였다. 青海伯은 和한 얼굴로 程與를 向하여 掛하며 “問責使께서는 途中 平安하시기를 빕니다” 하니 程與는 “고맙소” 하며 말에 채찍을 가하여 北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북으로 사라져 가는 죽음의 사자, 개처럼 끌려가는 親友의 뒷 모습을 지켜보며 青海伯은 소리없이 울었다.

## 12. 威州 凱旋

荒山大捷 以後 간간이 倭寇들이 西海와 南海에 出沒하였으나 別

로 利益을 보지 못하고 번번이 犧牲이 크므로 倭寇의 侵犯이 없었던 東北面쪽으로 大學侵掠을 斷行하기 위하여 禰王 11年(1385) 9월에 倭船 150隻을 몰아 咸鏡道 沿岸地帶에 侵入하여 그들의 横行 그대로 殺人・放火・掠奪을 恣行하였다.

이 때에 元帥 費成事 沈德符, 知密直 洪徽, 密直副使 安柱, 靑州 上萬戶 黃希碩, 大護軍 鄭承可 등이 大門嶺 北쪽에서 倭敵과 싸웠으나 元帥 沈德符는 다리에 槍을 맞아 重傷을 입고 모두 敗退 돌아왔다.

이에 李太祖는 自願하여 東北面 都元帥가 되어 靑海伯으로 하여금 先鋒將을 삼고 女眞 軍人을 파합, 北進하여 咸州에 이르러 倭寇가 集結하여 있는 兎兒洞(咸興 北쪽 高遷社) 동네 양쪽에 討伐軍을 埋伏시켰었다.

이때 倭敵은 兎兒洞 東西 양쪽 산을 모두 占據하고 있어 有利한 立場에 있으며 李太祖는 上護軍 靑海伯, 散員 高呂, 判衛尉寺事 趙英珪, 安宗儉・韓那海・金天・崔景・李玄景・河石柱・李榮・金世・韓思友・李都景 등에게 各各 百餘騎를 거느리고 서서히 두 산 사이를 通過하였다.

李太祖는 作戰計劃대로 陣의 位置가 整頓되자 靑海伯과 高呂・趙英珪에게 敵兵을 誘引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한 후에 伏兵이 一時에 일어나 敵兵을 前後에서 挾攻하니 敵兵은 頭尾를 서로 돌보지 못하고 軍中이 混亂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우리 나라 군사에게 모두 죽음을 당하고 一部가 千佛山으로 逃亡했으나 나중에 全部 生捕되어 이 倭寇의 亂은 平定되었다.

李太祖는 트끼골 이귀 中坪에 緒列한 戰鬪部隊를 閱兵하고 上元帥 沈德符에게 命令하였다. “모든 將兵에게 술이나 한 잔씩 주어 勝戰을 祝賀하도록 하오” 그리고 다시 “戰後에 軍紀 國東에

특히 留意하오” 하고 指示한 후 青海伯과 마주앉아 對酌하였다.

李太祖는 追憶의 땅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떠난다 생각하니 다시 서운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술이 무어 巡盞 돌아가니 自然 醉氣가 생겨 더욱 感懷가 잔절하여졌다. “李豆蘭將軍, 來日은 떠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咸州에 다시 올 일이 있을 것 같소.” “글세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기는 그렇소” “將軍, 지난 일은 다 잊으시요.” “여기 오니 自然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되살아나는군요” “서울 가면 自然 잊으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하면서 지화의 밝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青海伯은 다시 술잔을 李太祖에게 勸하면서 진지한 態度로 “將軍, 이번에 開京으로 凱旋하면 더욱 몸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李太祖는 의아한 態度로 “왜?” 한다. “功에 붙어다니는 것이 謀陷이 아닙니까?” “들은 말이요” “將軍에 對한 稱頌이 자자하합니다.” 李太祖는 얼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 무슨 말이오?” “林堅昧・廉興邦 大監 께에서 말입니다.” 李太祖는 이에 稱頌이라는 말 뜻을 알아 들었다.

青海伯은 한참 있다가 다시 술을 勸하며 “將軍, 防禦도 勿論 重要하지마는 攻擊을 前提로 하지 않은 防禦는 成功하지 못합니다.” “옳은 말이오. 앞으로 銘心하리다” 하고 그 다음날 回軍하여 開京으로 돌아왔다.

이번 싸움에 女眞人의 도움이 큰 役割을 하였고 凱旋하여 돌아온 李太祖에게는 定遠十字功臣, 青海伯에게는 宣力佐命功臣에 密直副使(從二品)를 封하였다.

註: 이번 對話가 後日 李仁任의 謀陷을 피하게 되었다.



### 三. 朝鮮朝 創建

#### 1. 威化島 回軍

恭愍王 17年(1368) 元나라가 中原에서 쫓겨나고 朱元璋이 明나라를 建國하자 恭愍王은 反元親明政策을 써서 恭愍王 19年(1370) 7월부터 明나라 年號 洪武를 使用하고 元나라의 東寧府를 치고 遼東을 征伐하는 등 親元勢力을 몰아내는 데 힘을 다하였으나 東寧府와 遼東을 確保하지 못하여 마침내 明나라의 領土가 되고 말았다.

恭愍王이 죽고 禑王이 卽位하자 다시 親元派의 勢力이 據頭하여 高麗의 政治는 親元 親明 두 派로 갈리어 얼치락 뒤치락 하다가 禑王 3年 2月에는 親元派가 勝利하여 다시 北元의 宣光 年號를 使用하다가 그 다음해인 禑王 4年 6月에 親明派가 다시 得勢하여 明나라 年號 洪武를 使用하였다.

高麗는 北元과 明나라 두 勢力 틈에 끼어서 몹시 괴로운 立場에 處하여 갈팡질팡하며 그때 그때의 형편대로 大義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目前의 利害에만 얽매어 朝令暮改式의 對外政策이 統一되지 못하고 親元 親明 두 派로 分裂되어 明나라에도 疑心을 받고 또 北元에도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양국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두 派의 勢力은 서로 물고 뜯어 급기야는 相對方을 해치는 方法이 國際적으로 變하였다.

明나라 使臣 林密·蔡斌 들의 護送責任將帥인 高麗 金義라는 者가 明使護送 途中 鳳凰城에 이르러 蔡斌의 父子를 죽이고 林密을

北元의 장수 納哈出에게 引繼하여 高麗와 明나라의 사이를 分裂케 하였으며 또한 流言蜚語를 퍼뜨려 明나라에서 장차 처녀와 秀才 宦者(내시)를 各 千名과 牛·馬 各 4千匹을 바치라고 할 것이라 하여 朝廷大臣은 勿論 一般百姓까지도 분개하고 흥분케하여 反明의 氣運을 煽動하던 차에 明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使臣 僕長壽의 復命에 의하면 “明太祖가 口宜하기를 鐵嶺以北은 元來 元나라 領土 이었으므로 이것을 遼東에 歸屬시키겠다”고 하였다.

이 鐵嶺以北 즉 咸鏡道는 元來 高麗땅이었던 것을 元나라가 強制로 侵犯한 것으로서 青海伯이 高麗에 베풀하면서 부터 鐵嶺以北이 完全히 高麗領土로 收復된 것을 明나라에서 元나라의 것은 全部 明나라에 歸屬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으로 紛爭의 原因이 된 것이다.

禡王14年(1388) 2월에 明太祖는 鐵嶺以北을 遼東에 屬한다는 詔書를 高麗에 보내오고 그 다음달 3월에 使臣을 보내어 鐵嶺衛의 設置를 通告하여 옴으로 高麗에서는 禡王과 崔瑩 및 親元派의 主動으로 攻遼論이 擡頭되어 禡王은 西京에 行幸하여 全國에 勅令을 宣布하고 崔瑩을 八道都統使〈總司令官〉 李太祖를 右軍都統使, 曹敏修를 左軍都統使로 封하고 全軍10萬을 거느리고 出征하랴 命令하였다.

李太祖는 禡王에게 이번 舉事가 네 가지 不當한 理由를 들어 中止할 것을 建議하였으니 그 理由는 ①以小逆大, 高麗같이 작은 나라로 明나라같이 強大한 나라를 相對하여 싸울 수 없다. ②夏月 發兵, 더운 夏節에 軍事出動은 不利하고 苦生이 많다. ③舉國遠征 倭乘其虛, 全國力을 다하여 遠征을 하면 倭寇가 그 虛함을 타서 侵犯할 것이다. ④時方暑雨 弩弓解膠 大軍疾療, 때가 마침 더운 장마철이라 활의 아교풀이 녹아 활이 못쓰게 될 뿐아니라 또

한 軍隊의 疾病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後世에서 四不可論이라 한다.

禰王은 李太祖의 諫言을 듣고 그 理由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를 中止할 뜻을 侍中 崔瑩에게 問議한즉 崔瑩은 四不可論은 親明派의 잔폐라고 非難하면서 가만히 王에게 속삭이기를 “李成桂와 그의 一黨 李豆蘭, 李成桂의 아들 芳遠 등이 모두 人物이 凡常치 아니하고 또 항간에 木子得國이라는 童謠가 流行하고 있어 後日 무슨 變故가 있을 지 알 수 없는 人物이오니 此際에 明나라를 처요령히 이기면 國土가 擴張될 것이고 萬若에 敗하면 이번 일은 모두 李成桂가 한 일이라하고 李成桂를 잡아 明나라에 보내고 謝過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一舉兩得이니 強行하여야 합니다”하였다. 一定한 主見이 없고 平時李太祖를 무서워하던 禰王은 崔瑩의 甘言利說을 믿고 李太祖에게 出兵을 強要하였다.

일이 이 地境에 이르니 李太祖는 하는 수 없이 4月 18日에 軍隊를 引率하고 平壤을 떠나 攻遼의 길에 올라 4月 20日에 義州에 到着하여 4月이 다 가도록 움직이지 아니하니 崔瑩의 督促은 성과 같았다. 이 성과 같은 督促에 못이겨 苦悶하던 李太祖는 青海伯을 自己 幕舍로 불렀다. 青海伯은 攻遼政策을 反對하는 將帥로서 出兵 當時부터 李太祖에게 그 不可함을 主張하여 온 사람이며 또한 모든 戰略을 青海伯과 議論하여 決定하던中 進退兩難에 處하게 된 李太祖는 青海伯에게 “李豆蘭將軍은 이 형세를 어떻게 생각하오”하고 물은즉 青海伯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서 신중히 대답하였다. “이번 일의 成敗는 侍中大監이 오고 아니오는 데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李太祖는 “侍中大監은 못 올 것이니 못 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한다. 青海伯은 이의 對答을 망설였다.

李太祖는 正色하며 말하기를 “李豆蘭將軍, 이것은 國家의 運命을 左右하는 일시오, 所信대로 말해 보시요” 青海伯은 “아니될 일은 그만둬야지요”하고 조용한 태도로 對答하니 李太祖는 “옳소 문제는 어떻게 그만 두느냐 하는 方策이 문제요” 青海伯 “그것은 自明하지 않습니까 朝廷에 稟申하여 御命으로 出征을 中止하든지 不然이면 出征軍 自體가 團合하여 回軍하든지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하니 李太祖는 “侍中大監은 한번 決心한 일을 途中에서 굽힐 人物이 아니지”하며 긴 한숨을 쉬고 “이 이상 義州에 머물수도 없게 되었소, 벌써 16日이 지났소, 進軍하지 않으면 軍律로 다스리겠다는 嚴命이 왔소”

青海伯이 “曹統使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한즉 李太祖가 “曹統使는 單純한 軍人이 아니오? 命令대로 來日 當場 進軍하자는 거지요” 한다. 青海伯이 “將軍, 우선 威化島에 건너가 놓고 다시 對策을 講究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고, 계속하여 “團合은 隔離된 環境에서 쉽게 이루어집니다”하고 또 “또” 하면서 李太祖의 態度를 注視하면서 계속하여 “隔離된 環境下에서는 將軍의 意思를 全軍의 意思로 轉換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曹都統은 好人이시니까요”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李太祖는 青海伯의 獻策을 注意깊게 傾聽하고 “알겠소 그런 前提下에서 萬事 慎重히 檢討하고 必要한 準備를 進行하시오.”하고 斷을 내리었다. 青海伯은 “네”하고 일어서서 걸어서 문간까지 갔다가 다시 천천히 되돌아서 李太祖 앞으로 다가와서 “장군”하면서 李太祖를 注視하니 李太祖는 굳은 태도로 마주 쳐다보았다. 青海伯은 “열려마시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준비를 진행중입니다”라고 음성은 낮으나 힘주어 말하고 다시 돌아서서 나갔다.



5月 7日 비가 맞고 날씨가 개었다. 左右都統使는 軍隊를 둘로 나누어 漕轉使 崔有慶의 先導로 천천히 鴨綠江에 浮橋를 놓고 江中섬 威化島에 上陸하여屯치기 始作하였다. 이 때에 鴨綠江 물은 매마침 장마로 물이 많이 늘어 渡江하던 軍卒 數百名의 溺死者를 내어 軍中の 怨聲이 자자하였다.

이 때의 軍隊의 編成을 보면 總指揮官은 八道都統使에 崔瑩, 左軍都統使에 曹敏修(昌城府院君)를 任命하고, 그 隸下로 沈德符 以下 12元帥를 配置하였다. 右軍都統使에 李太祖를 任命하고 青海伯·鄭地 등 16名의 元帥를 配置하고, 左右軍 모두 三萬八千八百三十名 兼屬이 一萬一千六百三十四名 말이 二萬一千六百八十二匹로서 十萬大軍이라 稱하였다.

禑王은 攻遼를 宣布함과 아울러 國民과 軍隊에게 다시 胡服을 입으라 命令하였다. 이 얼마나 비굴한 事大主義 思想이며 高麗朝의 政治混亂이 絶頂에達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威化島에 駐屯한 高麗軍은 甚한 장마에 막혀 더 進軍하지 못하고 再三 遼東征伐을 中止할 것을 禑王에게 建議하였으나 번번이 却下하고 도리어 速히 進軍하여 遼東을 攻擊하라는 督促이 성화 같았다. 모든 군사는 장마에 시달리고 또 名分없는 戰爭을 싫어하여 禑王과 崔瑩을 몹시 怨望하며 回軍하여 故國으로 돌아가기를 熱望하였다.

禑王과 崔瑩의 督促에 못이겨 遼東으로 進軍하고자 한즉 暴雨가 쏟아져 進軍할 수 없고 이를 中止한다 하면 日氣가 晴明하여 지는지라 모든 軍人은 逆天을 하느님이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因口傳播하여 軍心이 몹시 흉흉하였다.

青海伯은 이번 舉事는 逆天이라고 出兵 當時부터 李太祖에게 그 不可함을 主張하여 온 사람이라 回軍할 수 있는 機會를 기다리고

있던 중 軍心이 흉흉함을 보고 機會到來라 하고 軍中에서 가만히 “李都統使는 右軍을 거느리고 곧 東北面 自己 故鄕으로 돌아간다”는 流言을 퍼뜨렸다.

이 所聞을 들은 左軍都統使 曹敏秀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급히 말을 타고 右軍陣營으로 李太祖를 찾아와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公이 혼자서 東北面으로 가시면 나와 남은 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며 “公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우리 다 같이 行動하자”하였다.

李太祖는 曹都統使의 손을 잡고 서로 行動을 같이 하기로 굳게 約束하고 回軍할 뜻을 밝히고 모든 將帥를 모아놓고 “이번에 明나라를 攻擊하는 것은 上國의 天子에게 罪를 지는 것으로 宗廟와 社稷 그리고 百姓들까지 그 罪의 禍를 當할 것이므로 王에게 數次 逆天之舉를 하지 말자고 上書하였으나 國王이 昏迷하고 또 옆에 崔瑩이 노망한 말로 이를 強行케 하니 이를 그대로 放任할 수 없으니 나와 그대들이 다같이 王의 앞에 나가 옆에 있는 노망한 무리를 제거하여 十萬大軍의 生命을 保全하고 모든 百姓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즉 諸將이 모두 춤을 추며 이에 贊成하므로 즉시 回軍할 것을 決定하고 諸軍 元帥들은 散會하였다.

이 때에 青海伯은 全軍의 漕轉元帥로서 全軍을 安全하게 渡江回軍시킬 莫重한 責任이 있었다. 그리하여 回軍의 決議가 끝나자 即時 漕轉使 崔有慶을 自己 幕舍에 불러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너 죽고 싶으냐? 살고 싶으냐?”하니 崔有慶은 놀라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면서 “장군님 별안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한다. 青海伯은 벌벌 떨고있는 崔有慶에게 “너의 職責이 漕轉使지”하고 또 다짐을 하였다. 崔有慶은 “네 틀림없습니다”라고 對答하였다.

青海伯은 崔有慶을 한참 注視하다가 입을 열어 “오늘 저녁부터

回軍한다”하니 崔有慶은 의아한 눈으로 青海伯을 注視하면서 “네?”하고 反問條로 對答하니 青海伯은 “鴨綠江을 건너 開京으로 돌아간단 말이다. 이 渡河作戰에 誠意를 다해서 便宜를 보겠느냐 못하겠느냐?”하고 號令하니 崔有慶은 어안이 빙빙하여 미처 對答을 못하였다.

青海伯은 큰 소리로 “못하겠느냐?”하고 호통하니 崔有慶은 겁이 나서 “아, 아니 을시다. 든 소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군요”하고 反問하니 青海伯은 正色하고 “事實이다. 배와 떼를 總動員해서 協力함은 勿論 浮橋에 손을 대는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하였다. 崔有慶은 “네”하고 對答하니 青海伯은 “對答이 神通치 못하구나 시키는대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하고 다시니 崔有慶은 허리를 굽히며 “네, 하겠읍니다”하고 물러가려하니 青海伯은 “아직 얘기가 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너 職責上 毎日 朝廷에 軍事動態를 報告하기로 돼 있지”하니 崔有慶은 겁에 질려 허리를 구부리며 두손을 마주 잡고 “네”하고 對答하였다. 青海伯은 崔有慶에게 “回軍하는 先鋒이 安州에 닿을 때까지 回軍 事實을 단 한마디라도 朝廷에 報告하면 斬刑에 處한다. 알겠느냐”하니 崔有慶은 “네 네 잠자코 있겠읍니다. 安州에 到着한 以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 青海伯은 점두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하고 즉시全軍의 渡江準備를 命令하였다. 崔有慶은 비를 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威化島의 高麗軍 5萬餘名은 死地에서 살을 찾은 기쁨에 生氣가 넘쳐 不過 數刻에 出動準備가 完了되어 青海伯의 督促을 받은 右軍都統使 李太祖는 諸元帥를 거느리고 堵列한 軍卒 앞에 白馬를 타고 查列을 끝내고 이번 回軍의 理由를 다음과 같이 公式 宣言하였다.

“우리가 明나라 國境을 侵犯하면 國家와 國民에게 큰 화단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世上이 다 아는 일ियो. 나는 左軍都統使 大監과 더불어 逆順의 事理를 다하여 朝廷에 글을 올려 군을 철수할 것을 要請하였건만 主上殿下께서는 살피심이 없고 侍中 兼 八道都統使의 重責에 있는 老妄한 崔瑩은 들어 주지 않았소. 나는 모든 諸將 軍卒과 같이 直接 御前에 나가 禍福의 道理를 아뢰고 임금님 側近에 있는 惡한 무리를 除去하여 塗炭에 빠진 數千萬의 生靈을 平安케 하고자 하오. 모든 군인은 일사불란의 질서하에 行動할 것이며 특히 途中에서 御駕를 비우는 경우 秋毫라도 소홀함이 있는 자는 大逆으로 다스릴 것이요. 百姓에게 危害를 加하거나 財物을 犯하는 者는 嚴罰에 處할 것이니 麾下將兵들은 그릇됨이 없도록 하기 바라오” 하였다.

李太祖의 宣言이 끝나자 安州 都元帥 鄭地가 한걸음 앞으로 나와 答辭하였다. “都統使 大監 生等 全軍指揮官一同은 回軍의 大義를 받들고 軍紀를 嚴守하여 毫末의 그릇됨이 없기를 이에 盟誓합니다. 東方 高麗의 運命은 이 舉事에 달려 있으며 都統使大監의 무 어깨에 달려 있으니 都統使께서도 自愛自重하사 國家를 磐石에 올려 놓는데 盡忠竭力하시기 바랍니다. 生等은 命令에 水火를 不辭할 것을 盟誓합니다”라고 答하였다.

李太祖는 全軍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마침내 칼을 빼어 높이 쳐들어 進軍命令을 내렸다. 이에 맞추어 進軍의 나팔소리가 威化島에 울려 퍼져 夕陽의 햇빛을 받으며 鴨綠江을 渡江하는 軍馬로 들끓었다. 兵士는 浮橋로 건너고 軍糧과 軍需品은 배와 뗏목에 의하여 渡江하였다.

李太祖는 青海伯과 諸將의 督促을 받고 回軍을 斷行함에 白馬를 타고 붉은 활과 흰 깃털로 만든 화살을 메고 鴨綠江邊에 우뚝



서서 모든 將卒이 다 건너오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군사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군사를 사랑하는 장수에게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다”하였다.

軍士들이 鴨綠江을 건너 때에는 강물이 別로 불어나지 않았는데 後軍이 막 다 건너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威化島가 물속에 묻혀 버리었다. 이 光景을 본 군사들은 “이는 하늘의 뜻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망할 것이다”하고 “李都統使는 하늘이 내신 분이랴”하며 온갖 忠誠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李太祖는 鴨綠江을 건너 回軍하여 全軍隊를 이끌고 서서히 南進하고 있었다. 漕轉使 崔有慶이 禡王에게 달려가 李太祖가 任意로 回軍하였다는 消息을 報告하였다. 이 때에 芳雨(鎭安大君)와 芳果(定宗) 青海伯의 長子 和尚(樞密公)이 禡王 處所에 있다가 이 消息을 듣고 밤중에 逃亡하여 回軍하는 青海伯과 李太祖 앞에 이르니 李太祖는 기뻐하며 “이는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 하였고 後世에서 이를 威化島回軍이라 稱하고 있다.

## 2. 廢假 立眞

李太祖와 青海伯은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서서히 開京을 向하여 南進하고 있는 消息을 報告받은 禡王과 崔瑩은 놀라고 다급하여 成州溫泉에서 西京(平壤)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開京으로 돌아와 軍勢를 整備하여 李太祖의 回軍을 막고자하나 모든 精銳部隊는 이미 攻遼軍에 參加하고 나머지는 老疲한 軍隊로서 간신히 城門을 守備하는 程度이므로 急히 募兵을 하니 이에 應하는 省가 없어 할 수 없이 賞給을 내걸고 備兵을 募集하니 이 모두 남의 집 종들로 烏合之卒이라 아무 쓸모가 없었다.

崔瑩은 하는 수 없어 鄭夢周에게 “좋은 方法이 없느냐”하고 計

策을 相議한즉 鄭夢周先生曰 “當初에 明나라와 같은 大國을 치려고 힘이 잘못이고 또 게다가 勇猛이 법과 같고 變化가 龍과 같은 李成桂와 李豆蘭에게 그 많은 軍隊를 맡겼으니 이는 법에게 날개를 붙여주고 龍에게 如意珠를 준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제는 別道理가 없으니 모든 政權을 李成桂에게 맡겨 王氏의 宗廟와 社稷을 保存하는 길밖에 없다” 한즉 崔瑩은 더욱 마음이 不安하여 寢食을 全廢하고 羈王을 侍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때에 李太祖는 서서히 南進하여 回軍部隊가 黃州에 이르니 芳遠(太宗)이 開京으로부터 마중나와 迎接하는지라 李太祖는 太宗을 반겨맞이하며 “내가 지금 事勢 不得已하여 回軍을 하는 것인데 兵權을 놓는 날에는 나와 나의 同志들은 다 죽을 것이니 너의 所見으로는 어찌하면 좋겠느냐”하고 意見을 물으니 芳遠는 서슴지 아니하고 “父親께서 몸소 矢石風塵을 무릅쓰고 數十次에 戰場에서 大功을 이루셨사오니 앞으로는 父親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데 崔瑩은 공언히 父親을 猜忌하고 謀害함은 만백성이 다 아는 바이오니 빨리 進軍하여 이들 妖妄한 무리들을 懲治하심이 可할 줄로 압니다”하고 對答한즉 李太祖는 微笑를 지우시고 點頭하였다.

李太祖는 進軍하여 開京十里밖에다 全軍隊를 駐屯하고 羈王에게 回軍의 理由를 具申하고 이의 責任者인 崔瑩을 引繼하여 주기를 懇請하였다. 그러나 羈王은 崔瑩을 붙들고 내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四方城門을 굳게 닫고 城內의 守備를 더욱 強化하며 濟州에서 올라온 神將 億耳라는 사람을 陣中에 두고 神將을 부려 督戰하였다.

李太祖는 하는 수 없이 城을 攻擊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城下에 가서 白龍刀를 높이 들고 崔瑩을 꾸짖으며 城門을 뚫

리 있어 無辜한 生命을 犧牲시키지 말라 하니 그 함성이 어찌나 웅장하였던지 崔瑩의 옆에 있던 金熙孫은 崔瑩에게 “李將軍의 목소리가 마치 龍의 천봉소리 같아 이 싸움은 아마도 이 장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즉 崔瑩은 들은 채하지 아니하고 神將 億耳를 시켜 李太祖를 攻擊케 하였다.

李太祖는 億耳를 맞아 세 번 싸워 다 패하였다. 青海伯은 億耳의 軍士가 神兵임을 알고 李太祖에게 “거울로 비춰 보라”하며 거울을 본즉 아무 것도 없는지라 李太祖는 이에 神兵인 것을 깨달았고 白龍刀를 높이 들고 휘두르니 神兵이 온데 간데 없이 없어졌다 때를 맞춰 青海伯은 銅鐵을 던져 神兵을 불러 城을 넘어 城門을 열게하고 東門으로 쳐들어가고 다른 左軍 曹敏修부대는 宣義門으로 들어와 合勢하여 進軍하니 城內 老少男女의 百姓들은 簞食壺漿으로 回軍軍隊를 맞이하였다.

이리하여 李太祖는 黃龍大旗를 앞세우고 善竹橋를 지나 南山으로 올라가는데 먼지는 하늘에 닿고 북소리 나팔소리와 歡呼聲이 천지를 振動하였다. 한편 宣義門으로 들어온 左軍 曹敏修는 黑龍大旗를 앞세우고 들어오다가 永義署앞 다리에서 崔瑩의 軍隊에게 밀려 전진을 못 하고 있었다.

이 때에 崔瑩은 東門(崇仁門)과 宣義門으로 回軍軍隊가 潮水처럼 밀려들어오자 事勢 不利함을 깨닫고 花園으로 가서 묻지기 군사를 죽이고 花園속에 들어가 숨었다. 崔瑩을 追擊하던 軍隊들은 花園을 에워싸고 郭忠輔가 군사를 시켜 花園을 살살이 뒤져 崔瑩을 찾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青海伯의 建議로 宮中에 있는 凶惡한 妖僧들을 모조리 잡으라 하고 李學正을 시켜 宮中을 調査케 하니 奇花瑞草로 仙境같이 꾸며놓고 妖僧들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잡아 처치하였다.

이때에 靺鞨王과 崔瑩은 八角殿에 있으면서 아무리 나오라 하여도 나오지 아니하므로 軍人들이 담을 부수고 郭忠輔等이 靺鞨王 앞에 나가 崔瑩을 내놓으라 하니 靺鞨王은 崔瑩의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崔瑩은 事態가 免할 수 없음을 自覺하고 靺鞨王에게 再拜하고 郭忠輔를 따라 나왔다.

장수를 거느리고 태정문에서 기다리던 曹敏修와 李太祖는 白髮의 老宰相 崔瑩이 兵士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崔瑩은 무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쏘아 보았다. 曹敏修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李太祖가 입을 열어 “이와 같은 일은 實로 지의 本心이 아닙니다. 그러나 遼東征伐은 大義를 拒逆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國家는 便치 못하고 百姓은 疲勞困憊하여 怨聲이 하늘에 달았으니 萬不得已 하였읍니다” 崔瑩은 怒氣찬 聲으로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라고 叱咤하였다.

李太祖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잠시 高峰縣(高陽)에 모시기로 했읍니다. 부더 부더 安寧히 가십시오”하고 얼굴을 돌이켜 崔瑩을 正視하지 못하였다. 이는 人間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崔瑩은 國家의 元勳이요 生命의 恩人이다. 自身이 오늘이 있게 한 第2의 아버지다. 만약에 崔瑩이 없었던들 李仁任 一派에게 謀害되어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리었다.

이 때에 世上萬事를 諦念한 崔瑩은 雄志를 알아주지 못하고 輕忘하게 國家 百年大計를 이룩하지 못하게 한 이 愚昧한 人間들이 惻隱하고 또 自己가 親子息처럼 키워온 사람에게 背恩忘德을 當하니 萬感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崔瑩은 돌아서 郭忠輔가 고삐를 잡은 말에 올라탔다. 曹敏修·



李太祖 以下 모든 장수들은 허리를 굽히고 李太祖는 다시 한 번 人事를 드렸다. “부터 安寧히 가십시오”하고, 崔瑩은 임금이 있는 殿閣쪽을 默然히 바라보다가 말에 채찍을 가하였다.

禡王은 甚히 不安하여 6月 4日 밤에 內宮을 거느리고 曹敏修와 李太祖를 私邸로 찾아가 宮中の 格式은 打破하고 人間對 人間으로 胸襟을 터 놓고 말하고자 宮中을 나와 曹敏修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曹敏修는 西大門밖 兵營에 있고 집에 없었다. 하느수 없어 李太祖의 私邸를 찾아갔으나 李太祖도 亦是 집에 없고 東大門밖 兵營에 있었다.

禡王은 還宮하는 길에 邊安烈의 집을 지나게 되어 宦官을 시켜 물어 보니 邊安烈도 집에 없었다. 禡王은 還宮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6月 5日 南闌은 李和・趙仁沃과 青海伯의 暮舍를 찾았다. 이 때에 青海伯은 칼을 닦고 있다가 無表情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南闌은 웃으면서 “將軍 손수 칼을 닦고 계십니까”하고 말한 즉 青海伯은 “하도 심심하여”하고 무뚝뚝하게 對答하였다. 南闌이 “잠깐 議論드릴 말씀이 있습니다”하니 “앉으시요”하고 네 사람이 좌정한 후 南闌이 正色하고 “將軍 참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두 사람과 얘기하다가 하도 기가 막히서 將軍을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상감이 병정들을 휘몰고 曹侍中宅과 송고리, 우리 將軍宅, 그리구 변장군역을 襲擊해 왔답니다”하고 말하였다.

青海伯은 南闌의 아랫 위를 훑어보며 아무 對應이 없었다. 南闌은 답답한 表情을 지으며 “못 믿으십니까”하였다. “나도 그 얘긴 들었소. 宦官들이지 어디 兵丁들이오” “宦官도 武裝하면 兵丁 아닙니까” “80名에 槍 한자루가 武裝이오” “품에는 모두 비수를 품고왔습니다” “난 그런 얘기 못들었소” “宮中에는 벌써 우리 집

자가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武裝하고 襲擊했지 만 그분들이 마침 안 제서서 허탕치고 돌아갔답니다.”

“襲擊을 하였다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다쳤을게 아니오” “상감도 약습니다. 그분들이 안 제시니까 선물을 놓고 돌아갔거든요” 青海伯은 그들을 外面하고 다시 칼을 닦기 시작했다.

南閔은 또 다시 “李豆蘭將軍은 이 重大事件을 어떻게 보십니까” “난 모르겠소”하고 계속하여 칼을 닦고 있었다. 南閔은 또 “將軍도 協力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協力하란 말이오” “此際에 상감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青海伯은 머리를 들고 그들을 쏘아보며 應對하지 아니하였다.

南閔은 다시 “이차피 없애야 할 상감이 아닙니까.” “그런전 나하고 얘기하지 마시오” “大監께서 가장 信任하시는 분이 바로 李豆蘭將軍 아닙니까! 將軍이 앞장서서야 成事가 됩니다.” “나는 앞장 못서겠소” “李豆蘭將軍은 우리 大監의 部下가 아니신가요” “난 策士가 아니요” “누군 策士라서 이런 얘길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다 나라를 위하고 우리 大監을 받드는 誠意에서 나온게 아니오” “못한다면 못 하오”하고 青海伯은 돌아앉아 칼을 만지고 南閔・李和・趙仁沃 세 사람은 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갔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나란히 누웠다. 李太祖는 어둠속에서 青海伯에게 말을 걸었다 “李豆蘭將軍 우리 이렇게 한방에서 자든지도 오래 된 것 같소” “胡拔都 치려 東北面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니 까 한 3年 되겠습니다” “李豆蘭將軍, 南閔의 얘기 들었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잔 재주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두 사람은 한참 침묵이 흘렀다.

青海伯은 잠이 오지 않아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崔瑩을 몰아냈고 李仁任・林堅味・廉興邦等 高麗의 代代로 내려온 重

臣들은 다 가고 그 위에 임금 마저 쫓겨나면 아홉 살난 王世子가 代를 이을 터인데 所謂 武人들은 제 자기 私兵을 거느리고 派閥을 形成하며 서로 機會를 노리고 國內의 治安은 말할 수 없이 混亂한 데다가 南閥이 같은 謀士는 앞으로 점점 갖은 충동질을 다할 것이니 앞으로 무서운 亂世가 아니올 수 없었다.

青海伯은 故鄉을 떠날 때 眞遠寺의 스님은 굳이 말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虛空에 있건 바다에 들건 山間 바위틈에 숨을지라도 편히 앉아 業을 피할 고장은 하늘 아래 이 세상엔 없느니라.”라는 생각이 나서 이를 되새겨 외우고 있었다.

李太祖는 또 다시 “李豆蘭將軍”하고 불렀다. “네” “우리는 이제 戰爭을 論할 때가 지나고 나라를 論할 때가 왔소.” “네” “이제 부터는 政治가 主가 됐단 말ियो.” “그렇습지요.” “政治도 戰爭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겨야 하오 敗者는 할 말이 없는 법ियो. 戰爭에 正直이 通하오? 안 통하지요. 政治도 그런 면이 있소. 陽動 僞騙 다 필요하고 억지와 無慈悲도 가끔 쓸모가 있소. 李豆蘭將軍은 어찌 생각하오” “알만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南閥의 얘기도 一笑에 붙이고 말 것은 아니오”하고 李太祖는 말하고 青海伯의 反應을 기다렸으나 青海伯은 잠자코 있었다.

李太祖는 또 다시 말을 계속하여 “이제 상감은 어차피 조치해야 하오. 지금 形便으로 생트집이 아니고 措置할 수 있겠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南閥의 計策에도 一理가 있단 말ियो”라고 李太祖는 上半身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계속하여 “要是 상감을 아주 깨끗이 없애 버리느냐 玉座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하는데 있소 李豆蘭將軍은 어느 편이 좋겠소.” “將軍 사람의 피란 妙한 것입니다. 머구나 임금의 피가 아녘니까? 充分한 準備없이 손덜 것은

아닙니다.” “仔細히 얘기해 보시오.” “4百年 동안 百姓들의 머리에 임금으로 딱 박혀온 王氏입니다. 지금은 아들이니 男便이 無事히 돌아와서 百姓들은 將軍이나 曹大監을 神主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百姓들이란 本來 잊음이 빠른 것입니다. 이 때 별안간 임금을 죽여 보십시오. 同情은 모두 그리로 쏠릴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습할 수 없는 紛亂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소” “將軍 상감을 물러나게 하는 일은 將軍께서 關與하지 마십시오. 내 버려 두시면 南閔이 다 할 겁니다.” “南閔을 잘 아시오?” “잘 압니다. 策士지요. 策士는 術策을 부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李豆蘭將軍의 생각이 그럴 듯하오” 하고 그들은 바깥이 흰히 밝아오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다.

6月 6日 下午 비가 그치고 東大門에는 햇살이 내리쬘었다. 門樓에서 曹敏修·李太祖·邊安烈·青海伯을 除外한 各軍 장수의 緊急會議에서 南閔이 熱辯을 탄하여 “임금이 밤중에 重臣들을 暗殺하기 위하여 內宮에게 武裝을 시켜가지고 曹大監·李大監·邊將軍宅을 奇襲하였으나 그 분들이 마침 집에 없어 禍를 免하였다”고 主張하고 또 “그분들을 暗殺한 다음에는 순군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反對派 罪人들을 放免하며 勤王兵을 募集하여 우리들을 모조리 처부술 계획이라”고 煽動하여 모든 장수를 極度로 興奮케 하였다.

威化島 回軍으로부터 下剋上의 맛을 들인 장수들에게는 임금이 眼中에 없고 제 각己 잘났다고 날치니 社會 秩序가 말이 아니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南閔은 다시 自衛策을 내세워 “宮中の 兵仗鞍馬(警備)를 모조리 接受하고 警備兵丁을 全部 우리 兵士로 代替하여야 하며 崔瑩의 딸 禍王妃를 몰아내야 한다”



고 主張하고 “이 일을 하는데에는 代表者가 있어야하는 法이니 이 자리에서 第一 格이 높은 沈德符元帥가 代表가 되어야 한다”고 力說하니 諸將들이 모두 賊聲을 지르고 대궐로 돌려들어갔다.

6月7日 下午에 沈德符 以下 代表로 뽑힌 장수들이 宮中 大觀殿 앞에 揖하고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宦官의 先導를 받으면서 나온 國王은 充血된 눈을 두리번거리며 龍床에 힘 없이 앉았다.

이 때에 沈德符가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가다듬어 “臣 沈德符惶恐하오나 諸將의 決議를 아뢰오. 聖上께 읊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와 같은 狂瀾의 混亂을 招來한것은 오로지 逆臣 崔瑩의 罪責입니다. 聖恩이 罔極하사 崔瑩은 流配로 그쳤읍니다마는 그는 滅族하여도 오히려 不足한 罪人이 아닐 수 없읍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崔瑩의 女息이 坤殿에 계실은 眞實로 天理를 拒逆함인가 합니다. 諸將의 마음이 不便하고 民心이 흉흉하오니 즉시 大闕에서 내치사 諸將과 百姓들의 마음을 면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國王은 입술을 벌 켜, 말을 하지 못하였다 沈德符는 다시 “동축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國王에게 對答을 督促하였다. 國王은 “머칠 동안 생각할 餘裕를 주오”하고 벌리는 목소리로 對答하였다.

諸將의 代表者로 指定된 沈德符는 “諸將들의 會議에서 成山殿下의 卽答을 받들기로 決議되었읍니다” “.....” “곧 聖旨를 내리시기 바랍니다”하고 督促하니 國王은 일어서며 부들부들 떨면서 “선하로써 어찌 감히 國母를 놓고 曰可曰否하오, 정 그렇다면 나도 군비와 함께 이 大闕을 나가겠소”하고 不意의 逆襲을 하니 沈德符 以下 諸將은 敢히 말을 못 하고 장내는 寂然하였다.

이 때에 빛 줄에 있던 南閤이 머리를 쳐들면서 크게 기침을 하고 아뢰었다 “그리하옵시다면 그것도 萬不得已합니다. 이제 와서

諸將의 決議를 물이킬 수 있는 자는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하였다. 羈王은 하도 어처구니 없어 失神한 사람같이 龍床에 풀썩 주저앉았다.

南閼은 好機到來라고 卽感하며 소리를 높여 諸將에게 물었다. "聖上 殿下의 意圖를 받드는 것은 臣下의 道理로서 當然하오니 大關을 나가시면 江華島에서 悠悠自適하시며 餘生을 平安히 보내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람되으나 提議합니다." "좋겠습니다."하고 趙仁沃의 贊同에 따라 諸將이 異口同聲으로 "좋소"하고 아무도 反對하지 아니하였다.

南閼은 큰 소리로 "全員一致로 贊同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하고 列中에서 나와 殿廷에 서있는 別將에게 "여봐라 鞍馬 열匹을 당장 이리로 대령하여라"하고 命令하고 또 다른 別將에게 "너는 內殿에 들어가서 군비마마를 당장 이리 모시고 와."하고 命令하니 未久에 鞍馬와 군비, 明順翁主가 울면서 끌려왔다.

南閼은 손짓으로 말들은 階階 밑에 끌려오고 장수들은 일어서 두손을 앞에 마주잡고 羈王도 따라 일어섰다. 한참 망설이다가 힘없는 소리로 "안에 들어가 옷이나 갈아 입고 나오겠소"하니 南閼은 餘裕를 주지 아니하고 "御衣는 모두 뒤따라 보내 올리겠습니다. 조금도 念慮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羈王은 하는 수 없이 階階로 내려와 別將이 드리는 채찍을 받아 쥐고 말에 올라타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來日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哀訴하였으나 諸將들은 모두 默默不答하고 外面하였다.

羈王은 하는 수 없이 事妃를 위시하여 後宮 雙飛와 더불어 지난날에 華麗하였던 富貴와 權勢를 다 버리고 波濤와 물세 소리만

이 들리는 寂寞한 江華島를 向하여 會資門을 빠져나가니 無心한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이 그 뒤를 비치었고 모든 장수들은 人間의 無常함을 느껴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禡王과 崔瑩이 머난 후에 禡王의 아들 昌을 세워 王을 삼고 曹敏修와 李太祖間의 勢力의 暗闘가 始作되었다. 曹敏修와 李太祖 사이에 各道 兵權을 半分하여 東北面・朔方(北方)・江陵道 都統使는 李太祖가 맡고 楊廣・全羅・慶尙・西海・交州 都統使는 曹敏修가 맡기로 協約하여 全國의 半에 該當한 兵權을 차지한 李太祖의 幕下의 諸將의 움직임은 活潑하였다.

이에 曹敏修는 曹敏修대로 自己 勢力을 構築하기에 餘念이 없었다. 그리하여 朝廷은 曹敏修 對 李太祖의 두 勢力으로 形成되어 事事件件이 맞서 일은 漸漸 複雜하여지고 進捗되지 아니하니 國庫는 텅텅 비고 治安은 紊亂하여 서로 疑心하여 中傷謀略으로 獄事가 끊일 날이 없었다.

李太祖를 支持하는 勢力의 核인 沈德符 以下 諸將은 曹敏修 및 남성리 처인등을 巡軍獄에 가두고 開京안에 非常戒嚴을 實施하니 하루아침에 高麗의 天地는 完全히 李太祖 一人의 掌中에 들어갔다.

일이 이에 이르니 南閩의 計略活動은 漸漸 極에達하여 우둔한 郭忠輔를 脅迫하여 上王 禡를 謀陷하고 鄭道傳은 “上王 禡가 恭愍王의 아들이 아니고 辛旽의 아들이므로 昌王은 辛旽의 孫子이지 王氏가 아니라”하여 結局 昌王을 廢하고 神宗의 七世孫 定昌君을 세워 王을 삼으니 이 분이 高麗의 마지막 임금인 恭讓王이다. 그리고 後世에서 이 事件을 廢假立眞이라고 한다.

### 3. 祿田 廢止

祿田이라 함은 高麗末 恭愍王 10년에 紅巾賊 再侵入으로 開京

이 陷落되어 開京을 버리고 福州(安東)로 蒙塵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開京을 收復하고 還都하였으나 國庫가 枯竭되어 官員의 祿俸을 支給할 수 없어 臨時措置로 祿轉俸上色이라는 官廳을 두어 地方租稅田을 官吏에게 配定하여 그 收穀으로 祿俸을 代替하는 制度를 施行함으로 해서 由來하였다.

古今東西를 莫論하고 奸臣과 政商輩들이 滿朝廷하면 政治는 腐敗하고 民生은 塗炭에 빠져 生不如死의 地境에 이르나 一部 高級 官吏는 日益致富하며 住宅은 宮殿이 無色할 程度로 奢侈하되 그 慾心은 限度가 없이 富益富를 爲하여 갖은 惡法을 惡用, 百姓의 膏血을 搾取하거나 甚하면 百姓의 財産과 土地를 奪取함은 一般의 現象이었다.

高麗末 恭愍王 때 祿田制度가 實施되어 辛禑王 8년에 이르러 高麗의 政治는 極度로 腐敗하여 祿田을 憑藉한 官吏의 收奪이 極甚하였다. 이때 林堅味・廉興邦・李仁任 等 當代 名門巨族들이 앞을 다투어 致富取財하는데 그 手段方法은 法을 벗어나 下鄉 百姓으로서 좋은 土地를 가지고 있는者가 있으면 如何한 口實과 억지를 부려서라도 强奪하고야 말았다.

每事에 勞道家의 하는 것이 이 地境에 이르니 약삭빠른 사람은 미리 財産과 土地를 勞道家에 바치고 因緣을 맺은 후 그 勞道를 逆用하여 二重搾取를 敢行하니 民生苦의 慘狀은 말할 수 없었다. 當時의 倭寇의 侵入과 胡族의 掠奪로 百姓은 하루도 寧日이 없는 데다가 官吏의 紀綱이 紊亂하여 위와 같은 搾取로 百姓은 집과 田庄을 잃고 流離丐乞하니 農村은 疲弊할 대로 疲弊하였다.

이 때에 青海伯은 李太祖와 함께 東北面 地方에 들어섰다. 8年前에 보던 山川은 變함이 없는데 農村은 疲弊하여 蓋瓦집은 헐리고 草家집은 움막으로 變하여 故鄕山川을 그리며 鐵嶺을 넘은 青



海伯은 心懷가 甚히 鬱寂하였다. 이 一行을 迎接하기 위하여 兵士와 官員을 거느리고 마중나온 東北面都巡撫使 兼 좌영을 黃淑卿의 案内를 받으며 青海伯은 李太祖와 趙茂·李原敬·趙英茂등과 같이 農村部落을 踏査하여 農村이 이같이 疲弊하게 된 緣由를 調査하였다.

이때에 黃淑卿이 말하기를 “都指揮使께서 오시게 되어 至今부터 東北百姓들은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겠습니다.” 하며 先頭에 서서 李太祖와 青海伯을 農村部落에 案内하였다. 이 때에 모닥불 中心으로 물려앉은 部落民들의 파리한 얼굴에는 哀愁에 싸이고 웃음이 없었다.

그 中 한 老人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물러가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나라 官員들이 더 못됐단 말이오”라고 하였다. 또 한 老人은 “후일이 무섭소. 모두들 쓸데없는 말 마시오. 將軍님들이 떠난 後에는 어찌 되겠소.” 하므로 青海伯이 “마음 놓고 말하세요” 한즉 老人들은 “自由가 없으므로 말 못 하겠습니다.”한다.

그때 李太祖가 “自由롭게 말 하세요” 한즉 한 老人이 “至今 第一 困難한 것이 稅金과 부역입니다. 稅金은 農民과 庶民들만이 내고 官員이나 祿田에는 稅金이 없으니 우리들이 祿田과 官吏의 稅金을 습하여 내게되니 稅金때문에 큰 집을 잃어버리고 오막살이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하였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高官大爵들은 稅金을 免除하고 庶民들만이 納稅의 義務를 질 수 없다”하고 이 制度를 시정할 생각을 가졌으나 李太祖와 青海伯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全國의 事情을 살펴보면 南道에서는 눈치도 보고 또 조심하는데 東北에서는 마음대로였다. 이리하여 官員은 불어나고 이에 따라 祿田이 자꾸만 늘

어 나갔다. 땅은 限定되어 있는데 祿田은 자꾸만 늘어나니 못살  
것은 남은 百姓들이다. 그리하여 짐을 꾸려 오랑캐 땅으로 떠나  
고 있는 實情을 把握하고 잘 살렸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힘 있는  
데까지 이를 是正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百姓들이 잘 살아야 國家가 興하는 것이다. 青海伯은 趙茂를  
테리고 每日같이 말을 달려 벽지까지 들어가 仔細히 調査하였다.  
南으로는 高州(高原文川)에 이르고 北으로는 정주에 이르면서 군  
영을 찾고 百姓들의 形便을 살렸다. 다 해진 軍服을 걸친 兵士들  
의 검은 얼굴에는 피로와 굶주림이 역력하고 오막살이집에서 일  
글을 내미는 農民들의 흰 눈에는 말없는 반감이 서려 있었다. 그  
는 절박한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黃淑卿을 불렀다 “이래서야 되겠  
소 쓸만한 兵士가 어디 있으며 밭을 百姓이 어디있소. 이러니 이  
땅을 어떻게 지탱하겠소”하고 叱責하였다.

黃淑卿은 얼굴에 紅潮를 띄우고 말하기를 “저도 지나간 四년  
동안 무척 努力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結局 안 됩니다. 官員들이  
祿田을 넓혀 가는 것은 도술문사의 權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밭이 갈수록 돌아다니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祿田이 아니고 속으  
로는 祿田입니다. 文書에서는 뚜렷이 百姓 아무개 땅인데도 稅貢  
은 안 들어오고, 官員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官員들은 자기가 먹었다고 안 합니다. 가뭄이니 洪水니 열병이  
니 해서 언제나 핑계를 마련해 두었다가 발각되면 그것을 들이  
댁니다. 또 百姓들과도 싸고 있습니다. 官員들에게 밭게 보이고  
는 못 사는 게 百姓입니다. 못된 官員을 처벌해도 所用없는 것이  
開京의 높은 어른들이 줄이 달아서 도리어 본인에게 不當한 압력  
이 옵니다. 부역이나 軍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百姓들  
이나 끌려오게 마련입니다.” 하고 自己 立場과 그 當時의 世情을

說明하였다.

이 말을 들은 두 將軍은 地方의 事情과 黃淑卿의 心情을 잘 알고 將兵들을 거느리고 北進하여 咸州에 都指揮使營을 설치하였다. 都指揮使營을 設置한 두 將軍은 急히 農村에 나가 直接 農夫들과 一問一答하였다. 한 農夫가 말하기를 “李將軍님이 아니제신 동안에 官員들의 行悖가 한량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네들의 祿田에 들어가야 죽이라도 먹는 形便이오”라고 呼訴하였다. 화령 百姓들이 호소하던 현상과 여기의 事情이 마찬가지였다.

또 한 百姓이 말하기를 “去年에 두 늙이 와서 稅米 스무 섬 내라는 것을 모두 열 섬밖에 못 되어 빌어도 容恕치 않고 쫓쫓 뚫여 官家에 가는 途中 큰 소리로 나는 “李將軍과 親戚이다. 한죽 그 날밤으로 닭 두 마리 가지고와서 세미는 아주 안 받을 터이니 容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容恕해 줬더니 그 후부터는 까딱없습니다”라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以後 李太祖와 青海伯 두 將軍은 平服 차림으로 趙茂와 같이 民政觀察을 나갔다. 觀察中, 한 村落民家の 들배나무에 두 青年이 배를 매먹고 있었다. 이 때에 낯선 사람을 본 이 두 青年中에 한 사람이 趙茂에 대하여 “너는 누구야” 하고 나무에서 내려 趙茂에게 덤벼들었다.

趙茂는 “미안하오, 미안하오”하였다. 두 青年은 趙茂의 가슴과 턱을 박치려고 하였다. 순간 趙茂는 두 青年의 허리를 들이쳤다. 두 青年은 “이놈의 세끼 사람 몰라보구”하며 대들었다 趙茂는 달려들어 주먹으로 눈동을 쥐어박았다. 이 때에 비로소 都指揮使 李太祖와 青海伯이 軍營을 設置한 줄 알고 이 地方의 農民이 이와 같은 부랑패들 30餘名이 있다는 것을 呼訴하여 왔다.

青海伯은 李太祖와 議論하고 이들 30名을 잡아 놓고 調査하기

始作하였다. 이들은 “民情을 살피러 왔다”하였다. “누가 民政을 살피겠느냐” “開京府事 林齊味 대감께서 했습니다”하고 처음으로 “잘 못했습니다”하였다. “그래 땅은 얼마나 먹었느냐” “고주 以南의 驛田에 좀 손을 댔습니다. 百姓들 땅은 三分之一을 먹었습니다”. “百姓들의 집에는 무슨 緣故로 無斷分宿하고 돈도 안 내는거냐” 한주 “官員들이 알선해 주었습니다”한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黃淑卿에게 “惡質 官員과 이놈들에게 제멋대로 奪人田土하고 奪人奴婢한 罪로 수괴 길 외식은 참형에 처하고 그 외는 杖 1백에 처하라”하였다.

이후 民政制度를 다시 改正하여 百姓들이 잘 살기 위한 原則을 세웠다.

첫째, 惡質 官吏와 民弊를 하는 者는 참형 乃至 杖 1백에 처한다.

둘째, 驛田을 없애고 蓋瓦집으로 再建에 힘쓰고 耕田多寡에 따라 稅金을 부과한다.

셋째, 敵을 막는 防費는 官民一致가 되어 失機 없도록 한다.

넷째, 軍隊의 命脈은 軍糧이요 百姓의 命脈은 民糧이다. 農事에 힘쓴다.

다섯째, 廉勤正直한 사람을 公選하여 官員으로 한다.

이리하여 東北面地方이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威化島回軍 후 政權을 잡은 李太祖와 青海伯은 恭讓王 2年(1390)公私의 田籍을 불사르고 一大改革을 加하여 東北面地方과 같이 全國의 驛田制度를 撤廢하니 農村은 平穩을 찾아 百姓들은 李太祖와 青海伯을 높이 推仰하였다. 이로써 驛田制度가 完全 廢止되어 農村은 다시 復興하여 農民들은 擊壤歌를 부르며 太平聖代를 이루었다.



## 4. 民心이 天心

所謂 廢假立眞이라는 嗣王・昌王을 廢하고 恭讓王이 王位에 오른 後에는 沈德符가 侍中이 되고 李太祖는 都總이 되어 모든 政事는 李太祖의 許諾 없이는 하나도 施行되지 못하였다. 이로 因하여 李太祖의 幕下 諸君은 謀士들의 劃策에 依하여 조금이라도 障礙가 되는 人物이 있으면 생트집을 만들어 輕하면 流配, 重하면 處刑하니 世上이 恐怖에 싸여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李太祖 一派의 눈치만 보며 戰戰兢兢하는 歲月이 흐르고 있었다.

人心이 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武人政治가 專行되니 世上이 恐怖에 싸여 民心이 흉흉할 뿐 아니라 하루밤을 자고 나면 또 어느 大臣이 獄에 갇히고 또 누가 斬首된다 하는 말로 民間에서는 아참 人事가 “밤사이 安寧하십니까”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 人事말을 쓰고 있다.

民心이 이같이 흉흉하니 天心인들 變하지 않을 理가 있으랴. 恭讓王 2年(1390) 5월에 때 아닌 진눈깨비가 내려더니 6월에는 連日 비가 퍼부어 全國에 洪水 飄動이 나서 집을 잃고 田庄과 生命을 잃는 者가 續出하여 世上 人心은 더욱 흉흉하여 異口同聲으로 “임금 죽인 百姓이 잘 될리 있나 天罰이 내리는 거야”하며 숙덕공문이 그치지 않고 밤이되면 開京 거리에 “성사람 잠는 李成桂 얼마나 잘되나 보자” “동지놈의 앞잡이 李成桂 打倒” “여우같은 趙浚・南閔・鄭道傳을 죽여라” “李成桂는 朱元璋의 아들, 다 같이 벼락을 맞으리라” 等々の 榜이 處處에 나붙었다.

巡軍들은 血眼이 되어 골목마다 지키전만 榜을 붙이는 사람을 붙잡지를 못하고 애꾸진 집 主人을 잡아다가 마구 때리며 辱보이니 民心은 날이 갈수록 李太祖에 對한 反感과 怨聲이 높았다.

6月14日 池花의 生日날 知密直司事로 있던 青海伯은 李太祖를  
사리골로 찾아갔다. 바깥채에 손님이 들끓었으나 李太祖는 만 사  
람들을 물리치고 대청에 술상을 차려 놓고 青海伯을 반가이 맞아  
술잔을 주고 받았다. 이 때에 술 심부름은 池花가 손수 정성을  
다하여 舉行하였다.

첫 잔을 半쯤 마시고 난 李太祖는 自己 옆에 앉아 있는 池花에  
게 “가만있자, 中門을 달아 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오.” “그  
러지 않아도 걸어 놔어요. 把守兵에게도 일러 놓고요” 青海伯은  
微笑를 지으며 “夫人의 머리는 참으로 敏捷하십니다” “李豆蘭 將  
軍이 오시면 中門은 걸리게 마련 아니에요”

李太祖는 滿足한 얼굴에 微笑 지우며 “허허, 그렇던가?”하고  
青海伯을 쳐다보았다.

술이 두어 잔 돌아간 뒤에 李太祖는 술잔을 青海伯에게 勸하며  
“요즘 어떻소.” “글쎄…어떻다고 할까요 그저 앉아 있는 거지요”  
하며 둥근 얼굴에 씩씩한 웃음을 띠었다. “御前에 第一 가까이계  
신 大監께서 興이 안 나시나와” “그 대감 소리는 그만뒀 주십시  
요. …저는 역시 시원한 산과 들이 좋습니다.” “李豆蘭 將軍은 徹  
頭徹尾한 軍人이시니까요” 池花는 옆에서 신실로써 거들고 있었  
다.

青海伯은 李太祖를 正視하면서 “大監 요즘 世上 돌아가는 形便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짙은 때들의 謀略  
이 度에 지나친 듯합니다” “假令 어떤 일 말이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金符의 獄事에서 先王 父子를 죽  
이기까지 모두 그 때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야 그 전  
모를 알았읍니다마는”하고 말하였다.

李太祖는 비오는 안마당을 내려다보면서 嘆息條로 말하였다 “나

도 얼마 前에 海州가 있는 芳雨의 便紙를 받고 처음으로 알았소. 結局 젊은이들의 陷井에 걸린 거지요... 自初至終을 알았다면 그 처럼 鄙陋하게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을게요” “...” “그렇다고 둘이킬 수도 없고 이제 騎虎之勢가 아니겠소”

“過去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둘은 딸이라도 있오”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렇게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尹有麟은 尹彝의 親戚이니 그럴 수가 있다 치더라도 총인제·최공철같은 功臣을 짐승처럼 때려 죽여서야 쓰겠습니까. 人材를 아껴야 합니다. 음 意見이 다르다고 殺戮를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젊은 패들이 大監께 忠實한 것은 事實이지만은 功에 性急하고 덕없이 사람을 잡아 없애 버리는 風潮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昇進하는 데는 便利하겠지만은 나라를 위하는 길은 아닙니다” 李太祖는 안마당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青海伯은 다시 正色하고 “將軍, 옛날 將軍께서 품었던 뜻이나 제가 將軍에게 犬馬之役을 다해온 뜻이 사람을 두덕대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李太祖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青海伯을 正視하면서 “李豆蘭 將軍의 뜻을 알겠소마는 지금 같은 변동기에는 어느 程度의 犧牲은 있게 마련이니오” “不可避한 犧牲이라면 몰라도 편히 알면서 성 사람 잡는 법은 없습니다 自古로 人命을 疎忽히 다룬 자가 興한 例가 없습니다. 우리 半生에 억울한 죽음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恨歎하고 憤慨했습니까” 李太祖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青海伯은 다시 힘주어 “將軍 英斷을 내리십시오” “모두 釋放하십시오.” “兼해서 다른 罪囚들에게도 大赦를 내리시는게 좋습니다.

只今 民心이 자칫하면 將軍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只今 司憲府에서는 金震陽을 彈劾하느라 야단인데 사람을 잡고야 말 氣勞입니다. 黑을 黑이라하고 白을 白이라 했다고 罰을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큰 일에는 勿理가 없어야 합니다. 太祖大王(王建)을 보십시오. 조금도 서둘지 않고 긴 세월을 두고 天下 사람들을 다 包容하여 大事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젊은 패들이 지나치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요. 허나 내가 將軍에게 分明히 해둘 것은 언젠가도 얘기했소마는 이以上 더 慾心이 없소”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要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權力을 追求했고 이제 그 權力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일에 權力을 濫用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못됩니다. 金震陽은 求해야 합니다” “어떤 方式으로 救하자는 것이오” “罷免 程度로 그치면 어떻겠습니까” 李太祖는 빙그레 웃으며 “李豆蘭 將軍의 뜻대로 합시다” 青海伯은 머리를 숙이며 “大端히 感謝합니다” “다 나를 위하여 하는 忠告인데 내가 感謝해야지요 자 한잔 들시다” 두 사람은 기쁜 낯으로 술잔을 들었다.

이 때에 池花가 李太祖에게 “여보 李豆蘭 將軍께 그 말씀 안드리세요” 李太祖는 술잔을 놓고 池花를 가리키며 “이 사람 오늘 自己 生日紀念으로 將軍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青海伯은 池花를 보면서 “제게 좋은 소식이라...무엇입니까” 池花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青海伯을 注視하면서 “消息이라기 보다 선물이에요” “夫人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無條件 받아야지요” “저의 親庭 조카 보신 일이 있지요 昨年 秋夕에 여기 왔던 애 딸이에요” “강제권 장의 따님 말씀이지요, 생각이 납니다.” “그애 어떠세요” “잘



생겼습니다” “그애가 벌써 몇 해째 혼자 살고있어요 郎君이 世上을 떠났거든요 우리끼리는 벌써 前부터 議論이 있었는데 將軍만 께참으시다면 定婚할라고요”

“아니 말씀은 고맙습시다마는 이미 넷이나 있는데 또 장가잡니까” “뭐 어떠세요 모두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青海伯은 辭讓하면서도 심은 얼굴은 아니었다 “今年에 꼭 서른 살이에요, 來月 쯤 式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두 분의 조카딸이 되는가 봅니다” “尹寡婦하고는 달라요, 보마리 하나 받는 셀 친구 받아서는 안돼요” “허허, 玉이야 金이야 하구받겠습니다”하고 3인이 모두 破顔大笑하였다.

이튿날 巡軍獄에 갇혔던 사람들은 모두 釋放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全國에 大赦令이 내려져 二罪以下는 一律로 放免하였다.

## 5. 建州衛 征伐

明太祖25年(1392) 高麗 恭讓王 4年 4월에 滿州 建州衛 指揮使 女眞酋長月魯帖木兒가 明나라에 對하여 反亂을 일으켰다. 明太祖는 明나라 將帥 藍玉으로 하여금 建州衛亂을 平定하도록 命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援軍을 要求하되 援軍의 大將은 반드시 青海伯으로 하여 달라는 指命 要求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青海伯을 元帥로 삼고 또 青海伯의 長子 和尚을 副元帥를 삼아 出兵하였다.

그 當時 青海伯의 名聲은 中國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明天子가 일부러 青海伯을 指命하여 出征을 要求한 데는 두 가지 理由가 있다. 하나는 事實 그대로 智勇을 兼備한 名將이므로 亂을 平定하는데 目的이 있고, 또 하나는 青海伯은 元來 南宋 岳武穆王의 後孫으로 滿洲一帶의 女眞人의 推仰을 받을 뿐아니라 鐵嶺衛 回復을

爲한 目的이 있었다.

그러나 青海伯은 明나라를 위한 援軍을 거느리고 建州衛에 出兵하여 벌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月魯帖木兒의 降伏을 받아 亂離를 平定하였다.

이 功勞를 明天子는 높이 褒賞하여 青海伯에게 伯이라는 높은 地位의 벼슬을 授爵하고, 青海伯의 長子 和尚에게는 禮部尙書兼 樞密副使에 封하였다.

明나라에서 建州衛亂의 平定을 口實삼아 青海伯의 父子로 하여금 援兵으로 出征케 하여 明나라와 깊은 關係를 맺게 한 후 厚한 待遇로 好感을 사서 明나라에 남아 있게 하고 鐵嶺衛 一帶의 女真人을 明나라에 歸化시킴으로써 鐵嶺衛 領土가 自然 回復될 것이므로 이 一鳥二石의 政治的 目的에 青海伯을 利用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青海伯은 이미 뜻이 굳어 있는지라 明나라의 그 巧妙한 政治手段을 出兵前부터 미리 喝破하고 있는터이라 建州衛亂을 平定하고 즉시 回軍할 뜻을 明天子에게 進達하고 再三挽留를 뿌리치고 樞密公만을 殘留케 한 후 故國으로 凱旋하였다. 이로 인하여 明나라의 女眞懷柔政策에 큰 蹉跌을 가져와 끝끝내 鐵嶺衛의 設置을 하지 못하고 朝鮮의 領土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6. 李太祖의 登極

威化島 回軍後 恭讓王이 王位에 오르자 鄭夢周가 王師가 되어 王을 敎授하게되자 自然 鄭夢周를 主軸으로 하는 保守派 즉 高麗 王朝를 維持하려는 勢力이 形成되어 李太祖를 主軸으로 이루어진 革新派의 巨物인 鄭道傳·趙浚 등을 政界에서 몰아내고 機會를 보아 李太祖를 除去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軍事·政治·經濟

의 모든 實權을 手中에 쥐고 있는 李太祖를 正面에서 挑戰하지 못하고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恭讓王 4年(1392)에 李太祖가 海州에 사냥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몹시 다치었다. 이 소식을 傳하여 들은 諫官 金震陽이 王 앞에나가 附伏하고 李太祖를 罪주어 없이하라고 極諫하였으나 그 當時 李太祖에 對한 朝野의 信望이 높을 뿐아니라 朝廷大臣이 거의 다 李太祖를 信奉하는 處地인지라 恭讓王은 敢히 金震陽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중 海州에서 朝廷의 異常한 霧隔氣를 傳하여 들은 李太祖는 조용히 가마를 타고 開京으로 들어왔다.

이 消息을 傳하여 들은 保守派의 巨頭인 鄭夢周는 李太祖의 病勢와 革新勢力의 動態를 살피기 爲하여 問病을 빙자하고 李太祖의 私邸를 訪問하였다. 이때에 太宗은 鄭夢周를 接待하기 위하여 酒宴을 베풀었다. 鄭夢周는 술을 마시며 노랫하기를 “今日風光甚惡甚惡, 오늘의 공기가 몹시 좋지 않으나 어찌하는 道理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좋지않도다 하면서 太宗이 和答하기를 “城隍堂後垣頽落 此如何此如何 성황당 뒷담이 무너졌으니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하였다(이 뜻은 비유의 말인데 참 뜻은 高麗王朝가 亡하였으니 세나라를 세워야 하지 아니하냐는 뜻이다).

鄭夢周가 다시 和答하기를 “此身死了死了 一百假更死了 白骨委塵土 魂魄有也無 一片丹心 寧有更易也哉 이몸이 죽고 죽어 一百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혼이야 있진 없진 일편단심 다시 바꿀 수 있으랴” 하니 太宗은 鄭夢周의 글은 마음을 둘릴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太宗은 하는 수 없이 鄭夢周를 죽일 決心을 하고 그 형 芳果와 相議하고 그해 3월에 青海伯에게 鄭夢周의 處置를 付

託하였다. 青海伯은 이 付託의 말을 듣고 正色하며 이 일을 李太祖가 아느냐고 反問하자 太宗은 모른다고 답하였다.

青海伯은 “李太祖가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며 또 益陽(鄭夢周의 尊號益陽君)은 忠臣이거늘 내가 어찌 차마 忠臣을 暗殺하여 스스로 不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마침내 듣지 아니 하니 太宗은 하는 수 없어 趙英珪에게 말한즉 趙英珪는 분명히 대답하기를 “命令대로 施行하겠읍니다” 하고 海州牧使 趙英茂 中郎將 高呂·李敷 등과 더불어 鄭夢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途中에서 鄭夢周를 쳤으나 잘 맞지 않았다.

이에 놀란 鄭夢周는 말을 채찍질하여 도망하는 것을 趙英珪가 쫓아가 다시 철蹄로 내리치니 이번에는 말의 머리를 때려 말이 꺼꾸러지는 바람에 鄭夢周는 말에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 徒歩로 도망하는 것을 高呂가 뒤쫓아가 善竹橋에 이르러 쳐 죽였다. 그런데 그 후에 鄭夢周가 擊殺된 자리에서 대가 나왔다 하여 그 타리를 善竹橋라고 불려왔다.

仁祖 때 사람 金尙憲은 淸陰集 가운데서 鄭夢周擊殺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李之蘭으로 하여금 師傅 鄭夢周를 擊殺하라 하였는데 李之蘭은 이를 頑強히 拒絕하여 結局 趙英珪를 시켜 擊殺시켰다. 後世에 趙英珪의 後孫은 繁盛치 못하였는 데 青海伯의 子孫은 繁昌하여 오늘날까지 青海伯의 名聲은 드높이 傳하여 지고 있으니 異常한 일이라고 하였다.”

李太祖는 鄭夢周가 趙英珪에게 擊殺된 때에 永寧驛에 있으면서 全然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悲報를 傳하여 듣고 몹시 놀라고 슬퍼하였다.

그 理由는 鄭夢周가 政治理念은 다르다 하나 두 사람사이에 情誼는甚히 두터웠고 또 學識과 德望이 높아 늘 尊敬하고 아끼어



오던 親友를 殺害한 데 對한 罪責感과 서운한 感情, 더나가지 모든 國民 앞에 羞恥感을 免할 길이 없어 한동안 苦惱하였다. 그러나 이왕 擊殺된 일을 苦惱한다고 再生될 수 없는 일이라 諦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李太祖는 自己에게 一言半辭의 相議도 없이 過激하게 處事하는 아들 芳遠(太宗)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父子의 意見調停을 青海伯이 中間에서 調停하였다. 鄭夢周를 除去한 후에 朝鮮朝創建事業은 急速度로 推進되었다. 威化島回軍 때 左軍統都使이었던 曹敏修等은 保守派라 하여 政治에서 逐出되어 高麗朝廷은 革新勢力의 一派 뿐이 되었다.

이리하여 朝廷大臣以下 모든 官員이 李太祖를 王位에 推戴하기 위하여 恭讓王에게 王位를 내놓지 아니할 수 없게 壓力을 加하기 始作하여 그해 7월에 門下侍中 裴克廉은 恭愍王의 定妃에게 恭讓王의 잘못을 告하고 廢位할 것을 允許받고 恭讓王으로 하여금 王位를 李太祖에게 禪位하게 한 후 恭讓王은 原州에 定配하였다.

그렇게 王位 禪位の 일을 強制로 推進하여 놓은 革新派의 巨頭인 侍中 裴克廉·趙浚·鄭道傳·青海伯·金仁贊 등이 李太祖에게 王位에 登極할 것을 進言하였다. 李太祖는 慣例에 따라 두번 辭讓하다가 恭讓王 4年(1392) 7月16日 壽昌宮에서 王位에 登極하여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다.

## 7. 青海君 叙爵

李太祖는 朝鮮 王朝를 開國한 후 開國功臣을 三等級으로 區分하여 各者의 功勳에 따라 爵位와 祿俸을 授與하였다. 그 功臣의 大部分이 高麗王朝에서 代代로 顯官을 지내고 그 當時 要職에 있으면서 高麗王朝를 背反하고 李太祖를 推戴하여 新王에 登極하

게 한 사람들이다.

오직 青海伯 만이 布衣로 李太祖를 价江에서 만나 小桃園結義하고 同苦同樂하며 南征北伐의 數十年 積苦 끝에 李氏王朝를 開國케 한 唯一의 功臣이며 高麗王朝 때 元나라에게 빼앗긴 鐵嶺以北(現咸鏡南北道)의 失地를 恢復하고 거기에 居住하는 女眞人을 教化歸順케 하여 國基를 盤石같이 堅固하게 한 朝鮮朝創業에 唯一無二한 棟樑과 柱石 같은 開國元勳功臣이다.

이로 因하여 論功行賞에 있어 青海伯은 開國一等功臣에 威化島回軍一等功臣을 兼하여 輸忠奮義翊贊景運 輔國崇祿大夫 叅贊門下府事 義興親衛軍節制使 補祚佐命開國一等功臣 青海君을 叙爵하였다.

이때에 青海伯과 같이 封爵한 功臣錄과 會盟文은 아래와 같다.

會盟祭文(洪武 25年1392)壬申9月 日,

임금과 신하가 모여서 맹세한 글

皇天后土及松嶽城隍一切 神祇惟我主上殿下應天順人誕膺景命臣等協力同心共成大業既已同功俱爲一體緣莫重焉幸莫大焉靡不有初鮮克有終古人所戒凡我同盟之人各宜事上以誠交友以信毋同貴以相害毋同利以相忌毋他人間言而有動於念毋以辭色而有疑於心毋背憎而面悅毋貌合而心離有過失則象規之有所疑則象質之有疾病則相扶有患難則相救臣等子孫上與殿下之子孫世守此盟毋或敢渝如其有渝 神必殛之

天地神明과 松岳神靈과 모든 神明이시여 우리 임금께옵서 天命을 받들고 人心에 順從해서 王位에 오르셨는데 臣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서 이 거룩한 큰 일을 이루어서 國家와 臣들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重한 인연이 없고 이것보다 더 多幸한 일이 없사오이다.

그러나 古人의 경계한 바에 依하면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만 끝을 맺기가 어렵다 하였으니 우리같이 盟誓하는 사람들은 모두 各其 임금을 忠誠으로 섬기고 信義로 서로 사귀어 貴하게 되었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害치지 말며 利點을 보고 서로 꺼리지 말고 남의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搖動시키지 말고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을 疑心하지 말고 겉으로 쫓는 체하고 속으로 배반하지 말고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 반가운 체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規制하고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解明하고 疾病이 있으면 서로 治療하고 患難이 있으면 서로 救濟할 것입니다.

臣들의 子孫과 殿下의 子孫이 다같이 盟誓를 지켜서 절대로 變함이 없고 만약 變하면 神明은 그 者를 죽이시옵소서.

開國功臣錄 (一・二・三等 三十九人)

一等功臣 十五人

백・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비	순	노 비	포 지
益安大君	李芳毅		李太祖의 第3子			
星山伯	裴克廉	補祚功臣	門下左侍中		30口	220결
平壤府院君	趙 浚	佐命功臣	門下右侍中		30口	220결
上洛府院君	金士衡	佐命功臣	門下侍郎贊成事,		25口	200결
興安府院君	李 濟	佐命功臣	門下侍郎贊成事,		20口	170결
義安大君	李 和	佐命功臣	商議門下府事,		20口	170결
鷲林府院君	鄭熙啓	佐命功臣	參贊門下府事,		20口	170결
青海伯	李之蘭	補祚功臣	參贊門下府事,		20口	170결
宜城君	南 閔	佐命功臣	判中樞院事,		25口	200결
花山府院君	張思吉	補祚功臣	中樞院事		20口	170결
西原府院君	鄭 摠	補祚功臣	中樞院事		15口	150결
漢山府院君	趙仁沃	補祚功臣	中樞院副事		20口	170결
宜寧府院君	南 在	佐命功臣	사헌부대사헌,		20口	170결
淸城府院君	鄭 權	佐命功臣	大將軍		20口	170결
益和君	金仁贊	補祚功臣	中樞院事		15口	150결

## 二等功臣 九人

백 · 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비	슬	노 비	토 지
坡平府院事	尹 虎	佐命功臣	判司三事		10口	100결
平 原 君	趙英埴	佐命功臣	禮曹典書		10口	100결
南山府院君	李敏道	佐命功臣	工曹典書		10口	100결
漢川府院君	趙 溫	佐命功臣	平壤尹		10口	100결
復興府院君	趙 旼	佐命功臣	知中樞院事		10口	100결
玉川府院君	劉 敬	補祚功臣	中樞院事		10口	100결
南陽府院君	洪吉旼	補祚功臣	左副承旨		10口	100결
平 海 君	黃希顔	補祚功臣			10口	100결
平城府院君	趙 豹	補祚功臣	晋州牧使		10口	100결

## 三等功臣 十五人

백 · 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비	슬	노 비	토 지
興寧府院君	安璵恭	翊戴開國	都承旨		7口	70결
鶴林府院君	金 樞	翊戴開國	中樞院副使		7口	70결
文 陽 君	柳愛廷	翊戴開國	前漢陽尹		7口	70결
星山府院君	李 稷	翊戴開國	前知中事		7口	70결
寧城府院君	吳思忠	翊戴開國	戶曹典書		7口	70결
安平府院君	李 舒	翊戴開國	刑曹典書		7口	70결
漢山府院君	趙英茂	翊戴開國	判殿中寺事		7口	70결
完城府院君	李伯由	翊戴開國	前禮曹判書		7口	70결
興原府院君	李 敷	翊戴開國	判奉常寺事		7口	70결
延城府院君	金 格	翊戴開國	上將軍		7口	70결
高城府院君	高 呂	翊戴開國	典醫監		7口	70결
東原府院君	成傳霖	翊戴開國	開城少尹		7口	70결
西原府院君	韓尙敬	翊戴開國			7口	70결
上 黨 君	韓 忠	翊戴開國			7口	70결
驪興府院君	閔汝翼	翊戴開國			7口	70결



## 回軍功臣의名單

공신이름	비	술	등	급	공신이름	비	술	등	급
沈德符	青城伯		1등공신		崔允壽	僉節制使			"
李和	義安伯 商議門下府事		"		黃順常	前晉州牧使			"
柳夔殊	判開城府事		"		사망공신	비	술	등	급
崔永祉	門下侍郎贊成事		"		이름				
李之蘭	參贊門下府事		"		曹敏修	門下侍中		1등공신	
등13인					裴克康	門下左侍中		"	
度補	前判慈惠府事		2등공신		尹虎	判三司事		"	
度儀	參贊門下府事		"		邊安烈	檢校侍中		2등공신	
尹思德	三司左僕射		"		王安德	判三司事		"	
鄭曜	商議門下府事		"		池勇奇	判三司事		"	
林永忠	同知中樞院事		"		趙仁璧	三司左使		"	
등15인					李元桂	完山君		"	
崔耶	前判慈惠府事		3등공신		鄭地	門下評理		"	
王資	前雞林府尹		"		崔公哲	忠州節制使		"	
金天莊	前密直副使		"		등19인				
南成理	前開城尹		"		安慶	判慈惠府事		3등공신	
李至	前漢陽尹		"		金賞	晉州牧使		"	
張子忠	工曹典書		"		李伯	開城尹		"	

(太祖實錄에 依함)

## 8. 女眞教化

太祖 2年 8月에 朝鮮王朝 創業의 基盤이 이루어지자 李太祖는 內治에 힘을 기울이며 一邊 邊方守護에 큰 力點을 두어 青海伯에 게 東北面都按撫使의 大任을 맡겨 鐵嶺以北에 居住하는 女眞人의 歸順教化에 本格的인 作業이 始作되었다.

이리하여 女眞酋長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韓 朶里의 豆漫溫猛哥帖木兒・火兒阿의 豆漫古論阿合出・托溫의 豆漫 高卜兒・闊哈蘭部, 達魯花赤, 奚灘訶郎合, 參散(北青)의 猛安古 論豆蘭帖木兒, 移蘭豆漫의 猛安甫亦莫兀兒, 住海洋(吉州)의 猛安

托兒牙火矢帖木兒, 阿都哥의 猛安奧屯完者, 實眼春의 猛安奚灘塔斯, 甲州의 猛安雲剛括, 洪肯(洪原)의 猛安括兒牙兀薄, 海通의 猛安米胡貴洞, 禿兀(端川)의 猛安夾溫不花, 幹合(鏡城)의 猛安奚灘薛列, 兀兒忽里的 猛安朱胡引答忽, 約出闕失의 猛安朱胡完者, 籠吾所의 猛安暖禿古魯, 土門(慶源北方)의 猛安古論李里, 阿木剌唐, 括奚灘古, 括兒牙, 八兒速, 古州(高原)의 括兒牙, 乞木那, 答比那, 可兒答哥, 速平的 江南突阿, 剌合伯顏, 眼春의 括兒牙, 禿成改等이다.

鐵嶺以北의 女眞族은 우리나라 歷史上 어느때고 그 反復이 甚하여 하루도 邊方이 便한 날이 없어 이들의 教化가 難題中の 難題였다.

그리므로 李太祖는 朝鮮開國後 이 難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青海伯으로 하여금 女眞人을 外型부터 改善함에 있어 그 被髮習慣을 고쳐 朝鮮人과 같이 상투를 틀게하고 冠帶를 하게하며 租稅와 兵役의 義務도 朝鮮人과 같이 差別없이 지게 하고 朝鮮人과 婚姻도 勸獎하여 本土人과 同一한 待遇를 하며 禮義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 酋長에게 隸屬하여 奴隸待遇를 받은 것을 酋長 隸屬에서 解除하며 自由로이 生業에 從事케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部下를 잃은 酋長에게는 그의 身分地位를 參酌하여 朝鮮朝廷의 비술 階梯에 따라 千戶・萬戶・等の 비술을 주어 그 비술에 對하여 支給되는 祿과 待遇로서 그들이 居住하는 地方에서 安樂한 生活를 營爲하게 하고 姓名도 朝鮮人과 같은 式으로 改姓名하여 完全히 朝鮮사람이 되게 하였다.

이와 併行하여 鐵嶺以北의 行政區域의 劃定과 官衙設置를 하기 위하여 鄭道傳을 東北面都宣撫察理使로 任命하고 青海伯과 같이 東北面一帶의 行政機關의 設置 및 官制를 編成하였다. 이 일을

함에 그 勞苦에 대하여 李太祖의 關心이 대단하였다는 證據로 朝鮮王朝實錄 太祖篇 13卷에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太祖七年戊寅正月「遣工曹典書李和尚賜醪于東北面都宣撫察理使鄭道傳」(註釋 工曹典書李和尚을 보내서 東北面都宣撫察理使 鄭道傳에게 御酒를 下賜하였다)

이 때에 特使로 李和尚(樞密公)을 擇한 것은 青海伯이 東北面都按撫使로 任命되어 女眞人 教化歸順의 大任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長子인 李和尚을 特히 派遣한 것으로서 李太祖의 胸中을 可히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 9. 漢陽 遷都와 惠安宅

李太祖 元年(1393) 7月 7日 壽昌宮에서 王位에 登極하고 開國功臣들에게 厚한 封爵을 내리는 한편 大赦令을 내려 모든 罪人을 赦免하여 民心을 사려 하였으나 人心은 久情을 생각하는 習性이 있어 朝鮮王朝에 對하여 잘 服從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두문동의 72人 같은 高麗의 顯官들이 朝鮮王朝의 敍爵을 拒否하고 杜門洞에 隱居하여 公公然히 朝鮮王朝를 排斥하고 開京에 居住하는 사람은 거의가 高麗 王氏와 因緣이 있는 사람들이라 朝鮮王朝를 좋아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協力을 拒否하는 狀態이므로 世上에 별의 별 所聞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民心이 흉흉하여 官民이 잘 協調를 이루지 못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獨裁者에게는 彈壓政治를 하게 마련이다. 朝鮮王朝도 例外는 아니다. 民心이 흉흉한 것은 王氏가 있기 때문이라하여 모든 王氏에 對하여 逮捕令을 내려 全國에 있는 王氏를 逮捕하여 江華島의 급한 물살에 孤魂이 되게 하고 또는 南海 巨濟島 앞바다에서 沒殺을 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일을 敢

行한 李太祖도 人間인지라 마음이 便할 理 없다 그리하여 점점 開京이 싫어지게 되어 遷都說이 나오게 되었다.

이 遷都說이 나오자 第一 먼저 公州 鶴龍山이 候補地로 登場하여 李太祖는 青海伯 以下 數十名の 官員과 數千名の 親衛軍을 거느리고 鶴龍山에 直接 가서 宮闕터를 닦다가 中止하고 漢陽에다 新都邑터를 定하고 太祖 2年(1394) 8월에 李太祖가 親히 漢陽에 가서 宮闕과 宗廟의 터를 選定하고 그해 12月 4日 李太祖 스스로 宗廟터에 나가 百官을 거느리고 宗廟 開基式(着工式)을 舉行하였다. 그와 같은 時刻에 權近의 主宰로 景福宮의 開基式이 景福宮터에서 舉行되었다.

이리하여 新都邑地에 새로운 宮闕과 官衙 및 各級官僚의 住宅 築造工사로 嚴冬雪寒을 뚫고 木材와 石材가 漢陽으로 搬入되고 各寺刹에 動員令이 내리고 各地 守令에게는 物資와 勞力動員의 令이 내리어 새대길 짓는데 國力を 傾注하였다. 그리하여 交州道(江原道)에서 巨木을 베어 뗏목으로 漢江을 뒤통으며 數百里 물길을 돌아 漢江龍山江에서 上陸시켜 목도와 달구지로 대궐터로 속속 반입되었다.

그리하여 開京의 宮터보다 훨씬 넓은 터에 壽昌宮보다 더 雄壯한 宮闕과 宗廟・社稷壇・大小官廳의 建物과 東西南北으로 通하는 都心地 道路工事等 諸般工事が 다 國民의 膏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李太祖는 그 工事が 進行되어감에 따라 自己의 事業이 잘 進行되어 가는 快感에 洽足한 微笑를 짓고 있었다.

李太祖 4年(1395) 9월에 新都의 宮闕・道路・河川・官廳 및 大小 官員의 住宅이 完成되었다. 이 工事は 李太祖의 回甲을 새 宮殿에서 盛大히 베풀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에 게으른 눈치가 보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베었다. 일을 그르치



는 자는 불기를 때려 軍律로 다스리고 紀綱을 세워서 재찍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강행하였다.

李太祖는 이리하여 宮闕과 같이 完成된 官員의 住宅中 小貞洞의 百間짜리 豪華住宅 한 채를 青海伯에게 下賜, 宅號를 惠安宅이라 稱하고 青海伯의 元妣 咸安郡夫人 尹氏에게 惠安宅主의 稱지를 내리어 人臣의 夫人으로서 最高 地位의 外命婦 待遇를 하며 功臣에게 주는 鐵券(只今の 勲章)을 주어 그 子孫 代代로 兵役 其他 特典을 받아 後孫까지 特別 待遇를 하도록 하였다.

blank

## 四. 草 野 의 隱 居

### 1. 一次 王子亂

李太祖는 登極後 그달 28日에 開國功臣들에게 功臣稱號를 내리고 8月 2日에 功臣都監을 두어 그들을 보살피 주게 하고, 8月 5日에는 夫人 康氏를 顯妃(王妃)로 삼고, 아들과 사위에게 各各君을 封하였다.

李太祖는 큰아들 芳雨를 王世子로 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芳雨는 아버지 李太祖가 高麗王氏의 臣下로서 以臣伐君하여 王位를 篡奪한 것을 不當하게 생각하고 每日같이 毒한 燒酒만 마시고 世上事에 關與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李太祖의 登極儀式에도 參與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芳雨의 사람됨이 剛直하고 聰明仁慈하여 늘 後繼者로 생각하고 自然 時間이 흐르면 마음을 돌려 既定事實을 認定하고 自己를 도우려니 生想하던 차에 큰아들 芳雨가 아버지 李太祖를 찾아와 절하고 侍立하였다. 內心 기쁨에 찬 李太祖는 말아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現實을 認定하는 줄로 生想하고 侍立하여 있는 宮女를 다 물리고 말아들 芳雨와 단 물이 마주 앉아 仁慈한 말로 芳雨에게 燒酒를 먹어 몸을害치지 말라고 타이르며 王世子에 封할 것을 豫告하고 몸가짐을 謹愼하도록 指示하였다.

芳雨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注視하고 입을 열어“저는 안됩니다. 사람마다 다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世上에 興味가 없습니

다. 산다는 것이 지겨울 程度로 苦痛스러운 제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하고 이를 拒絶하자 李太祖는 怒氣찬 聲으로 “너는 두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強壓하였으나 芳雨는 斷乎히 “아니올시다, 저는 못 합니다” 하고 잘라 말하고 듣지 아니하니 李太祖도 하는 수 없어 芳雨를 王世子로 封하는 일은 斷念하였다.

이때에 이 事實을 알아차린 顯妃 康氏는 自己 所生의 아들 芳蕃과 芳碩 둘 중에서 王世子를 封하리라 생각하고 李太祖에게 “長子를 王世子로 封하지 못할 바에는 王子 中에서 德있는 者를 擇하여 王世子를 封하자”고 졸라대고 贊成事 鄭道傳과 其外 重臣들에게 自己 아들 중에서 王世子를 封하도록 推進하라고 內通을 하였다.

李太祖는 元妃 韓氏夫人에게서 아들 六兄弟 芳雨·芳果·芳毅·芳幹·芳遠·芳衍(幼時死亡)을 두었고 繼妃 康氏의 몸에서 아들 兄弟 芳蕃·芳碩을 두었다. 韓氏夫人은 李太祖가 登極하기 前에 別世하였고 繼妃 康氏는 그 당시 寵愛를 받은 터이라 年老한 李太祖는 寵愛하는 康氏가 졸라대는 바람에 못이겨 康氏 所生의 아들 中에서 王世子를 封할 決心을 하게 되었다.

李太祖元年(1392) 8月 20日 아침 朝賀가 끝난 뒤 左侍中 裴克廉, 右侍中 趙浚, 贊成事 鄭道傳을 便殿으로 불러들여 놓고 “卿等이 며칠 前부터 東宮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좋겠소” 하고 下問하자 左侍中 裴克廉이 “어느 분이라고 指定하기는 困難하오나 年長者나 또는 功이 많은 분을 세우는 것이 合當한 줄로 아뢰오” 하였다.

李太祖는 세 大臣을 바라보며, “말은 그럴듯 하오마는 구름 잡듯 突然하오. 年長者는 功이 없고 功이 있는 者는 年下이니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소” 하고 反問하니 세 大臣이 모두 마주보며 對



황을 못 하고 있다가 鄭道傳이 입을 열어 “모두 英特하시니 臣等 으로서는 알뜰 判斷이 서지 않습니다”하였다.

李太祖는 이에 短刀直入으로 “芳蕃이 어땡소” 하니 세 重臣이 한참 沈默하다가 左侍中 裴克廉이 옆에 있는 右侍中 趙浚에게 “그분은 좀 輕率한 데가 있어서” 하고 뒷속말을 하였다.

右侍中 趙浚은 恭讓王을 세울때 말 한마더 빗나갔다가 혼이 난 일이 있어 이번에는 自己 意思를 一切 表明하지 아니하고 “글쎄 운시다” 하고 어름어름 對答하고 鄭道傳은 못들은 체하였다. 이를 重臣 3人의 態度를 지켜보던 李太祖는 “左侍中의 말이 옳소 芳蕃이는 좀 輕妄한 데가 있소. 차라리 芳碩이가 좋지 않겠소.” 라고 斷言하니 左侍中 裴克廉은 鞠躬하면서 “至當하신 줄로 압니다”라고 贊意를 表하니 다른 두 사람은 異議없이 따라서 國궁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贊意를 말없이 表하니 李太祖는 滿足스러운 表情으로 “그럼 芳碩으로 決定하겠소. 이 일에 對해서는 더이상 論議가 있어서는 안 되겠소. 즉시 冊王世子儀(王世子 冊封式)를 準備하고 舉行토록 하오” 하고 下命하니 3人의 重臣은 御前을 물러나와 그길로 모든 準備와 節次를 밟아 冊王世子儀를 舉行하여 芳碩이가 朝鮮王朝 初代 王世子가 되었다.

이리하여 電擊적으로 芳碩이가 王世子가 되니 李太祖의 嫡出아를 5인이 다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머우기 野心이 만만하고 朝鮮王朝 創建에 絶對的인 功이 있고 또 周圍에 많은 追從者를 抱有하고 있는 芳遠은 마침 咸興에 있는 先祖의 墓所를 追尊王陵으로 改築하는 工事監督次 東北地方에 가 있는 중에 이루어졌다

王世子 冊封이 끝난 후에 이 일을 안 芳遠과 그의 追從者들은 말할 수 없이 憤慨하고 切齒腐心하며 그로부터 이를 받드시 顛覆할 陰謀를 暗暗裡에 進行하면서 時期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芳碩의 母親 康妃가 偶然 得病하여 世上을 떠나니 李太祖의 悲痛은 極에 達하여 朝廷일에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康妃만을 생각하는 反面에 芳遠의 野心은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芳碩을 王世子로 冊封하는데 加擔하였던 鄭道傳은 그의 一派인 南閔等을 糾合하여 永久執權을 爲한 政略으로 王子分散論을 提起하여 各王子들로 하여금 地方에 分散 居住하여 地方行政을 監督케 함은 中國에서 王子를 諸侯로 封하는 制度를 본받는다는 口實로 王子들의 勢力을 分散弱화를 꾀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王子들의 怨望만을 사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로 틈만 있으면 一擊에 撲殺할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차 李太祖 7年(1398) 8월에 李太祖의 病勢가 惡化되어 8月 26日에는 命在頃刻이라 하여 모든 王子 王孫 및 宗親들은 勤政門 안에서 며칠째 밤을 새우며 待機하고 있었다. 그러나 鄭道傳 一派는 王子들을 勤政門 안에 待機하게 하여 놓고도 父王의 病救患과 問病조차 任意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일이 이 地境에 이르니 鄭道傳 一派는 李太祖가 殞命하면 嫡出의 王子들을 沒殺할 準備를 하고 그 時期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芳遠의 一派는 河崙·李叔蕃·趙英茂·李茂·高呂·閔無疾·閔無咎 등이 家兵과 地方의 兵力을 隱密히 動員하여 侍機中에 있었다. 일이 이에 미치니 自然 所聞이 어디서 났는지 異母兄弟의 王子들을 沒殺한다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

各處에 情報網을 퍼놓고 機會를 노리고 있는 芳遠一派가 이 事實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勤政門 안에 半軟禁 狀態에 있는 芳遠을 불러낼 口實이 없어 苦心하던 芳遠의 夫人 閔氏는 奇智를 짜내서 “瞥眼間 腹痛이 나서 죽겠다”고 하면서 下人과 말을 宮中에 보내어 芳遠의 還家를 促求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脫出할 口實을

찾던 芳遠은 機會到來라고 快哉를 부르며 周圍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타고 勤政門 밖으로 脫出하였다. 死地에서 活路를 얻은 氣分, 天下를 뒤엎을 時期到來에 對한 興奮 萬感이 一時에 물려 胸中이 터질 것만 같았다.

芳遠이 말을 달려 自己집으로 가서 中門에 들어서니 혼자 안마당에서 서성거리던 夫人 閔氏는 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中門의 빗장을 질러 달아철고 속삭였다. “消息 못 들었어요” 하고 芳遠에게 宮中消息을 물었다. 芳遠은 말 뜻을 잘 몰라 “무슨 消息 말어요”하고 反問하면서 夫人의 態度에서 尋常치 않은 것을 느끼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中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閔氏夫人이 달려가 門을 열자 閔無疾과 李茂가 함께 들어섰다.

閔夫人은 “상감이 오늘밤을 못 넘기신데요, 애가 아까 消息 듣고 왔는데 당신은 全然 몰랐어요” “통 못 들었어 뭘수가 있어야 알지” 閔夫人은 閔無疾을 가리키며 “네가 直接 말씀드려라”하니 閔無疾은 芳遠의 앞으로 다가서며 “아까 五月이가 몰래 사람을 보내왔어요. 상감이 아침부터 술을 허덕이며 가끔 精神이 昏迷해 지신데요 의원이 金士衡 보고 別方法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오늘이 고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金士衡이 日官을 불러놓고 초저녁에 避病을 하자고 議論하며 萬若에 그냥 殞命하시면 避病조차 해드리지 않았다고 나도 좋지 않겠거니와 당신도 재미 없을 거라고 우근거리더라입니다.” 뒷집을 질고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던 芳遠은 李叔蕃을 찾았다.

閔無疾은 “李叔蕃이 오늘밤 舉事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달은 작아서 그물이 모래 굽이라 기습에 좋고 또 상감께서 이 밤으로 殞命하시고 世子가 일단 登極하고 나면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하늘이 내린 機會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말을 듣고있던 閔

夫人은 芳遠에게 다가서며 “當身 어떻게 하실래요, 모두 해치워요”하고 다구치니 芳遠은 “世上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소”하고 猶豫未決하니 閔夫人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成則君王이요 敗則逆賊인데 무엇을 주저해요” 하고 재촉하였다.

芳遠은 斷을 내리었다. “좋다. 無疾, 너는 집에 남아있고 無咎는 李叔蕃에게 가서 甲兵을 거느리고 이 앞 申克禮의 집에서 待機하라고 해라” 하고 大闕로 말을 달려 들어가 同腹兄弟에게 “鄭道傳이 우리 兄弟를 沒殺하려드니 빨리 避身하라”고 일르고 곧 回程하여 革命軍의 集合場所로 와서 모든 軍備를 檢閱하니 여기에 集結된 사람은 李叔蕃을 위시하여 李芳遠·李芳毅·李芳幹·李孟宗·李居易·李伯卿·趙英茂·李茂·高呂·辛克禮·서익·문빈·심구령·朴苞·趙瑛·閔無咎 등이 武裝하고 있었다.

李叔蕃은 밤 二更에 南閔의 집에 鄭道傳 등이 모여있는 것을 探知하고 全軍을 南閔의 집 周圍에 配置한 후 高呂로 하여금 南閔의 집에 불을 지르고 避하여 나오는 사람을 全部 殺害하라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鄭道傳·南閔을 暗殺한 후 右政丞 金士衡, 左政丞 趙浚 두 政丞을 强壓하여 鄭道傳一黨이 芳遠의 同腹兄弟를 殺害하고 開國元勳功臣들을 殺害하려다가 事前에 發覺되어 嫡出王子들에게 도리어 屠戮을 當한 것처럼 報告書를 作成하여 李太祖에게 바치고 강제로 赦可를 받은 후 王世子 芳碩과 그의 同腹兄인 芳蕃 및 妹夫 李濟를 같은 罪로 몰아 죽이었다.

李太祖는 病中에 當한 이 無慘한 일로 世上이 虛無하여 萬事に 意慾을 喪失하고 王位를 芳果에게 禪位하고 上王이 되었다. 이 亂離를 後世에서 第1次 王子亂이라고 한다.

第1次 王子亂의 功勞者에 對한 論功을 定社功臣이라 하고 그功의 待遇를 開國功臣보다 더 厚待하였다. 그런데 定社功臣錄을



살펴보면 그 亂離挾雜에 加擔한 功이 없는 青海伯에게 二等功臣의 榮光을 내리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理由가 있다고 본다.

1. 青海伯은 康妃의 姪女 康氏夫人을 後妻로 삼은 關係로 康妃와 特別한 血緣關係가 있으나 元來 性品이 剛直하고 物慾과 政權慾이 없는 분이라 康妃에게 阿附하여 王世子 芳碩의 便을 한 번 도 들은 일이 없이 公明正大한 公事以外에 關與하지 아니 하여 鄭道傳의 一黨 除去가 容易하였다.

2. 青海伯은 鄭道傳의 奸巧함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어 李太祖에게 鄭道傳과 朴苞는 그 奸巧한 自己 才操때문에 自命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까지 進言하고 鄭道傳과 사귀지 아니할 뿐더러 이 亂은 開國元勳을 殺害하려고 하였다는 陋名을 씌우기 때문에 開國元勳을 待遇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 <御製 敎文>

이 글은 제1차 王子亂後 定宗大王이 青海伯을 定社二等功臣에 封한다는 敎文이다. (洪武 31年 1398년 己卯 11月)

教純忠佐命開國定社功臣青海君李之蘭

王曰蓋聞有功於民者不若有功於君有勞於事者不若有勞於國  
稽茲周禮司勳一職自王功國功而次其等第銘之太常均之爲報典  
也而王功國功特冠於諸功之上豈偶然哉扶擁社稷弘濟艱難必如  
平勃然後亦可以居其次也卿之先世仕于大金得大官嘉績多于時  
至有地三百蓋本深者末茂德厚者流光至于卿身英豪武毅氣淳以  
方忠足以寄百里之命勇足以奪三軍之帥爲國長城爲王爪牙因一  
世之名將也我 上王自潛邸時得卿爲樞裨常汗馬以從役略無破  
骨出鐵之患屢收斬將奪旗之功一罵而走納氏再罵而却胡氏昇天  
之役一矢飲羽而賊鏑摧引月之戰麾兵一呼而賊勢破此雖出於上  
王之能軍而亦縣卿出入行伍長槍快劍之力也以重哀滅賊於咸州

## 定社功臣의名單

공신 이름	비	승	등 급	노 비	토 지	지 급 받 은 물 건
李 和義 安 公			1등공신	25口	200결	말 1필, 안장, 고삐, 금히리띠 1개, 관복 1벌
芳 毅益 安 公			"	"	"	"
芳 幹懷 安 公			"	"	"	"
芳 遠靖 安 公			"	"	"	"
李 伯卿上 黨 侯			"	"	"	"
趙 浚左 政 丞			"	"	"	"
金 士衡右 政 丞			"	"	"	"
李 茂參 贊 門 下 府 事			"	"	"	"
趙 璞			"	"	"	"
河 崙政 堂 文 學			"	"	"	"
李 居易參 贊 門 下			"	"	"	"
趙 英茂參 知 門 下			"	"	"	"
呂 祐寧 安 侯			2등공신	10口	100결	말 1필, 은히리띠 1개, 관복 1벌
沈 淙青 原 候			"	"	"	"
幅 根奉 寧 候			"	"	"	"
張 思吉參 贊 門 下			"	"	"	"
李 之蘭門 下 侍 中 贊 成 事			"	"	"	"
趙 溫商 議 門 下			"	15口	150결	"
金 輅判 中 樞 院 事			"	10口	100결	"
朴 苞前 商 議 中 樞			"	"	"	"
鄭 摠前 中 樞 院 學 士			"	"	"	"
李 天祐同 知 中 樞 院 事			"	15口	150결	"
張 思靖商 議 中 樞			"	10口	100결	"
張 湛同 知 中 樞			"	"	"	"
張 哲中 樞 院 副 使			"	15口	150결	"
李 叔蕃右 副 承 旨			"	"	"	"
辛 克禮上 將 軍			"	"	"	"
閔 無咎大 將 軍			"	"	"	"
閔 無疾戶 曹 議 郎			"	"	"	"

(定宗實錄에 依함)

則訴日月而告罪以大義回軍於威化則翼上王而決疑惟其有孝之  
 實移以爲忠者無不盡矣雖然此特論諸功之盛者爾當麗運之衰叔  
 視天命人心之歸扶日月誓山河載在盟府者已不細矣今又巨奸根  
 據嘯聚不還聲勢相依羽翼已成覩我 上王不悅利挾幼孽謀掘國  
 柄將賊我同氣之親幾墜我艱成之業安危在於呼吸之間惟時宗室  
 懿親舊勲大臣聞難咸憤而卿與聞協贊撥亂於橫流之際反正於累  
 卵之中既佐運而開國又推誠而定社其王功國功之偉者鏗鏘於前  
 後輝映於史冊謂非平勃之流亞可乎卿成重造之功永不忘在我家  
 故繪像購功爵贈有恩并依開國典例至如土田減獲金帶一腰表裡  
 一套馬一匹信由中出卿其領也於戲撥亂反正誠萬世之難忘崇德  
 報功豈一人之私意故茲教示想宜知悉

純忠佐命定社功臣 青海君 李之蘭에게 내린 敕書

王은 이르노라, 들은 바로는 百姓에 功이 있는 것이 임금에 功  
 이 있는 것만 못하고 집을 爲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周禮에서 功勲의 職制를 조사해 보  
 면 王에 對한 功과 國家에 對한 功을 等級으로 定해서 等級 차별로  
 太常(周나라에서 官職을 統管하는 벼슬)에 기록해서 公平하게 賞  
 을 주는 法典을 마련하였으니, 王에 對한 功이 모든 功勞中에서  
 第一 으뜸이 되는 것이 결코 偶然한 일이 아니니 險難함을 물리  
 치고 社稷을 붙든 功이 반드시 漢나라의 陳平이나 周勃 같아야 그  
 차례에 앉게 될 것이다.

卿(임금이 臣下에게 하는 말)의 祖上들은 金나라의 大官으로  
 功이 많아서 三百里의 땅을 功으로 받은 일까지 있다. 뿌리가 깊  
 으면 가지가 盛하고 德이 두터우면 빛이 흐르는 법이다. 卿으로  
 말하면 英特하고 俊秀하고 글세고 淳厚하고 方正한 사람이다. 忠  
 誠은 可히 百里의 나라를 保全할 王命을 부탁할 수 있고 勇猛은

足히 三軍의 元帥를 잡아올 수 있어서 나라의 長城이요, 임금의 手足으로 한 世上의 名將이었다.

우리 上王(前임금의 稱號)이 임금되시기 前에 卿은 副將으로서 항상 말의 땀을 흘리며 갖은 苦生을 다 겪었으며 뼈를 쪼개고 활촉을 뽑아내는 것 같은 負傷도 없이 여러차례 큰 功을 세워서 敵將을 죽이고 賊旗를 뺏아서 한 번 進擊에 納哈出을 도망치게 하고 두 번 進擊에 胡拔部를 쫓았으며 昇天 싸움에서 한번 손화살에 賊勢가 꺾어지고 引月 싸움에 한 번 호령으로 군사를 지휘해서 賊軍을 破했으니 이것이 모두 上王의 萬能한 戰術로 된 것이나 사실은 卿이 軍中에 있어서 軍卒을 잘 指揮統率하고 長槍과 快劍을 잘 썼기 때문이다.

威州 싸움에는 喪主의 몸으로 하늘에 不孝의 罪를 告하고 大義를 爲해 威化島에서 撤兵해서 上王을 도와 義理를 지켰으니 孝子の 道理와 忠臣의 功績이 모두 극진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功中에서 가장 찬란한 것을 들어서 말하자면 高麗의 運命이 다해서 天命과 人心이 돌아감을 지켜보고 上王을 도와 나라를 일으켜서 天地에 盟誓한 것이 盟府(太祖大王와 開國功臣들이 모어서 하늘에 盟誓한 記錄)에 실려 있으니 이것도 또한 적지 아니한 일이다.

이제 또 奸臣의 魁首놈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된 놈들을 모아 힘이 점점 커져서 上王이 좋아하시지 아니함을 알아차리고 어린 庶子를 끼고 國權을 잡으려고 장차 우리 同氣의 誼를 끊게 해서 간신히 이루어 놓은 大業의 安危가 瞬間에 달렸으므로 宗親(임금의 同姓인 집안)과 懿親(임금의 異姓인 親戚) 元老大臣들이 모두 憤을 참지 못하던 터에 卿이 마침 이 所聞을 듣고 協助해서 틀려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어지러운 大勢를 整頓시켰으니 開國



의 功도 크지만 나라를 바로잡은 功도 크도다. 임금에 對한 功과 國家에 對한 功이 前後로 赫赫해서 史記에 明白하게 記載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漢나라 때의 陳平이나 周勃에게 比할 것이라.

卿이 大功을 거듭 세운 것은 우리집에서 永遠히 잊지 못할 것이므로 畫像을 그려서 功을 새기고 爵位를 주어서 恩寵을 베풀고 아울러 開國功臣의 法典에 맞추어서 土地와 종과 金帶 한 개와 官服 한 벌과 말 한 필을 내리니 실로 나의 衷心에서 우려나온 정성이니 卿은 이것을 받으라. 反正이란 萬世를 通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 그 功을 갚는 것이 어찌 나 個人的 意思이겠나, 그러므로 여기에 글로써 表示하니 잘 살피기를 바라노라.

## 2. 二次 王子亂

一次 王子의 亂 후 君臣과 父子의 天倫도 다 無視되고 오직 勝者 芳遠의 指揮로 李茂의 精銳部隊가 宮闕을 包圍하고 外部와의 接觸을 遮斷하니 過去世上을 마음대로 하던 李太祖도 나이먹고 병들어 西涼亭에 누웠으니 帝王의 權力도 無色하고 흘러들어오는 暗澹한 消息에 처음으로 겪는 敗者의 慘憺한 現實 앞에 가슴을 쥐어 뜯었다.

老年에 國權을 잡고 世上을 幸福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愛妻의 懇請으로 王位를 막내 아들에게 傳位하고자 王世子를 막내 芳碩으로 冊封한 것이 禍根이 되어 後妻所生의 아들 芳蕃·芳碩 두 兄弟 및 그 所生의 孫子들 까지 無慘한 禍를 當하였다. 남도 아닌 自己의 아들들에게 이 무서운 背信과 反逆을 當하니 그 當時의 李太祖의 心情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리하여 一大革命을 일으켜 無慘한 殺生을 敢行한 芳遠은 아버지 李太祖의 病勢가 好轉되어 差度가 있자 病勢 恢復후 李太祖

가 帝王으로서 이번 王子亂에 對한 報復處理가 있을 것을 豫見하고 이를 如何한 方法으로 未然에 防止하느냐 하는 問題를 그의 幕僚와 熟議 끝에 아버지 李太祖로 하여금 王位에서 물러나는 길 밖에 없는 것으로 家議가 모아졌다.

8月 29日 밤에 李太祖는 病勢에 많은 差度가 있어 西涼亭에서 康寧殿 西寢室로 옮기었다. 康寧殿에 누운 李太祖는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非命에 죽은 아들과 어린 孫子의 모습이 눈앞에 아물거리는 것이었다. 한숨을 쉬면서 獨白하는 말이 “兄弟를 虐殺하는 놈은 사람일 수 없다. 芳遠이란 놈을 어떻게 처치해야 내 속이 풀리지” 하며 속을 태우고 있었다.

이때에 새로 世子로 冊封된 芳果를 先頭로 芳毅·芳幹·芳遠의 四兄弟가 물려와 마루에 꿇어 엎드렸다. “아버지 心應을 끼쳐 드려 未安합니다” 하고 王世子 芳果가 代表로 人事를 올렸으나 李太祖는 人事는 들은채도 아니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위청걸음으로 일어서서 壁에 걸린 칼을 잡아 뽑으면서 주저 앉았다.

李太祖는 칼든 손을 떨면서 芳遠을 노려보며 “이놈, 芳遠아 이 도적 같은 놈, 능지처참하여도 부족할 짐승같은 놈”하며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옆에 모시고 있었던 侍女들이 달려들어 李太祖의 손을 붙잡았다. 李太祖는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으나 늙고 병들어 손에 힘이 없어 딱없이 侍女에게 칼을 빼앗기니 李太祖는 주먹으로 땅바닥을 치며 “이놈 너무 사람이냐 이놈”하고 힘없는 호령을 하였다.

꿇어 앉아 고개를 숙인 芳遠은 잠자코 있었다. 王世子 芳果가 앞으로 다가 앉으며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야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李太祖는 芳果를 보며 “너도 같은 한패거리로구나. 용상이 그렇게 좋은 줄 아느냐

이놈들아” 하며 다시 芳遠을 노려보며 “이놈 芳遠아” 하며 일어서려 하니 侍女들이 다시 그를 붙잡고 芳遠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와 버렸다.

氣盡한 李太祖는 주저앉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芳果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하니 “저도 모르겠습니다”하고 對答하였다. 그 다음에 “芳幹아, 이 일을 어찌면 좋으냐” 하니 愚直한 芳幹은 서슴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늙으셨어요”하고 또 계속하여 “형님께다 맡기시고 한가로이 지내세요. 어련히 잘하실 따구요.” 하고 意外의 對答을 하였다.

李太祖는 大怒하여 “이 無嚴한놈, 나더러 물려나라는 말이냐”하고 芳幹을 노려보며 몸을 일으키려다 힘없이 도로 베개 위에 누워 天井을 바라보는 太祖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孤獨과 苦惱가 흐르고 있었다.

한참 時間이 흐른 다음에 李太祖는 힘없이 “芳果야”하고 부르고서 “나는 이제 無用之物이다. 너는 나를 代身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라”이 말을 하고 은근히 아들로부터 사양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李太祖는 肉體와 魂이 同時에 맥이 탁 풀려 나가는 것을 느끼며 “치사한 것이 人間이로구나” 하며 人間에 懷疑를 느끼었다.

이 때에 芳幹이 한쪽 무릎을 세우면서 방안을 둘러다보고 “그런데 아버지 대신이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편찮으신 동안만 대리로 일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리를 물려 주시는 겁니까” 하고 反問하였다. 李太祖는 失意에 찬 눈으로 아들들을 보니 芳果와 芳毅는 머리를 숙이고 있고 芳幹은 自己를 注視하고 있었다.

李太祖는 다시 천장을 쳐다보며 답답한 목소리로 “芳果야 禪位

할 데니 차비를 차리라고 해라. 그리고 밤도 깊었으니 물러가라”라고 하니 芳果등이 물러나와 그 밤으로 政府 要職의 人事移動을 大幅 斷行하고 그 翌日인 九月一日에 이를 發表하니 政府가 芳遠一派로 充滿하였다.

9月5일에 李太祖는 王位를 王世子 芳果에게 禪位하니 이 분이 定宗恭靖大王이시다. 이리하여 上王이 된 李太祖는 마음이 千斤같이 무거우며 空虛한 가슴에는 슬픈 追憶만이 겹겹으로 쌓이고 눈에 보이는 山川이 모두 寂寞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輾轉反側할 뿐이었다.

그 다음해 春三月에 李太祖는 健康이 거의 恢復되어 庭園을 거닐 수 있으나 두 아들의 慘禍를 겪고 王位마저 버리고 나니 漢陽이 싫어지고 開京이 그리워서 3月 7일에 아들 芳幹과 親知 青海伯 그外 隨行員을 데리고 景福宮을 나와 北쪽으로 開京을 向하여 길을 떠났다.

3月 9일에 開京에 到着한 李太祖는 새로 丹裝한 옛날 邊安烈의 집에 거처 하다가 다시 尹桓 侍中이 살던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 옛날 살던 開京에 와도 마음의 寂寞은 如前하니 漢陽이나 開京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一次 王子亂에 죽은 사위 李濟의 아내며 막대딸 慶順公主가 보고 싶었다.

3月 26日 깊은 밤에 홀로 말을 타고 집을 나선 李太祖는 鳳鳴山을 左로 끼고 北으로 달려 朴淵瀑布에서 말을 세웠다가 다시 말을 달려 聖居山 밑에 있는 觀音寺에 當到하여 말에서 내려보니 舍堂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山門 밖에 말을 매고 靜寂 속의 마당을 가로질러 조용히 階階를 올라 舍堂 안을 보니 외로운 燈下에 慶順公主가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祈願하고 있었다. 李太祖는 나즈막한 소리로 “慶順아”하



고 불렀다.

漢陽에서 不意의 慘變으로 남편을 잃고 이절에 온지 7個月 만에 뜻밖에 아버지의 부름에 놀란 慶順公主는 아버지 李太祖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을 못하다가 한참만에 “아버지 쉼일이세요”하고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李太祖는 딸의 손을 잡고 “네가 보고 싶어 왔다” 이리하여 그리운 딸과 같이 庭園을 거닐면서 나무와 탑 사이를 돌고 또 돌고 있었다.

李太祖와 딸 慶順公主가 그리운 懷抱를 풀고 있을 때에 開京에서는 大騷動이 惹起되었다. 이는 李太祖가 밤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王宮과 政府가 발칵 뒤집혀 야단을 떨고 있었다. 이때에 青海伯은 “李太祖가 必然코 딸 慶順公主가 있는 觀音寺에 갔을 것이다”라고 斷定하고 말을 달려 觀音寺로 李太祖를 찾아갔다.

青海伯과 그의 追從이 觀音寺 山門 밖에 到着하니 果然 李太祖의 愛馬가 홀로 나무에 매어 있었다. 초롱불을 켜들고 李太祖 앞에 나가 青海伯은 허리를 굽혀 人事하면서 “聖體 無故하시니 무엇보다 반갑습니다”라고 하니 李太祖는 青海伯의 손을 잡으며 “이거 青海伯 아니오” 하고 반가와하였다.

青海伯과 李太祖는 서로 기쁜 얼굴로 對話를 나누었다 “갑자기 行次하셨읍니다” “여기 와서 慶順이를 보고 감감한 김에 平州溫泉에나 가볼까 했소” “于先 오늘밤은 開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놀라서 큰 騷動입니다” 하고 青海伯이 李太祖에게 開京으로 돌아가시기를 慫慂하니 李太祖는 아무 對句가 없었다.

青海伯은 李太祖의 옆에 있는 慶順公主에게 “殿下께서 적적하시니 公主께서도 開京으로 옮기시면 어떠하옵니까” 하니 慶順公主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하지요” 하고 승낙하니 後日에 다시 데리러 오기로 約束하고 還宮길에 올랐다.

李太祖와 青海伯은 말고며를 나란히하여 길을 가면서 歡談하였다. 李太祖가 青海伯을 보고 “내 青海伯 보기가 부끄럽소”하자 青海伯이 “人間事가 다 그런지 아십니까 ‘如風於空中’ 바람이 공중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무 미련없이 지내시기 바랍니다”라고 慰安의 말을 하니 李太祖는 한숨을 쉬며 嘆息條로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하며 悲哀・痛忿・孤獨에 몸부림치며 다시 開京으로 돌아왔다. 定宗大王(芳果)도 아버지 李太祖를 따라 漢陽에서 開京으로 다시 遷都하니 王室의 宗親과 政府가 다시 開京으로 돌아왔다.

朝鮮朝 開國부터 倭寇의 出沒이 漸次 安息되어 定宗朝에 이르러서는 海邊이 平穩하여 漁民이 高枕樂業하며 東北方女眞反亂도 安定教化되어 太平聖代를 이루었다.

定宗大王은 卽位後 世子를 冊封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모두 入山修道를 命하여 중이 되게 하니 自然 東宮이 비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愆心 많은 芳幹・芳遠 두 王弟들이 다시 東宮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었다.

芳幹은 芳遠만 없이 하면 다음 王座는 自己 것이라 생각하고 朴苞와 더불어 芳遠을 除去하며다가 도리어 芳遠 一派에게 敗하게 되어 朴苞는 誅殺되고 芳幹은 兎山에 流配되니 이 亂을 後世에서 二次 王子亂이라 稱하며 이때에 芳遠을 도와 芳幹의 一黨을 肅清하는데 功이 있어 功臣錄에 記錄된 사람을 佐命功臣이라고 한다.

青海伯은 二次 王子亂에도 一次 王子亂과 같이 어느쪽에도 關與하지 아니하였으나 佐命功臣錄에는 三等功臣으로 되었으니 그 理由는 一次 王子亂 때와 같은 것이다.

佐命功臣錄은 다음과 같다.

## 佐命功臣의 名單

공신 이름	벼	관	등	급	동명 신칭	노	비	토	지	지금 받은 물건
李 佇	上	黨	侯	1등	盡忠佐命	13口	150결			白銀50兩, 官服1, 말 1匹
李 居易	門下	左侍	中	"	"	"	"			"
河 崙	門下	右侍	中	"	"	"	"			"
李 茂判	三	軍府	事	"	"	"	"			"
趙 英茂	門下	侍	郎	"	"	"	"			"
李 叔蕃	左	軍	總	制	"	"	"			"
閔 無咎	中	軍	總	制	"	"	"			"
辛 克禮	左	軍	同知	總制	"	"	"			"
閔 無疾	驍	城	君	"	"	"	"			"
李 來	藝文	春秋館	學士	2등	翊戴佐命	10口	100결			백은 25량, 관복 1벌, 말 1필
李 和義	安	公	"	"	"	"	"			"
李 天祐	完	山	侯	"	"	"	"			"
成 石璘	昌	寧	伯	3등	"	8口	80결			銀官帶・관복 1벌, 말 1필
李 淑	完	川	君	"	"	"	"			"
李 之蘭	門下	侍	中	贊成	事	"	"			"
黃 居正	開	城	留	守	"	"	"			"
尹 抵	知	三	軍府	事	"	"	"			"
金 英烈	"	"	"	"	"	"	"			"
尹 坤	右	軍	同知	總制	"	"	"			"
朴 嘗	刑	曹	典	書	"	"	"			"
朴 錫	命	都	承	旨	"	"	"			"
馬 天牧	上	將	軍	"	"	"	"			"
趙 希閔	判	殿	中	寺	事	"	"			"
柳 沂	奉	常	卿	"	"	"	"			"
趙 瑛	參	贊	門下	府	事	4등	6口	60결		"
趙 溫	三	司	左	使	"	"	"			"
權 近	參	贊	門下	府	事	"	"			"
李 稷	三	司	右	使	"	"	"			"
柳 亮	參	知	三	軍府	事	"	"			"
趙 卿	中	軍	總	制	"	"	"			"

공신 이름	벼	술	등	급	공명	신칭	노	비	도	지	지금 받은 물건
金承暉	左軍	總制	〃	〃	〃	〃	〃	〃	〃	〃	〃
徐益	右軍	同知總制	〃	〃	〃	〃	〃	〃	〃	〃	〃
洪恕	前同知總制	〃	〃	〃	〃	〃	〃	〃	〃	〃	〃
尹子當	兵曹典書	〃	〃	〃	〃	〃	〃	〃	〃	〃	〃
李原	左承旨	〃	〃	〃	〃	〃	〃	〃	〃	〃	〃
李升商	右承旨	〃	〃	〃	〃	〃	〃	〃	〃	〃	〃
金鼎卿	漢城尹	〃	〃	〃	〃	〃	〃	〃	〃	〃	〃
徐愈	右副承旨	〃	〃	〃	〃	〃	〃	〃	〃	〃	〃
李從茂	上將	軍	〃	〃	〃	〃	〃	〃	〃	〃	〃
李膺	〃	〃	〃	〃	〃	〃	〃	〃	〃	〃	〃
沈龜齡	〃	〃	〃	〃	〃	〃	〃	〃	〃	〃	〃
延嗣宗	大將	軍	〃	〃	〃	〃	〃	〃	〃	〃	〃
金宇	〃	〃	〃	〃	〃	〃	〃	〃	〃	〃	〃

(太宗實錄에 依함)

&lt;敎書&gt;〔建文 3年(1401) 2月日〕

이 글은 제2차 王子의 亂 後에 太宗이 青海伯을 佐命 三等功臣에 封한다는 敎文이다.

建文 3年 2月 日

敎純忠奮義開國定社佐命功臣青海君李之蘭

王若曰自古王者必賴忠義之士以成大業此周禮所以立司勳而丕視功載也卿天與拳勇才膺矢石摧金革北方之強鎮邦國百夫之特從我 太上每爲選鋒奮興鷹揚之烈屢宣虎闕之威摧倭奴於引月之戰走納氏於北鄙之役凡在行陣每立殊勲眞所謂干城之將也歲在戊寅權奸用事謀挾幼孺以煽禍亂卿與諸公仗義協力旋即戡定天倫旣紊而復整國祚幾危而再安及逆臣朴苞懷奸構亂推誠翊衛終始不渝俾我不穀繼承丕緒其立大功於王室者亦屢矣宜示崇獎之典以勸忠義之節是用圖形記功追贈先代宥及後昆錫之土田減穫又賜白金文綺廐馬等件其可領也於戲丹書以盟冀傳芳於有



永黃河如帶期永保於無窮故茲教示想宜知悉

純忠奮義開國定社佐命功臣青海君李之蘭에게 敎書를 내린다.

王은 이르노라. 王이란 것은 忠臣의 힘을 입어서 大業을 이룩하므로 周禮에 功勳의 條例를 規定해서 功에 對한 限界를 明白히 해 놓았다. 卿은 하늘이 낸 勇將으로 戰法에 能通해서 갑옷을 입는 것은 北方의 강한 氣運을 가졌고, 나라를 진압하는 것은 여러 사람中에서 特異한 재주를 가졌다.

우리 太上王을 좇아서 번번이 先鋒이 되어 旣[應]처럼 날랜 재주를 發揮하고 호랑이처럼 능률한 위업을 나타내어서 引月에서 倭寇를 잡아 놀이고 北邊에서 納哈出을 짓밟아서 싸움이 있을 때 마다 번번이 殊勳을 세웠으니 정말 나라의 방패가 될 만한 장수이다.

지나간 戊寅(1397)年에 魁首奸臣놈들이 어린 庶子를 끼고 患亂을 꾸렸을 때에 卿이 모든 大臣들과 協力해서 즉시로 患亂을 진압해서 紊亂했던 天倫이 整頓되고 危殆로있던 國運이 편케 되었으니 精誠을 바쳐서 임금을 推戴하는 마음이 끝끝내 변치 아니해서 나 같이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의 大統을 繼承하게 한 王室에 대한 큰 功이 또한 밝혀졌다.

마땅히 鄭重한 大典을 베풀어서 忠義의 節을 勸獎해야 하므로 畫像을 그리고 功을 기록해서 先代의 조상을 追贈하여 벼슬을 내리고 後世의 子孫에게 福이 미치게 하기 爲해 田土와 奴婢를 支給하고 또 白金·官服과 말 한필을 내리니 卿은 받으라. 天地神明에 對한 盟誓를 盟府에 실어서 黃河水가 실오리 만큼 남을 때까지 꽃다운 이름이 기리기리 保存되어 傳하기를 바라 마지 않으므로 이에 敎書를 내리니 그리 알지어다.

### 3. 落 鄉

定宗 2年(1400) 正月의 二次 王子亂을 치른 후 2월에 定宗大王은 芳遠(靖安大君)으로 王世弟를 삼았다가 그해 11월에 王位를 在位 2年 만에 王世弟 芳遠에게 禪位하니 이 분이 바로 王權을 위하여 高麗王朝의 忠臣이며 碩儒인 國隱 鄭夢周의 打殺과 杜門洞七十二人의 賢良을 沒殺은 勿論, 王氏를 全部 잡아 沒殺하는 등 骨肉之間의 流血慘殺도 거리낌없이 敢行하였던 朝鮮王朝 3代王인 太宗大王이다.

定宗이 王位를 아우 太宗에게 禪位하니 王家規範에 依하여 定宗은 上王이 되고 그 當時 上王이던 李太祖는 太上王이 되니 李太祖의 心情은 더욱 錯雜하여 世上事에 興味를 잃고 또 아들 太宗이 보기 싫어졌다. 그리하여 自己 故鄉인 咸興으로 돌아가서 隱居中 죽은 康妃의 親戚인 趙思義를 앞세우고 反征을 하다가 太宗의 反擊으로 敗北하였다.

朝鮮王朝를 創建한 지 不過 10年에 三次에 걸친 父子 兄弟間의 骨肉相爭 끝에 結局 慈心의 化身인 太宗이 王位를 차지하니 一身의 富貴榮華만을 위하여 三綱五倫을 짓밟고 無辜한 良民을 無慘히 殺戮한 功으로 功臣稱號를 받으며 田畠과 婢僕을 비롯 高位의 官職을 받고 意氣洋洋하는 政商輩는 그 후에도 繼續 私利를 위하여 서로 謀陷 殺戮을 함으로써 朝鮮朝 五百年은 實로 피의 歷史로 얼룩지고 말았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謀陷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混亂한 政局에 處해 있는 青海伯은 七代祖母 岳武穆王妃 李氏의 現夢中の 遺訓“나의 親家 後孫中에 王業을 이

북한 사람이 있으니 너는 그를 도와 王業을 이루도록 하여라”는 말과 羅流先生의 敎訓 “너는 後日에 創業主를 만나 큰 일을 한 후에 틀림없이 人倫의 變이 있을 것이니 이 때에 富貴榮華에 貪溺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다시는 世上 사람을 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고 銘心하여 非義를 犯하지 말라”를 銘心하여 价江에서 李太祖를 만나 義兄弟를 맺고 모든 智慧와 誠意를 다하여 朝鮮王朝를 創建 國泰民安한 太平聖代를 바랐다.

奇異하게도 羅流先生의 豫言과 같이 開國初부터 王權을 篡奪하기 위한 骨肉相爭으로 寧日이 없을 뿐 아니라 李太祖가 禪位하고 成興으로 가게 되니 靑雲에 마음이 없어 모든 官職을 辭任하고 自己故鄉인 北靑 蒲靑社로 돌아가 佛道를 닦고 기러기를 벗삼아 餘生을 安穩하게 지냈었다. 그 崇高한 뜻은 아래와 같은 上疏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上疏文

臣 遭遇聖王 誤委司命 南征北伐 濫殺甚多 鐵券之寵 雖極  
地獄之禍 可懼 伏願 祝髮爲僧 以免冥保

신이 훌륭한 임금을 만나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싸움터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나라에서 주는 은전은 비록 더할 수 없이 극진하나 지옥에 가서 당할 벌이 몹시 두렵습니다. 업드려 원전대 머리를 풀고 중이 되어 명부에서 당할 벌을 면하고자 합니다.

#### 4. 官 爵

靑海伯이 落鄉할 때에 辭意를 表한 上疏文을 보면 南征北伐 이

러 戰場에서 마구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나라에서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 등등 가진 優待를 다할지라도 나의 良心은 平安치 못하여 머리 풀고 중이 되어 戰場에서 마구 죽인 사람의 冥福을 빌어 주겠다는 뜻이다.

青海伯이 南征北伐에서 죽인 사람은 全部 倭敵과 北方의 胡敵으로서 우리나라에서 掠奪할 目的으로 侵入하여 殺人放火 無數한 掠奪을 敢行한 盜賊들이라 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도리어 우리 民族이 죽게 되므로 宜當히 죽일 놈을 죽이고 數많은 同族을 救出하였진마는 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懺悔하며 그 사람들의 冥福을 빌기 위해 人間으로서의 더할 수 없는 富貴榮華도 다 버리겠다는 그 仁慈한 마음씨, 反面 權勢와 富貴를 貪내어 忠良은 勿論 兄弟와 同族을 마구 죽이고 또 이 惡毒한 일을 도와 定社・佐命 등의 功臣이라고 得意洋洋하며 그것도 不足해서 自己의 딸・孫女 또는 親戚의 딸을 養女로 삼아 임금의 後宮으로 바쳐 權勢와 富貴를 사고자 하는 그 무리들과는 너무나 對照的이다.

富貴榮華는 사람마다 다 渴求하는 것이건만 이를 마다하는 青海伯의 謙虛한 態度와 哲人的인 處世는 참으로 後世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일이며 敬慕의 마음을 禁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青海伯이 高麗와 朝鮮에서 지낸 重要的 벼슬을 알아 보기로 한다.

## 5. 采 邑

太宗이 大位에 올라서 가장 尊敬하고 信任하는 青海伯에게 右侍中 벼슬을 주어 國政을 一任하고자 禮遇를 갖추어 承旨를 北青으로 보내 青海伯을 召命하였다. 그러나 青海伯은 承旨가 온다는 말을 듣고 別雁臺 北쪽 3里쯤 되는 곳에 있는 造泡庵 중을 불러



李之圖 이 반은 주요 벼슬

년	대	벼슬 이름	문·무	계	종	기	출	처
우왕	11년	宣力佐命功臣密直副使	무	종	2	우왕 11년 이성제와 함께 함주 兎兒洞에서 왜구격퇴	고려사 권116 열전 29 이부단, 태조실록 권1	
"	"	商議同知密直司事會議都監事	"	"	"	우왕 14년 위화도의 회군에 참가	고려사 권116 열전	
창왕	원년	密直司事	"	"	"	"	"	"
공양왕	2년	密直使	무	종	2	우왕 14년 위화도의 회군에 참가	동양왕 2년 3월 임인 고려사 권116 열전 이부단	
"	4년	判都評議司事知門下府事	문	정	2	공양왕 2년 서태도에서 왜구격퇴	고려사 권116 열전 이부단	
태조	원년	大匡輔國崇祿大夫青海伯參贊門下府事青海君義興親衛軍節制使總祚佐命開	검	정	1	建州衛亂平定		
"	2년	一等功臣輔國崇祿大夫參贊門下府事回軍一等功臣	문	"	"	이성제를 신왕에 추대, 거국의 공훈	태조 원년 9월 갑오	
"	2년	東北面都安撫使	무	"	"	우왕 14년 위화도의 회군에 참가	태조 2년 7월 을축	
"	6년	東北面都兵馬使使	"	"	"	"	태조 2년 8월 을미	
"	7년	門下侍郎贊成事判刑曹事義興三軍府事中軍節制使	검	"	"	"	태조 6년 12월 임인 태조 7년 9월 계유	
정종	원년	門下侍郎贊成事定社二等功臣	문	"	"	태조 7년 1차 왕자의 난	태조 7년 10월 계유	
정종	2년	門下侍中贊成事	"	"	"	"	정종 2년 5월 임신	
태종	원년	翊戴佐命三等功臣	"	"	"	정종 2년 2차 왕자의 난	태종 원년 정월 을해	

削刀를 들고 미리 待機했다가 承旨가 들어오니 冠服을 입고 임금의 詔書를 읽고나서 즉시로 冠服을 벗어 불태우고 중을 시켜서 머리를 깎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承旨는 깜짝 놀라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復命을 해야 할 터인데 뭐라고 상감께 아뢰옵니까” 하니 青海伯이 佐上定國 人臣之分 極矣 削髮爲僧 君臣之義 絕矣 斷無他言 “임금을 받들어 나라를 세웠으니 남의 臣下된 道理는 다했고 머리 깎고 중이 되니 君臣의 義를 끊는 것이니 다른 뜻이 있노라” 하므로 承旨가 그대로 太宗에게 告하니 太宗이 青海伯이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줄을 알고 北青一部를 青海縣으로 改編하고 青海伯의 采邑(有功한 特定人에게 한 고을을 맡겨서 그 고을 세금은 나라에서 관제치 않고 그 세금은 그 분의 단독 소유가 되는 一種의 封建制度)을 만들어 餘生을 고요히 지내게 하였다.

## 五. 太白星의 昇天

### 1. 青海伯의 下世

青海伯은 北靑 蒲靑社 別鴈臺로 落鄉하여 佛道에 專念하며 閑雲夜月에 기거기를 몇삼아 餘年을 한가이 지내다가 太宗 2年(1402) 3月 3日 辰時(午前 7~9時)에 天地가 混沌함을 느끼자 스스로 自己 命이 다하였음을 깨달고 太宗大王에게 上疏를 하였다.

青海伯은 臣之本土人 死於他國則 焚其屍 還葬其土 願 殿下 使臣從土風 又願 殿下 恐懼修德 永保朝鮮: “나의 本土사람들은 他國에서 죽은즉 그 시신을 火葬하여 白骨을 自己 故鄉에 갖다 장사지내는 風習이 있으니 殿下에게 請하오니 그대로 하게 하여 주심을 바라며 또 殿下께 付託하오니 아무쪼록 德을 닦아 朝鮮을 永久히 保存하기를 바란다”라는 上疏文을 올렸다.

그해 4月 11일에 享年 七十二歲로 別鴈臺 現在 靑海祠 자리 自宅에서 고요히 永眠하시니 이때에 아드님 4兄弟中 長子 和尚은 早卒하고 나머지 3兄弟 和英・和美・和秀가 다 漢陽에 있어 終身을 하지 못하였다.

太宗大王은 青海伯의 殞命한 悲報와 또 上疏文을 接하고, ‘上悼甚 輟朝三日’ 몹시 슬퍼하며 三日間 을 朝廷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明나라에서 파칠 使臣 祝孟獻이 와있어 太平館에서 歡迎宴을 베풀게 되었다.

太宗大王은 明나라 使臣 祝孟獻 歡迎宴에 參席하기로 되었는데 青海伯의 訃音을 듣고 輟朝三日을 宣布하였으며 또 眞心의 吊意

를 表하고 哀悼하는 뜻에서 三日間을 素食하며 國寶를 接待하는 宴會에도 病을 稱託하고 參席을 하지 아니하였다.

太宗大王은 青海伯이 生前에 朝鮮朝開國에 이바지한 功績과 自己 아버지 李太祖와의 交分이 特別히 두터웠던 것을 生覺하여 襄烈公이라는 諡號를 내리고 自己를 代身하여 禮官에게 葬費를 보내며 祭祀를 지내고 葬禮節次는 青海伯의 遺言대로 佛教儀式에 依하여 執行하게 하고 그 墓의 四方周圍에 獸石과 長明燈을 비롯 封墳의 規模가 治似 王陵과 같이 雄壯하게 治山하고 青海伯의 畫像을 그려 影堂과 祠堂을 세우고 春秋로 祭享을 받들도록 田土와 婢僕을 내며 永久히 香火를 받들게 하였다.

夫人은 咸安郡夫人 惠安宅主 尹氏(領議政 尹希普의 따님), 象山郡夫人 谷山 康氏(禮儀判書 上護軍 普戴의 따님이며 神德王后 康氏의 조카 따님이시다)이고, 아드님 네 분이 있었다. 長子 和尙(輔國崇祿大夫 判工曹事 樞密副使 兼 禮部尙書 青海君), 次子 和英(輔國崇祿大夫 判都摠制府事 義興三軍府事 兼 判刑曹事), 三子 和美(判漢城府事), 四子 和秀(禮曹參判).

## 2. 宗廟 配享

太宗 8年(1408) 5월에 太上王 李太祖가 昇遐하고 三年喪을 마치고 宗廟에 神位를 奉安할 때 太宗大王은 領議政 河崙과 其外 重臣들을 會合하고 李太祖의 配享할 功臣을 選定하였다. 이때에 太宗大王이 青海伯은 開國 原從功臣일 뿐 아니라 太祖大王과 死生苦樂을 同盟한 분이고 또 開國에 絶對的인 功勲이 있는 元勲功臣이므로 前列에 特選하여야 한다고 下命하여 至今까지 宗廟에 配享하고 있다.

太祖廟에 配享함과 아울러 李太祖의 健元陵・定宗大王의 齊陵・



太宗大王의 獻陵 등 세 陵의 神道碑에 青海伯은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으로 銘刻되어 있어 三代 王朝에 거쳐 青海伯의 功勳을 不朽의 功績으로 記錄하고 있어 위의 陵을 參拜하는 사람에게는 青海伯을 追慕하게 한다.

青海伯에게 太宗大王이 내린 諡號는 襄烈, 官職과 功臣稱號는 輪忠奮義翊贊景運 開國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門下侍中贊成事 判都評議司事 兼 判刑曹事 義興三軍府都節制使 青海伯이다.

#### 宗廟配享 祝文

勲蓋海東 緒遠隴西 百世如左 薰蒿長接: 功勳은 東쪽 나라에서 第一이요 系統은 隴西의 後裔로다. 永久한 歲月을 한결같이 香火를 받들며 길이 追慕하리다.

### 3. 北青都護府

本高句麗舊地久爲女眞所據高麗睿宗二年遣尹瓘逐女眞(置九城時稱號未詳)後没于元稱三撒恭愍王五年收復舊境置安北千戶防禦所二十一年改今名爲州置安撫使兼萬戶我 太祖七年改青州府太宗十七年以與清州牧同音復稱北青 世宗九年改爲都護府(邑名三撒安北青州青海)

#### 〈建置沿革〉

咸鏡道 建州라 하여 그 來歷을 말함.

根本 高句麗 땅으로 女眞이 占領하였었는데 高麗睿宗 때 (예종 2~3年: 1107~1108)에 尹瓘을 보내어서 女眞을 征伐하고 咸州・英州・雄州・吉州・福州・公岐鎭・通泰・崇寧・眞陽 등 九城을 만들었으나 그 다음 해 睿宗 4年(1109) 7월에 다시 女眞에 還付하고 그 뒤에 元나라 領土로 되어서 三撒이라 하였다가 恭愍王 5년에 다시 收復해서 安北千戶 防禦所를 만들었고 21년에 建州로 고쳐서

安撫使兼萬戶를 두었고 李太祖 7년에 靑州로 고쳤고 太宗 17년에 靑州牧을 두었다가 다시 北靑으로 고쳤고 世宗 9年 (1427)에 都護府를 두었다(邑名을 三撒이라 함은 靑州·安北·靑海의 세 고을을 말함).

그 都護府의 位置는 東으로 利原縣 지경까지 68里, 南으로 咸興府지경까지 125里 西로 洪原지경까지 56里 北으로 甲山府까지 180里이다.

#### 4. 靈魂의 啓示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마다 陵下에 사는 子孫들의 꿈에 神奇한 啓示가 있었다.

##### 7. 丙子胡亂

1636年 仁祖14年 丙子年 八月에 별안간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墓앞에 있는 石塔 무경이 저절로 열리므로 나뭇꾼이 發見하고 子孫에게 連絡해서 여럿이 와서 보니 石塔 무경이 무거워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옥중한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짐북은 빛으로 쓰인 ‘金來’ 두 글자가 나왔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두 물었는데 그때 거울에 淸太祖(奴彌哈赤)汗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것이 후세에서 말하는 丙子胡亂으로 사람들은 모두 靑海伯의 靈魂이 啓示한 것을 우리가 愚昧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무서운 恥辱의 變을 當하였다고 後悔하였다.

壬辰倭亂의 傷處가 채 아물기도 前에 또 北쪽에서 1616년에 明나라가 弱한 틈을 타서 滿州地方에 女眞族의 奴彌哈赤를 中心으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部族들을 統一하고 마침내 광해군 때 後金을 建設하였다. 광해군은 明나라와 後金의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中立的인 外交政策을 썼으므로 큰 충돌 없이 지냈다. 그러나 仁祖가 들어서면서 後金을 積極的으로 배척하였다. 이 무렵 李哈이 反亂을 일으키다 失敗하자 그 殘黨들이 後金으로 달아나 廣海군의 폐위를 전하고 朝鮮으로 侵入할 것을 慫慂하였다. 그러자 奴爾哈赤을 이은 後金의 대종이 朝鮮에 侵入해 왔다. 朝鮮은 이를 막지 못하고 講和하여 兄弟의 關係를 맺어 後金의 軍隊를 1627년에 물러가게 하였다. 이를 丁卯胡亂이라고 한다.

그 뒤 後金은 더욱 強해져 國號를 淸이라 고치고 임금을 皇帝라 하였다. 그리고는 朝鮮에 對하여 各種貢物을 要求하고 君臣의 關係를 맺자고 하였다.

朝鮮이 강경하게 이를 거절하자 淸나라는 (1636)년에 다시 大軍으로 쳐들어왔다. 仁祖는 一部 臣下들을 이끌고 南漢山城으로 避難가서 淸軍의 포위 攻擊에 맞섰다. 그러나 江華에 避難가던 王子와 王族・臣下들이 포로가 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和親하니 이것이 丙子胡亂이다.

이로서 淸나라의 간섭으로 明나라에 대한 親善外交를 끊고 淸나라와 外交를 맺게 되었다.

#### ㄴ. 神道碑 石

英祖 49年 甲午 1773년에 九代孫 憲이 南兵使가 되어 神道碑를 세우게 되었는데 碑文글자가 二千三百餘字나 되어서 그 字數가 다 들어갈 만한 돌을 求하기 爲해서 石工을 시켜서 四方으로 물색하였으나 도무지 알맞는 돌이 없어서 걱정중이었는데 꿈에 어떤 老人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시조 青海伯인데” 하고 墓下 東方 몇 步밖을 가리키며 “이곳을 파면 쓸만한 돌이 있으리라” 하므로 그 꿈에 가리킨 곳을 파더니 과연 돌이 나왔는데 마치 금방정으로 다듬은 것처럼 훌륭하였다.

## ㄷ. 字 式馨

青海伯이 돌아간 후부터 英祖 49년까지 근 4百年의 긴 歲月이므로 青海伯에 對해서 別途로 부르는 字號이 家乘에도 記載되어 있지 않고 다른 文籍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또 꿈에 青海伯이 나타나서 “나의 字는 式馨이다” 하고 壁에다 써놓고 가므로 깨어서 보니 글자의 形體가 뚜렷하게 보이더니 두 번 다시 보려고 하니 벌써 없어져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字가 式馨임을 알게 되었다.

## ㄹ. 水害

辛酉年 물난리 때에는 西島里 一帶가 全部 水浸이 되어 子孫 全部가 다른 데로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꿈에 한 老人이 와서 가지 말라고 詩 한 首를 일러주고 갔다.

不濁斯井不枯渴 鮮鮮綠綠祖基東  
柳挾東西無毀患 沙添爲沃占家豐

우물은 항상 깨끗하고 마르지 아니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槐花 나무는 祖上이 살던 터의 東쪽에 있도다.

東西로 버드나무가 늘어 서 있어서 무너질 염려가 없고  
모래가 쌓여지면 땅은 더 기름져서 豐年이 든다.

이로 因해서 子孫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아무 걱정이 없었다.

## ㄱ. 軍卒과 車馬

1908년 戊申年 난리 때에는 墓所에서 數많은 軍卒과 車馬가 나와서 洞口 밖으로 나갔다가 三日 만에 돌아왔고, 乙亥年 變亂 때에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나타나서 洞口 밖으로 나갔다가 그 이튿



날 돌아왔다.

## 5. 青海伯 畫像

### 7. 青海伯 影幀(英祖 22年(1746) 9月)

英宗大王謂筵臣曰青海伯畫像存乎提學元景夏曰有矣 上曰見之乎景夏曰臣見之矣右相曰青海伯畫像生氣勃然矣 上曰益安大君畫像存乎景夏曰有矣 上曰青海伯益安大君畫像爲先推入九日青海伯益安大君李牧隱黃翼成李鰲城畫像並進御 上曰吾一生欲見青海伯之像矣今見之貌類婦人不可以貌論將矣景夏曰青海伯之像壯矣射彈塞彈之說至今流傳矣 上曰其像好矣 太祖知遇隆矣景夏曰自北方從而爲功臣矣 上先製牧隱致祭文呼承旨書之次製青海伯致祭文而命書之曰青海伯第一矣如唐太宗之於敬德約爲兄弟也

英宗大王 卽位 22年 9월에 朝廷에 있는 여러 大臣들에게 “青海伯의 畫像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大提學 元景夏(1698~1761)가 “있읍니다” 하고 대답한 즉 大王은 다시 “보았는가” 하므로 元景夏는 “臣이 보았읍니다” 하니 右丞相이 옆에 있다가 “青海伯의 畫像은 生氣가 勃勃합니다” 한즉 大王은 또 “益安大君의 畫像도 있나” 하고 물으니 元景夏가 “있읍니다” 한즉 大王은 “青海伯과 益安大君의 畫像을 찾아서 들여오라” 하므로 王의 命令이 내려진 지 9日 만에 青海伯, 益安大君, 李牧隱(1328~1396) 厯村 黃喜(1363~1452) 鰲城 李恒福의 畫像을 모두 가져다 바쳤다.

英祖大王이 보면서 “내가平生에 青海伯의 畫像을 보기를 願했더니 지금보니 모양이 婦人같으니 將帥는 모양만으로 論할 수 없구나” 한즉 元景夏는 말하되 “青海伯의 像이 偉大합니다 彈丸을 쏘아서 뚫은 구멍을 彈丸을 쏘아서 막았다는 傳說이 지금까지 있음

니다. 즉 婦女子들이 물둥이를 이고 가는 것을 太祖가 쏘아 쫓은 구경을 青海伯이 솜을 끼워 쏘아서 막았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大王은 다시 말을 이어 “그 像이 좋고 太祖가 극진히 대접하였지” 한즉 元景夏는 “北方에서부터 戰爭에 參加하여 끝에 가서 功臣이 되었읍니다” 하였다. 大王이 먼저 牧隱의 祭文을 지어서 承旨를 불러서 쓰이고 다음에 青海伯의 祭文을 지어서 쓰이면서 “青海伯이 第一이다. 마치 唐太宗이 敬德과 義兄弟를 맺은 것과 같다” 하였다.

#### ㄴ. 英祖大王 宸章

漢代留侯唐鄂公才全智勇古難同畫傳好女休相怪誠是人間第一雄，曾記天官謁聖人龍顏日表徽威神丹青今見英雄相更覺遺逢古絕倫。

漢나라때의 張良과 唐나라 때의 鄂公의 智慧와 勇猛을 兼했으니 옛날에도 드문 사람이다. 畫像으로 보아서는 婦人間으나 이상하게 人間에 第一가는 英雄이로다. 일찍이 太祖의 畫像을 拜謁한 記憶이 나는데 君王의 像으로 위풍이 늠름하시었다. 이제 이 英雄의 像을 보니 君臣이 서로 만난 것이 千古에 드문 일임을 다시 깨달겠도다.

#### ㄷ. 畫像贊

技妙穿楊勳高開國奠太平之基於萬歲名垂簡冊澤及雲仍建長遠之業於百世斯可謂英豪之功能而在公猶爲餘事小藝惟其以千萬吾往之勇退然若恻夫於善竹之謀以富貴同享之時超然若高人於青海之暇此可以不朽於千秋疎髯如戟英眼如神渥丹其顏點砂其唇一片難畫者心尙髣髴兮七分之眞

退漁子 金鏡商撰

제주는 활을 쏘아서 벼를일을 맞추고 功은 높은 開國功臣이다.

萬年토록 太平한 터전을 마련해서 이름은 史記에 빛나고 福祿은 子孫에게 傳했다. 百世토록 길이 傳할 大事물이 福했으니 이야말로 英雄과 豪傑의 일이오, 公務에 바르면서 文學을 숭상했으며 가던 길을 勇敢히 물려섬은 千古에 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善竹橋의 謀議로 脅迫을 當했고 富貴를 남과같이 누릴 수 있었건만 超然히 모르는 것처럼 靑海로 돌아가니 이것이야 말로 그 事蹟이 千秋에 길이 남을 것이다. 창같이 뿔뿔한 수염, 神奇하게 光彩가 나는 눈, 물들인 것처럼 붉은 얼굴, 朱砂를 적은 듯한 입술, 그리기 어려운 것은 한치의 마음이나 十分의 七分은 얼굴에 근사하게 나타나 있도다.

退漁子 金鎖商 지음

blank



## 六. 遺 蹟

### 1. 別雁臺

1398년 8월 20일 1·2차 왕자들의 亂으로 李太祖는 故鄉 咸興本宮으로 下野하고, 青海伯은 故鄉 蒲青社(現 北青)로 돌아가셨다. 咸興은 李太祖의 出生地는 아니다. 出生地는 咸南 永興郡 黑石里다. 이 곳에서 長成하여 咸興으로 移徙, 第一 높은 울주봉(819m) 밑 定和村에 집을 짓고 살면서 每日 歸州寺에서 공부를 하였다.

歸州寺 앞에는 定和陵이 있고 會上洞에서 歸州寺로 가는 中間에 李太祖가 살던 집자리는 日帝時代에도 철망으로 保護했고 歸州寺의 太祖가 공부하던 자리도 亦是 保護하고 있었다. 咸興에는 本宮과 定和陵(太祖의 先祖陵) 그리고 李太祖 母親陵이 있어서 朝鮮 때는 勿論 日帝時에도 英親王 李垺이 方子女史와 함께 1년에 1회씩 이 陵을 參拜하였다.

蒲青社는 青海伯의 出生地요, 長成時에 李太祖께서 이 곳에 오셔서 함께 뜻이 맞아 활 쏘기와 여러 武術을 이 곳에서 鍛鍊하던 곳으로 青海伯의 故鄉이다. 이와같이 各己 故鄉에 돌아가 살고 있었다.

定宗・太宗 때에 여러 번 使官을 보내어 侍申으로 召命 하였으나 서울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北青府에서 東쪽으로 約 二十里쯤 되는 奧地良家面安谷里에 隱居, 別莊을 짓고 연못을 파고 기러기

를 기르며 山水와 自然을 사랑하며 餘生을 보냈다.

太宗의 召命을 거절하고 削髮 爲僧하면서 기르던 기러기를 全部 自由로이 놓아 보냈다. 때문에 後世에서 이 곳 地名을 別雁臺라 불렀고 지금도 그 연못과 그 터가 남아 있다.

## 2. 青海伯의 陵

公之墓在於青海府東別雁臺枕甲之原制如 陵寢而四圍置獸石西南有一石函刻以龍頭雲形藏公易簣日沐浴之水函今不渴者也遺傳以水之潤渴驗世之治亂云

青海伯 諡襄烈公의 陵은 北靑府 東쪽 李明智峰의 첫 精氣를 받아 奇峰으로 떨어져 山水가 清雅하고 風景이 좋은 別雁臺에 位置하고 있으며 坐向은 甲坐庚向이다. 陵所의 모양은 王陵처럼 꾸며져 있어서 四方 둘레에 獸石을 두었으며 西南쪽에 물로 만든 函이 있는데 函 머리에는 구름과 龍의 머리가 그려져 있고 그 函에는 青海伯이 돌아가서 屍體를 沐浴시킨 물을 담아 두었는데 至今까지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傳說에 의하면 그 물이 마르고 안 마르는 것으로 난리가 나고 안 나는 것을 짐작한다고 한다.

그 開國의 功勳은 이 陵墓만이 지닌 듯 數百年이 歲月은 흘러서도 不絶의 參拜客들이 이 雁谷을 찾아 青海伯의 陵墓앞에 머티숙어 그의 遺德과 護國英靈을 追慕하니 그는 오직 不滅永生の 護國靈魂이시다.

## 3. 遺 墟

青海伯은 처음에 蒲靑社이며 一名 세섬리라고도 하는 지금의 西島里에 살았었는데 東쪽에 우물을 파고 우물 東쪽에 槐花나무를

圖之山墓公烈寒



青海伯 襄烈 李之蘭公의 墓所 山形圖

<青海李氏 世譜에서 轉載>

십었다. 後世 사람들이 그 우물을 槐井이라 하고 그 곳을 槐井村 또는 槐井里라고도 불렀다. 그 井泉 周圍에는 많은 神話를 지니고 있다. 青海伯은 定廟를 下直後 이 곳 中央部에 遺墟地를 定하게 되자 이곳 사람들은 나라에서 青海伯의 夫人 咸安郡夫人尹氏에게 下賜한 惠安宅主라는 宅號를 그대로 呼稱하여 이 部落을 한 때 惠安村이 타고도 했다.

青海伯께서는 山·水·路, 三不近을 擇하여 西島里를 遺墟地로 定하였으나 南海에 潮水가 上昇하므로 因하여 住民과 農作物 成長에 不吉하다는 豫感이 있어 주저하다가 문득 西南쪽에 있는 歷海山으로 이 缺陷을 補完하기에 充分하다고 認定하고 이를 決定하였다고 傳해지고 있다.

이 세설리는 南大川 下流의 냇가로서 洪水의 被害로 子孫들이 四方으로 흩어져 거의 廢墟가 되었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約 100餘年前의 일이다. 그 後孫 한 분의 꿈에 白髮老人이 나타나 “壁上에 써 있는 글귀를 記憶하라”는 것이었다. 놀라 깨어 벽상을 본즉 果然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詩句가 써 있었다.

不濁斯井不枯渴 鮮鮮綠綠祖基東  
柳挾東西無毀患 沙添爲沃占家豐

일찍 先祖가 터잡은 東方은 괴화나무가 우거지고 우물이 맑아 生生하게 마르지 아니하도다. 部落의 東西 兩便에 楊柳가 늘어 서 터전이 무너져 나간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기름진 땅에 沙質이 沃土가 되어잡은 家家戶戶에 豐兆임을 가이 짐작할 수 있다.

어느덧 붉은 빛은 東天에 솟아오르는 햇빛과 더불어 이같은 사



青海伯遠西島之圖



青海伯 襄烈 李之蘭公の 西島里 遺墟圖

<青海李氏 世譜에서 轉載>

타졌다. 神奇하게 여긴 後孫은 隣近親族들에게 이 緣由를 알린즉 모든 後孫들은 이는 始祖 青海伯 襄烈公의 啓示라고 異口同聲으로 感泣하였다.

그後 庚寅年 洪水로 因하여 어제까지 西流하였던 南大川이 新昌쪽으로 東流함으로써 西島里 一帶는 북새로 뒤덮어 놓아 土質이 좋게 되었고, 堤防에 버드나무도 심고 살기 좋은 곳으로 됨에 따라 四方에 흩어졌던 子孫들이 다시 모여와 近 五百餘戶 部落을 形成, 朝夕으로 槐井神泉을 마시며 遺墟肥田을 가꾸고 學而時習에도 힘써 賢士들이 數없이 輩出하고 있다.

#### 4. 槐 井

青海伯이 現 西島里에 落鄉하여 洞里 中央에 掘井하고 그 周圍에 槐花나무 數十 株를 심었다. 그리하여 이 우물을 槐井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라에 큰 變이 생길 때면 우물에서 異常한 소리를 내어 이를 豫告하여 部落民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샘물의 맛이 酸甘하며 洞里 數百 戶에서 이 물을 專用하여도 不足함을 모르고 아무리 가물어도 水量이 減하는 일이 없고 아무리 장마가 겨서 洞里 다른 우물이 다 濁하여도 이 槐井만은 獨也 淸淸하여 洞里사람의 渴症을 免하게 하였다.

이 우물을 판 지 去今 六百餘 年間에 이 部落에는 白癩 또는 不具者와 傳染病이 생긴 일이 없어서 部落 사람들은 이는 青海伯의 陰德이라 하며 이 우물을 長壽神泉이라고 敬稱하고 있다.

이 槐井에 얽힌 近世 實話 몇 개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14年 甲寅年 洪水 때 一洞이 全部 浸水되어 洞中の 우물 10餘 곳이 全部 濁水로 變하였지만 唯獨 槐井만이 맑은 그대로

있어 洞民의 渴症을 免하였다.

② 1918年 第1次 世界大戰이 끝난후 全國各處에서 傳染病이 盛行하여 死亡者 및 罹患者가 많았고 또 10월에 毒感이 流行할 때에도 이 곳만은 1人의 罹患者가 없었다.

③ 舊韓國時代 青海伯의 19世孫 李在祐氏가 科擧보러 가는 날 새벽에 槐井우물을 길어 밥을 지었더니 수수밥같이 벌거스레한 吉兆가 보여 그 수수밥을 먹고 며나 科擧에 綴第하였다고 한다.

④ 또한 1945年 8·15光復을 미리 알리는 豫報도 있었다고 한다 8·15 얼마前에 槐井에서 奇異한 소리가 나서 洞民을 놀라게 하더니 나라에 解放의 榮光이 비쳤다고 한다. 이렇게 그 子孫들이나 國家 앞날에 異變이 있을 때마다 暗示의 徵候가 보이므로 이 槐井을 둘러싼 가지 가지의 傳說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다.

## 5. 青海祠 書院

이 書院은 朝鮮 開國 元勳功臣 青海伯 襄烈 李之蘭公을 奉祀하는 書院으로서 青海伯의 故鄉이며 陵所가 있는 咸鏡南道 北青郡 新北青面 安谷里에 있다.

創建 當時에는 素朴한 影堂으로 忠烈廟라 稱하고 一名 鴈臺祠 (俗稱)라고도 稱하였다. 北青郡誌에 依하면 青海祠와 同書院은 本是 全郡 儒林에서 崇禎 4年(1361) 鴈臺祠 書院을 創建하고 崇禎 紀元後 267年 朝鮮 憲宗께서 青海祠라는 額을 下賜하심에 따라 青海祠 書院으로 改稱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青海李氏 家乘에 記錄된 忠烈廟 重建記 및 青海祠 重建上樑文을 參考로 하여 推理하면 當初의 忠烈廟라 稱한 것은 자세히는 아지못하나 첫머리 忠字는 青海伯이 一片丹心 愛國愛民하여 一生을 忠誠으로 護國하였기에 忠字를 따고 다음 烈字는 現代의

義字와 같은 것이다. 이는 青海伯이 生前에 義 아닌 일에는 參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鄭夢周 打殺事件의 拒否와 1, 2王子亂에 不參한 事實등 이 모두 義士가 아니면 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烈字를 따서 忠烈廟라 稱한 것으로 推理할 수 있는데 그 밑에 祠(王이 아닌 忠臣·功臣을 祭지내는 祠堂, 顯忠祠·愍忠祠·彰烈祠 등)字를 붙이지 아니하고 廟(廟는 歷代 帝王을 祭지내는 宗廟, 關雲長을 모신 關聖廟 즉 東廟, 南廟 등)字를 붙인 것은 朝鮮時代의 王權政治下에서는 僭稱으로서 王의 允許 또는 下敎없이 붙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太宗大王이 青海伯이 下世後 祠堂을 모실 때 謚號襄烈과 같이 忠烈廟로 下敎하여 주신 것으로 推理할 수 있다.

丙子胡亂 前에 青海伯의 靈魂이 出現하여 金來를 豫示하신 후 얼마 안되어서 蒙古族 大金의 後裔 清太祖가 仁祖 5年(1627) 正月과 仁祖 14年(1636)에 12月 大舉南侵하여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慘禍와 侮辱을 당한 兵亂을 겪고 난후에 모든 사람이 그 때에야 青海伯 靈魂의 啓示한 뜻을 깨닫고 青海伯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어 影堂의 規模를 書院과 같이 增築하고 儒林이 中心이 되어 每年 3, 10月 中丁日을 大享祀日로 定하여 祭享을 올리고 祭享日 前後 三日間은 儒林들이 모여 作詩·作賦는 勿論 靑少年의 試講·白日場 등을 施行하여 獎學의 氣風을 振作하며 美風良俗과 忠貞한 마음을 기르는 書院으로 되었다.

每月 朔·望日에는 儒林中에서 選出된 任員인 掌議·有司·院監·色掌 등이 替番으로 掃除·焚香·參拜하여 香火를 끄치지 아니하다가 1945年 解放後 共產黨이 以北을 占據한 後에 自然 香火가 끄졌다.

北青良家社別屬臺青海祠圖



青海伯襄烈李之蘭公을 祭享하는 青海祠書院 圖  
 〈青海李氏 世譜에서 轉載〉



여기에 青海祠 春秋 中丁 祭享 祝文, 忠烈廟 重建記, 青海祠 重建 上樑文을 添記하여 둔다.

#### 7. 青海祠 春秋 中丁 祭享 祝文

崇禎紀元後幾年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干支某官姓名敢昭告于  
青海伯襄烈李公伏以佐 命純忠定社元勲惟茲

采邑永祀芬芬謹以牲幣柔盛清酌庶品式陳明薦 尚 饗

송정 기원 후 ○○년 세차 ○○년 ○○월 ○○와 ○○일 간지  
○○판 ○○○ 감히

청례백 양렬 이공에게 고하나이다.

충성을 다하사 開國과 定社의 功勳이 第1 크실므로 이 青海를  
采邑으로 하여 길이 祭享을 받들게 하였기에 삼가 犧牲과 清酒,  
모든 제수를 갖추어 神明께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 8. 忠烈廟重建記

通訓大夫前行監察 林芝秀 撰

青海治之東二十里鴈臺之原有一祠宇焉卽開 國功臣青海伯  
襄烈李公之影堂也堂之右數十步外又有坐甲向庚而獸石佳城如

陵制焉此乃伯衣履之所藏而堂之所以設者也伯之子孫每歲四  
月十一日祇奉影幀而享祀焉是日卽伯之忌辰也蓋伯越之蠡漢之  
良際遇 聖祖攀附定 社以伯之鬼勳壯烈宜享富貴之樂而乃超然  
脫屣於青海之鄉而終焉其智勇豈非泛海把仙之傳哉噫堂之設殆  
近四百年之久而厥初尙其朴素仍其遺墟而只建四間影堂未有夾  
室每年受禧之孫瞻拜之客不無陝隘之歎矣今春諸孫倡而新之影  
堂則仍舊而修其塗墍典祀廳則改制面屬之於堂右乃立東西齋皆  
四間東齋宿飲福之所也西看護直守之居也南建三門左右其夾而  
墻垣周遭竹苞松茂烏輦輦翔今而後堂稱於祠伯其肯曰有子有孫

矣抑未知范相國張留侯之歸也子孫奉享亦果如伯之於鄉者耶否乎噫先烈雖如彼苟無此後昆則修廢倡新者難矣而是堂之役執事獨賢之勞者列書于左使後之雲仍世世肯構而肯堂也.

### 忠烈廟 重建記

通訓大夫 前에 監察를 지낸 林芝秀 지음

青海 고을 東쪽 20里 雁臺 언덕에 한 祠堂집이 있으니 이 것이 곧 開國功臣 青海伯 襄烈李公의 影堂이다. 影堂 右側 數十步 밖에 獸石을 갖춰 陵과 같은 山所가 있으니 이 산소가 바로 青海伯의 陵이며 여기에 影堂을 세웠다. 이 影堂은 伯의 子孫이 每年 4月 11日에 影幃를 모시고 祭享을 올리니 이 날이 곧 伯의 忌辰이다.

伯은 越나라의 彭蠡와 漢나라의 張良과 같이 李太祖를 만나 받들고 도와서 나라를 세운 伯의 높은 功勳으로써는 宜當 富貴榮華를 누려야 할 것인데 超然히 故鄕으로 돌아오시어 天壽를 다하시었다.

그 智慧와 勇猛이 어찌 바다를 덮고 仙선을 짝 지을 수 있지 않으랴! 아 슬프다. 祠堂을 지은 지 四百年이나 오래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素朴하게 그 분이 사시던 터에 단지 四間만 세워서 影堂에 夾室이 없어 每年 祭享에 參席한 子孫과 參拜은 客이 집이 좁다고 歎息하였다.

今年 봄에 여러 子孫이 힘을 합하여 影堂을 修理하고 塗裝하였고 典祀廳은 다시 堂 右側에 改築하고 東西로 四間씩을 新築하니 東齋는 宿直하며 飲福하는 곳이고 西齋는 守直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南쪽에 三門을 세우고 그 西쪽에 담장을 쌓고 周圍에 松林이 茂盛하여 새들이 깃들고 날아든다. 이제부터는 堂을 祠堂이라 稱하고 伯은 子孫이 있으니 范相國과 張留侯만 못할 것이 없도다.

子孫이 祭享을 伯의 故鄕에서 받들지 않느냐! 아 슬프다. 先烈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宗家에서 改修는 하지만 새

로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役事를 도운 사람의 이름을 列書하여 左便에 걸었으니 代代로 자랑하고 堂을 빛낼 것이다.

ㄷ. 青海祠重建 上樑文 (青海伯의 祠堂을 重修할 때에 이 글을 지어서 대들보에 파고 넣은 것임)

聞其風莫不興者永篤沒世之思因故廟易而新之聿循多士之議  
衿紳動色輪奐增輝恭惟我 先祖襄烈公問世之英爲時而出每夜  
照啓明之宿毓精靈於厥初少日入長白之帷玩圖象於太始輶光蒲  
社待青邱之昌期受訣羅師完黃石之奇遇及夫欽光日月托契風雲  
發奇夢於 桐閣適會价江之射鹿結近聯於椒掖遂許象山之委禽  
約爲弟兄類開張之翊漢托以心腹若褒鄂之遇唐於是櫛沐於風雨  
之場攀附於矢石之所躋拔都於引月勁虜氣沮摧納哈於昇天群醜  
膽落拓女眞千餘里地盡入版圖之藏奠我邦億萬年基永作磐泰之  
勢斯實英豪之業所以酬報者蘆雪河盟山及雲仍而不替銘彝繪閣  
並竹帛而永垂山川草木亦皆知名婦孺輿僮無不誦績然功烈即其  
細耳而平生尤有大焉乘江漢朝宗之誠倡回戈於威島嘉熊魚取舍  
之義不染血於竹橋謝簪朝端幾議 獻陵之召脫屣方外高臥中坪  
之居大防不差於危疑雖古人而無愧完名終保於出處伊其志則甚  
微嗟年代之屢燼溯典刑而寢遠體魄之托在是行客指下馬之陵杖  
履之遊莫攀居人說焚魚之蹟枯林生葉占嘉祥於舊栽穹碑成苔撫  
陳跡而永歎維舊祠於焉傾仆伊後人曷其瞻依芳苾以時只是諸子  
孫報本之舉荒頓有歲殊失鄉先生祭社之儀茲乃增大其規模作崇  
奉之地捐財帛而叶力役不煩公募匠石而董功神若有相正規度於  
新構爰傲白鹿之重修因而勢於舊基不用青島之改卜不獨爲英靈  
妥虞之所抑亦士子藏修之方齋室講堂成之不日國冠方領來者如  
雲作昕夕絃誦之場想鴻烈而矜式薦春秋俎豆之禮瞻象設而永懷  
崇德象賢慕周典而寓意經義治事倣湖齋而揭規一路爲之增光四

方爲之拭目今差穀日將舉修樑敢揚七偉之聲聊薦六方之頌拋樑  
東豆江一帶海嶺通留與英名傳億代待巨川渴始應窮拋樑西日邊  
歸路望中迷恍惚英靈來去地麟臺高處五雲低拋樑南茫茫海水碧  
如藍當日心期誰會得巨溟難以一蠡探拋樑北長白山光雲外直箇  
中何處遇神人蜚蹟義圖兼孔翼拋樑上列宿昭回天宇曠井底祥芒  
夜動搖知應太史觀其家拋樑下陰森靈醜臨平野一方多士得依歸  
濟濟春秋執豆者伏願上樑之後廟貌永屹人才蔚興士知向方不忘  
陽秋之義鄉化善俗各勉忠貞之心庶無愧於前修期有辭於後世

後孫 昌錫撰

先賢의 이야기를 들으면 追慕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고 묵은  
사당을 새로 重修함은 여러 士大夫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날아  
가는 듯한 산뜻한 氣分에 心神이 업숙해지기만 한다. 우리 先祖  
襄烈公은 啓明星 精氣와 長白山 靈氣를 타고 그 때를 爲해서 태  
어나신 世上에 드물 英傑이시다. 北靑에서 숨어 계시면서 朝鮮이  
일어시기만 기다렸고 黃石公과 같은 羅道人을 만나서 眞訣을 받  
아서 바람에 구름 쫓듯 좋은 임금을 만나셨다.

王母의 꿈이 맞아서 价江에서 사냥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康妃의 近親에 장가를 드서 더욱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어 兄弟  
와 같은 情分은 關雲・張飛가 漢나라 王室을 保護한 것과 같고 忠  
誠으로 임금을 섬긴 것은 唐나라의 褒鄴과 같다. 바람과 비를 무  
릅쓰고 쓰라린 싸움터로 橫行하여 引月驛에서 阿只拔都를 죽여서  
倭寇의 士氣를 꺾고 昇天(咸州의 誤가 아닌지?) 에서 納哈出을  
처부수어서 오랑캐의 肝膽을 서늘하게 하였다.

千餘里의 女眞 땅을 開拓해서 우리 나라 領土로 만들고 우리 나  
라를 億萬年토록 保全한 盤石같은 터전을 닦으셨으니 이렇게 英特  
한 大業을 이루었으므로 그것에 對한 報酬가 큰 것은 事實이 아니



것는가. 天地에 盟誓해서 子孫에게 傳해가며 永久히 變하지 아니하고 鐵券에 功名을 세기고 麒麟閣에 畫像을 걸어서 史記에 永久히 남아 있다.

婦女子와 어린아이와 남의 집 下人까지도 그 功德을 稱頌하고 山川草木도 그 德澤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에 對해서 가장 작은 일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있다. 威化島에서 撤兵해서 되돌아 감을 主張했으니 大國을 섬기는 忠誠이고, 善竹橋에서 殺戮이 났을 때에 간섭하지 아니했으니 義理를 지킨 것이며, 太宗이 厚한 대접과 높은 벼슬로 불리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중(僧)이 되어서 淸高하게 晩年을 보냈었다.

危險하고 疑心스런 자리에서 털끝만큼이라도 辱될 일을 아니한 것은 古人을 對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큰 功을 이루고 故鄉으로 돌아와서 天命을 마쳤으니 그 뜻을 누가 알까. 年代가 멀어짐에 따라서 遺跡이 점점 아득해진다. 이 곳에 있는 墓所는 行人이 말을 타고 지나지 못했다는 傳說이 남아 있고 平素에 居處하시던 곳은 이제 와서 알아볼 길이 없으며, 사람들이 공의 공부하던 터만 말한다.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돌아나니 吉兆임을 알 수가 있으나 허물어진 碑閣에 이끼가 끼었으니 옛 일을 더듬어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옛 祠堂이 점차 무너져가니 後世의 사람으로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 節氣에 맞추어서 祭祀를 지내는 것은 子孫이 祖上에 對해 孝道하는 道理이나 몇 해를 걸쳐든 凶年으로 先生에 對한 享禮를 꺾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祠堂의 規模를 더 擴張해서 崇拜하고 敬慕하는 殿堂을 만들게 되므로 人力과 財力이 併合해서 官家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木手와 石工을 모아서 工事を 進行하니 神明이 돕는 것 같다.

白鹿洞 書院을 모방해서 構造를 새로 變更하고 舊基를 그대로



因用하여 새로 자리를 잡을 必要가 없게 되었다. 非但 英靈이 安息하게 될 處所일 뿐 아니라 實은 선비의 修學하는 場所이다. 齋室과 講堂이 다 마련되니 衣冠을 갖춘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朝夕으로 글 읽는 소리가 洋洋하게 들려와서 聖賢의 時代를 聯想시켜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春秋로 享禮를 치루어 嚴肅한 祭禮로 敬慕하는 精誠이 길이 살아 있게 된다.

道德을 第一로 삼고 賢人을 崇拜함은 周나라의 制度를 본뜬이요 經義를 講論하고 禮樂으로 規制함은 湖堂의 規模대로 좇은 것이다. 모든 것이 革新되어 全部가 새롭게 됨에 따라서 上樣式을 契機로 祝賀를 올린다. 東쪽을 바라보니 한 줄기 豆滿江이 바다로 흐른다.

비나이다, 빛나는 功名이 江물이 마를 때까지 傳하여라, 東쪽을 바라보고 夕陽의 나그네길 바라보니 아물아물 分明히 英靈이 오가던 길 麒麟閣 높이 솟아 五色彩雲이 영롱하다. 南쪽을 바라보니 茫茫한 바다물은 남빛같이 푸르도다. 바다같이 깊으신 英靈의 마음 쪽박으로 헤아릴 손가. 北쪽을 바라보니 長白山은 구름위 하늘 밖에 솟아 있다. 저 山속 어디에서 神人을 만나 道를 닦아서 創業을 도왔던가 西쪽을 바라보니 數많은 별들이 하늘을 들러왔다. 손아지는 그 精氣가 우물속에 들어가서 天文官의 靈通한 法, 未來를 밝혔도다. 아랫쪽을 바라보니 窓門 밖 넓은 들에 樹木이 鬱鬱하도다.

봄·가을 두 節氣에 많은 선비 모여들어 祭祀받드는 그 곳이다 精誠으로 비는 마음은 上樣한 뒤에 祠堂도 새로우니 많은 人材를 輩出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게 하고 忠義와 貞節을 培養해서 永久히 變함 없이 鄉土를 빛내기를 後世에 바라옵나이다.

後孫 昌 錫 撰

## 己. 青海祠 六六亭記

(丹陽人 李宗儒撰)

六六之亭爲誰而作也慨然於青海君之無地起樓臺而作也亭之

成其制爲下六楹上六桷故因合以名六六蓋其意得於屋之制而著於事之實也夫六者卽天地太陰之數而北方坎之六也是以居北者多以六行其數然則世之談青海君之始終於北者不於六字上申其辭則惡能盡千古英烈之實也嗚呼六之爲義也大矣哉爲天之柱六極分爲地之紀六合闢生六極之下居六合之內者惟人也而有立極統合之聖南而出治則六氣和於上六府治於下六爻生而易道明六甲出而曆數備人和於六親以定天下之倫士遊於六藝以開天下之學此則治世之所不能舍其六也然而六爲北方之數而主陰精行肅殺肅殺乃天地之兵氣也其在人也周武之道多出於六六者兵家之數也六丁之六奇門者之訣也六壬之六遁數者之術也太公演其數爲六韜畧李靖得其數爲六花陣學六韜之畧用六花之陣通六丁之奇門闡六壬之遁數竭 聖祖定東方六六十之疆土者伊誰之力也其惟青海伯李公乎伯卽宋岳武穆六世孫之子而興价江六鎮之界應渭水六非之卜果過於霸王之聖結之以桃園之義從征 太祖鎮六軍之象一戰而昇天之賊散仗六尺之劍一揮而引月之寇息北鄰之役五伐六伐而納氏降矣南海之戰六合七合而倭奴遁矣際 聖祖乘六龍之世輸忠奮義立大功於王室者可以銘彝鼎圖麟閣而難以漢之六出計之陳平六出祈之武侯固無以加此矣噫自伯之後是六也無主徒然爲數在五之後居七之前而已則惜乎六之爲數也豈特止於三六十八五六三十區區計計者之用也哉是故吾以名於亭亭也者乃伯影字之門樓也凡屋之制皆用四面而獨斯亭之六其楹六其隅者蓋非偶然也六楹則應天之六極六隅則象地之六合時和而歲豐則是非六氣之調乎民殷而物庶則此非六府之理乎手易而坐感而遂通則可以觀六爻之吉凶携酒而上飲少輒醉則可以消六甲之光陰化黎俗而雍睦則六親於是乎和矣得英才而教育則六藝於是乎習矣然則所謂六者無愧爲天地太陰之數而亦斯亭之扁其

楣者足以當六六之義而且不愧於六六之名也哉

### 六六亭記

六六亭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이냐 이는 青海伯을 爲해서 지은 樓臺이다. 그 정자의 構造가 아래에 기둥이 여섯 개요, 위에 지붕의 모가 여섯 개 있어서 이것으로 因해서 六六亭이라 한 것이냐 事實은 青海伯의 事實 全部를 나타낸 것이다. 六이란 것은 北方 水의 成數이므로 陰陽占術에 六을 北數로 指定하니 青海伯은 北에서 나서 北에서 마쳤으므로 六字를 들지 않고는 그 千古에 英烈한 功蹟을 表明할 道理가 없다.

여기에 六字의 大義를 說明하면 天에는 六極이요, 地에는 六紀니 卽 六合이라 하니 이것은 東西南北과 上下의 여섯 方位를 말함이요, 사람은 天의 六極과 地의 六合內에서 살고 있으며 聖人이 天命을 받아서 임금이 되면 風雨日月 星辰의 六氣가 天에서 調和되고 水火金木土穀의 六府가 地에서 順成해서 六爻로 周易을 만들고 六甲으로 歷書를 만들고 사람은 夫婦 父子 兄弟의 六親으로 人倫이 定해지고 禮 樂 射 御 書 數의 六藝로 天下의 學問을 開拓하니 이것은 世上이 太平한 때에 六字의 應用이요, 六은 北方 數이므로 陰이 되어서 殺伐이 그 數의 本質이니 殺伐은 戰爭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兵家의 武術이 특히 六數를 象徵한다.

그 例로는 奇門의 六丁六甲과 六壬의 六遁이 兵術의 大宗으로서 姜太公이 그 數를 利用해서 六韜三略(육도삼략)을 만들었고 李精이 그 數를 利用해서 六花陣法을 만들었다. 姜太公의 六韜三略과 李精의 六花陣法은 奇門의 六丁六甲과 六壬의 六遁法을 利用한 것이다.

李太祖가 東方의 六六 三百六十州를 定한 것이 누구의 힘이나 이는 바로 青海伯 李公의 힘이다.

青海伯은 바로 宋나라 岳武穆의 六世孫의 아들로 价江六鎬의 경계에서 태어나서 文王이 姜太公을 渭水에서 만나듯이 李太祖를 만나서 義兄弟를 맺고 太祖를 따라 六軍을 거느리고 한 번 싸워 昇天의 倭敵을 쳐 무찌르고 引月싸움에 六尺長劍을 한 번 휘둘러서 倭敵들이 자취를 감추고, 北方 싸움을 五次 六次 거듭해서 納哈出이 降服하고, 南海싸움에 六合七合이 못 되어서 倭賊이 도망하고 太祖가 開國함에 있어서 忠誠을 다해서 王室에 큰 功을 세웠으니 그 이름과 畫像을 麒麟閣에 높이 걸어도 그 功이 남을 것이다. 漢나라 때 六出奇計한 陳平과 六出新山한 武侯도 이보다 功이 더할 것이 없도다.

아 슬프다. 伯이 가신 後에 이 六이 主人을 잃고 한계의 數字로서 六의 數의 앞에는 五가 있고 뒤에는 七이 있을 따름이다. 哀惜하도다 六으로 되는 數가 어찌 三六 十八 五六 三十, 區區하게 計算하는 데만 쓰는데 그럴 것이나, 그러므로 내가 亭子 이름을 六六亭이라 함은 곧 青海伯 影堂의 門樓이다. 모든 집 構造는 四面으로 되어 있는데 唯獨 이 亭子만은 기둥이 여섯개요, 그 모가 여섯 모로 되었음은 偶然한 일이 아니다. 기둥 여섯은 天의 六極을 應하고 여섯모는 地의 六合을 象徵한 것이며 時和年豐은 곧 陰陽風雨晦明의 六氣가 잘 調整되는 것이요, 百姓이 잘 살게 되고 百物이 豐盛하여지는 水火金木土穀의 六府가 잘 마련되는 것이다.

至誠으로 神明을 感動시키면 周易六爻로 吉凶禍福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요, 世上이 支離하면 한잔 술로 깊이 醉해서 六甲의 光陰을 보내게 되는 것이요, 淳厚한 風俗을 만들어서 모두 和睦하면 父母 兄弟 妻子의 六親이 和合하는 것이요, 英才를 길러내어서 教育에 힘쓰면 禮樂射御書數의 六藝가 익히지는 것이다.

그러면 六의 數는 天地太陰의 數이며 亭子の 이름을 짓는 것이



六六의 義에 適合할 뿐 아니라 伯의 功績에 對해서도 조금도 遜色이 없다 할 것이다.

世宗 27年 丁亥(1531) 閏五月 既望十六日

淸州後人 李 宗 儒 謹

平山後人 申 學 天 啓

## 6. 三義祠

(北靑郡誌轉載)

三義祠는 韓末 高宗皇帝 光武 5年(1902) 皇命으로 咸鏡南道 北靑郡 北靑邑 東里 東德山麓에 設立한 것이다.

이 三義祠는 靑海李氏 全州李氏 金寧(金海) 金氏 三姓의 北靑入北 分派始祖를 奉安하고 三姓의 後孫들이 春秋 3月, 9月 첫 丁字 日에 薦祀하여 小桃園 結義의 先祖 義理를 追慕하며 親睦을 敦篤히 하는 年中享祀가 그 由來를 이루었다.

여기에 奉安된 三位神은 다음과 같다.

1. 靑海伯 襄烈公 李之蘭
2. 完豐大君 全州李氏 李元桂
3. 益和君 忠愍公 金仁贊

靑海伯 襄烈公 李之蘭은 3人 中の 最年長者이고 (北靑郡誌 人物篇 參照) 完豐大君 李元桂公은 太祖大王 李成桂의 伯氏로서 平素時에도 李之蘭 金仁贊 等과 兄弟之稱하여 友誼를 交流하였으며 三義祠에 合祀한 緣由는 結義兄弟中 李成桂는 君王이기에 君臣關係로 同列에 配享키 困難하여 全州 李重寶氏도 入北하여 그 後孫多數가 各邑面에 散在하는 關係로 伯氏인 元桂公을 代身모시게 된 것이다.

金仁贊公은 最年下이며 두 분이 모두 武官인 데 反하여 金仁贊公만은 文才에 뛰어난 분이였다.



李成桂는 本是 全州人으로서 先代에서 咸南에 移住하여 度祖 桓祖가 永興郡 順寧面 黑石里에 居住하였다. 李成桂는 이 곳에서 出生하였으나 咸興에서 成長하여 麗末에 豆滿江亭長으로 있었을 때에 李之蘭을 相逢하여 雄志를 품고 亭長職을 버리고 開京으로 上京하는 途中 安邊郡 釋王寺 大路邊 客住家에 朝飯을 請하였더니 主人이 달하기를 “糧食은 있으나 飯饌이 없다고” 하였다. 李成桂는 “밥이나 지어 달라”고 하고 野外에 나가보니 雙鶴이 봉나무에서 일어나 날아가는지라 활을 겨누어 살을 쏘았더니 一矢에 두마리가 꿰어져 떨어질을 보던 李之蘭도 그 활숨씨에 놀랐다.

이 때에 安邊府使의 아들 金仁贊이 이 光景을 바라보다가 李成桂를 만나 通姓名하고 自己 身分을 밝혔다. 3人은 여기에서 意思가 相通하여 三人結義兄弟 될 것을 合議하였다.

때마침 春三月이라 客住집 後園에 桃花가 滿發하였기에 옛날 中國 後漢時 劉·關·張三人의 桃園結義를 모방하여 小桃園結義를 맺고 儀式을 舉行하였다.

이 때 金仁贊은 盟文을 지었고 그것을 上天에 告하였다.  
그 盟文은 아래와 같다.

一體三人一世同	才疎敢望三千弟
一生苦樂一心中	身老願從八十翁
濟世安民其就任	關張之誼皆知己
尊君立紀有吾躬	豈爲他年竹帛功

이 結義의 趣旨는 우리 3人이 兄弟로 結義하는바 同年 同月 同日 出生은 아니지만 同年 同月 同일에 共死할 것을 願하는 것이고 血焉血로 盟誓하니 伯氏에 李之蘭, 仲氏에 李成桂, 季氏에 金仁贊이었다.

盟文詩를 뜻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結義하여 한 몸이 된 우리 3人은 같은 世代에 나서 一生의 苦樂을 같이 하는 오직 한 마음 뿐이다. 才操는 可히 三千 弟子를 가진 孔子를 바라보고 몸은 늙어서 姜太公을 좇겠다. 世上을 전지하고 百姓을 平安케 할 것은 君主의 할 일이요, 임금을 섬기고 紀綱을 바로잡는 것은 나의 할일이다. (두 분 中에 한 분은 君王이 될 것을 願望한다는 뜻이다). 關羽·張飛의 誼는 다 知己相合하는데 있고 어찌 後世 史記에 功이 記錄되기를 爲함이라.” 라는 뜻이다.

이 靈詩는 千秋로 내려오면서 傳하여지고 있다.

上京한 3人이 文武就官하니 滿朝가 다 부러워하였다. 後日 3人이 協心合力하여 이룬 것이 곧 朝鮮의 開國이었다.

李成桂는 太祖大王이요, 李之蘭은 北青 古號인 青海君 青海伯에 封하고 諡號를 襄烈公이라 賜하였던 것이다. 金仁贊은 益和君安城伯으로 封하여졌다(安東郡 一直面 造塔里 薳城書院에 配享)

## 7. 神道碑銘 并序

(大提學 黃景源 撰)

有明朝鮮國輔忠奮義翊贊景運開 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同判都評議司事兼判刑曹事判義興三軍府都節制使 青海伯襄烈李公

洪武二十有五年 太祖即位策輔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襄烈李公爲青海伯加大匡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判刑曹事公固辭歸于青海留不返建文二年 太宗特拜右侍中遣承旨 召之不至 太宗猶賜功臣祿以終其身餘年壬午夏四月卒于青海賜吊祭輟朝三日永樂八年 命配享 太祖廟庭公諱之蘭字式馨青海人也或曰初姓佟氏諱豆蘭恭愍王時投高麗賜姓李氏云其先入元以戰功封五千戶世所稱浮海是也於公爲五世祖至公皇考諱雅

遠仕女眞官至征西大將軍公既貴贈補祚功臣領議政府事初征西在女眞時有大星垂于井鑿望氣者曰此啓明也其下必生偉人已而公生及壯爲人勇敢善騎射元至正中 太祖從征古匡城 懿妃崔氏夢老人來言价江有射者伯王之輔也會公射鹿价江上 太祖一見大奇之結爲兄弟每出師必與公俱公由是始歸北青辛禡西狩至大寧命武臣射以白金二寸爲之的 太祖輒射中其的禡甚喜公瀛

太祖曰才美何示人多也 太祖悟益服其智蒙古丞相納哈出率數萬騎入洪原公引兵除威關嶺大戰良久乃收兵明日又與蒙古兵陣于哈蘭大野中納哈出揮鎗直前 太祖陽北納哈出令敢死士追太祖幾及 太祖垂身若墜馬仰射其腋公挾擊之納哈出乃注矢以鄉 太祖太祖起立馬鞍上矢出袴下公又突前捍衛之納哈出知不可敵遂遁去倭奴夜襲江華殺府使金仁貴又由窄梁入昇天府中外大震禡率妃嬪欲出奔兵衛環立關門外公從 太祖自海豐疾趨昇天有銳將跨白馬犯公陣公乃抽矢射殺倭奴遁去未幾樓船五百艘人鐵浦屠燒郡縣又入湖南陷雲城屯引月驛 太祖諭公曰湖南千里之塗死者相枕公力戰以灌此恥公整兵馳至勝山倭奴將引鎗直逼 太祖之後公躍馬疾馳大呼曰請視後 太祖移目未及視公已抽矢射其將立殺之阿只拔都年僅十五勇冠諸將倭奴推爲上將軍 太祖命公生得之公曰不殺必傷人因趣戰阿只拔都着重甲銅面具 太祖謂公曰我中其背公中其面阿只拔都可殲也既而 太祖中其胷墜下公乃射阿只拔都竟殺之於是倭奴皆大哭棄兵遁去女眞將軍胡拔都率四萬騎入端川公方居母夫人憂 太祖使人言於公曰社稷將危公雖在憂服之中爲予起復擊拔都可乎公哭且拜遂從行 太祖以公爲先鋒與拔都戰于雄城大破之拔都亡去 太祖曰李某臨敵最果敢眞名將也端川既平公歸鄉以終母喪青松伯沈公德符禦倭奴于中門嶺敗績倭奴遂屯兔兒洞 太祖至哈蘭部署諸將選

精兵伏於山中公乃與趙英珪等百餘騎按轡徐行已而太祖令疾戰公遂先登引致之倭奴直犯太祖陣於是太祖陽退兵入于伏中乃反兵射倭奴公又走馬馳擊之伏兵且起倭奴軍無不披靡自威關嶺至牛頭山三十里僵尸蔽野當是時公以勇敢雄四方蒙古諸族皆懾伏倭奴亦遁五十年不敢窺邊故太祖佐命之臣公名最盛以叅贊門下府事充都兵馬使鎮朔方風論女真而綏來之女真皆願爲國民服征役納租賦無敢後期數百年被髮之俗盡襲冠帶由長白抵調春江千餘里入於版圖公之功也辛禡遣使朝北元議犯遼東以太祖爲都統使公爲元帥發平壤次于威化禡遣金完賜璽書趣令進兵太祖建議欲班師恐禡疑之議不決公慷慨爲太祖言曰率子弟而攻父母此悖義也與其得罪於天下曷若班師以安一國乎於是太祖遂班師天子下詔褒大義國人始安益陽伯鄭先生夢周見王氏社稷將亡內憂傷與金震陽謀竭力以扶王氏太宗置酒益陽伯悲歌自誓諸將勸公擊殺之公正色曰益陽忠臣吾何忍賊害忠臣以自陷於不義哉其後高呂趙英珪等殺益陽伯而公不與也太祖開國策功臣賜公鐵券公稱疾閉門不出諸公卿爲之嗟歎太祖夜宴景福宮召功臣飲命伶人歌文德曲論公曰寡人之至於斯也卿等之功也公謝曰幸大義以基天命殿下之德也臣何力焉太祖嘗遣近臣召臥內問群臣諸將賢不肖公因言鄭道傳奸必不令終後道傳誅太祖始知公之有先見

太宗嗣位以公能辨道傳奸又策推忠秉義翊戴定社功臣青海君公既卒又策奮忠効節同德佐命功臣謚襄烈公容貌觀和端麗如婦人及爲將威振四方其大節不可奪也歸青海十年而卒享年七十有二以其卒之年某月某日葬于府東麗臺之原配威安郡夫人惠安宅主尹氏領議政希甫之女也配象山郡夫人谷山康氏禮儀判書普戴之女也有子四人曰和尚判工曹事曰和英判刑曹事曰和美判漢城



府事曰和秀禮曹叅判玄孫挺豪以修撰論金安老坐貶死七世孫僉節制使希唐從攻鞠景仁死于白塔靖社功臣忠壯公重老討李适死于猪灘希唐子出身三立禦敵于合浦亦能死之豈皆有公之遺風歟公自朔方從太祖爲諸將首百餘戰北逐蒙古南挫倭奴懷柔女真闢地千里又能秉貞仁之德不犯天子不殺忠臣受伯爵列於功臣然去就出處之際其志微人莫之識也當承旨之諭召也公豫聞承旨之來招浮屠持刀以待及承旨入宣諭書公冠帶拜面受之即席上焚其冠帶因斷髮惟存其髻嗚呼名果逃耶豈不斷其髮則無以逃其名耶百世之下其必有知公之志者矣公之苗裔不可勝記而後孫慶泰慶遇益新枝植世寬等謀所以立碑於墓遣余門請與之銘銘曰

桓桓襄烈奮于朔方佐我太祖戎旅是揚太祖聖武寔天所降濯征四國惟公之從公伐山戎燕徒捷捷群醜稽首莫不盡囊公伐烏夷彤弓有輝殲彼大酋奏功不遲北方既靖南土既寧吞虜亂盾有駭其靈彼辛不庭于遼進帥公曰天子不可犯之益陽矢死將加以刃公曰忠臣如何不愆惟公秉心賞彼明神顯顯其義赫赫其仁邦之初定武功是策青海之濟肇錫伯爵公有大勇非直也戰舍彼朱芾曾莫之戀太宗嘉之徵公于野皇皇璽書竦動里社公拜受書乃焚朝服乃斷其髮乃絕爵祿北山巖巖橫水瀾瀾休矣明哲令聞永垂從食太廟其澤孔長我作銘詩刻示茫茫

#### 神道碑銘畧序文譯

有明朝鮮國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同判都評議司事兼判刑曹事判義興三軍府都節制使青海伯襄烈李公  
 洪武25年(1392) 太祖가 王位에 올라서 襄烈公 青海伯을 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으로 策定하고 大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 判刑曹事의 職責을 맡기니 公이 한사하고 받지 아니하



고 故鄕인 靑海로 돌아가서 살면서 朝廷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建文 2年(1400)에 太宗이 右侍中을 삼고 承旨를 보내서 불렀으나 亦是 올라오지 아니하니 太宗이 功臣의 祿을 주어서 餘生을 지내게 하였다.

建文 4年 壬午(1402) 四月에 靑海에서 永眠昇天하였다. 朝廷에서 使臣을 보내 吊祭를 올리고 三日間 輟朝하고 國事를 보지 아니하였고 永樂 8年(1408)에 太祖와 같이 宗廟에 配享했다.

公의 諱는 之蘭이요, 字는 式馨이니 靑海사람이다. 혹 말하기를 처음 姓은 修氏요 名은 豆蘭이다. 恭愍王 때에 高麗에 歸化해서 李氏姓을 주었다고 한다. 그 祖上은 元나라에 벼슬해서 戰爭에 功을 세워 五千戶를 封했으니 그 분이 바로 世上에서 말하는 浮海단 분이니 公의 曾祖요, 公의 아버지의 諱는 雅遠이니 女眞에 벼슬해서 征西大將軍이 되었고 뒤에 公이 貴하게 되어서 補祚功臣領議政府事를 贈職하였다.

이 征西公이 女眞에 있을 때에 큰 별의 精氣가 우물로 쏟아져서 天文보는 이가 하는 말이 “이것이 啓明星이니 그 밑에 반드시 偉人이 나리라” 하더니 그 뒤 얼마 안 가서 公이 誕生해서 成人이 되니 勇敢하고 말을 잘타고 활을 잘쓰었다.

元나라 至正 年間に 李太祖가 古匡城을 征伐하러 갈 때에 李太祖의 母親 懿妃 崔氏의 꿈에 老人이 와서 말하기를 “沂江에 가면 사냥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이 바로 임금을 도울 사람이다” 하였다. 이 때에 公이 마침 价江 上流에서 사슴 사냥을 했었다. 太祖가 첫 눈에 신기하게 생각하고 義兄弟를 맺고 征伐하러 나갈 때면 반드시 公과 같이 나갔다.

이 인연으로 公이 北靑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辛禡王이 西쪽 地方에서 사냥할 때에 大寧에 이르러 모든 武官을 모아놓고 二寸

차리 白金을 절고 활을 쏘게 하였다. 李太祖가 쏘아서 맞히니 禡王이 대단히 기뻐했다. 公이 李太祖를 覬覦하여 말하기를 “제주가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 한즉 李太祖가 그 말의 眞意를 깨닫고 公의 뛰어난 智慧에 歎服했다.

蒙古 丞相 納哈出이 數萬 군대를 이끌고 洪原으로 들어왔다.

公이 군사를 이끌고 咸關嶺을 넘어서 한참동안 싸우다가 군대를 거두고 그 이튿날 哈蘭灣에서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納哈出이 陣頭指揮해서 太祖를 犯하므로 太祖가 거짓 敗한 체하고 쫓겨서 달아나니 納哈出이 決死隊를 시켜 太祖를 追擊해서 太祖가 거의 붙들리게 되었을 때 太祖가 말에서 떨어지는 체하며 뒤로 자빠지면서 納哈出의 거드랑이를 쓰고 公은 옆에서 納哈出을 中間에 두고 攻擊하니 納哈出이 활을 당겨서 正面으로 太祖를 쏘는 즉 太祖가 말안장을 딛고 일어서니 그 화살이 太祖의 바지 가래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公이 앞으로 나와 納哈出에게 正面으로 충돌하니 納哈出이 當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도망쳐 버렸다.

倭놈이 밤에 江華島를 襲擊해서 府使 金仁貴를 죽이고 昇天府(開豐)로 들어오니 온 長安이 놀라서 잘 바를 못 찾고 禡王은 妃嬪을 데리고 逃亡하려고 大關門 밖에 數 많은 군대가 물리싸고 있었다. 公이 太祖를 따라 海豐으로부터 急히 昇天으로 쫓아오니 倭놈의 날랜 장수가 白馬를 타고 公의 陣을 功擊하므로 公이 화살 한 대에 倭將을 쏘아 죽이니 倭놈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

그뒤 얼마 안 가서 倭船 五百隻이 鎮浦로 들어와서 郡과 邑을 屠戮하고 불을 지르고 湖南으로 들어와서 雲城을 무찌르고 引月驛에 陣을 치고 있었다. 太祖가 公에게 “湖南 千里 길에 屍體가 즐비하게 깔렸으니 公은 힘차게 싸워서 이 羞恥스런 일을 씻어버려야 하겠다” 하셨다.

公이 군대를 整頓하여 가지고 鼎山에 이르니 倭將이 활을 겨누면서 곧장 太祖의 뒤를 따르므로 公이 말을 달이며 큰소리로 “뒤를 돌아다 보라” 하였으나 太祖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瞬間에 公이 이미 활을 쏘아서 倭將을 죽였다. 倭將 阿只拔都는 나이 겨우 十五歲로 勇猛이 모든 장수보다 뛰어나서 倭놈들이 上將軍으로 推戴했다. 太祖가 公에게 阿只拔都를 산 채로 잡으라 하니 公의 말이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람이 많이 傷한다” 하고 正面으로 말붙어 싸웠다.

阿只拔都가 두꺼운 갑옷을 입고 구리투구로 얼굴을 가리었다. 李太祖가 公에게 “내가 저 놈의 투구를 쏘아서 땅에 떨어뜨리거든 公은 그 놈의 얼굴을 쏘면 阿只拔都를 죽일 수가 있으리라” 하고 太祖가 투구를 쏘아서 땅에 떨어뜨리자 公이 뒤미처 阿只拔都를 쏘아서 죽이니 倭놈들이 모두 痛哭하고 軍裝備도 모두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女眞 將軍 胡拔都가 四萬 兵力을 이끌고 端川으로 들어왔을 때에 公이 마침 母夫人의 喪을 당해서 服喪中에 있었다. 太祖가 사람을 시켜서 公에게 請하는 말이 “나라가 위태로우니 비록 服喪中이나 나라를 위해서 胡拔都를 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므로 公이 母親 靈前에 痛哭再拜하고 바로 나섰다. 李太祖가 公을 先鋒으로 삼고 雄城에서 胡拔都和 싸워 크게 이기니 胡拔都가 도망쳐 버렸다.

太祖는 말하기를 “李豆蘭將軍은 敵을 만나서 싸울 때 가장 果敢하니 참으로 名將이다” 하였다. 端川이 平定되니 公은 다시 甲옷을 벗고 母親의 三年喪을 마쳤다.

青松伯沈德符가 中門嶺에서 倭賊을 막다가 敗해서 倭놈이 兎兒洞까지 쳐들어와 駐屯하였다. 李太祖가 군대를 이끌고 哈蘭에 가

서 軍中에서 가장 勇敢한 軍士를 골라서 山속에다 埋伏해 두고 公은 趙英珪等 百餘名の 軍隊를 거느리고 徐徐히 前進하니 太祖가 빨리 進擊하라 하므로 公이 先頭에 나서 誘導作戰을 쓰니 倭놈이 곧바로 太祖의 陣으로 犯해 들어왔다.

이때 太祖가 거짓 敗해서 伏兵이 있는 山속으로 들어가서 反擊을 加하고 公은 側面에서 攻擊하는 찰나에 伏兵이 또 쏘아져 나오니 倭兵이 全滅이 되어 威關嶺에서 牛碣山까지 三十里 사이에 屍體가 즐비하게 깔렸었다.

이 일로 公의 勇敢한 威名이 四方에 傳하여져 蒙古 여러 部族들이 모두 떨면서 항복하고 倭놈들도 모두 도망쳐 五十年 동안은 敢히 다시 우리 나라를 엿보지 못했다.

太祖의 佐命功臣 中에서도 公의 이름이 第一 높았었다.

그 뒤에 參贊門下府事 都兵馬使가 되어서 北方을 다스릴 때에 女眞을 내 百姓으로 만들려고 잘 타이르니 女眞族이 모두 國民이 되기를 願해서 義務的으로 賦役도 하고 租稅를 바치고 그 後 敢히 反하는 者가 없었다. 數百年 동안 머리를 풀어호트리고 다니던 風俗이 모두 衣冠之族으로 化해서 長白山에서부터 訓春江까지의 千餘里의 女眞 땅이 우리 나라 領土가 된 것은 實로 公의 功이었다.

辛禰王이 使臣을 北元에 보내어서 朝貢을 바치며 一朝에 遼東을 치기로 謀議하고 太祖로 都統使를 삼고 公을 元帥로 삼아서 平壤을 出發, 威化島에 머물러 있는 동안 禰王이 金完에게 親書를 주어 빨리 進擊하도록 命令했다.

太祖가 되돌아가려고 禰王에게 建議하며 하다가 或是 反逆者로 물릴까 염려해서 決定을 못하고 있는지라 公이 강게한 態度로 太祖에게 “子息이 아버지를 친다면 義理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



는가. 天下 사람에게 罪를 짓느니보다 되돌아가서 나라와 百姓을 平安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까” 한즉 太祖가 그 말을 듣고 군사를 돌이켰다. 이 事實을 뒤늦게 明天子가 알고 詔書를 보내 大義를 지킨 것을 아름답게 여겨 褒彰하니 비로소 나라와 百姓이 모두 平安하게 살았다.

益陽伯 鄭夢周 先生이 王氏가 장차 亡하게 됨을 근심해서 金震陽과같이 힘을 합쳐서 王氏를 붙들기로 合議하였다. 太宗이 술자리를 베풀고 益陽伯을 請해서 같이 술을 마실 때에 益陽伯이 悲壯한 노래로 마음이 變지 아니할 것을 盟誓하니 여럿 將軍들이 공을 보고 매터 죽여 없애라 한즉 공이 嚴肅한 態度로 “益陽은 忠臣이야, 나 어찌 忠臣을 죽여 스스로 옳지 아니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얼마 안 가서 高呂와 趙英珪의 무리가 益陽伯을 殺害하고 공은 이일에 關與하지 아니했다.

太祖가 建國한 즉시로 功臣을 策定해서 공에게 功臣의 職帖(辭令狀)을 내리자 공이 病을 핑계하고 門 밖을 나오지 아니하니 모든 宰相들이 歎服하였다.

太祖가 밤에 景福宮에서 잔치를 베풀고 功臣들을 請해서 즐겁게 놀 때에 太祖가 광대를 시켜서 文德曲을 부르고 공에게 하는 말이 “寡人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公등의 功일세” 한즉 공이 對答하되, “大義를 밝혀서 天命을 받았으니 殿下의 德이 높으신 때문이지 臣이 무슨 功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太祖가 어느 날 近臣을 보내 공을 寢殿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臣下와 장수들 중에서 누가 착하고 못한 것을 물으니 공이 “鄭道傳이 奸邪해서 반드시 제 命에 못죽으리다” 하였는 데 그 뒤에 果然 鄭道傳이 死刑을 받아 죽으니 그제야 太祖가 공의 卓越한 先見之明을 感嘆했다.



太宗이 王位에 올라서 公이 鄭道傳의 奸邪함을 미리 判斷했다 하여서 推忠秉義翊戴定社功臣青海君으로 策定하고 公이 돌아감에 또 奮忠效節同德佐命功臣으로 策定하고 襄烈의 諡號를 내렸다. 公이 容貌가 婦人같이 아름답고 將帥가 되어서는 威嚴이 天下를 震動시키며 그 大節은 누구라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公이 故鄉인 北靑으로 내려간 지 十年 만에 七十二歲로 돌아가시고 그 해 某月某日에 北靑府 東쪽 別雁臺언덕에 장사지냈다.

原夫人은 咸安郡夫人 惠安宅主 尹氏로 領議政 希甫의 딸이고 다음 夫人은 象山郡夫人 谷山康氏로 禮儀判書 普戴의 딸이다. 아들이 四兄弟다. 맏이는 和尚이니 判工曹事요, 다음은 和英이니 判刑曹事요, 다음은 和美니 判漢城府事요, 다음은 和秀니 禮曹參判이고, 高孫 挺豪는 修撰으로 金安老의 罪狀을 論하다가 誣告로 붙여 죽고, 七世孫 僉節制使 希唐은 鞠景仁을 치다가 白塔에서 戰死했고 靖社功臣 忠莊公 重老는 李适을 치다가 猪灘에서 戰死하고, 希唐의 아들 三立은 武科로 出身해서 敵을 막다가 合浦에서 또한 戰死했으니, 이것이 모두 公의 遺風이 아니겠는가.

公이 北方에서 태어나서 太祖를 좇아 모든 장수 중에서 으뜸가는 장수가 되어 戰爭을 百餘 차례나 치루어서 北쪽으로는 蒙古를 좇아 버리고 南쪽으로는 倭寇를 무찌르고, 女眞을 懷柔 歸化하게 해서 國土 千餘里를 넓히고, 또 忠貞과 仁義를 지키 天子를 犯하지 않고 忠臣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功臣의 隊列에서 伯爵까지 받았으나 自矜하지 아니하고 謙遜하게 處身한 그 뜻은 小人輩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承旨가 王의 詔書를 받들고 부르러 갔을 때에 公이 承旨가 온다는 소문을 미리 듣고 袂의 중을 시켜 削髮道具를 携帶하고 待機했다가 承旨가 들어와서 御命을 傳達하니 公이 衣冠을 整齊하고

詔書를 받은 뒤에 즉석에서 冠帶를 붙태우고 머리를 깎고 수염은 그대로 두었으니 鴨呼라, 公의 생각에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였던가, 머리를 깎지 않고는 이름을 숨기지 못했는가, 百世 뒤에는 반드시 公의 뜻을 알 사람이 있으리라.

公의 後孫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數가 많다. 後孫 慶泰·慶遇 益新·枝植·世寬等이 墓所에 碑를 세우기로 議論하고 나를 찾아와서 글을 請하므로 아태와 같이 새기고 새겨 쓰노라. 석식한 襄烈公은 北方에서 태어나 우리 太祖를 도와서 征伐에 이름을 날렸다. 偉大한 太祖는 實로 하늘이 낳으셔서 四方을 征伐할 때에 오직 公만이 따랐었다. 오랑캐를 쳐서 群賊이 魏飛魄散해서 도망치고 倭寇를 무절해서 大將을 죽이니 그 功이 하나·둘이 아니었으며 北과 南이 모두 편하게 된 것은 實로 公의 거룩한 功이었다.

辛禰가 遼에게 叛旗를 물자 天子를 치지 못한다 하고, 圖隱을 죽이라 하자 忠臣을 어떻게 죽이라 하고 承諾하지 아니하였으니, 公의 마음가짐은 神明이 證明하는 오직 仁과 義 뿐이다.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지매 北靑 한 모퉁이에 開國功臣이 생겨나서 伯爵을 받게 되었으니 公의 짝이 없는 勇猛은 싸움에는 當할 사람이 없었으며 富貴를 汲汲하게 貧내지 아니하고 벼슬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내버렸다. 太宗이 公의 뜻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草野로 물아간 公을 움직여 다시 벼슬자리로 돌아오도록 親書를 보내어서 北靑이 震動하였으나 公이 親書를 받고 나서 冠服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아서 永久히 벼슬을 辭讓하였다.

北山은 높고 橫水는 洋洋히 흘러 쉬지 않도다. 公의 明哲한 德行을 永久히 湮滅되지 않고 傳하여 지리라·太祖廟에 配享해서 그 功德이 길이 傳하게 하였도다. 내가 한쪽 詩를 들에다 새겨 오는 世上에 알리노라.

崇禎紀元後 三 甲午(1773) 10月 日 立

## 8. 松園白雲

—北青郡誌에서—

이 松園는 青海伯이 現 西島里를 隱居地로 定한 후 西쪽 五里 떨어진 中山脈 下端 防築山 中턱 鞍座型 고개가 보이며 앞으로 그 部落에 火災와 同族間 不和를 가져올 氣勢가 있으므로 이를 制壓 防禦하여야 한다고 部落과 防築山 中間에 수많은 소나무를 심어 鞍座型 고개가 보이지 않게 하여 장애의 재앙을 豫防한 것이다.

只今은 老松이 鬱蒼하여 行人 또는 觀光客으로 하여금 自然 옷것을 여미고 敬虔한 마음으로 青海伯을 追慕케 하고 있다.

이 松園는 端午節에는 婦女子들의 鞦韆(그네)이 또한 佳景이며 夏節에는 避暑客의 安息處가 되고 冬節에는 降雪로 때 아닌 白花가 松枝에 滿開하고 또 바람에 휘날려 落花처럼 白雪이 떨어지는 景致 또한 可觀이라 아니할 수 없다.

## 9. 影 堂

朝鮮開國 元勲功臣 青海伯 襄烈 李之蘭公은 非但 朝鮮開國의 元勲功臣일 뿐 아니라 奸臣 鄭道傳·朴苞 等の 奸邪함을 豫見하여 定社佐命의 功이 있어 定宗大王의 敎文에 開國과 定社에 功이 偉大하여 李氏王朝로서 永久히 그 功을 不忘하기 위해 畫像을 그리고 功爵을 세겨 萬世에 잊지 못할 그 功에 報答 云云한 것으로 보아 定宗 元年(1398)에 畫像을 그리고 太宗 4年(1404)에 青海伯의 三年喪이 지나고 神位를 祠堂에 모실 때 影堂을 짓고 神位와 畫像을 같이 모시고 忠烈廟라는 稱號가 太宗大王의 題號로 내려진 것으로 推測된다.

位置는 現 咸鏡南道 新北靑邑 安谷里 陵所 앞 舊 遺墟地에 建立하였다. 그러나 建立 當時는 단지 素朴한 影堂으로 4間을 建立하였다가 丙子胡亂 後에 重建하고 規模를 擴大하여 書院으로 變貌되어 後孫 以外의 全郡 儒林이 每年 春秋로 祭享을 드리고 있어 青海伯의 祠堂이며 影堂이자 儒林의 書院으로 되어 있다.

北靑에 있는 青海祠 以外에 水原·楊州·抱川·高敞·鳳山·陽德等地에 影堂이 있다.

#### 1. 水原 : 京畿道 華城郡 烏山邑 佳水里

英祖 22年(1746) 武厚公 第五子派 宗家에서 影牘과 神位를 모시고, 每年 4月11日과 7月11日 始祖 青海伯의 忌日과 同妃康氏夫人의 忌日을 祭祀하며 祠堂이라 稱하고 있다.

#### 2. 楊州 : 京畿道 楊州郡 眞乾面 龍井里(下獨井)

武厚公 第一, 二子는 無后하고 第三子派 宗家에서 上記 住所地에 影堂을 建立하여 青海伯의 影牘을 모시고, 每年 陰 3月15日에 祭享을 지낸다.

#### 3. 抱川 : 京畿道 抱川郡 蒼水面 楸洞里

이 影堂은 武厚公 第六子 後孫 八世 重老 靑興府院君 忠壯公의 愍忠祠에 青海伯의 影牘을 모시고 忠壯公 祭日에 祭享을 받들고 있다.

3. 高敞 : 全羅北道 高敞郡 月巖 高敞宗家 云하나 未詳하므로 以下 省略함.

#### 4. 鳳山 : 黃海道 鳳山 西湖

正祖 22年(1798) 黃海道 宗人들이, 始祖 青海伯의 墓所와 青海祠 影堂 및 書院은 北靑에 있어 距離가 甚遠하여 子孫으로서 省墓를 할 수 없음을 哀惜하게 생각하고 水原·楊州·抱川·高敞의 例를 본받아 影堂을 建立하여 影牘을 模寫 奉安하고 春秋로 祭享



을 받들고 있다.

# 5. 陽德：平安南道 陽德郡 雙龍面 龍淵里(現 龍田里)

哲宗 14年(1863) 平安南道 宗人들이 北靑 影堂의 規模와 같이 影堂을 建立하고 北靑에 奉安한 影幀을 模寫 奉安하고 春秋로 祭享을 받들고 있다.

## 7. 鳳山西湖坊影堂奉幀記

(12世孫 慶昇 謹識)

我李之落拓海西者幾至數百年而北靑有始祖墓水原有祠宇俱是遠地不得趨謁其爲子孫者得不赧然而罪悚乎哉歲在戊午冬族兄慶勳汝一甫因事上洛遍訪諸宗林洞靑陵君宗家及月巖高敎宗家皆奉影幀以移模之意言及則僉曰唯唯其臘晦以書委問滿紙答言從容歸一謂以有志者事竟成也越明年正月晦治送族弟慶億于京作模眞之行仍與族兄慶佐晦甫氏慶暉忠幹氏方營建祠高柱巨樑旁求四索不得善材適聞松峴孔氏建夫子廟未就而中止云故遺族弟慶信給價買得擔負輪來又採南山石鑿作柱礎漸素石儉偶然得此豈非神慳而鬼秘乎三月十三日模眞奉還以祠宇未成權奉不肖家奄過春夏秋三朔建祠六閱月而訖役同年八月初六日辰時擇吉奉安遺像端肅生氣勃然獲拜始祖顏面于數百年之後此誠眞耶夢耶不覺愴慕而感泣曾聞提學元景夏之奏感九日之乙覽今讀退漁金鑑尙之撰認七分之得眞溯西諸族吾宗素貧苟無陰雨之備難供春秋之享方鳩略干之物欲作永遠之計嗟我諸兄諸弟諸子諸孫勉之哉勉之哉

鳳山西湖坊 影堂에 影幀을 奉安한 글

12世孫 慶 昇 謹

우리 李氏의 後孫이 海西에 와서 살은지 數百年이 되었다. 北靑에는 始祖의 墓가 있고 水原에는 祠堂이 있으나 둘 다 遠距離地方이라 가서 뵈일 수 없어 子孫된 者로서 부끄럽고 罪悚하기

작이 없도다.

正祖 22年(1798) 戊午 겨울에 族兄 慶勳이 일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마침 諸宗人을 尋訪하였더니 林洞의 靑陵君 宗家 및 月巖 高敎宗家는 다 靑海伯의 影幀을 奉安하고 있었다. 影幀을 模寫하여 모시자고 發意하니 다 좋다고 하였다. 그해 선달 그믐날 通文을 하였더니 모두 贊成하는 回答이 오고 말하기를 모두 뜻을 모아 推進하면 반드시 成事할 것이라 하였다.

다음 해 正月 그믐날 族弟 慶億을 서울에 보내서 影幀을 模寫케 하고 族兄 慶佐·慶曄과 더불어 影堂을 建築하기 위하여 四方으로 큰 기둥과 보 감을 求하나 좋은 材木을 얻지 못하였다.

마침 松峴 孔氏가 孔子廟를 짓다가 中止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族弟 慶億을 보내 사서 가져오고 南山에서 돌을 끊어 柱石을 장만하니 이곳은 돌이 귀한데 이같이 좋은 돌을 求하게 되니 어찌 神奇하고 異常하지 아니한가. 3月12일에 影幀을 模寫하여 奉還하였으나 影堂의 建築이 完成되지 못하여 임시로 나의 집에 모시어 두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影堂을 六個月 만에 完成하고 그해 8月 初6日 辰時에 影幀을 奉安하니 畫像의 氣像이 勃勃하였다. 數百年 後에 始祖 앞에 걸하고 비울 수 있으니 이 것이 眞實이나 꿈이나 사모하고 感激하여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일찌기 大提學 元景夏가 奏上한 지 九日 만에 奉呈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退漁子 金鎮商의 畫像贊 글에 거의 眞影 같다는 것을 알겠다.

湖西(黃海道) 모든 우리 일가는 本來 가난하고 구차하여 餘蓄한 財産이 없어 春秋로 祭享을 받들기 어려우므로 別途로 永久한 對策을 講究中이니 우리 모든 兄·동생·아들·손자들은 힘을 합하고 合할지이다.

## L. 陽德龍淵里影堂奉安記

十七世孫承祐謹識

凡爲人道者莫不追遠而報本焉況功被社稷業垂雲仍百世觀德者乎此昔 朝家所以特賜不祧之典也惟我始祖青海伯襄烈公際遇 太祖結之以桃園之義仇之以椒掖之親北逐蒙古南挫倭奴懷柔女眞威島之役爲天子而班師益陽之禍護忠臣而不與其豐功盛德歛不誦而傳之仰而慕之凡我八域含生之類亦當家戶祝而爲其子孫者豈無報本之誠乎是以青海焉建院水原焉祠幀繪像于鳳山寔由於在在不忘之義也惟我關西之子孫幾至五百年獨無數椽之祠不肖之責誠是難免去癸亥春以移奉影幀之意門議僉同治行于北青移模眞幀而歸時則夏四月也仍權奉于齋室七月初吉祠宇始役而翼年甲子工匠告訖時則春三月也是月之辰涓吉奉安肅清之像魁偉之貌眞可謂曠百世而一值不可常常見之也今奉烈祖之遺像追感英廟之宸章生氣勃然於七分之上面孝思愀然於四月之旬矣夫觀議祠事余與門老建奎錫祚敬錫氏同謀之移模眞幀余與族從宗桃雨植雲植甫同行之堂建之制一樣於青海之院宇而扁額之揭徐參判承輔氏所題也鳩射之方莫非諸宗之勉力而營造之事余亦不無力焉凡我諸宗各盡人道世世尊奉而以寓其追報之誠焉

陽德 龍淵里 影堂을 모신 글

무릇 사람이 해야 하는 길은 먼 조상을 생각하고 근본에 報答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하물며 공훈은 나라의 社稷을 덮고 業績은 수백 대를 두고 推仰을 받은 분이라. 옛적에 조정에서 특별히 不遷之位 祠堂을 모시게 한 것이라!

우리 始祖 青海伯 襄烈公은 李太祖를 만나 義兄弟를 맺고 눈작지이 北으로 蒙古族을 쫓아버리고 南으로 倭寇를 쳐서 몰아내며 女眞을 회유하는 한편 威化島에서 天子에게 거역하지 아니하게 回軍하였으며 鄭夢周가 화를 입을 때 忠臣을 보호하여야 한다

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함은 그 많은 공과 그 높은 덕을 누가 칭송하고 우러러 사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리오, 무릇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은 모두 추앙하기를 그 子孫된 분들이 어찌 祖上을 위하는 精誠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青海에는 青海祠書院이 있고 水原에 祠堂, 鳳山에 影堂을 모시어 대대로 잊지 않고자 함이다. 그러나 우리 關西의 子孫은 거의 五百年이 되도록 한 칸의 祠屋도 없으니 不孝의 責任을 면하기 어려움도다.

지난 癸亥年 봄에 影幀을 모시자는 門中議決에 따라 北靑에 가서 眞影을 模寫하여 돌아온 것이 夏四月이라 입시 齋室에 모시고 七月初吉日에 影堂의 役事を 始作하여 다음해 純祖 4年(1804) 甲子春三月에 工事が 竣功되었기에 그달의 吉日을 擇하여 모시게 되니 엄숙하고 청수한 기상과 늙름한 모양이 수백 년 만에 한 번씩 날 분으로 항상 볼 수 없는 분이다.

이제 시조의 靈影을 모시니 옛적에 멀리 英宗大王께서 青海伯의 尊影을 보시고 기상이 발발하여 살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생 각나며 추연한 孝心이 생긴다.

이 영당을 짓기로 발의한 나와 門中老人 建奎·錫祚·敬錫氏와 또 眞幀을 模寫하여 모시기 위하여 宗中の 宗桃·雨植·震植은 같이 北靑에 가서 青海祠의 制度和 模樣을 똑같이 模寫하여 오고 院判은 徐參判 承輔氏가 쓴 것이다. 이 사당을 이룩하게 된 것은 모든 宗人이 힘을 합하여 된 것이다. 나는 힘이 없으나 우리 종 중 모든 사람은 자기 子孫된 道理를 다하여 대대로 높이 받들어 祖上에 對한 孝誠을 다하기 바랍니다.



## 10. 致祭文

英祖大王(22年) 致祭文

丙寅(1746) 9月 日

惟靈攀龍附鳳起自北方贊我 聖祖開創漢陽名登鐵券勲蓋一  
邦流傳史乘百代洋洋今見遺像其正其剛愴然追感叙懷此章命官  
設酌欽格我觴

신명님께 고합니다. 將軍은 龍을 받들고 봉황을 도와 北쪽에서  
일어나 우리 太祖를 도와 漢陽 도읍을 세우니 이름은 鐵券(漢高祖  
가 天下를 定한 뒤에 모든 功臣의 이름과 史蹟을 鐵에다 새겨서  
金匱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國家의 소중한 文書는 鐵券이라 함)에  
오르고 功勲은 한 나라를 덮어 數百代를 지나도록 生生하도다.

이제 遺像을 보니 그 正大하고 剛直했던 氣質이 自然 마음에  
떠올라 이 글을 지어 祭官을 보내 잔을 드리니 내 잔을 받아 欽  
享하소서.

英宗大王(26年)致祭文 &lt;庚午(1750) 9月&gt;

天憫世亂卽降神武又生英豪以翼以羽緬維青海際我聖朝奮挺  
掘起雲龍風虎韃洞驃馬納虜戰殷荒山射賊鐵額飲怒威烏彰義寔  
典佐伍翊 聖除昏拓荆區宇山疆河帶錫姓胙土功成告退履彼圭  
組服食

廟庭一體千古向覽遺像思切聽鼓酌文視錫夔絕異數有命錄後  
申之選部溫宮戎蹕路出畿輔祠版之藏寄在荒莽聖恩昧昧偉績追  
撫俘官錫祭酌茲清醑

하나님은 世上이 어지러워짐을 惻隱히 여기사 神武한 太祖를  
내보내고 또 英雄豪傑을 誕生케 해서 날개와 깃처럼 돕게 하였다.  
오직 青海伯이 우리 太祖가 태어날 때에 같이 태어나서 구름이  
龍을 좇고 바람이 범을 좇듯 奮發해 일어나서 韃洞 싸움에 納哈

出을 降伏받고 荒山 싸움에서 倭將의 이마를 쏘아 뚫고 威化島에서 大義를 밝혀서 善을 듣고 惡을 없애서 나라를 세워 天地에 盟誓하여 姓을 주고 땅을 주었다. 큰 功을 세우고 물러났으나 太祖의 사당에 같이 모셔서 千萬年을 太祖와 함께 누리게 하였다.

畫像을 보고 祭享의 복소리를 들으니 將軍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數百年 된 오늘날 글을 지어 祭祀를 지내게 하니 때는 다르나 이것도 연분인가 하여서 選部에 命令해서 將軍의 事蹟을 다시 記錄하게 하였다. 마침 溫宮으로 가는 길에 將軍의 祠堂 앞을 지나게 되므로 將軍의 偉大한 功을 欽慕해서 祭官을 시켜 祭祀를 지내노라.

正宗大王 致祭文 (一) 〈庚戌 1790 2月〉

聖有天縱人爲時出藝祖之業青海是弭塵埃識眞風雲契密移轉山河震盪星日神武所贊八域歸一帶礪存盟歟肅鮮匹凡厥偉烈瞻與公軼夙舉祀典歲將芬苾英考讚像 宸翰撫實路涉祠鄉薄言停蹕溯念今古惕若增愧倖官佑靈表予追述

하늘이 임금을 내게 되면 도운 사람이 또한 그 때를 따라서 나오게 되느니라. 太祖가 戡業하실 지음에 青海伯이 도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數많은 사람中에서 참다운 主人을 만나 바람과 구름이 얹히듯 情分이 親密해서 山川을 주름잡고 칼날을 휘둘러 神武를 도와 八道가 統一되었다.

天地에 盟誓하니 둘도 없는 큰 功이다. 모든 英雄 烈士가 공을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나. 그 前부터 해마다 祭祀를 지내왔고 特히 英宗大王께서 畫像을 稱讚하였고 祭物을 갖추어서 祭祀를 지내셨다. 나도 마침 祠堂 동네를 지나게 되어 잠깐 길을 멈추고 지나간 일을 추모하며 使臣을 시켜 祭祀로 나의 뜻을 表하노라.

正宗大王 (19年) 致祭文 (二) 〈乙卯 (1795) 閏 2月〉

桓桓青海開國元勳射穿七札勇奪三軍塵埃識眞攀附麟翼起自關北在  
定大策紀之彝鼎繪于麟閣守信釋權子儀多福屹然遺廟在彼之阿靈術園  
寢氣壯山河向歲修葺曰嘉乃功盤路塵清颯爽英風

적석한 青海伯은 開國의 元勳이다. 벼들일을 풀을 수 있는 활  
저주를 가졌고 三軍의 장수를 때앗을 만한 勇猛이 있었다. 옴은  
임금을 만나서 龍의 비늘과 鳳의 날개와 같이 받들고 도왔다. 關  
北에서 태어나서 大功을 세워 이름은 史記에 記錄되고 畫像은  
麒麟閣에 걸여 있도다. “後漢 光武皇帝가 漢나라를 中興시킨 뒤에  
功臣 28名の 畫像을 麒麟閣에 붙였으므로 後世에 그 例를 좇아서  
功臣을 찬양하여 麟閣功名이라 한다.”

믿음을 지키며 權勢를 버리니 郭子儀처럼 福이 많도다. 우뚝한  
옛 祠堂이 저 언덕에 있어서 靈魂은 國寢을 둘러싸고 靈氣는 山川  
처럼 雄壯하도다. 去年에 祠堂을 重修해서 이제 竣工을 보게 되었  
기에 지나는 길에 수레를 멈추고 英雄의 氣風을 잠깐 구경하노라.

正宗大王 卽位 19年(1795년) 윤 2月 12日에 또 다시 肅宗을 참배  
할 때 副護軍 尹得邊을 祭官으로 삼아 青海伯 祠堂에 致祭하시다.

純祖大王 (4年) 致祭文 (一) 〈甲子 (1804) 9月 日〉

天挺豪俊爲時篤生龍飛騰揚震疊日星密勿風雲整頓乾坤翊贊  
洪業萬世一元豐功偉烈海山崢嶸至今赫赫婦孺誦名立祠郊垌歲  
將蕊芬 宸章讚像凜然七分喬陵蹕路溯古興想倅官侑靈庶幾顧  
饗

하늘이 때를 맞추어 英雄을 誕生시키니 高明한 제주는 日月을  
흔들으며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하여 天地를 整頓해서 開國에  
세운 큰 功은 바다보다 깊고 泰山보다 높아서 數百年이 지난 오늘  
날까지 赫赫하여 婦女子과 아히들까지도 이름을 외계 되었다.

郊外에 祠堂을 세워서 해마다 祭祀를 지내도다. 先王께서 畫像

의 능률함을 讚揚하여 이미 그의 功德을 七分이나 밝혔다. 先王의 陵寢에 다니오는 길에 追慕하는 마음으로 使臣을 시켜서 靈魂을 위로하니 歆享 하소서.

純祖大王 卽位 4年(1804) 9月 27日에 水原에 있는 아버지 正祖 임금의 健陵을 參拜하고 돌아오는 길에 禮曹佐郎 朴廷儉을 치제관으로 삼아 青海伯의 祠堂에 致祭케 하였다.

純祖大王 致祭文(二) <庚午(1810) 12月 日>

龍躍天衢籍以風雲應時挺豪豐烈偉勲名垂簡冊誦騰婦孺像讚  
宸章祠近蹕路九原難作溯昔興懷英靈不昧我酒之醑

龍이 하늘로 뛰어올라서 바람과 구름을 타고 다니드시 때를 만나 재주를發揮해서 큰 功을 세워 이름이 史記에 올라서 婦女子들까지도 알게 되었고 先王께서는 畫像을 讚揚하는 詩까지 지으셨다. 祠堂이 나 다니는 길 가까이 있어도 黃泉에서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옛적일을 생각하니 感慨無量하다. 英明한 魂靈은 내 술을 맛이 없다 하지 말고 歆享하소서.

純祖大王 卽位 10年(1810) 7월 27일, 水原에 있는 선왕의 陵을 參拜할 때 青海伯의 祠堂으로 祭官을 보내어 致祭하고자 하였으나 뒤로 미루어져서 그해 12月 15日에 예조 좌랑 閔英世를 祭官으로 삼아 致祭케 하였다.

純祖大王 致祭文(三) <壬申(1812) 7月27日>

粵昔壬申皇祖受命塵埃識眞英豪翊聖卿時遇巷魚水契隆穿楊  
妙技執鈞奇功拔都授首女眞歸心倡義協謀同德二三一統洪業樹  
立甚宏山河帶疆竹帛功名休戚與共恩寵最優瞻彼青海秩視公侯  
若唐世勛比周召虎麟閣龍光照耀今古洪休逮予舊甲周星緬懷開  
廟倍憶丹青無疆寶錄肇自濯灘藉彼冒石基我措磐功載丕視曠百  
相感 南殿奠酌餘懷曷堪元祀威秩肅寓酬報英靈酌蠶庶幾飲醑



옛날 壬申年(1392)에 太祖께서 하늘의 命을 받아 王位에 오르셨다. 初年부터 太祖가 天命을 받은 것을 알고 英特하고 豪傑스럽게 太祖를 돕기 위하여 野人으로 서로 만나서 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交分이 깊었고 버들잎을 마치는 뛰어난 弓術로 큰 功을 많이 세워서 阿只拔都를 죽이고 女眞을 歸順시키며 義兵을 일으켜 2,3 同志가 協力해서 나라를 創建하니 天地에 盟誓하여 苦와 樂을 國運과 같이 해서 이름이 史記에 빛났다.

임금의 사랑이 제일 두터워서 青海伯에 封하였으니 唐나라의 李世勣과 같고 周나라의 召公과도 같아서 麒麟閣에 이름이 오른 榮光은 千秋에 빛나 있다. 大統은 끊임없이 傳해와서 開國하던 그 해 壬申年이 돌아왔으므로 創業하던 그 해의 일을 더듬어 보니 실로 感慨無量하다. 오늘날 우리가 無窮한 福祿을 누리게 된 것은 실로 創業 때에 우리에게 튼튼한 基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功을 세운 卿은 數百年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 氣脈이 서로 通하니 感動이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南殿에서 잔을 드리니 追慕하는 마음이 더욱 세로와지도다. 元 祭祀는 威鏡道에서 지내나, 이번 임시 祭祀에 對하여 靈魂은 不足하다 마시고 欽享하소서

“純祖大王 卽位 27年(1812) 7月27日 太祖 임금이 朝鮮王朝를 創建하여 王位에 오른 지 7回甲(420)이 되는 記念日이었다. 이에 純祖임금은 이 날을 맞이하여 특히 開國功臣을 흠모하는 감회가 새로이 떠올라 特別談話를 한 同時에 各 政府機關으로 하여금 그 功臣의 사당에 禮官을 보내어 致祭케 하였다. 이 때에 青海祠에 致祭를 맡은 禮官은 李中鐵이었다.”

憲宗大王 致祭文 <癸卯(1843) 2月 日>

聖朝受命考自壬申英豪爲時舉附翼麟有周十亂若漢三傑 予  
 曰禦侮惟卿襄烈座埃識眞風雲合契天生猿臂穿楊妙藝奮武鷹揚  
 先馳馳獵贊協大義開袍洪業膺奏女眞凱旋拔都石室金券雲臺畫  
 圖圭組輝赫世襲芬芳式休今日邦祿無疆蹕路入望古祠歸存曠百  
 興感倅官伯焚

太祖가 하늘의 命을 받들어서 처음 王位에 오르신 것은 옛날  
 壬申年이었다. 英雄豪傑들이 때를 맞춰 太祖의 輔弼이 되어서 여  
 러차례 난리를 平定하였음은 漢나라의 三傑과 같도다. 누가 뭐라  
 고 해도 오직 卿은 太祖의 將來를 미리 알고 바람에 구름쫓듯 君  
 臣이 서로 만나서 버들잎을 맞히는 特異한 弓術은 사냥할 때에  
 이미 알게 되었고 女眞을 降服받고 阿只拔都를 무찔러서 凱歌를  
 울리고 大義를 굳게 지켜 大業을 이루어서 畫像은 麒麟閣에 높이  
 걸리고 이름은 史記에 빛나서 代代로 子孫이 福祿을 누리고 오늘  
 날까지 國運이 興旺한 것은 실로 卿의 偉大한 功勳의 德澤을 힘  
 입은 것이다. 지나는 길에 祠堂을 바라보니 追慕하는 마음이 더  
 욱 새로워서 使臣을 시켜서 잔을 드리노라.

哲宗大王 致祭文〈壬子(1852) 11月 日〉

聖朝龍興宸伏同德徐常炳畿襄鄂効力整頓宏業諒爲時出天挺  
 元勳翼臨襄烈座埃識眞托契密勿三箭天山羯奴滅魄雲臺繪像石  
 室紀績名遂身退晚節尤特選對辨奸人服卓識恩推錫姓報崇配食  
 金來字跡炳靈幽宅廊門存場報佑邦國爰及苗裔圭組輝赫輦路興  
 感願予倅酌

神聖한 太祖가 大業을 이룩하심에 하늘이 元勳 青海伯을 誕生  
 하시어서 徐常이나 襄鄂처럼 忠誠을 다하게 하였다. 民間人으로  
 게실 때부터서 情다운 친구로 天山싸움에 화살 몇 개로 오랑캐의  
 魂을 잃어 버리게 하고 雲臺(功臣閣)에 畫像이 높이 걸려서 史記

에 이름이 실렸었다.

큰 功을 세우고 山野로 물러나서 벼슬을 탐내지 아니하고 節介를 지킨 것은 더욱 特異하고 임금 앞에서 奸臣의 將來를 미리 판단한 그 높은 識見은 누구라도 歎服하지 아니할 수 없다. 恩惠를 베풀어서 姓을 주고 爵位를 높여서 太祖의 宗廟에 같이 모셨고 무덤에서 金이 온다는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지승에서 魂靈이 나라를 保護해서 子孫 代代로 벼슬하여 赫赫하도다.

지나는 길에 追慕하는 感懷가 간절해서 使臣을 시켜서 잔을 드리니 欽享할지이다.

① 哲宗임금 卽位 3年(1852) 11월 18일에 선왕처럼 水原에 있는 선대왕의 陵을 參拜하러 지나는 길에 예조좌랑 金政源을 祭官으로 삼아 青海伯 祠堂에 致祭케 하였다.

② 高宗皇帝 卽位 5年 (1868) 11月 24일에 水原의 여러 皇陵을 參拜하러 가는 길에 예조좌랑 金國顯을 祭官으로 青海伯의 祠堂에 致祭케 하였다.

## 七. 後 孫

### 1. 樞密公 和尚

樞密公의 휘(諱)는 和尚이고 青海李氏의 始祖 青海伯 李之蘭의 아드님 四兄弟中의 맏아드님으로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추밀공은 아버지 즉 朝鮮開國 元勳功臣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을 도와 高麗末・朝鮮朝初期에 南征北伐에 그 공훈이 많아 朝鮮에서는 輔國崇祿大夫 判工曹事 青海君을, 中國明朝에서는 樞密副使兼 禮部尙書의 爵位를 받은 朝鮮開國의 原從功臣의 한 분이다.

樞密公은 아버지 青海伯을 따라 용맹과 智略을 겸비한 武將으로서 高麗 恭愍王 20년(1371년) 辛亥 二月에 아버지 青海伯을 따라 북청에서 開京으로 이사와서 살게 되었다.

공은 개경에 와서는 자연 李太祖와 아버지 青海伯과의 관계로 인연이 되어 늘 李太祖의 아드님 芳雨, 芳果 등과 같이 사귀게 되었다. 특히 李太祖의 아드님 중 방원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 李太祖가 朝鮮왕국을 창업한 때 그 이바지한 공이 많았다.

李朝實錄 一卷總書에 의하면 고려말 辛禡十四年에 李太祖 李成桂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李太祖의 아들 芳果(후에 정종대왕이 됨)와 芳雨(진안대군)와 같이 羈王을 따라 成州(지금의 成川)온천 羈王 처소에 있었다.

李太祖가 위화도로부터 회군하여 압록강을 건너 安州를 지나



계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芳雨・芳果와 같이 靺王 처소를 脫出하여 회군하는 李太祖의 군대 앞에 이르렀다. 이들을 본 李太祖는 반가와 하며 너희들의 이번 거사는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青海伯이 천하의 명장이라는 사실은 중국 명나라에 까지 알려져 있었다.

마침 明太祖 25년(1392) 4월에 建州衛(지금의 滿洲) 여진 추장 월로티무르(月魯帖木兒)가 명나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명나라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援兵을 요청하면서 青海伯을 主將으로 삼아 출병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주일대의 地理風習에 익숙한 청해백을 都元帥로 삼고 그의 큰아드님 樞密公 和尚을 副元帥로 삼아 군사 1만을 주어 출병하게 하였다.

청해백과 그 아드님 樞密公은 대군을 인솔하고 전주위에 당도하자 여진 반란군은 青海伯의 威名을 익히 아는 바라 미리 겁을 먹고 있어 한번 싸움에 대패하고 풍지박산되어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전주위 여진 반란을 평정시켰다.

明太祖 朱元璋 당시 天子는 골치아픈 여진족의 반란을 이같이 힘 들이지 않고 쉽게 평정된 것을 심히 기뻐하고 또 青海伯의 武勇을 후대하여 青海君(당시 朝鮮에서는 青海君을 봉하였던 것임)을 青海伯(伯이라는 벼슬의 지위는 제후 즉 왕과 같으나 국도와 국민이 없음)에 봉하고 그 아드님 樞密公은 樞密副使 兼 禮部尙書에 봉하였다.

그 후 青海伯은 곧 회군하여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樞密公은 명 태조의 만류로 명조에 남아 있다가 水土不服으로 병이 나자 명태조는 부득이 귀국을 허락하고 水土 좋은 고국에 가서 요양하라고 하였다.

樞密公이 귀국하자 朝鮮에서는 공의 공훈을 높이 평가 찬양하고 山水 좋은 강원도에서 요양하라고 강원감사를 제수하여 주었다. 그러나 공은 오래지 않아 무卒하였다. 忌日은 五月 十六日이고 墓는 江原道 伊川府 琵琶洞 枕寅의 언덕이다.

이 墓에 대한 逸話 한 토막을 紹介하면 公이 무卒하자 그의 故鄉인 咸鏡道 北靑으로 運柩하는 途中 靈柩(영구)가 이 지점에 이르자 一陣狂風에 銘旌이 날려 現 墓所 자리에 떨어지고 靈柩가 요지부동이 되어 도저히 운구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葬事를 지냈다는 傳說이 있다.

공은 靑年時節부터 朝鮮朝 삼대왕인 太宗 芳遠과 같이 힘을 합하여 朝鮮開國에 이바지한 공이 그의 父親인 靑海伯 못지 않으나 그 당시 군대제도는 전부 家兵制度로 되어 있어 공신록편에도 누구의 몇 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이 조출하여 후광을 받지 못하였고 또 그 후손 중 첫째 둘째 아들이 모두 무卒 무후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나이 유충하여 부친의 위훈을 계승받지 못하였다.

公의 아버지 靑海伯이 逝去하였을 때도 公은 그 前에 이미 무卒하고 그 子孫은 유충하여 공의 둘째 아우 武厚公 和英이 여진의 추장을 계승받은 사실과 靑海伯 逝去 당시의 태종실록을 보면 靑海伯의 아들을 和英・和美・和秀 三人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樞密公의 무卒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

또 그 後孫이 무卒하여 家業의 繼承과 宗家로서의 구실을 잘하지 못한 實例를 들면 樞密公의 山所를 失傳하였다가 約 四百年 후 戊子年 가을에 公의 11世 後孫인 重達이 樞密公의 山所가 江原道 伊川 琵琶洞에 있다는 家乘의 記錄을 보고 江原道 伊川 琵琶山 周圍를 두루 돌며 老人들에게 수소문하였다.

한 老人이 樞密公의 山所를 가리키며 “이 山所를 李政丞墓라고도 하고 또 修將軍 山所라고도 합니다”. 하기에 그 山所의 坐向과 그 治山한 規模로 보아 짐작은 가나 數百年間 돌보지 않아 古塚이 다 되어 잘 알 길이 漠然하였으나 追遠의 感懷를 禁치 못하였다.

그날밤 그 山所아래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非夢似夢間에 한 젊은 장수가 말하기를 “나는 너의 9代祖인 樞密公이다. 그 墓는 나의 墓所이며, 또 誌石이 있으니 파 보면 알 것이니, 疑心하지 말라.” 하므로 後孫인 重達은 沐浴齋戒 후 擇日하여 山所에 祭祀를 지냈다.

沙草를 하고 誌石을 파서 본즉 과연 輔國崇祿大夫 判工曹事 樞密副使 兼 禮部尙書 青海君 李和尚之 墓라고 彫刻되어 있는 書字가 分明하므로 山役을 마치고 故鄉인 北靑으로 돌아가서 後孫으로 하여금 다시는 山所를 失傳하지 말도록 遺言하였다 한다.

樞密公은 青海伯 襄烈公의 長子로서 母夫人으로는 威安郡夫人 惠安宅主 尹氏, 領議政 尹希甫의 따님이요, 또 둘째 母夫人으로 象山郡夫人 谷山 康氏, 禮儀判書 康普戴의 따님이다. <註, 이 분은 李太祖의 王妃 神德王后 康氏의 親庭 조카 따님이시다>

부인은 貞敬夫人 安東 權氏, 李朝開國 一等功臣 花山府院君 權近의 따님이요 다음 계비는 貞敬夫人 東平 李氏, 司宰副令 李崇祚의 따님이시다.

아드님은 五兄弟 분이 있었다. 첫째 孝元, 둘째 孝亨 두 분 다 青海君으로 封君 早卒 無嗣하여 子孫이 없으며 세째 孝邁, 네째 孝莊, 다섯째 孝哲이 있어 그 子孫 中 一部가 서울 또는 京畿地方에 居住하고 그 外에는 咸鏡道와 平安道 地方에 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問題가 있다. 青海伯의 長子와 次子에

伊川琵琶項樞密公墓之山圖



青海伯の 長子 和尚 樞密公の 墓所 山形圖  
＜青海李氏世譜에서 轉載＞



대한 長・次의 紛爭이 朝鮮 英祖時代부터 시작하여 朝鮮末까지 繼續하여 온 관계로 青海伯에 대한 忌祭祀를 北青(樞密公의 子孫)과 烏山(武厚公의 子孫) 두 군데에 祠堂을 모시고 각己 長孫이라 稱하고 奉祭祀하여 왔으므로 이제 여기에 그 長次에 대한 問題를 明白히 記述한다.

樞密公이 青海伯의 장자라는 證據로서

一. 青海伯 神道碑(산소앞에 세운 비석)에 明白히 아드님 四兄弟가 있고 그 序列로 和尚, 和英, 和美, 和秀라고 記銘되어 있고,

二. 朝鮮王朝實錄 第一卷 總書 二十三枚 前面 第七行에 “上王 與其兄芳雨及李豆腐子和尙等自成州謁所奔于軍前” “上王이 그 兄 芳雨 및 이豆腐의 아들 和尚 등과 같이 羈王 處所로부터 脫出하여 軍전에 왔다”고 하였다.

이 당시에 고려말 辛禑王14년(1388)에 李太祖가 威化島에서 回軍하여 開京을 反征할 때의 記錄의 一部로써 樞密公은 高麗末에 芳果(定宗), 芳雨와 같은 階級の 벼슬을 하였고 威化島 回軍과 朝鮮開國에 貢獻하였고, 武厚公은 아직 그 班列에 參與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아 樞密公보다 年下로서 그 당시 未成年임이 틀림 없다.

三. 樞密公은 1392년 4월 青海伯 아버지를 따라 明나라 援兵으로 建州衛 征伐 副元帥로 威名을 떨치었으며 太祖 7년에 工曹典書로서 李太祖의 特命으로 東北面 都宣撫察理使 鄭道傳에게 사온(賜醢)한 일이 있었고 武厚公은 太宗元年에 禮曹典書에 任命되어 樞密公보다 3年後인 太宗 元年에 典書에 陞進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年下임이 明白하다.

四. 東國輿地勝覽 青海伯篇中 그 子弟欄에는 和尚・和英・和

美・和秀의 順으로 記載되어 있어, 樞密公이 兄으로 되어 있다.

五. 武厚公은 十八歲부터 朝鮮朝에서 처음 郎將이 되었으며, 樞密公은 高麗朝에서 辛禔王을 侍從한 事實로 보면 그 活動年代 差異가 四, 五年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樞密公이 長兄임이 틀림없다.

六. 壬午譜 즉 青海李氏世譜 序文 첫머리에 我李之貫青海幾四百年而舊無譜譜今成矣 “우리 이씨의 본은 청해다. 거의 四百年이 지나도록 오래 되어도 世譜가 없다. 그러나 이제 世譜가 되었다” 라고 記述하였고 그 世譜 樞密公 欄의 記事를 보면 舊譜序居第一而北青所在功臣子孫錄券載以第二印跡斑斑而北單亦以第二子書來且以武厚公承祀一款看之公之序居第二無疑故錄之仲位 “구보에는 제1자로 되어 있으나 북청에 있는 공신자손록권에는 둘째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선명하며 북청에서 보내온 단자에도 역시 제2자로 써왔다. 또한 무후공이 제사를 받들온 예로 보아 공이 둘째임에 의심이 없으므로 둘째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보를 주관한 분이 세보서문을 썼는데 서문에서는 “四백년이 되어도 세보가 없었는데 이제 세보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樞密公란에는 구보에는 첫째로 「序居第一」 있으나 云云등으로 있는 세보를 없었대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임오보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 구보에 樞密公이 장자로 되어 있다는 점.

이상 외에도 樞密公이 장자로 기록되어 있는 東海名將傳 조선 인물전에 모두 青海伯의 아드님 四인의 순위는 和尚・和英・和美・和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武厚公이 장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에 기록하여 양쪽 주장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一. 青海伯이 서거하였을 때 朝鮮王朝實錄에 「上悼甚輟朝三日謚曰襄烈及葬如其請三子和英和美和秀」 “임금님이 심히 슬퍼하여

三日간을 조회를 파하고 시호를 양렬이라 하고 장사는 그가 정한 대로 허락하고 아들은 삼인 화영, 화미, 화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열로 보아 和英 이장자라고 한다.

二. 武厚公이 서거하였을 때 世宗大王 사제문 중에 惟卿以勲盟之胄將家之胤 “경은 개국공훈이 많은 장수집을 이어받은 사람 운운의 운(胤)자를 신옥편(新玉篇)에 말아둔 을자라고 하여 장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古玉篇에는 ‘胤’을 “繼也(이을다), 嗣也(데 이을다), 子孫相承續也(자손이 서로 이고이을다)”로 반드시 말아둔을자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三. 壬午譜에 장자로 되어 있다.

以上 양쪽 證據文獻을 調査 考察하건대

① 樞密公과 武厚公의 記錄上 年代의 差가 樞密公이 武厚公 보다 4.5년이 앞서 있고,

② 青海李氏世譜(壬午譜)以外的 他人이 著述한 書籍에는 樞密公이 長子로 記錄되어 있다.

③ 青海伯 墓所 앞에 세워있는 神道碑는 壬午譜를 主管하여 만든 慶泰氏가 그 當時 當代 文章인 大提學 黃慶源에게 付託하여 그 碑文을 作成하여 銘刻한 碑文에 分明히 아드님을 和尚・和英, 和美, 和秀의 順으로 記銘 되어 樞密公이 長子로 되어 있다.

④ 壬午譜 以前 世譜에 樞密公이 長子로 되어 있고,

⑤ 壬午譜에 武厚公 承祀 云云하였으나 武厚公의 子孫은 全部 京畿以南에 居住하고 墓所도 亦是 京畿以南에 있는 點으로 보아 나라에서 세워준 北靑에 있는 忠烈廟 青海祠 祠堂에 承祀 云云은 全然 根據가 없는 事實이다.

⑥ 青海伯 逝去 當時 朝鮮王朝實錄에 青海伯의 아드님이 3人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은 樞密公이 青海伯보다 먼저 早卒하여 없

었기 때문에 3人으로 記錄된 것이 自明하고,

⑦ 武厚公 장례에 世宗大王 사제문 중에 武厚公을 「冑將家之胤」(註, 근대어와 고대어와의 문자 표현의 차이와 변천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라고 한 것을 근대어로 직역하여 장군집의 말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나 이는 장군가의 가업을 계승한 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樞密公은 조출하고 또, 그 자손이 연유하여 武厚公이 青海伯의 偉勲과 추장을 이어받아 가문을 빛나게 하였기 때문에 장군집의 계승자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그 당시는 국가에서 반드시 장자만이 왕통을 계승하지 아니한 예, 太祖가 막내 아들 芳碩을 세자로 봉했던 일, 추후에 제2자인 定宗 다음에 제5자 太宗 그리고 太宗의 제3자인 世宗이 王統을 계승받은 사실을 考察하면 理解가 될 것이다).

⑧ 壬午譜에 武厚公이 長子로 되어 있으나, 壬午譜는 前後의 着誤등으로 보아 信憑性 보다 樞密公이 長子라는 證據를 더욱 明確하게 한 것이다.

以上の 諸文獻과 考證으로서 青海伯의 長子는 樞密公 和尚이고 武厚公 和英은 第二子임이 明確함으로 이에 青海伯의 長子는 和尚 樞密公임을 明記하여 둔다.

또 한가지 밝혀 둘 것은 白山學報記載 李之蘭研究에서 武厚公을 青海伯의 長子로 斷定하고 樞密公 和尚을 次子로서 長壽하여 朝鮮王朝 8代王 睿宗 때 國葬都監을 지냈다고 하였는데 樞密公과 武厚公의 長・次에 對하여는 위에서 充分히 說明하였으므로 再論할 必要가 없고 樞密公의 長壽 云云에 對하여 밝히고자 한다.

睿宗 元年과 高麗 辛禰14年 사이는 80餘年에 該當한다. 그러면 樞密公이 辛禰王 14年 威化島回軍때 나이 20歲로 推定하면 睿宗



元年에 樞密公의 나이 百歲이다. 朝鮮朝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歷史上 百歲의 老宰相이 現職에 있었던 事實이 없다. 兼하여 國葬都監은 王陵의 治山工事を 現地에서 總監督하는 責任大臣으로 强健한 사람도 堪當하기 어려운 職責이다. 이러한 國葬都監을 百歲老人에게 任命할 理가 없다. 이는 朝鮮王朝實錄 索引簿에 同名異人 李和尚을 한데 발췌하여 잘못 調査 採擇한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學者들 中에 充分한 考證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一方的으로 斷定하는 事例가 많다. 例를 들면 青海伯은 南宋岳武穆王의 後孫인 漢民族을 女眞族이다 하고 斷定하며 樞密公이 早卒하였는데 百歲가 넘도록 生存하였다고 記述하는 등 참으로 再三 삼가야 할 것이다.

## 2. 武厚公 和英

武厚公 和英은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의 次子로서 그 出生 年代 및 出生地에 對하여는 記錄이 없어 알수 없다.

武厚公은 氣骨이 壯大하고 威風이 凜凜한 武人으로써 弱冠 18歲부터 아버지 青海伯을 따라서 郎將으로서 武功을 세웠다. 初年の 記錄이 없어 자세하지 않으나 功臣錄을 보면 原從功臣으로 記錄된 것을 보면 朝鮮朝開國 當時에 功勳이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第1次(定社) 第2次(佐命) 王子亂의 功臣錄에 青海伯이 2, 3等功臣으로 記錄되어 있는데 이는 青海伯의 人生觀으로 보아 芳遠의 王權慾을 위하여는 無慘한 骨肉相爭과 無慈悲한 殺戮을 恣行하는 일에 加擔하여 協力하였을 理 萬無하다.

그러나 武厚公과 判尹公은 나이 太宗 芳遠과 비슷하고 또 平時 親交가 兄弟 같은 사이라 아마도 家兵을 거느리고 그 隊列에 參加하여 功勳을 세운 것으로 推測된다. 萬若에 青海伯이 直接陣頭

指揮를 하였다면 어찌 2, 3等功臣에 封하였으리요 當然히 官錄으로 보아 1等功臣으로 推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當時의 軍制는 武人政治로써 武人은 家兵을 領率하고 있었다. 本人이 直接出征하지 아니하고 家將이 代身 出征하여도 그 功은 家長의 名義로 記錄하였던 것이다.

武厚公은 太宗에게 特別한 寵愛를 받아 太宗元년에 禮曹典書가 되었다. 이 때에 司諫院에서 時務에 對한 上書文中에 “禮樂에 關한 職責은 禮樂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任命된 禮曹典書 李和英, 李玄, 議郎 許衡, 奉常判事, 辛有定, 崔之祐, 令 朴質 등은 전혀 禮樂을 알지 못하기를 어찌하여 이같이 任命하였느냐”하고 是正을 要求한 일이 있었다.

太宗2年(1402) 4월에 아버지 青海伯이 北靑에서 下世하시자 모든 官職을 辭任하고 아우 判尹公 和美, 禮判公 和秀 등 家眷을 데리고 北靑에 가서 葬禮를 執行함에 있어 長兄 樞密公 和尙은 무후로 없었고 長孫은 年幼하여 그 葬禮의 執行을 武厚公이 執行하고 服喪中에 있던 中 그 해 11월에 安邊府使 趙思義가 李太祖를 업고 康氏의 所生 芳蕃, 芳碩(1次王子亂)의 怨恨을 갚는다는 名分의 起兵을 하여 安邊에서 開京을 向하여 鐵嶺을 넘어 關西쪽 길을 擇하여 南進하였다.

이 때에 北靑에서 이 消息을 들은 武厚公은 即時 喪服을 벗고 甲冑로 갈아입고 아우 判尹公 및 禮判公을 데리고 急히 上京하던 中 鐵嶺에서 趙思義의 警備兵의 檢問과 阻止를 받자 武厚公 三兄弟와 家兵이 奮戰하여 警備線을 突破하고 太宗大王 앞에 나가 절하니 太宗은 甚히 기뻐하며 自己 옷을 벗어서 입히고 잔痛을 어루만지며 “하늘이 나를 도와 名將의 後裔며 勇猛이 過人한 和英을 내게 보내시도다” 하였다.

武厚公은 이같은 太宗大王의 寵愛를 받으며 勇戰奮闘하여 趙思義를 安州·德川에서 破하고 趙思義는 敗戰을 거듭하여 도로 安邊으로 갔다가 그의 아들 洪과 같이 官軍에게 拿捕되어 誅殺되었다.

이번 功으로 太宗의 寵愛는 더욱 敦篤하여 太宗 初年에 武人의 家兵制度를 革罷하고 모든 家兵을 全部 官軍에 編入할 때 오직 青海伯家에 限하여 家兵을 그대로 存置할 것을 許可하였다.

武厚公은 趙思義 亂의 平定한 功을 2等功臣의 禮遇를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 青海伯은 母親의 居喪中에 胡拔都 侵入이 있어 高麗軍이 屢次 敗하자 李太祖의 懇請으로 喪服을 벗고 戎服을 입고 出征하였고 武厚公은 父親의 居喪中 趙思義 亂의 消息을 듣고 自進하여 喪服을 벗고 出征한 것은 恰似한 것같으나 實 對照的이나

武厚公은 太宗大王의 信任과 寵愛를 받아 太宗이 狩獵이나 行幸할 때에는 武厚公으로 守都大將을 삼아 서울을 지키게하였다. 그리고 太祖大王이 青海伯에게 下賜한 貞洞의 惠安宅을 아마도 武厚公이 引繼받아 居住하고 青海伯의 宗孫은 北青에 居住한 것으로 推測된다.

武厚公은 武人으로서 朝鮮朝開國後 1, 2次 王子亂과 趙思義 亂後에 別로 큰 兵亂이 없어 戰功에 對한 記錄은 特別한 것은 없으나 아버지의 遺業인 女眞人 教化 團合으로 明나라 誘致에 끌려가지 않고 朝鮮人으로 永住하도록 教化하여 咸鏡道 一帶의 女眞人과 그의 酋長들을 包攝하여 明나라로 하여금 鐵嶺衛 設置政策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고 咸鏡道 千里 國土를 永久히 朝鮮에 歸屬되도록 한 不朽한 功績이 있었다.

이 때에 明나라에서는 咸鏡道가 元나라 때 鐵嶺衛 管轄의 女眞 땅이었으므로 元나라를 征服한 明나라는 “元나라의 領土는 全部 明나라에 歸屬한다”하고 咸鏡道에 鐵嶺衛를 設置하고 女眞人을

誘致歸化시켜 咸鏡道를 明나라 領土로 歸屬시키고져 가진 勞力과 誘惑을 다 하였으나 咸鏡道에 居住하는 女眞人들은 青海伯의 威壓에 感服하여 青海伯이 高麗에 女眞을 併合한 以後부터 高麗사람이, 되고 朝鮮朝建國후에는 朝鮮의 百姓이 되어 明나라 誘致에 不應하다가 青海伯의 下世後에 武厚公이 그 遺業을 繼承받아 잘 지켜와서 오늘 날까지 咸鏡道가 우리 나라 國土로 存續한 것이다.

萬若에 武厚公이 明나라의 誘惑되어 明나라로 가서 女眞人을 明나라로 誘致하였다면 그의 待遇가 朝鮮에서 待遇하는 것보다 몇배 더 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武厚公은 아버지의 遺業을 繼承하여 變心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事業을 完成하였으니 이는 孝道를 다한 것이며 또 忠義를 지킨 忠孝兼全한 偉人이다.

武厚公은 太宗大王에게만 優待를 받은 것이 아니라 太宗의 아드님 世宗大王에게도 太宗에 못지않게 禮遇를 받았다. 그 例로 武厚公이 世宗5年(1423)에 棄世하신 후 世宗大王은 三日間輟朝하고 致祭文과 葬禮費를 下賜하고 謚號를 武厚라고 지어 내리었다. 武厚는 글자 그대로 武勇이 天下 第一이라는 뜻으로 그의 武勇을 平時 譽讚하여 온 證據이다. 武厚公의 重要的 벼슬의 略歷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祖7年(1398) 保功大將軍(上將軍)

太宗元年(1401) 禮曹典書

太宗2年(1402) 左軍同知總制

太宗6年(1406) 右軍都總制

太宗9年(1409) 知議政府事——平壤道僉節制使

太宗10年(1410) 右軍都總制

太宗16年(1416) 議政府叅贊

太宗17年(1417) 判左軍都總制府使



世宗元年(1418) 左禁衛一番總制使

世宗5年(1423) 輔國崇祿大夫(正一品) 判都總制府事, 義興三軍府事, 兼 判刑曹事

夫人은 青海李氏 世譜에는 貞淑夫人 銅城董氏(典書董安老의 따님)한분만 記錄되어 있는데 徐炳國 發表 白山學報 李之蘭 研究에 依하면 夫人이 3人인데 첫째夫人은 所生이 없고 姓氏不明 둘째夫人 高氏 所生은 長子 孝貞, 셋째 夫人 董氏 所生은 孝良, 孝溫, 孝儉, 孝讓, 孝綱, 女婿 李義生(恭靖大王定宗의 三子) 女婿 李禮(益安大君 芳毅의 孫; 女婿는 世譜 引用), 墓는 東小門外 美化里 現 서울특별시 道峰區 彌阿里에 있다가 서울시都市計劃에 依하여 京畿道 華城郡 烏山邑 佳水里에 遷墓하였다가 다시 京畿道 楊州郡 眞乾面 龍井里(下獨井)으로 遷墓하여 現在에 至함.



京畿道楊州郡眞乾面龍井里(下獨井)에 있는 武厚公 和英의 墓所

## 3. 判尹公 和美

判尹公 和美는 青海伯의 三子로 出生에 對한 年月日 및 場所는 記錄이 不明하고 또 傳說도 없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氣骨이 壯大하고 勇力이 過人하여 아버지 青海伯과 같이 非凡한 武人으로서 朝鮮朝에 屢次하여 判漢城府事를 지내고 太宗 14年(1414)에 卒하니 比較的 짧은 生涯로 일찍 世上을 떠났다.

太宗 2年(1402) 四月에 아버지 青海伯의 喪을 當하여 仲兄 武厚公과 아우 和秀와 같이 北靑 殯所에서 居喪中 趙恩義의 亂을 當하여 急遽上京 途中 鐵嶺에서 叛軍의 沮止를 받자 仲兄 武厚公과 같이 奮鬪하여 防禦線을 突破하고 太宗앞에 나가니 太宗이 大端히 기뻐하며 極口 稱讚하였다. 아마도 趙恩義 叛亂 平定에 功을 세웠을 것으로 推理된다.

太宗10年(1410)에 上護軍으로 있을 때 建州衛 事情을 두루살피기 위하여 檢校漢城尹 催也吾內(女眞酋長)를 데리고 建州衛 酋長 童猛哥帖木兒(동맹가티무르)를 찾아가 朝鮮國王이 보내는 禮物로 苧麻 各 10疋 淸酒 20瓶을 傳해 주고 建州衛 事情을 偵探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太宗14年(1414)에 壯年 나이에 世上을 떠나니 太宗大王은 自己 親同氣를 잃은것처럼 슬퍼하고 米豆 30石, 白紙 100卷, 棺槨을 내려 葬禮를 치르게 하였다.

記錄에 明記된 바 없이 자세히 알으나 第1.2次 王子亂에 青海伯이 加擔한 것처럼 되어 定社, 佐命功臣 稱號를 追加爵하였는데 青海伯의 處世觀으로 보아 骨肉相爭하는 그 慘變에 直接加擔 할 理 萬無하고 必然코 그 亂에 判尹公은 仲兄 武厚公과 家兵을 引率하고 이에 加擔한 것으로 推測된다.

高麗末 李朝初의 軍制는 武人政治의 遺風으로 武人家에는 家兵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그 麾下에 將帥들이 隸屬되었던 關係로 朝鮮朝初期 功臣錄을 보면 武人에 對하여는 某外 ○○人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考察하면 第1, 2次 王子亂 때 青海伯이 直接 陣頭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아드님들이 參加한 것이라든가 그 當時 軍制上으로는 그 家長의 名義로 功이 記錄되었을 것으로 推測하여 差異없을 것이다.

太宗大王과 判尹公은 위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王子 1, 2次亂과 趙思義亂의 平定에 直接 間接의 功이 있고 또 先代부터 格別한 親交로 마치 兄弟같은 友愛로 太宗大王이 特히 判尹公의 武才를 사랑하였고 또 그 忠直한 性品을 信用하여 建州衛 事情 偵探을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한참 나이에 世上을 떠나 미처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判漢城府事로 마쳤으니 哀惜하도다.

青海李氏世譜에 따르면 夫人 梁氏 아드님은 獨子로 敦으로 敦寧都正을 지나고 墓所는 黃海道 瑞興郡 月隱洞 卯坐이며 그 後孫들의 墓所가 瑞興으로 記錄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後孫들이 黃海道地方에 散在하여 있고 鳳山 西湖坊影堂도 그 後孫이 建立 祭享하고 있다.

#### 4. 禮判公 和秀

禮判公 和秀는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의 第四子로서 그 出生과 死亡年代가 記錄에 없어 仔細히 알 수 없다.

朝鮮王朝實錄에 보면 青海伯이 北靑에서 下世하였을 때 仲兄 武厚公 和英 季兄 和美와 같이 北靑으로 가서 葬禮에 參席하고 趙思義亂에 兄들과 같이 鐵嶺을 넘어 오다가 叛亂軍의 沮止線을 뚫고 太宗大王 親征軍에 加擔하였던 記錄이 있을 뿐 별다른 記錄은 없고

青海李氏世譜에 依하면 最終 비순이 禮曹參判으로 記錄되어 있다.

世譜의 記錄을 土臺로 살펴보면 禮判公은 아마 武人이 아니고 文官으로 있었던 것같이 推測된다. 太宗元年에 仲兄 武厚公이 禮曹典書가 되었을 때 司諫院에서 “禮曹는 禮樂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任務를 다할 수 없는데 和英은 武人으로 禮樂을 알지 못하니 適任이 아니라”하고 是正을 要求한 例로 미루어 그보다 더 上格인 禮曹參判은 實際責任者로서 相當한 學識과 禮樂에 能通하지 아니하면 外國과의 關係 및 儒敎의 複雜纖細한 禮儀 節次등을 履行하지 못하면 國家의 體面에 큰 損傷을 가져오는 자리이므로 事實上 文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職位이다. 以上 事實로 미루어 文人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文武兼全한 분으로 推測된다.

夫人은 洪州李氏(領議政 安平府院君 文簡公舒의 따님) 아드님은 獨子로 孝恭 丹陽郡守를 지냈다. 墓所는 楊州 海東으로 記錄되었으나 그 後孫은 六代 以後는 世譜에 洩落되어 자세히 알질이 없다

## 5. 忠臣 通訓大夫 彰烈公 希唐

몽의 이름은 희당(希唐)이고 朝鮮朝開國 元勳 襄烈公 青海伯의 七世孫이며 樞密公의 六世孫이다.

몽은 1559년 가정(嘉靖) 38년 명종 10년에 북청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노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게 점점 자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조상의 후손인데 어찌 무예를 배울 수 있는가 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힘써 무예를 배우려고 하나 집이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이면 활쏘기와 칼쓰는 법을 배우기 10여년에 그 무예가 大成하여 경인년 25세에 武科에 及第, 東府主簿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정은 당파싸움으로 國政의 혼란을 단식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북청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때때로 활쏘고 사냥으로 낙을 삼고 유유자작하며 지내는 데에 마을 동쪽 고개에 큰 벌이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무수히 해치나 마을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감히 벌을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공포에 떨고만 있었다.

몽은 불연히 일어나 활을 메고 화살을 차고 고개마루로 달려간 즉 호랑이가 큰 바위에 웅크리고 몽을 노려보며 큰 입을 벌이고 어흥하고 소리를 치며 당장에 달려들 자세를 취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살골짜기가 요란스럽게 진동하는데도 몽은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활에 활을 메거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하고 쏘니 화살이 뿜하고 날아가 호랑이의 이마에 박히자 호랑이는 또 한번 천둥같은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 무서운 호랑이를 잡아 마음놓고 살 수 있게 되자 서로 기뻐하였다.

壬辰년 다시 朱乙溫萬戶가 되었다. 그 해 6월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壬辰倭亂이 일어나 왜병이 승승장구하여 부산 동래에서 서울을 거쳐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침입하여 읍으로써 당시 宣祖大王과 정부는 의주로 派遷하고 백성은 이리저리 피난생활로 그 참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장 중 가장 용맹이 뛰어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이 승세를 몰아 함경도에 침입, 이에 대항하여 싸우던 兵馬使 韓克誠이 크게 패하여 도망가 버리자 왜병은 크게 승세하여 吉州, 明川, 鏡城, 富寧 지방까지 이르렀다. 경성의 아전 鞠世必과 최령의 관노 鞠景仁이 같이 외적에 아부하여 두 왕자와 수삼 명의 大臣이 외적에 잡혀가게 되었다.

왜장 가토기요마사는 8월에 큰 군사를 이끌고 吉州에 진주하자

모든 고을이 전부 왜적에게 함락되어 인심이 몹시 흉흉하였다. 그러나 오직 公만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고 있어 비분 강계한 심회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때마침 北評事 鄭文學가 난병에 쫓겨 해변가에 은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은 곧 뜻을 같이하는 李鵬壽 등 4인과 같이 가서 정공을 만나 의논하여 義兵을 모아 왜적을 치기로 하고 정공을 大將으로 추대하였다. 피를 마시며 같이 충성과 의리를 위하여 같이 살고 죽기로 맹세하며 원군에 산재한 패잔병과 의병을 모집하여 9월에 정공은 경성에 들어가 지키게 되었다.

길주에 있던 왜병이 성아래 이르러 포위가 심히 급한지라 공과 美錢僉使 金範이 같이 성위에 올라 아래로 활을 쏘아 적병을 무수히 살상하자 적병은 드디어 도망가는지라 공과 姜文佑, 具滉 등 15인이 도망가는 왜병을 30여리나 추격하여 싸우기 10여차례에 왜병이 살에 맞아 죽는 자 수없이 많아 길은 피로 물들고 시체는 들에 가득하여 말과 옷과 갑옷 기타 전리품을 많이 노획하였다.

공은 10월에 潼關鎭僉使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 해에 鐵川에서 세번 싸워 세번 이기고 길주로 돌아와 군대를 쉬게하고 있었다.

왜장 가도기요마사는 왜병이 여러차례 패전한 것을 알고 때부대를 보내 길주성을 공격하는 지라 공과 정문부는 군사를 이끌고 白塔坪南溶林아래서 일대격전을 하게 되었다.

공은 선봉이 되어 힘을 다하여 적진중을 무인지경 같이 횡행하며 적을 사살하자 휘하장병이 모두 용기 백승하여 無非一當百이라 외적의 대부대가 점점 붕괴하여 패주하기 시작하는 데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하였다.

## 忠臣彭烈公·荷湖墓之山圖



青海伯의 七世孫 彭烈公 希唐의 墓所 山形圖

〈青海李氏世譜에서 轉載〉

몽은 싸움을 그치고 회군하려든 중 적의 流彈에 맞아 전사하였다. 당시 몽의 나이 三十五세였으며 그 날이 1593년 정월 28일이다. 이 싸움에서 李鵬壽도 전사하였다.

이 싸움에서 비록 공과 이봉수가 전사하였으나 왜병은 그후 다시는 북쪽으로 더 침입하지 못하였다.

의주행궁에 있던 宣祖大王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차탄하다가 몽에게 訓練院正을 追贈하고 謚號를 彰烈이라 하였다.

몽이 전사하기 전에 조정에서는 몽이 여러차례 왜병을 격파한 전공을 가상히 여겨 慶源府使에 임명하였으나 미처 부임하기전에 전사한 것이다.

그 후일 임진왜란이 평정된 후에 조정에서는 공과 정물부·이봉수 등의 忠烈을 길이 표창하기 위하여 북청에 彰烈祠를 짓고 旌門을 세워 충렬의 영혼을 추모하였다.

## 6. 忠壯公 重老

忠壯公 重老는 青海伯의 第2子 武厚公의 第6子孝綱의 6世孫으로 靑陵君 麟奇의 第三子로 宣祖10年(1577) 2月 16日에 出生하였다.

忠壯公은 幼年時節부터 氣骨이 壯大하고 勇力이 過人하여 나이 16歲에 武科에 及第하여 다음 해에 宣傳官이 되었고 光海君13年(1621)에 伊川府使가 되었다. 그 當時 나이 45歲로써 仁祖反正의 核心 人物인 金瑬, 李貴, 李适등과 意氣相合하여 仁祖反正에 參與하여 二等靖社功臣이 되었다.

宣祖大王의 第2子인 光海君이 임금이 되어 처음에는 善政을 하다가 北人의 黨爭으로 차츰 荒淫無道한 政治로 變하여 仁穆大妃를



西宮에 幽閉하여 가두며 永昌大君을 江華에서 殺害하고 綾昌君도 誣告殺害하는 등 갖가지 惡政으로 民生은 塗炭에 빠져 허덕이는데 當時의 勢道家 大臣들은 高臺廣室과 膏粱珍味の 奢侈가 極甚하여 百姓은 餓가 뜨면 저 餓가 언제 지느냐하고 怨聲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갔다.

이 때에 光海君을 내몰고 綾陽君을 擁立하여 새 임금이 된 분이 仁祖大王이다. 이 일을 仁祖反正이라하며 이에

加擢한 功臣을 靖社功臣이라 하고 그 論功行賞에 있어 忠壯公은 二等功臣에 青興君을 封하였다.

仁祖反正 後에 光海君과 그 아들을 江華島에 園籬安置하고 別將을 두어 監視하던 중 光海君의 아들은 남문래 70餘尺의 땅굴을 파고 밤중에 逃亡하려다가 羅卒들에게 拿捕되었다. 이 때에 江華府使로 있던 忠壯公은 監督을 잘 못한 責任으로 一時 禁府에 呼出되어 問責당하다 釋放되어 捕盜大將으로 있다가 李适의 亂을 만났다.

李适은 仁祖反正때 北兵使로 있었고 反征軍의 總指揮大將이 되어 反征에 成功하였으나 金瑬와 李貴에 依하여 一等 功臣이 되지 못하고 靖社 二等功臣이 되어 이에 不滿을 품고 江界府使로 가 있는 것을 奇貨로 하여 江界 一帶의 軍兵을 잘 訓練하여 莫強한 精兵을 만든 후 一擧에 서울로 쳐들어와 三日天下를 한 猛將이다



忠壯公 影幀

仁祖2年(1624) 正月에 江界府使 李适이 反亂을 일으켜 精兵을 引率하고 無人之境처럼 南進하여 오므로 仁祖는 忠壯公에게 京畿江原兩道左防禦使를 삼아 李适을 치게하였다. 이 때에 忠壯公은 右防禦使 李聖符와 함께 黃海道 平山 禮成江에서 李适의 軍을 만나 激戰하였다.

이 때가 마침 正月이라 禮成江은 結氷되어 陸地나 다름이 없어 北方에서 猛訓練된 李适의 精銳部隊를 當할 길 없어 禮成江 上流 猪灘에서 叛亂軍의 奇襲을 받아 戰死하니 그 때의 나이 48歲로써 仁祖2年(1624) 2月6日이었다.

李适의 亂이 平定된 후에 仁祖大王은 忠壯公에게 兵曹判書를 追贈하고 그後 60年 후인 肅宗大王 10年(1684)에 左議政 青興府院君에 追叙, 謚號를 忠壯이라 내리고 黃海道 金川에 愍忠祠를 創建하고 猪灘外畝에 戰亡한 忠壯公, 李聖符, 朴榮臣을 永久히 祭享하고 있다.

李适의 亂에 忠壯公이 禮成江 猪灘에서 戰亡하신 후 그 遺骸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이 때에 奇襲에 依하여 慘殺된 屍體가 山積하여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 困難하던 중 夫人 鄭氏가 常時 男便의 넘겨다리에 큰 점이 있는 것을 보아 왔기에 男便의 遺骸를 찾기 위하여 猪灘에 가서 그 많은 屍體를 一一히 檢屍하여 自己 男便의 遺骸를 찾아 내었다. 그 事實에 對한 일이 正宗大王께 알려져 正宗8年(1784)에 夫人에게 烈女 旌門이 내려졌다.

夫人은 貞敬夫人 東萊鄭氏(右議政 彦信의 따님)이고 아드님은 네 분으로 長子 文雄(榮州郡守), 次子 文偉(武科 兵馬節度使), 三子 文會(忠肅都事), 四子 文俊(掌樂僉正)이며 墓는 京畿道抱川郡蒼水面楸洞里에 있고 墓下에 影堂을 建立하여 青海伯의 影顧과 忠壯公의 影顧을 같이 모시고 祭享을 지내고 있다.

忠壯公의 夫人 鄭氏는 男便이 戰死한 後 十年間을 喪服을 벗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怨讎를 갚지 아니하면 子息된 道理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며 常時 아들에게 “아버지의 怨讎 李守伯을 잡아 죽여라”하고 激勵하다가 10年 後에 아들 文雄과 文偉가 朴榮臣의 세 아들 之屏, 之摠, 之藩과 合勢하여 李守伯을 路上에서 格鬪끝에 殺害하니 夫人은 그 消息을 듣고 男便의 祠堂에 怨讎갚았음을 告하고 喪服을 벗었다.

李守伯은 忠壯公이 猪灘에서 戰亡하였을 때 官軍의 戰死者를 檢閱하여 忠壯公등 여러 將帥의 목을 베어 李适에게 보내니 官軍의 士氣는 沮喪되고 反亂軍의 士氣는 衝天하여 一瀉千里로 서울까지 占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李适이 서울 占領한지 三日만에 敗殘兵을 收拾하며 追擊하여 온 官軍 都元帥 張晩과 副元帥 鄭忠臣에게 鞍峴에서 크게 敗하여 利川으로 逃亡한 것을 李适의 部下 奇益獻·李守伯이 墨坊里에서 李适의 목을 베어바침으로써 反亂의 罪를 免赦받고 있었던 省이다.

어머니 敎訓에 따라 아버지의 怨讎 李守伯을 忠壯公의 長子 文雄과 次子 文偉가 朴榮臣의 세 아들과 合勢하여 李守伯을 죽인후 大闕로 가서 仁祖大王에게 上疏하여 아비의 怨讎인 李守伯을 殺害함을 告하고 處罰하여 주기를 請하였다. 朝廷에서 議論이 紛紛하였다.

領議政 尹昉은 “子息이 아버지의 怨讎를 갚은 것은 孝道를 다함이니 特히 다른 殺人罪와 같이 取扱하여서는 아니 된다”하고 또 한편에서는 “李守伯은 나라에서 一旦 罪를 特赦한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私怨과같이 重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仁祖大王은 忠壯公이 나라를 爲하여 殉節하였음을 哀惜하게 生覺하여 그 아들에게 重罪를 免하고 長子 文雄은 全州 次子 文偉는 益山으로

流配하여 그 後孫이 오늘날 全南北에 散在하여 살게 되었다.

忠壯公의 아버지 李麟奇(1549~1631)는 學者로서 號를 松溪라 하며 青海伯의 七世孫이다. 宣祖22年(1589)에 司馬試에 合格하여 圖書署別提를 거쳐 慶安道察訪, 內資寺主簿, 刑曹佐郎 1605년에 報恩縣監이 되고 다시 內職으로 刑曹正郎 다시 外職으로 盈德縣監을 지낸 뒤 仁祖反正 후 加平郡守가 되었다가 李适의 亂에 아드님 忠壯公이 戰亡하자 벼슬을 버리고 餘生을 著書와 訓育으로 보냈다.

忠壯公의 忠節을 仁祖大王이 특히 사랑하여 松溪公에게 嘉善大夫를 除授하고 그 후에 다시 左贊成 靑陵君으로 追封되었다. 松溪公은 當代 學者들의 推仰을 받은 學者로서 詩文은 勿論 書畫에도 能通하고 특히 草書는 當代 名筆로 指稱을 받았다. 아들 忠壯公을 늘 哀惜하게 生覺하여 손수 畫像을 그려 壁에 걸어 두었던 것이 現存하고 있다. 그리고 著書로는 松溪集이 있다.

## 7. 封 君 錄

### ㄱ. 青海府院君 雅遠 青海伯의 父親

元나라에서 征西大將軍

朝鮮朝에서 贈 補祚功臣 領議政 青海府院君

註……옛적에 큰 功臣이나 領議政級의 官爵을 받게 되면 그 父親을 推尊하여 相當한 職位를 追贈함.

故로 青海伯의 功이 크므로 그 父親에게 府院君과 領議政을 追贈한 것임.

### ㄴ. 青海伯 之蘭 襄烈公

朝鮮朝에서 青海君

明朝에서 青海伯



ㄷ. 青海君 和尙 樞密公

青海伯의 長子 襲爵 封君 早卒

ㄹ. 青海君 孝元

青海伯의 長孫 襲爵 封君 早卒

ㅁ. 青海君 孝亨

青海伯의 孫 孝元의 弟 襲爵 封君 早卒

ㅂ. 青海君 和英 武厚公

青海伯의 次子(原從功臣)

ㅅ. 青海君 孝貞

武厚公의 長子 (青海伯의 孫)

ㅇ. 靑陵君 麟奇 (追贈)

青海伯의 七世孫 武厚公의 第六子 孝綱의 高孫

ㅈ. 靑興君 重老(靖社功臣)

青海伯의 八世孫 武厚公의 第六子 孝綱의 高孫麟奇의 三子

ㅊ. 靑陽君 嗣宗(追贈)

青海伯의 十世孫 武厚公의 第五子 孝讓의 八世孫

ㅋ. 靑海君 後彰(追贈)

青海伯의 十一世孫 武厚公의 第五子孝讓의 八世孫 嗣宗의  
長子

ㅌ. 靑原君 時遇

青海伯의 十二世孫 武厚公의 第五子 孝讓의 八世孫 嗣宗의  
孫

註 1. 樞密公은 世譜에는 없고 家乘에 記錄 되어 있어 記錄  
하고 樞密公의 長子, 孝元 次子孝亨은 世譜에 封君 無  
后로 記錄되어 있어 靑海君으로 記錄하였음.

2. 武厚公은 世譜 및 家乘에 記錄된 바 없으나 原從功臣

이며 또 그의 長子 孝貞이 世譜에 封君 無后로 記錄되어 있어 三代 封君例에 依하여 青海君으로 記錄하였음

3. ㄴ, 青陽君(追贈) ㄷ, 青海君(追贈) ㄹ, 青原君은 英祖大王 22年(1746) 9월에 元孫 誕生後 經筵에서 諸臣에게 “青海伯의 畫像이 있느냐” 하고 下問하시니 大提學元景夏가 “있읍니다”하고 答하였다.

英祖大王은 “보았느냐”. 元景夏 “臣이 보았읍니다” 또 右議政이 말하기를 “青海伯의 畫像은 生氣가 勃勃합니다”하고 上奏하였다.

英祖大王은 “青海伯과 益安大君의 畫像을 가져오라” 한後 九日만에 北靑 影堂에 保存되어 있던 影幀 세 벌 중에서 한 벌을 갖다 바치며 그 後孫으로 水原에 살고 있던 武厚公의 第五子 孝讓의 宗孫 12世孫 時遇를 薦舉하였다. 英祖大王 26年(1750) 9月 青海伯의 家乘을 細密히 調査하지 아니하고 다만 青海伯의 偉勳을 追慕하는 마음으로 12世孫 時遇와 그 父親 祖父까지 三代를 封君追尊한 것이다.

## 8. 功臣錄

- ㄱ. 贈 補祚功臣 領議政 青海府院君 諱 雅遠 鼻祖 青海伯 襄烈公 李之蘭의 父
- ㄴ. 朝鮮 開國一等功臣 威化島回軍一等功臣 定社二等功臣 佐命三等功臣

明朝 封 青海伯 大匡 輔國崇祿大夫

朝鮮朝 策 翰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同判都評議司事兼判刑曹事判義興三軍府都節制使

謚襄烈公 配享 太祖廟庭

諱 之蘭 字：式馨

ㄘ. 原從功臣 朝鮮朝 輔國崇祿大夫判工曹事青海君

明朝 禮部尚書兼樞密副使

諱 和尚 青海伯의 長子

ㄷ. 原從功臣 輔國崇祿大夫判都摠制府事義興三軍府事兼判刑曹

事 青海君 謚 武厚公

諱 和英 青海伯의 次子

ㄱ. 贈 純忠積德補祚功臣 左贊成 青陵君

諱 麟奇 青海伯의 七世孫 武厚公의 第六子 孝綱의 高孫 松溪公

ㄴ. 靖社功臣 贈 左議政 青興府院君

謚 忠壯公 李适 亂의 殉節

諱 重老 青海伯의 八世孫 武厚公의 六子 孝綱의 高孫 麟奇의 三子

ㄹ. 寧國功臣 慶源府使 贈 訓練院正

(壬辰倭亂 殉節 彰烈公 彰烈祠 配享) 諱 希唐 青海伯의 長子 樞密公의 三子孝暹의 五世孫

ㅇ. 甲亂原從功臣 宣略將軍

諱 聖男 青海伯의 十世孫 樞密公의 三子李暹의 八世孫(宣略公)

ㅈ. 壬亂原從功臣 司僕僉正

諱 豪禎 青海伯의 十世孫 樞密公의 四子孝莊의 八世孫

ㅊ. 壬亂原從功臣 司僕僉正

諱 豪傑 青海伯의 十世孫 樞密公의 四子 孝莊의 八世孫 豪禎의 弟

ㄟ、寧國功臣(壬辰倭亂 殉節) 朝奉大夫 童蒙教官(贈職)

諱 三立 希唐의 三子

ㄷ、靖社功臣 司僕寺僉正 贈 兵曹參判

諱 文柱 麟奇의 孫

ㄹ、寧國從勳 武訓練院正

諱 昌男 青海伯의 九世孫 武厚公 六子 孝綱의 七世孫



blank

## 附 錄

### 1. 宋時古今萬姓統譜岳氏世系

岳飛字鵬舉湯陰人有沮背忠字少負氣節好左氏春秋孫吳兵法誓以忠義振國初授河南北諸州招討使轉少保志圖恢復用兵能以寡敵衆屢破強敵未嘗一敗大業重成爲秦檜所害後追封鄂王諡武穆五子雲雷霖震霆雲左武大夫隨飛征數立奇功雷霆雲俱開門祇候霖敷文閣侍制震茶鹽提舉霖子珂知嘉興府雲武穆長子年十二從征數立奇功飛輒隱之能以手握兩鐵椎重八十斤顯昌大戰數十入敵陣中甲裳爲赤以功授左大夫弟雷授文資卒年二十三孝宗贈安遠軍承宣使霖武穆三子孝宗朝帥慶州道出章貢父老率子弟來迎垂泣曰不圖今日復見公子也

震父飛討李成駐兵黃梅詔進屯洪州以士卒經擾攘之後他人莫可懷輯留震彈壓後被秦檜禍變姓名匿大河民間子孫遂家焉至今遺有故宋救命

霆飛五子雲雷與難霖臨陣亡震霆潛住黃梅故鄉賢舊祀有曰忠臣岳震然飛死於高宗紹興十一年至二十五年乙亥上距辛酉十五載矣檜宿恨猶存惡岳州與飛同姓改爲純州子孫亦不敢以岳爲氏孝宗登極鄂錄與恩者祇原後嶺南雲雷支裔而此派不及至追贈忠武岳王震霆子孫在梅地者悉從鄂姓入金析爲鄂家云元爲長水烏梅村子雨從俗爲母姓地爲女眞所據云

岳飛의 字는 鵬舉니 湯陰사람이다. 등에 忠字가 그려져 있고 절어서부터 꺾지 못할 氣節이 있어서 左氏春秋와 孫吳兵書를 좋아해서 읽고 忠義로 立身할 것을 다짐했다. 南宋에서 처음 南北 여러고을 招討使로 任命되었다가 다시 少保로 轉職되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꾀했다. 戰術이 恒常 적은 군사로 많은 적

을 이거서 여러번 强敵과 싸워 한번도 敗한 일이 없었고 南宋을 세우고나서 秦檜의 迫害로 목숨을 잃은 뒤에 역을합이 판명되어 鄂王으로 追封하고 武穆으로 謚號를 받았다.

아들이 雲, 雷, 霖, 震, 霆 五兄弟로 雲은 左武大夫로 十二歲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戰爭에 많은 功을 세웠으나 아버지가 항상 그 功을 숨겨서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힘이 세어서 八十斤 鐵椎를 한 손에 하나씩 兩 손에 들고 휘두르며 顯昌大戰에 單身으로 敵陣속으로 몇차례나 뛰어들어서 甲옷 치마가 피로 물들었었다.

다음 雷는 文官으로 23歲에 죽어서 孝宗이 安遠軍承宣使를 贈職하였다.

세째 霖은 孝宗朝에 慶州道郞가 되어서 地方을 巡察할 때에 老人들이 子弟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서 울면서 “오늘에 다시 公子를 만날 줄 몰랐다” 하였으니 이것은 岳飛의 功德를 生覺하는 때 문이었다.

네째 震은 아버지 飛가 李成을 討伐하기 위해서 黃梅에 駐屯하고 있을 때에 御命으로 洪州로 進軍하라 할 때 이 地方이 多年間 戰爭에 시달려서 民心을 收拾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震을 시켜 自己를 代身하여 그곳을 진압시켰다.

그 뒤에 秦檜의 謀害를 避하기 위하여 變姓名을 하고 大河 民間에 숨어 살어 子孫이 永久히 그곳 사람이 되었다.

霆은 飛의 다섯째 아들이다. 雲과 雷는 모두 亂에 參與하였고 霖은 戰爭에서 죽고 震과 霆은 黃梅村에서 숨어서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이 忠臣 岳震을 오래 祭祀지었다. 그러나 岳飛는 高宗 紹興11年辛酉에 죽고 그로부터 十五年을 지나서 紹興25年 乙亥에 秦檜가 그때까지 岳飛에 對한 怨恨을 풀지않고 憎惡한 나머지 岳州의 岳字가 岳飛의 姓字와 같다는 理由로 岳州를 純州로

고쳐서 부르게 됨으로 그 子孫이 敢히 岳氏로 행세하지 못하였다.

孝宗이 皇帝가 된 뒤에 鄭錄에 恩惠을 입은者는 嶺南으로 옮겨 간 雲雷의 子孫이고 이 派는 忠武岳王進贈에 아무 惠澤도 입지 못하였다. 黃梅村에서 살던 雲과 霆의 子孫은 모두 鄭氏로 행세하고 金나라에 들어가 鄭家가 되었다고 한다. 黃梅村은 元나라때에 長水烏梅村이 되었고 霆의 아들 雨가 그 곳 風俗을 좇아 어머니姓을 따르게 된것이며 烏梅村은 그때부터 女眞땅이 되었다고 한다.

## 2. 行列略叙

本府姓氏李趙人物本朝李之蘭初名豆蘭

吾李之散在各處者名行不一非但昭穆之不明甚者至於犯嫌心有所慨歎者久矣 今因修譜以五行字定行至於求而止自求而下別以甲乙字預定十世之名行附于下凡我同宗世世謹守勿貳其名深所望也

北靑府의 人物誌에 李氏와 趙氏의 두 집을 들어서 말하였는데 李之蘭의 初名은 豆蘭이라 하였다.

李氏가 各處에 흩어져 살아서 行列이 統一이 안되어 行列이 分明치 않고 또 祖上의 諱字인 줄 모르고 그대로 犯한 것이 있어서

靑海李氏行列字(靑海李氏世譜轉載)

代 · 世	16	17	18	19	20	21	22	23
行 列 字	承 從上	乖 從下	性 從下	在 從上	錦 從下	求 從上	遇 從下	氣 從上
參 考				喜	錦	泰濟永	萬材植 來	容
代 · 世	24	25	26	27	28	29	30	31
行 列 字	昌 從下	寧 從上	茂 從下	選 從上	庚 從下	璧 從上	廷 從下	換 從上
參 考	均	休						



慨歎을 禁하지 못하던 中 族譜를 契機로 行列字를 마련해서 여러 子孫으로 하여금 遵守하게 하였으니 21世 求字까지는 五行(水木火土金)으로 定하고 求字 다음 22世부터는 天干(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31世까지 定하고 宗人들은 代代로 이를 잘 지켜서 이름을 두 가지로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青海李氏世譜에서)

### 3. 青海伯襄烈公墓所改封築事記

公之墓所在於府之東二十里許良家社別厓臺枕甲之原而卽公下世之時自朝家 命葬所也其制則頗異常禮別成一規似用浮屠法而參以陵墓之制抑或麗季禮壞習尙國初未盡制而然歟數十年前秋史金公正喜咏薊茲州奉審墓所深責誤稱浮屠之人而爲言曰此非火葬也乃前朝一代只用之國制云云金公則博識曠世寧可說道無稽之言乎第其封塋之制則鑿石爲四層臺而第一層則安一盤于地面而如布席子樣第二層鑿石爲圓而有稜其周一圍有餘其高一尺有半而兩頭潤中腰狹如箕形第三層鑿石削十二稜樣如博子而其周其高差小於下層第四層則鑿石爲冠制如屋甍而通其高爲七尺許此乃公之幽宮也臺之四圍置獸石其北築曲墻臺之南置床石床之南置長明燈其前置香爐盒石此其幽宮之儀物也又於左右排列五石兩制如石闕而蓋如屋簷高各二尺許廣各一尺有半許其中一闕稍大於四而在於中南西闕刻以龍頭雲影傳道藏公易簣日沐浴之水而屆今不渴者也餘四闕東二西二而其在東者一在於曲墻內巽己方四步許一在於墻外午丁方九步許其在西者一在於墻下辛戌方七步許一在於乾亥方十步許此其塋域內儀物而謹守於五百年者而其所火葬禮葬之辨參徵無據信疑無質矣歲庚午秋以時制改封築之意門議大發而衆論不齊恬常守古者憚其生事怯懦拙汗者畏其毀政豪傑枉邁者勇於有爲於是乎橫說豎說雷動於其間

或云此乃國朝特 命之制而承傳謹守者五百年于茲矣葬雖私改也說者曰 命葬之制葬雖私改者言則然矣又有所不然者。命葬之制非先王不易之常制也乃一代瓶新之謬禮也經曰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又曰死葬之以禮今以遵先王之禮而改封我先祖之墓者一以補先朝一代差舛之禮一以追先祖萬歲非禮之葬者有何不可乎且使我子孫世世守護一如今日小無甚事萬世之後脫有一朝之事變兵燹一過則此石未知轉於誰手乎且觀前朝與國朝右族大臣之墓則奉違禮封築而判獨異制者顧吾始祖之墓而已也從家從禮爲國爲先豈不合宜乎甲之者又云墓所儀物雖云非禮而乃 朝家之必有所有爲也吾人之亦有所受而世世尊奉者也世世尊奉遠古之儀物一朝居然無蹤毀撤則必有無常之奇禍也爲乙者曰天地之間伸而屈屈而伸者乃造化之正理而變爲陽變爲陰一闢一闔而無常者卽理與氣也且吾始祖所稟性命之理氣者乃亦天地之正理也今雖既屈而往必返於本也今吾人所營事革非禮從正理則若有感通者存焉寧有奇禍哉假使縱有禍往古及今從道理爲先事者雖刀鉅在前鼎鑊在後只見那道理不見那鉅鑊也今吾人所圖之事若非道理則已若果道理則禍福何足論也哉於是乎一二宗議幸同詢僉歲十月二十五日擇吉爲定而前一日齋明盛服先薦素享以違禮改封築事具文告由而期日暴風大作屋茅皆揚將事之時風勢輒止燭影不挑翌朝剖牲致告群鳥啁哳翱翔撲地及其讀祝家闇秘聲參事之人皆稱神異也乃其改封時先下上層石冠又下次層十二稜石則第二層圓石內方鑿中略安炭與骸骨而有一紙函墨質金字狀如古篆字樣難視而不能解既見骸骨則不可緩時故因蓋第上石冠而其舊蓋十二稜石下安於傍而合封疊加莎草矣旋後門議更作既見體骨則開壙而具棺槨築灰隔依禮封墳宜合情禮也云云越閏十月二十五日以穿壙改封事擇吉而及期開封又下第二層則

第一層盤石圓鑿其中廣闊餘卽公體魄公安之寔也滿櫛骸骨完有生氣焉暫時權安於傍淨掃其中則底有一孔圓爲拱餘而以片鐵藉其孔以中朝古錢布其下矣因除去片鐵以通地氣因舊貫奉安而蓋之以上層之冠改封塋域而其中間二層石下安於左右傍而合封誌石則模出碑字亦埋墓前其東西石閣舉蓋奉審則皆方鑿其中爲兩而四皆有炭其一洗身之水迄今不盡渴矣各以其所掘坎埋置盛水一函依舊獨存以表其舊儀焉嗚呼既封既葬舊網維新墓貌維完追遠有道依仰有據玄昧者擬若著見亡焉者悅若存焉噫今距公之厭世千將過半也其間雲仍豪傑之作者何恨而無朕改封之議暨今始發者是運有開塞而然歟人異柔剛而然歟抑有所不然者大人之行藏隱見有關於氣數吾公晚歲所遇者丕而明哲之應變永韜賁躅畢生遘晦者迨將五百年而幸回泰運於冥冥之中也耶事之實蹟悉缺於後人之欲徵者故略記顛末以備來者之參考焉公之後孫李君冕秀俊彥氏屬不佞而記蹟不佞亦傍觀於其時故以不文辭不獲已猥自忘陋略叙其見聞云爾

崇禎紀元後五庚午閏十月下泮南平人文粹顧謹識

#### 青海伯陵墓改封修築事記

伯의 墓所가 北靑府에서 東으로 二十里쯤 되는 良家社 別雁臺 언덕에 甲坐庚向으로 앉아 있었으니 이 墓所는 즉 나라에서 定한 場所이다. 墓所의 制度는 普通墓所와 顯著하게 달라서 佛教式같이 보이고 또 陵墓制度를 參考한 것인지 혹은 그때가 開國初이므로 모든 禮節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高麗末期의 풍속을 좇았는 지도 모른다.

數十年前에 秋史 金公正喜가 이곳에 流配왔다가 伯의 墓所를 參拜하고 사람들이 佛教式墓所로 誤認함을 나무라면서 “이것이 火葬한 것이 아니고 高麗朝의 墓所制度가 이렇다”하였으니 秋史로

말하면 世上에서 드문 大學者이니 全然 根據가 없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

封墳을 지은 모습이 돌을 깎아서 四層으로 쌓아 올렸는데 第一層은 地面에 돌을 깔아서 마치 자리 편 모양으로 되어있고, 第二層은 돌을 둥글며 모가 있게 하고 둘레는 한아름이 넘고 높이는 한자반이 되고 兩쪽 머리는 넓고 허리가 좁아서 長鼓모양으로 되어 있고, 第三層은 돌을 열 두 모가 나게 깎아서 주사이 모양으로 만들어 졌는데 둘레나 높이가 아래층 보다 약간 작고, 第四層은 돌을 깎아서 갓을 씌웠는데 마치 지붕처럼 되어있다.

全體의 높이는 四層 모두가 七尺가량 되니 墓所가 흡사 臺로 보이니 事實은 이것이 青海伯의 墓所이다. 臺의 四方에는 돌로 만든 짐승이 서 있고 北쪽에는 曲牆을 둘러쌓고 南쪽에는 床石이 있고 床石 南쪽에는 長明燈이 있고 그 앞에는 香爐와 香盒石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墓所에 갖추는 石物이다.

또 左右에 돌로 만든 다섯개의 함이 있는데 그제도가 돌집 같이 지붕처마가 완전히 나오게 하고 높이는 各各 두자가량 폭은 한자반 程度이다. 그 中에 한 石函이 다른 네개보다 若干 크며 中央에 있고 南쪽과 西쪽머리에 龍의 머리와 구름을 새겼으니 전하는 말에는 이函에는 公의 屍體를 沐浴시킨 물을 담아두어서 至今까지 마르지 않고 있고 나머지 네개는 東쪽에 두개 西쪽에 두개로 東쪽에 있는 것은 하나는 丙寅方쪽으로 네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하나는 丁未方쪽으로 아홉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西쪽에 있는 것은 辛戌方쪽으로 일곱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또 하나는 乾亥方쪽으로 열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으니 이것들이 모두 墓所 境內에 있는 石物로 五百年 동안을 잘 守護해 왔다.



그리고 이 墓所가 火葬이나 禮葬이나 하는 말에 對하여는 確實한 證據가 없어서 判斷할 수 없었도다.

庚午年가을에 이 墓所를 現代式制度로 改築하자는 門中 公論이 크게 이러나 贊成하는 派와 反對하는 派의 意見이 서로 엇갈리었으니 反對하는 守古派側에서는 萬一 잘못 전들었다가 무슨 禍라도 있을는지 알 수 없다하여 甲論乙駁으로 橫說 豎說하였다.

或者의 말인즉 “이것은 나라에서 特命으로 이 制度를 써서 五百年 동안 내려오면서 守護해 오던 先山을一朝에 個人的 私見으로 고친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한즉 이를 抗辯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點도 있다. 나라의 特命으로 이루어진 制度를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옳다. 나라의 特命한 葬禮制度는 先王에서 내려온 制度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그 때에 創作한 變態禮制이다.

經書에서 말하기를 ‘先王의 禮대로 좇아서 限界를 넘어서는 법이 없다’ 하였고 또 葬事는 禮法대로 지내라 하였으니 지금 先王의 法대로 우리 先祖의 墓所를 改築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한때의 잘못된 禮를 是正하는 것이요, 한쪽으로는 우리 先祖의 葬事に 對한 失禮를 禮대로 고치는 것이니 무엇이 잘못인가. 또 하나는 우리 子孫이 代代로 잘 守護하여 오늘날까지 아무 말없이 지내왔지만 萬一 다음 世代에 國家에 兵亂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들이 굴러서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高麗와 朝鮮時代의 여러 大家집 大臣의 墓所들을 보니 모두 禮法대로 封墳을 지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惟獨 우리 始祖의 陵墓만이 判異하게 다른 것은 원일이냐. 大家를 쫓아가고 禮法대로 따라서 나라를 위하고 祖上을 위하는 것이 事理에 適合한 일이 아니겠느냐” 한즉 反對派에서는

“陵墓所의 石物이나 制度가 禮法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이것은 나라에서 꼭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해서 만들었을 것이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代代로 받들어 왔으니 代代로 지켜 내려온 儀物을 하루아침에 거침없이 깨뜨려 없앤다면 반드시 不則한 禍가 있을 것이다” 한쪽 贊成派에서는 또다시

“世上 이치가 굽으면 펴지고 펴면 굽는 것이 自然의 形態이므로 봄이 여름되고 여름이 가을되는 것과 우리 始祖가 태어나서 돌아가신 것도 天地間 自然의 形態이다 그러므로 墓所를 쓴 그 當時는 말하자면 펴졌던 것이요, 시방와서 보니 禮法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굽은 것이니 이 굽은 것을 펴기 위해서 制度를 革新해서 正理대로 쫓아가자는 것이니 萬若 祖上의 魂靈이 계신다면 칭찬을 할지언정 禍란 있을 수 없다.

설사 禍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正理를 위해서 祖上일을 하는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여도 눈에 보이는 것은 義理하나 뿐이요, 칼 따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경영하는 일이 道理에 어긋난다면 몰라도 道理에 適合한 일이라면 그까짓 禍福으로 論할 수 있나”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의 宗中公論을 거듭해서 結局 合議를 보아 그해의 10月 25日을 改築日로 決定하였다. 期日이 되어서 하루前에 沐浴齋戒하고 衣冠을 整齊한 후 간단한 祭需을 차리고 禮에 맞서 改封築하는 事由를 들어 告由祭를 지냈더니 그날 暴風이 크게 일어 지붕이 다 날아갈程度로 日氣가 險惡했었는데 일을 시작할 時間이 되자 바람이 잔잔하게 자서 촛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른 아침에 祭物을 다루어서 致祭할 때에는 모든 새들이 짹짹거리며 물물 날아서 땅에 함박 모이더니 祝文을 읽을 때에는 모

든 새나 벌레들 까지도 숙연해서 소리 한마디 들리지 아니하니 여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神奇한 일이라 하였다.

工事を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上層에 있는 돌로 만든 것부터 내리고 다음에 다음층에 있는 열두모로 된 돌을 내린 즉 第二層에 該當되는 둥근돌에 네모나게 구멍 안에 솟과 骸骨이 나타나고 한쪽 종이에 墨으로 金字 비슷하게 옛날 篆字體로 쓴 글씨 한장이 있어서 아무리 보아도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骸骨을 보았으니 오랫동안 外氣를 쏘어서는 안됨으로 即時로 上層石冠을 덮고 열두모 돌은 그 옆에 安置하고 봉분한후 莎草를 하였다. 그뒤에 門中公論이 이미 해골을 보았으니 새로 壙中을 헤치고 棺槨을 갖추고 石灰로 다시 壙中을 改築하여 禮法대로 封墳을 짓는 것이 道理에 옳다는 結論이 내렸다.

그리하여 다시 날을 定해서 그 이듬해 閏10月 25日 다시 工事を 始作해서 上層冠石을 내리고 第二層 돌을 내리니 第一層 地盤石이 나타나서 넓이가 한길 정도로 뽕글글 函이 파여졌는데 이곳이 바로 公의 屍體가 들어 있는 幽宅으로 棺속에 들어있는 屍體가 아직까지 生氣가 나는것 같았다.

잠간동안 屍體를 걸으로 옮기고 그 속을 淨하게 掃除한 즉 밑바닥에 한뼘둘레의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무쇠조각으로 막고 中國古錢을 한뼘 깔아 놓았다. 그 쇠조각을 뜯어버려서 地氣를 通하게 하고 옛날 모습대로 棺槨이 一尺半이오 길이는 六尺로하여 그 위에 돌판을 석워서 封墳을 짓고 그 前에 있던 三層과 二層돌은 墳墓左右쪽에 놓아두고 誌石은 碑石 文字를 모방해서 墓所앞에 붙였다.

그리고 東西兩쪽에 놓여 있는 石函을 열어보니 모두 네모지게 파서 函을 만들고 函네개에 모두 솟이 담겨져있고 그 한 函에는

屍體를 沐浴시킨 물이 있어서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남아있었다  
파헤친 구덩이를 모두 메워서 그前 모양대로 復舊시켜 놓았다

이 오래된 墓所를 改築해서 面目이 一新하니 子孫으로서 祖上  
을 받드는 道理라 하겠으나 아득한 祖上을 다시 만나는 感이 생  
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듯한 기쁨이 솟아나오니 公이 돌아가  
신지 五百餘年이나 지났는데 그 동안에 子孫中에 偉대한 人物도  
많이 있었지만 改築하자는 發論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오늘  
에 와서 비로서 改築을 보게 된 것은 亦是 運數에 關한 것일까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하면 公의 明哲한 氣魄이 天地  
의 氣運을 타고 두루 다녀서 五百年동안 潛跡하였다가 이제 비로  
서 그 體貌를 나타낸 것인가.

이 事實을 後世 子孫에게 일부를 알리기 爲해서 始末을 昭詳하  
게 記載하니 參考해주시기 바란다. 公의 後孫 兪秀氏와 兪彦氏가  
그 記事를 付託함으로 나도 그때에 그 일을 곁에서 보아왔기 때  
문에 敢히 辭讓하지 못하고 달은 잘못짓지만 猥濫하게 붓을 들었  
노라.

1930年 庚午 閏十月 下旬 南平人 文緯顯 謹識

<參考> 이 墓所改築이 日本帝國主義時代임에도 不拘하고 卽  
朝鮮總督府에서 事務官 1名과 道에서 學務課를 代表하여 道視學  
과 警察部를 代表하여 警部 1명 北靑郡守와 北靑警察署長 其他面  
代表 等이고 各郡親族代表로서 北靑 李兪秀, 李俊彦 서울 李承俊  
李茂奎 洪原郡 李在律 端川郡 李一性, 李在健 甲山郡 李深性, 吉  
州郡 李在兄 鏡城郡 李在從 咸興 李深一 등이 參席하였다.

## 參 考 文 獻

朝鮮王朝實錄  
龍飛御天歌  
韓國史  
高麗史  
東國野史  
皇宋統譜  
李成桂列傳  
東海名將傳  
國朝人物考  
李朝五百年史  
青海李氏世譜  
北青郡誌  
朝鮮四千年史  
朝鮮金石總覽  
東國輿地勝覽



## 跋 文

여기 李朝 5百年의 위안길에서 온갖 風霜에 물렸던 麗, 明, 朝의 名將 青海伯 李之蘭 襄烈公의 史蹟을 살펴보았다.

그 名門 世家의 後孫들도 聖祖의 遺志에 따라 世俗의 貪慾을 잊은 듯 고요하기만 한 聖雄의 一代記를 敢히 執筆함에 벅찬 마음이 앞서 感懷가 컸다. 그러나 王家 權勢에 휘둘린 歪曲된 文獻들 때문에 너무도 苦心했으며, 時間은 짧고 史料가 稀貴하여 아쉬운 感이 많았다.

大體的으로 青海伯에 關한 一般記錄은 恭愍王 20年 以後 것이나 그 青年時節 李太祖를 만나 그림자같이 同苦同樂한 記錄의 喝破, 그리고 歷代 임금의 致祭文과 青海李氏 家乘에 依하여 그 以前 것도 簡擇되었다.

參考文獻이 不備한 中 더욱 적은 非才로써 그 許多한 隘路를 克服하며 막상 脫稿를 해놓고 보니 或時 未洽한 點이나 없는지 責任感에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맺힌 끝없는 恨과 오직 祖國統一 그것, 그리고 오늘에 直面한 이 나라 國難克服에 多少라도 精神的 里程碑와 支柱가 되리라 믿고 거듭 深思熟考한 끝에 深奧한 뜻으로 이 글을 編述했다.

또한 이 著書가 胎動하여 單行本으로 빛을 보기까지에는 숭한 분들의 숨은 智慧와 勞苦가 많았다.

其實은 八十老驥에 孤獨單身 東奔西走하시던 故 李在賢(一名: 乙) 初代 青海李氏 宗親會長을 爲始하여 同 二代 會長 李春翊氏

의 發議와 同 三代 會長 李在玉氏의 物心 兩面의 支援, 그리고 李浩性 主筆의 執筆, 또한 側面에서 資料支援을 해주신 朱龍日, 李在暎, 李在弘, 徐炳國 教授와 伯의 尊影을 提供해 주신 李在京氏, 한편 諮問에 應해 주신 李澈・李求連・李雄奎, 李昌鐸, 李時煥, 李萬吉, 李泰俊, 李一球, 李大鎬, 李秉遇, 李氣乙, 李在德, 李永達, 李泰鎮, 李具濟, 李奉煥, 李仁甲, 李大性, 李喜永, 李泰植, 諸賢들과 온갖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도맡아 주신 李求福兄에게 深甚한 感謝를 드리며,

끝으로 알알이 다듬어 엮지 못한 點 容恕를 빌고, 或 漏落된 部分은 後日 補完하기를 渴望한다.

1975年 6月 30日

著 者

李仁俊

## 青海伯李之蘭

---

1975年 12月 日 印刷

1975年 12月 日 發行

著 者 李浩性・李在弘・李仁俊

發行人 李 在 玉・李 春 翊

印 刷 大 韓 公 論 社

---

發行處 美 波 社

住 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樂園洞 284의6

登 錄 外 第 1-128號